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5호 2024. 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서차구 유적에 대한 고고학 분석

- 한진성 ■ 중국 요령성 서퍽 서차구 출토 홍노 동물문장식품 검토
- 동물문대식판과 웅문장식품을 중심으로 7
- 김동일 ■ 서차구 유적에서 나타나는 중원 습속과 내세관의 의미
- 금속제 형별 도구를 중심으로 53
- 배현준 ■ 서차구 유적의 토기문화와 특징 107

논문

- 이준엽 ■ 낙양 동주왕릉의 연구 현황과 과제
- 피장자 비정과 무덤 배치를 중심으로 139
- 백종오 ■ 고구려 성곽의 편년 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 한국고대 축성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173
- 이동희 ■ 도성으로 본 가야, 백제, 중국 남조 215
- 이춘호 ■ 모용선비(慕容鮮卑)의 정통성 계승과 남연(南燕)의 건국 271
- 송인주 ■ 청대 가경 연간 송균(松筠)의 티베트 정책구상
- 『서초도략(西招圖略)』을 중심으로 319
- 김성현 · 정상우 ■ 식민주의 역사학의 연속과 불연속
-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논의를 중심으로 359

서평

- 이재경 ■ 조선-후금(청) 관계 연구의 실증적 기초
- 『明清交替と朝鮮外交』(鈴木開, 刀水書房, 2021) 407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2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Special Issue Archaeological Analysis of the Xichagou Site

- Han Jinseong ■ An Examination of Xiongnu Animal Style Artifacts Unearthed from the Xifeng Xichagou Site: Focusing on Animal Style Belt Plaques and Bear Motif Adornments 7
- Kim Dongil ■ The Significance of Ancient Chinese Customs and Views of the Afterlife as Revealed in the Xichagou Ruins: With a Focus on Metal Tools 53
- Bae Hyunjoon ■ Pottery Culture and Features of the Xichagou Site 107

Articles

- Lee Joonyup ■ Current Research Status and Tasks of the Royal Tombs of Eastern Zhou: Focused on Identification of Tomb Owner and Tomb Arrangement 139
- Baek Jongoh ■ A Preliminary Review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Koguryo Fortress: A Comparison of Korea's Ancient Construction Methods 173
- Lee Donghee ■ Gaya, Baekje, and Southern Dynasties of China Viewed through Capital Cities 215
- Lee Chunho ■ The Inheritance of Murong Xianbei' Orthodoxy and the Founding of the Southern Yan 271
- Song Inju ■ Tibetan Policy Conception of Songiyūn during the Jiaqing Era of the Qing Dynasty: Focusing on *Xizhaotulüe* 319
- Kim Sunghyun · Jeong Sangwoo ■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the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Focused on Suematsu Yasukazu(末松保和)'s Research about the Ancient Korea-Japan Relation 359

Book Review

- Lee, Jaekyung ■ Empirical Basis for the Research of Joseon-Manchu Relationship: *Minsin Kōtai to Chōsen Gaikō* 407



특집

서차구 유적에 대한 고고학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요령성 서퉁 서차구 출토 흉노 동물문장식품 검토

— 동물문대식판과 웅문장식품을 중심으로

한진성 | 경희대학교 사학과 고고학전공 박사수료

- I. 머리말
- II. 서퉁 서차구 동물문장식품의 출토 현황과 분류
- III. 흉노 동물문장식품의 전개와 서차구의 위치
- IV. 흉노 동물문장식품 출토의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 요령성(遼寧省) 서풍현(西豐縣) 서차구(西岔溝, Xichagou) 유적은 1950년대에 발견된 대규모의 고분군이다. 해당 유적은 발견 초기부터 무분별한 도굴이 이루어져 상당수의 유구와 유물이 훼손된 상태로 수습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유적의 고고학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더구나 이 유적에서는 흉노(匈奴), 선비(鮮卑), 부여(夫餘) 등 북방 계통의 유물과 중국 중원(中原) 한(漢) 계통의 유물, 그리고 토착 문화의 유물이 혼재하여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문화적 다원성과 다양성 때문에 해당 유적을 점유했던 족속(族屬)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이에 흉노설(匈奴說), 오환설(烏桓說), 부여설(夫餘說) 등이 제기되었다. 유적이 처음 보고되었을 당시에는 이 유적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 가운데 흉노 문화의 표지 유물인 장방형 동물문대식판(動物紋帶飾板)과 이를 비롯한 소형 청동기가 다량 출토된 것을 근거로 ‘흉노설’이 주목받았다.¹ 그러나 이듬해 ‘흉노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는데,² 허리띠 자료와 흉노식 청동기 외에 흉노와의 연결고리가 적은 점과 토기와 묘제 등의 주요 요소가 토착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 ‘오환설’이 부각되었다. 서차구 오환설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견해로, 최근 발간된 종합 보고서에서도 서차구 묘지의 주체를 오환으로 보고 있다.³ 그러나

* 투고: 2024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8월 6일, 게재 확정: 2024년 8월 13일

1 孙守道, 1960, 「匈奴西岔沟文化古墓群的发现」, 『文物』第8, 9期 合刊, 25~36쪽.

2 曾庸, 1961, 「遼寧西豐西岔溝古墓群爲烏桓文化遺迹論」, 『考古』1961年 6期, 334~336쪽.

3 이에 덧붙여 흉노 유물의 등장 원인은 원거리 무역과 교류에 의한 결과이며, 그 유입은 자바이칼 흉노의 영향을 받은 흑룡강 송눈평원 일대의 한서 2기문화 주민들이

오환의 고고학적 특징은 흉노, 선비, 부여의 고고학 문화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 또한 오환 문화로 알려진 유적들과 서차구 유적의 문화 내용을 비교하더라도 공통성이 적으므로, 현 시점에서 서차구 유적을 오환 문화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⁴은 적절해 보인다. 한편, 서차구 유적의 부여 설은 흉노 계통의 유물과 상당수 공반되는 동병철검(銅柄鐵劍)이 해당 지역 일대에서 후속하는 중국 길림성(吉林省) 유수(榆樹) 노하심(老河深, Laoheshen)의 중층 단계의 부여 문화에서까지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며,⁵ 이 설은 주로 국내 여러 연구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⁶

어떤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은 해당 시기에 그 지역을 점유했던 인구 집단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⁷ 이러한 작업은 주로 유물, 유구, 종교, 무덤 양식 등의 분석을 통해 진행되며, 이 중 장신구는 하나의 사회 단위를 구분하는 데 활용되어 집단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해되고 있다.⁸ 장신구는 많은 고대 사회에서 위세품(prestige goods)으로 취급되었는데, 외부

요령 지역으로 남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흉노의 문화가 서차구 유적에 강한 영향을 준 것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흉노인들이 주요 문화를 구성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遼寧省博物館 等, 2020, 『西丰西岔沟-西汉时期东北民族墓地』, 文物出版社, 506~507쪽).

- 4 박양진, 2023, 「랴오닝 시핑 시차거우(西岔溝, 서차구) 유적의 초보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2023권 3호, 537~554쪽; 이종수, 2023, 「미완의 발굴, 풀지 못한 수수께끼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 『동북아역사논총』, 497~533쪽.
- 5 田耘, 1984, 「西岔溝古墓群族屬問題淺析」, 『黑龍江文物叢刊』 1984年 1期, 29~34쪽.
- 6 박양진, 2023, 앞의 글, 550쪽; 오강원, 2018, 「서풍현 서차구 고분군의 문화적 성격과 계통-토기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8, 80~107쪽; 이종수, 2007, 「서차구 고분군의 성격과 사용집단에 대하여」, 『백산학보』 77호, 99~127쪽.
- 7 폴 반 저, 이희준 역, 2006, 『현대고고학의 이해』, 사회평론, 186~194, 220~223쪽.
- 8 I. Hodder, 1982, *Symbols in Action: ethnoarchaeological studies of material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문화로부터 유입된 위세품은 단순한 재화 이상의 가치를 지닌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로서 개인의 사회적 권력(social status)과 집단의 힘을 나타내는 신호로 사용되었다. 지도자들은(aggrandizers)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추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경쟁적으로 획득하였다.⁹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흉노 문화권에서 위세품으로서 역할을 하는 장신구가 서차구 유적 내 묘주의 신분이 높은 구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¹⁰ 이 점은 이들 장신구를 단순히 외래 교역품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서차구 집단에게 이들 장신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소유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서차구 사람들이 어떤 문화권에 속했는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 글에서는 서차구에서 출토된 동물문장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 유물이 흉노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졌으며, 서차구 집단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흉노와의 관련성이 있는 동물문장식품 중에서 동물문대식판과 용문장식품을 분류한 후 이들의 전개와 확산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차구 유적에서 흉노 유물이 부장된 무덤들이 적어도 어떤 집단과 관련이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9 F. D. Neiman, 1997, "Conspicuous Consumption as Wasteful Advertising: a Darwinian Perspective on Spatial Patterns in Classic Maya Terminal Monument Dates," In C. M. Barton and G. A. Clark(eds.), *Rediscovering Darwin: Evolutionary Theory and Archaeological Explanation*, pp. 267~290.

10 차마구, 허리띠, 동병철검, 홍의도, 동경 등 비교적 높은 신분의 무덤에서 확인되는 위세품은 대부분 중구에 위치하고 있어, 이 구역 묘주의 신분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이중수, 2023, 앞의 글, 507쪽).

II. 서풍 서차구 동물문장식품의 출토 현황과 분류

서풍 서차구 유적에서는 패식(牌飾), 순가락형 장식(勺形帶飾), 청동 추 장식(銅墜飾), 판상 버클(帶扣), 길쇠형 버클(帶鉤), 청동 단추(銅泡), 청동 자패(銅貝), 청동 방울(銅鈴), 청동 고리(銅環), 청동 바퀴(銅輪) 등 다양한 의복 장식품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 중 초원에 실제로 서식하는 동물이나 상상 속의 동물을 표현한 스키타이 동물양식(動物樣式, animal style)의 장식품은 흉노 문화권 동물문장식품으로 볼 수 있다.¹¹ 이 글에서는 서차구 유적에서 출토된 장식품 중 흉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유물로서, 흉노의 대표적인 표지 유물인 동물문대식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이에 덧붙여 흉노와 중원 양 지역에서 모두 출토되고 있는 용문장식품을 검토함으로써 서차구 유적과 흉노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동물문대식판(動物文帶飾板)

동물문대식판은 동물 문양이나 기하학 문양이 있는 판상(板狀)의 허리띠 장식으로, 외투를 고정하는 허리띠(腰帶)의 전면(前面)을 장식하는 데 사용된다.¹² 일반적으로 동일 형태와 문양의 제품 2매가 대칭구도를 이루며 한 세트로 출토되는데, 하나는 버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정쇠가 있는 것이고,¹³ 다른 하나는

11 G. 에렉젠 저, 한진성 역, 2018, 「흉노 동물양식 예술의 특징」, 『한·몽 문화유산 공동연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문화재연구소, 151~163쪽.

12 중국에서는 패식(牌飾)으로 사용하는데(烏恩, 1983, 「中国北方青铜带饰」, 『考古学报』第1期, 25~37쪽) 허리띠 버클과 의복 겉면에 매달아 장식할 수 있는 장식이라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 이 글에서 다루는 허리띠 버클과 관련된 패식으로서 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외투를 고정하는 허리띠(腰帶)의 전면을 장식하는 장식품의 의미로서 대식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겠다(高浜秀, 1997, 「中国北方の青铜器」, 『大草原の騎馬民族-中国北方の青铜器-』, 東京国立博物館, 140~149쪽).

가장자리에 원형 투공이 있어 고리 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 누운 P자형 또는 B자형, 그리고 반타원형(D자형) 등이 있으며, 재질은 금, 금동, 청동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¹⁴

동물문대식판은 시간적으로 중국의 춘추전국시기부터 진한대까지, 시베리아 편년으로 초기 철기시대부터 흉노·선비시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간적으로는 유라시아 전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특히 중국 북방, 몽골, 자바이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동물문대식판은 특히 흉노 시기에 크게 유행하고 확산되었으며, 이는 지난 1세기 동안 축적된 고고학 조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토기, 동북, 마구와 더불어 흉노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한 표지 유물로서 인식되고 있다.¹⁵

서차구 유적에서는 총 17점의 동물문대식판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중 16점은 미발굴 정리구역에서 수습된 것으로, 출토 위치와 공반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하기 어렵다.¹⁶ 나머지 1점은 유적 서편의 86 정리구 남부에 위치한 M35호묘에서 정식 발굴을 통해 수습되었으며,¹⁷ 유구는 삭평이

13 교구(鉸具)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나 교침(鉸針)이 발달하지 않은 고정식 결쇠(死舌)가 있는 형태이다.

14 1970~1980년대 러시아,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문대식판에 형태와 도상, 성분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길 바란다(乌恩, 1983, 「中国北方青铜带饰」, 『考古学报』第1期, 25~37쪽; M. И. Артамонов, 1973, *Сокровища саков*; M. A. Дэвлет, 1980, *Сибирские поясные ажурные пластины: II в. до н.э. - I в. н.э.*, Изд-во Наука).

15 에렉젠·양시은, 2017, 『흉노』, 진인진, 140~153쪽; 乌恩, 2008, 『北方草原考古学比较研究-青铜器时代至早期匈奴时期』, 科学出版社, 308~312쪽; U. Brosseder, 2011, “Belt plaques as an indicator of east-west relations in the Eurasian steppe at the turn of the millennia”, *BCAA5: Xiongnu archaeology*, pp. 413~416.

16 미발굴 정리구역 수습품 16점 중에서 출토 정황 및 공반유물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것은 6점으로, Z35, Z49, Z115, Z118, Z121, Z164호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17 遼寧省博物館 等, 2020, 앞의 책, 343~351쪽.

〈표 1〉 서자구 모지 내 흉노 동물문대식판 출토 일람

번호	출토	위치	정리 구역	수량	재질	평면 형태	문양	부장 위치	주요 공반유물	비고
1	M35	서구	86	1	청동	장방형	지그재그 기하문	중앙	토기, 마구, 무기(화살촉), 철도자, 철환, 구슬	
2	Z14	중구	37	1	청동	장방형	동물문(말)			
3	Z17	중구	27	1	청동	장방형	동물문(황소)			
4	Z35	중구	27	1	청동	P자형	인물문		동병철검, 동환, 철약, 동포, 토기	
5	Z37	중구	?	1	청동	장방형	동물문(낙타)	?	패식, 동환, 동편관	
6	Z38	중구	?	2	청동	장방형	지그재그 기하문	?		동일 도상 2매 한 세트
7	Z49-1	중구	19	2	청동	반타원형	동물문(이리)		금제이식, 철검, 동포, 동촉, 관형 장식	다른 도상 2매 한 세트
8	Z55	중구	10	1	청동	장방형	동물문(사슴)		불명	
9	Z115	중구	34	1	청동	P자형	인물문		동병철검	
10	Z118	중구	12	1	청동	장방형	동물투쟁문(사슴+이리)		금제이식, 철검, 동병철검, 동환, 철약, 동포, 토기	
11	Z121	중구	21	1	청동	반타원형	인물문		동병철검(검병탈라)	
12	Z149	중구	?	1	금동	장방형	동물문(새)	?		
13	Z164	중구	17	2	금동	장방형	동물문(새)		방울형동기, 철약, 동포, 철제환수도, 청동문경	동일 도상 2매 한 세트
14	Z167	중구	?	1	금동	P자형	동물투쟁문 (고양이과매수+그리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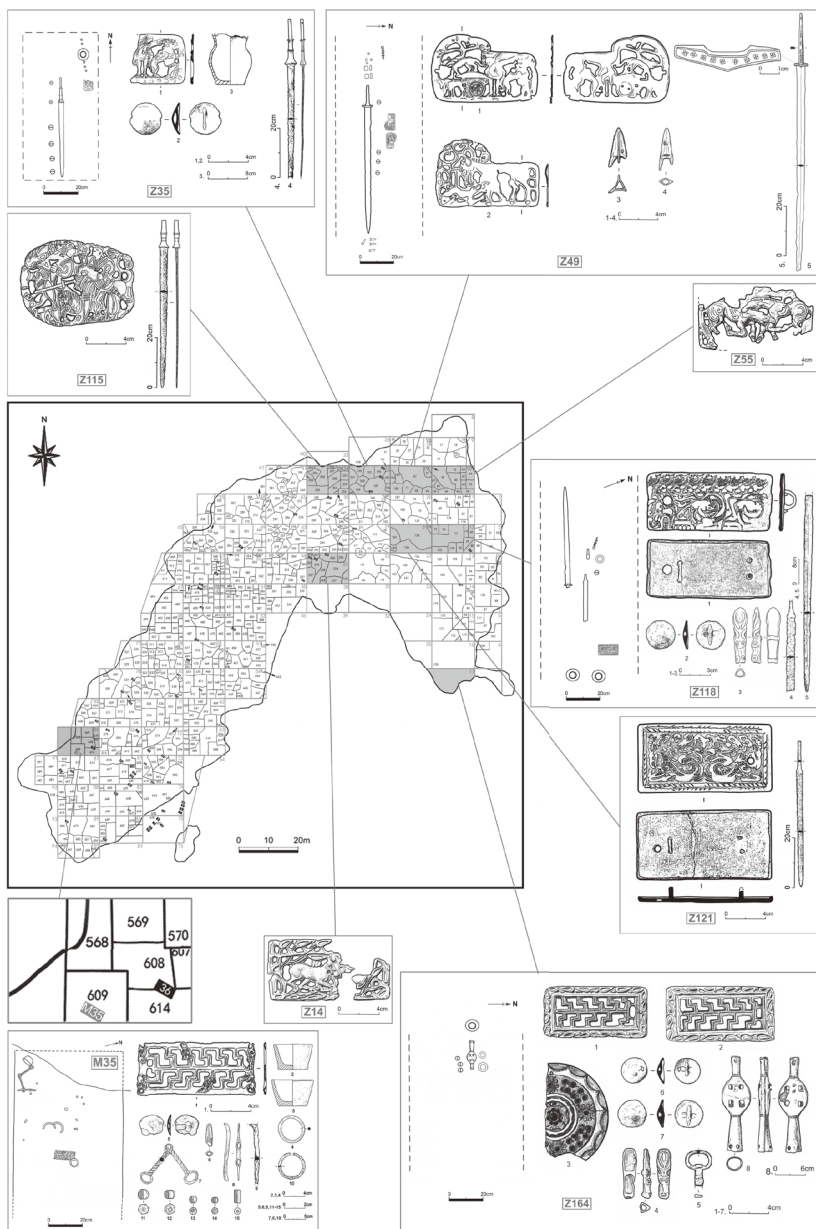


그림 1 서차구 유적 동물문대식판 출토와 주요 공반유물(Han and Kang, 2023: Fig.1)

심해 서북쪽만 남아 있다. 무덤의 중앙과 그 경계에서는 패식 1점, 동환 1점, 토기, 화살촉(청동촉, 철촉), 마구, 구슬 등이 동물문대식판과 함께 출토되었다.¹⁸ 이를 통해 서차구 유적에서 흉노 동물문대식판 출토의 특징은 ① 무덤의 중앙에서 1~2점이 출토된다는 점과 ② 주로 철검(Z49, Z119), 동병철검(Z115, Z118, Z121), 금제이식(Z49, Z118)과의 공반관계가 확인된다는 점(그림 1, 표 1)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서차구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문대식판은 장방형, P자형, 반타원형(D자형) 등의 평면 형태를 가지며, 동물문, 인물문, 지그재그 기하문 등의 문양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흉노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확산된 동물문대식판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흉노 동물문대식판의 분류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흉노 동물문대식판 연구는 평면 형태나 도상의 주제를 바탕으로¹⁹ 지역성과 다양성을 밝히는 데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유물을 다양하게 분류하는 데 유용하지만, 유물의 시공적 변천을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장자리의 테두리 문양(물방울, 점선, 능선문) 변화, 제작기법(투공 여부), 부착 방법(뒤틀면 고리)과 착장 방법(잡금 고리) 등을 고려한 분류인²⁰이 시공적 변천 파악에 더욱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해 서차구 동물문대식판을 I~V형식으로 분류하였다(그림 2).

I형식은 평면 형태가 P자형, B자형이며 뚜렷한 테두리가 없는 것으로, 서차구 Z147호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 형식은 기원전 5~3세기로 편년되는 러

18 遼寧省博物館 等, 2020, 위의 책, 97~101쪽.

19 1970~1980년대 이미 분류의 큰 틀이 마련되어 평면 형태, 도상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고(주8의 참고문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었다(朱和平·譚嫻嫻, 「匈奴饰牌类型辨析」, 『中原文物』 2010年 第1期, 45~51쪽; U. Brosseder, 2011, "Belt plaques as an indicator of east-west relations in the Eurasian steppe at the turn of the millennia," *BCAA5: Xiongnu archaeology*, pp. 349~424; 한진성, 2015, 「흉노 동물문고구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한진성, 2015, 앞의 글, 27~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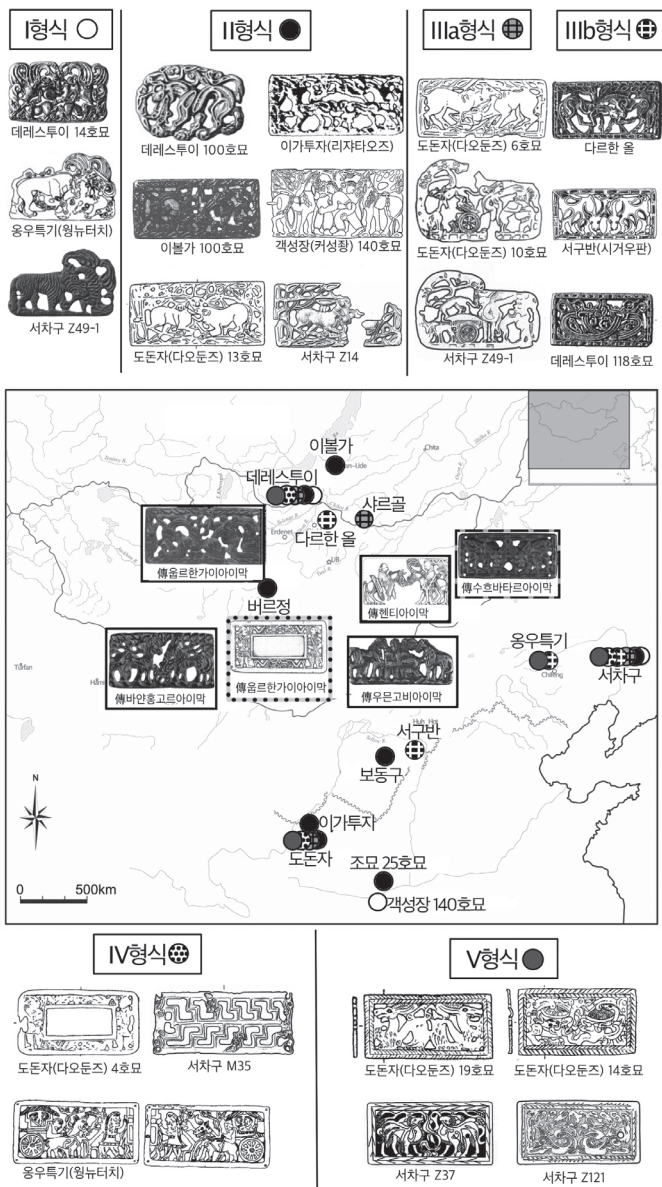


그림 2 흥노 동물문대신판 형식과 주요 출토유적(Han and Kang, 2023: Fig.2에서 수정)

시아 표트르 1세 시베리아 컬렉션(the Siberian Collection of Peter the Great)²¹의 금제 대식판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도상으로는 사슴, 인물문, 그리고 스키타이 동물양식의 전형적인 그리핀(Griffin)과 고양이과 맹수 간 동물투쟁문 등이 확인된다.²² I형식 동물문대식판 중 금제품의 특징으로는 물방울 모양의 소켓(soket)에 녹송석, 마노와 같은 보석을 감입하여 꾸민 보석감장(寶石嵌裝) 기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동물문대식판, 복식 장식, 검집 등 기종에 상관없이 보석감장기법이 크게 유행하였다.²³ 흉노 유적에서 I형식 금제품은 아직 출토된 사례가 없으며, 이를 모방한 청동제만 출토되었는데, 청동제의 경우 물방울 모양의 소켓만 존재하고 보석은 감입되지 않는다. 흉노의 I형식 동물문대식판은 러시아 자바이칼-몽골, 중국 내몽골 일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적으로 러시아 부랴트의 데레스투이(Дырестьуй, Derestui) 7호묘, 14호묘 출토품을 언급할 수 있다.

II형식은 평면 형태가 P자형, 반타원형, 장방형이며, 물방울 모양의 보석 감입부 소켓이 동물문대식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문양 띠처럼 돌아가 테두리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차구의 Z49-1, Z14, Z55, Z38, Z164, Z38, Z115 출토품 8점이 이에 해당한다. 도상으로는 사슴, 말, 인물문, 지그재그 기하문 등

21 М. И. Артамонов, 1973, *Сокровища саков: Аму-Дарьинский клад. Алтайские курганы. Минусинские бронзы. Сибирское золото*, Искусство; С. И. Руденко, 1962, “Сибирская коллекция Петра”, *САИ*, 3(9), p. 541.

22 로스토프체프(Rostovzeff) 스키타이 동물양식의 특징으로 ① 몸을 말아 웅크린 자세를 하고 있거나, ② 단독 또는 투쟁하고 있는 장면, ③ 특정 부위의 과장된 표현을 꼽았다. 스키타이~흉노시기 동물양식의 문화사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주경미, 2022, 「흉노시대 幻想動物文의 특징과 문화사적 의의」, 『중앙아시아연구』 27, 1~39쪽).

23 М. И. Артамонов, 1973, 앞의 책; С. И. Руденко, 1962, 앞의 책; И. П. Засека, 2008, *Сокровища сарма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рмитаж, Азовский историко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и палеонтологический музей-заповедник*, СПб Азов.

이 있으며, 재질은 금제와 청동제 모두 확인된다. II형식의 분포는 I형식과 일치하며, 대표적으로 러시아 부랴트의 이볼가(Иволга, Ivolga), 데레스투이 유적, 몽골의 버르정(Борзон, Borzon) 유적 출토품을 언급할 수 있다.

III형식은 II형식의 물방울 문양 테두리가 점차 점선으로 대체되는 양상이 특징이며, 단면의 입체감은 거의 사라져 편평하다. 테두리 문양 물방울과 점선이 혼합된 과도기적 양상이 관찰되는 것을 IIIa형식, 점선 테두리만 있는 것을 IIIb형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서차구 출토품 중에서는 Z49-1, Z35 출토품 2점이 IIIa형식으로, Z167, Z17 출토품 2점이 IIIb형식으로 분류된다. 도상에는 동물 문 외에 인물문이 추가되었다. 해당 형식 장신구는 청동제만 확인되며, 흉노시기에 자체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III형식은 몽골 동남부~내몽골 동부 일대에 분포가 확인된다. 평면 형태가 P자형이고 도상이 인물문인 경우 내몽골 동남부~요동 일대를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누신스크 박물관 소장품, 자바이칼의 데레스투이, 중국 내몽골 동심현(同心縣) 도둔자(倒墩子, Daodunzi) 6호 출토품을 언급할 수 있다.

IV형식은 평면 형태가 장방형이며, 민무늬의 단순한 테두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면은 편평하며, 선행하던 물방울 모양의 소멸과 단순화되는 청동 동물문대식판의 경향성과도 연결되는 모습이다. 서차구 M35호 출토품이 이에 해당한다. 도상은 주로 인물문이며, 재질은 청동제만 확인된다. 해당 형식은 중국 북방(장성)~몽골 동남부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며, 대표적으로 도둔자 22호묘 출토품과 옹우특기(翁牛特旗, Wengniuteqi) 유적 수습품²⁴을 언급할 수 있다.

V형식은 평면 형태가 장방형이고 능삼문(綾衫文)의 테두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체의 투조 여부에 따라 Va형식과 Vb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차구 Z37 출토품은 Va형식, Z121 출토품은 Vb형식으로 분류된다. 도상으로는 용, 낙타, 새 등이 있으며, 재질은 주로 금동제이다. 해당 형식은 흉노 시기에 중국 북방 장성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내몽골 서구반 출토 동물문대

24 庞昊, 1998, 「翁牛特旗发现两汉铜牌饰」, 『文物』第1期, 42~43, 78쪽.

식판 뒷면의 명문(銘文)²⁵과 서안(西安) 북교(北郊)에서 발견된 진(秦) 말기 장인 낙백씨(樂百氏) 34호본에서 출토된 거푸집²⁶을 참고로 할 때, 상한 연대를 기원전 4~3세기로 소급할 수 있다. 또한 능삼문 테두리 문양은 동물문대식판 외에도 단추, 마구 장식 등 여러 기종에 폭넓게 채택되어, 전국 말~전한 시기 중국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그 분포가 확인된다. 종합하면 중국에서 제작되고 폭넓게 유통된 형식으로 이해된다.²⁷

2. 웅문장식품(熊紋裝飾品)²⁸

웅문장식품은 평면 형태가 원형(圓形)이고 단면 형태가 반구형(半球形)인 외면에 곰 문양이 양각(陽刻)되어 있는 단추형 장식이다. 재질은 금, 금동, 청동이

- 25 서구반 출토 금제 동물문대식판 뒷면의 한 점에는 “一斤二兩甘朱少半”, “战寺豕虎三”이, 나머지 한 점에는 “一斤五兩四朱少半”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대식판 제작에 사용된 황금의 무게와 제작 경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伊克文物工作站·内蒙古文物工作·内蒙古文物工作队, 1980, 「西沟畔匈奴墓」, 『考古』 第7期, 1~10쪽).
- 26 罗丰, 2010, 「中原制造-关于北方动物纹金属牌饰」, 『文物』 第3期, 56~96쪽.
- 27 P. Andreeva, 2018, “Fantastic Beasts of the Eurasian Steppes: Toward a Revisionist Approach to Animal-Style Art,”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Pennsylvania; E. C. Bunker, 1997, *Ancient bronzes of the eastern eurasian steppes*, Harry N. Abrams; E. C. Bunker, 2002, *Nomadic art of the eastern eurasian steppes: The Eugene V. Thaw and other New York collections*, Metropolitan Museum of Art.
- 28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웅형 동포와 웅형 절약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곰형 장식품’이 소개되었다(김동일, 2024, 「어은리 출토 장식품으로 본 진한(辰韓)과 진한(秦漢)의 교류: 간접적 연결에서 시장의 형성으로」, 『한국상고사학보』 124호, 241~274쪽). 단추와 절약을 포괄하는 용어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단추와 절약의 형태가 원형이고 ‘문양’을 담고 있는 이미지는 곰이기 때문에, 서차구 보고서에서처럼 웅문동포(熊紋銅泡)라는 표현을 빌려, 웅문○○(단추 또는 절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기능이 명확한 경우에는 ‘단추’ 또는 ‘절약’으로 구분하여 부를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단추와 절약을 포괄한 용어로 ‘웅문장식품’을 사용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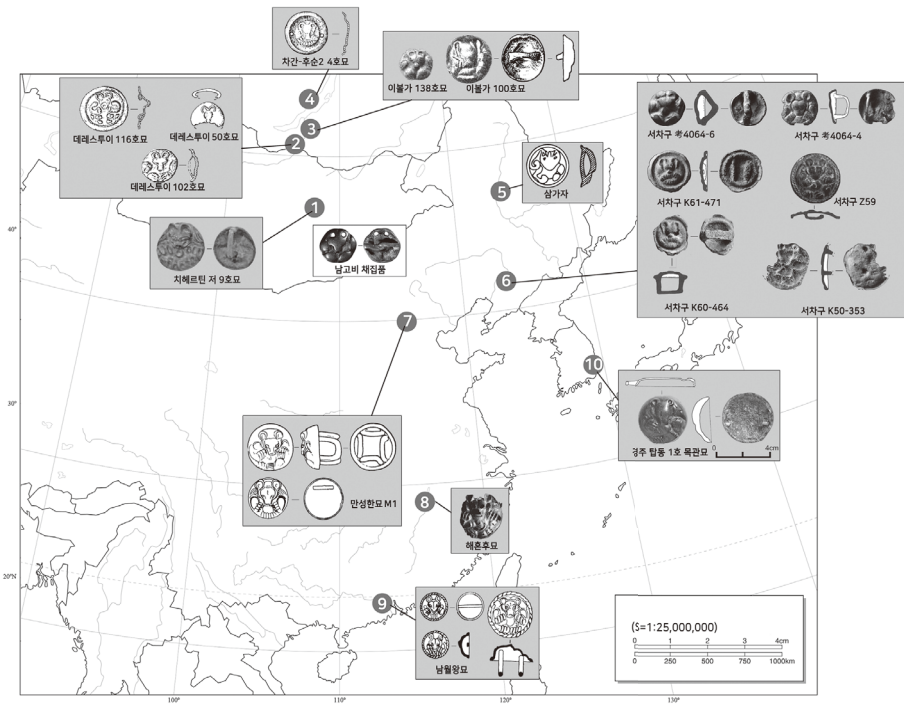


그림 3 동아시아 웅문장식품의 주요 분포

(1: 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2: Миняев, 2007, 3: Давыдова, 1996, 4: Харинский, 2014, 5: 黑龙江省博物馆, 1988, 6: 辽宁省博物馆 等, 2020, 7: 潘玲, 2009, 8: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首都博物馆 编, 2016, 9: 潘玲, 2009, 남고비 채집품: Эрдэнэчулуун, 2011에서 편집)

며, 의복 및 피혁에 매단 단추 또는 마구 굴레의 교차끈을 장식하는 절약(節約, 什金具)으로 사용되었다. 양자의 구분은 뒷면에 설치된 뉴(鈕)의 형태와 개수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²⁹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단추와 절

29 뉴의 개수는 1, 2, 4개로 다양하며, 뉴의 설치방향은 1개인 경우 가로방향, 세로방향 모두 확인되고, 2개인 경우는 세로방향, 4개인 경우는 사방에 설치되어 미음(卍)자를 이룬다.

〈표 2〉 서차구 웅문장식품 출토 일람

번호	유물번호	재질	뉴		
			형태	방향	개수
1	K42-272: 27	금동	U	횡	1
2	K50-353: 26	금동	ㄷ?	종	1
3	K60-464	금동	U	종	2
4	K61-471	금동	ㄷ	횡	1
5	Z59: 1	금동	ㄷ	종	1
6	考4064-4	금동	ㄷ	종	2
7	考4064-6	금동	ㄷ	종	1

약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차구 유적에서는 총 7점(Z59, K42-272, K50-353, K60-464, K61-471, 考4064-4, 考4064-6)의 웅문장식품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모두 미발굴 정리구역 출토품이거나 채집품이다. 출토 정황과 공반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뿐 아니라, 출토 유물의 계층값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분석은 어렵지만 도면을 통해 대략적인 특징은 파악할 수 있다(표 2).

웅문장식품은 앞 절의 동물문대식판 분류안과 유사하게, 물방울 모양 소켓 부의 변화와 테두리의 차이³⁰에 따라 I~V식으로 분류된다(그림 4). I식은 반구상 단면에 동물 문양의 입체감이 살아 있으며, 물방울 모양의 보석 감입부가 뚜렷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서차구 유적에서는 해당 유형의 출토가 확인되지 않았다. I식 웅문장식품은 I형식 동물문대식판의 분류처럼 시베리아 컬렉션에서 대표적인 예시를 찾을 수 있다.³¹ 시베리아 컬렉션에 보고된 웅문장식품과

30 웅문장식품에서도 황금으로 만든 재질에 물방울 모양의 소켓(socket)을 만들고 보석을 감입 → 동형의 제품을 청동으로 모방 → 보석 감입부는 흔적만 남고 단순화 및 퇴화의 과정이 파악된다.

31 М. И. Артамонов, 1973, 앞의 책.

I 식	II 식	III 식	IV 식	V 식
				
시베리아 컬렉션	치헤르틴 저	서차구	차간-후순 2	남월왕묘

그림 4 웅문 장식의 분류(축척부등)

유사한 단추형 동물문장식품의 경우, 곰, 늑대, 말 등의 동물들이 앉아 있거나 몸을 말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었다.³² 재질은 황금이며, 동물의 눈, 귀, 콧구멍, 발톱, 몸통의 일부 등을 물방울 모양의 소켓으로 표현하고, 그 소켓 안에 녹송석, 마노 등의 보석을 끼워 감장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내몽골 이극소맹항금기(伊克昭盟杭锦旗) 아로시등(阿鲁柴登, Aluchaideng) 유적에서 출토된 금제 장식품을 들 수 있으며, 이 장식품은 곰 문양은 아니지만 동물이 몸을 말아 웅크리고 있는 단추 형태로, 표면에는 보석이 감장되어 있고, 배면에는 넓은 U자형 뉴 1개가 종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³³

II 식은 곰이 웅크린 모습을 정면에서 바라본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귀, 발톱, 어깨 부분이 물방울 모양 보석 감입부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질은 청동제가 확인된다. 서차구 유적에서 II 식 웅문장식품은 출토되지 않았다. II 식 웅문장식품의 대표적인 예로 기원전 2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³⁴ 몽

32 C. И. Руденко, 1962, 앞의 책, 도판 23.

33 田广金·郭素新, 1980, 「内蒙古阿鲁柴登发现的匈奴遗物」, 『考古』第4期, 333~368쪽.

34 웅문장식품이 출토된 9호묘는 탄소연대 측정값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서쪽으로 15m 떨어진 4호묘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 $2100 \pm 40 \text{ B.P.}$ (95.4% 경우 기원전 350~1년, 68.2% 경우 기원전 180~50년)으로 측정된 것을 참고할 수 있다(중앙

골 투브(Tuv) 아이막 바얀-차간(Bayan-tsagaan) 솜의 치헤르틴 저(Чихэртин жээг, Chikhertyn Zoo) 9호묘 출토품을 들 수 있다. 해당 유적에서는 곰의 귀와 얼굴 표현이 사나운 맹수에 가깝게 묘사된 4점의 웅문장식품이 출토되었는데, 절약으로 보고되었으며 손가락형 절약 1점, 흉노 토기, 한계 칠기가 공반되었다. 치헤르틴 저 출토 웅문장식품의 지름은 3.4~3.6cm, 높이 2.4~2.6cm이며, 배면에는 ‘ㄷ’자형 뉴 1개가 종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³⁵

Ⅲ식은 귀 부분의 물방울 모양 보석 감입부가 원형으로 표현되는 단순화가 핵심이다. 서차구 출토품 중에는 考4064-4와 考4064-6이 해당된다. 이 중 서차구 考4064-6은 지름이 약 2.5cm로, 곰이 웅크린 형상만 남아 있는 형태인데, 자바이칼 흉노의 데레스투이 50호묘와 102호묘, 이불가 138호묘에서 출토된 장식품의 형태와 극히 유사하다.³⁶ 서차구 考4064-4는 만성한묘 M1에서 출토된 금동제 웅문장식품과 유사한데, 서차구의 것이 조금 더 단순화된 형태이다.

Ⅳ식은 Ⅳ형식 동물문대식판처럼 민무늬 테두리를 특징으로 하며, 서차구에서는 K60-464와 K61-741 두 점이 출토되었다. 재질은 금동과 청동이며, 단면은 편평하고 곰 문양은 도식화되어 있다. 서차구 출토품 두 점 모두 프리바이칼(바이칼 서부)에 위치한 기원전 2세기 흉노의 차간-후순 2(Цаган-хусун 2, Tsagan-Khusun 2) 4호묘에서 청동 손가락형 절약, 철제 도자와 함께 출토된 장식품과 매우 흡사하다(그림 9-1).³⁷ 러시아 부랴트의 데레스투이 116호묘,³⁸ 중국 흑룡강성(黑龍江省) 삼가자(三家子) 유적³⁹에서도 유사한 유물이 각

문화재연구원, 2019, 『몽골의 무덤』, 298쪽).

35 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앞의 책, 194~205쪽.

36 A. B. Давыдова, 1996, *Иволгинск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Иволгинский могильник*, СПб-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37 A. B. Харинский, 2014, “Елгинские захоронения прибайкалья”, *Эдоха палеометалла*, 3(12), pp. 20~44.

38 A. Миняев, 2007, 앞의 책, p. 100.

1점씩 출토되었다.

V식은 V형식 동물문대식판처럼 능삼문 테두리를 특징으로 한다. 재질은 금동 제품만 확인된다. 서차구 출토품 중에는 K42-272:27, K50-353:26, Z59:1이 해당된다. V식의 대표적인 예시는 남월왕묘에서 출토된 옹문장식품이다(그림 7).

III. 흉노 동물문장식품의 전개와 서차구의 위치

1. 동물문대식판의 전개

흉노 동물문대식판의 성립, 발전과 확산, 지역화의 모든 전개 과정이 서차구 유적 출토 동물문대식판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서차구 출토품을 흉노 동물문대식판의 전개와 연계하여 A~C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그림 5).

A유형은 흉노 동물문대식판의 성립에 해당하며 I형식, II형식, IIIa형식이 포함된다. 이 중 I형식의 예시는 표트르 1세의 시베리아 컬렉션의 금제 동물문대식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유물은 기원전 5~3세기로 편년된다.⁴⁰ 서차구에서 이것과 동일한 형태의 것(I형식-Z49-1, II형식-Z147)이 청동제로 출토되었는데(그림 5-1), I형식과 II형식, 서차구 Z49-1호의 II형식과 IIIa형식이 A유형에 속한다. 이는 스키타이 동물양식의 대식판의 계보가 흉노로 이어지는 단계를 보여준다.

B유형은 흉노 동물문대식판의 발전과 확산을 나타내며, II형식, III형식, IV형

39 黑龙江省博物馆, 1988, 「齐齐哈尔市大道三家子墓葬清理」, 『考古』第12期, 1090~1098쪽.

40 표트르 1세의 시베리아 컬렉션에 대한 자세한 수집 경위와 연구 현황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김재운, 2022, 「「표트르 I세 시베리아 컬렉션」 수집지에 대한 검토-유라시아 스키타이 문화를 중심으로」, 『동양학』 87, 129~1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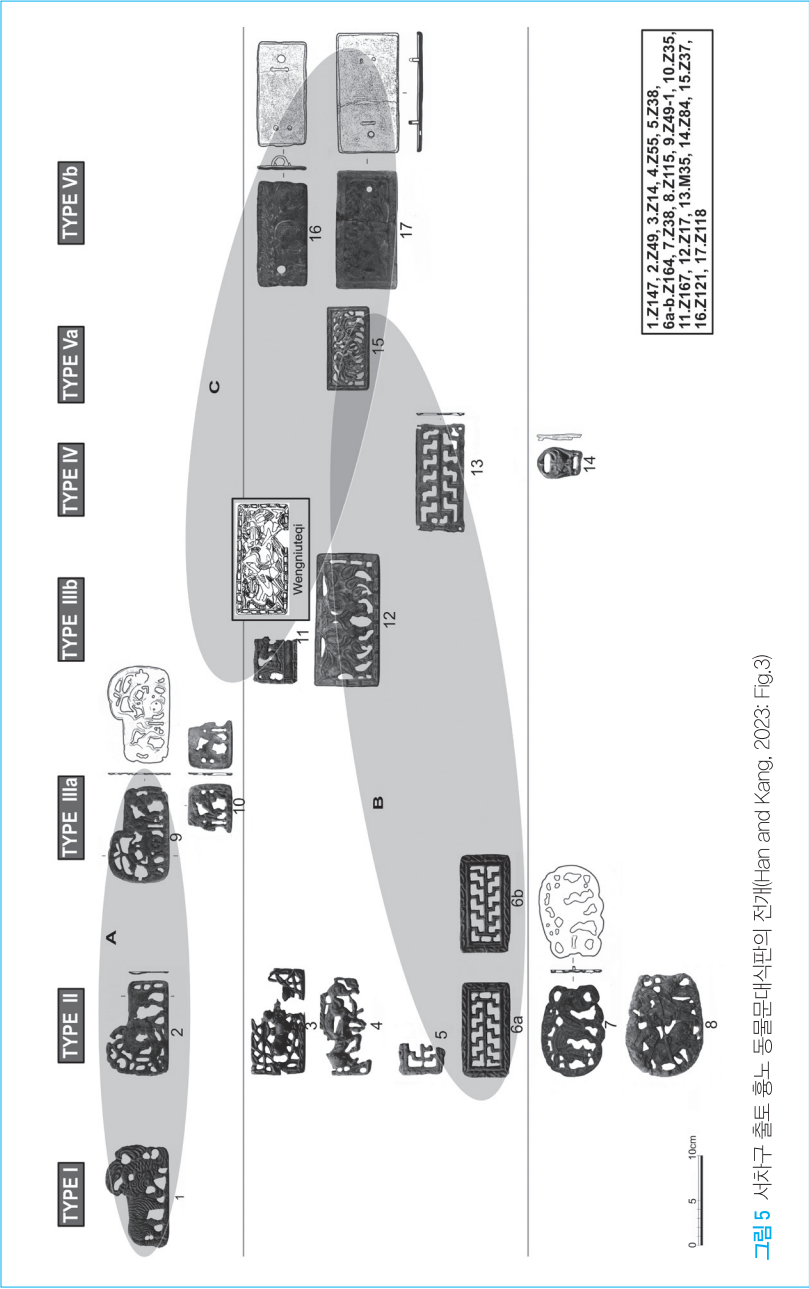


그림 5 서차구 출토 흉노 동물문대식판의 전개(Han and Kang, 2023: Fig.3)

식, Va형식이 포함된다. II형식은 자바이칼의 데레스투이와 이불가 묘지에서, IV형식은 서차구 M35호에서 출토되었다. II형식 중 기하문대식판은 자바이칼을 중심으로 한 흉노 자체 양식으로 해석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으며, 스키토-시베리아 유형에서 기원을 두고 있지만 흉노 시기부터 크게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⁴¹ 또한 서차구 M35호에서는 대식판과 청동 고리 1점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출토 양상은 흉노의 이불가와 데레스투이 유적에서 대식판과 고리가 세트르 출토되는 것과 공통성을 보인다. B유형은 흉노 동물문대식판이 서쪽으로는 남부 시베리아까지, 동쪽으로는 중국 동북 요서까지 확산되는 문화적 파급을 보여준다.

C유형은 흉노 대식판의 지역화를 나타내며, IIIb형식, IV형식, V형식이 여기에 포함된다. 용, 새, 낙타 등의 형식 도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유입된 청동대식판에 이 지역만의 도상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IIIb~V형식은 미누신스크 분지, 몽골 고비 이남, 중국 장성 일대에 한정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이 중 능삼문 테두리를 한 V형식의 청동대식판은 주로 금동제로 제작되며, 중국 북방의 오르도스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능삼문 테두리의 대식판은 서안 북교 낙백씨 무덤에서 출토된 거푸집과 서구반 출토 배면에 새겨진 명문(銘文) 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제작되어 흉노로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화되고 지역화된 양식으로 추정된다.⁴²

서차구 유적에서는 흉노 전 시기와 전 지역 범위에 걸쳐 유행한 모든 형식의 동물문대식판이 출토되고 있으며, 그 수량이 약 20점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하다. 흉노 유적에서 동물문대식판은 지금까지 약 20개소에서 출토되

41 С. С. Миняев, 1995, “Новейшие находк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бронзы и проблема формирования геометрического стиля в искусстве сунн у”,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вести* 4, pp. 123~136.

42 P. Andreeva, 2022, “Re-making animal bodies in the art of Early China and North Asia: perspectives from the Steppe”, *Early China*, 45, pp. 439~448.

었다. 대체로 한 유적에서 1~5점씩 출토되며, 평균적으로 발견되는 수량은 개별 유적당 2점 전후이다.⁴³ 러시아 부랴트의 테레스투이 유적과 내몽골의 도돈자 유적에서는 각각 약 20점씩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테레스투이 유적에서는 주로 I~Ⅲ형식이, 도돈자 유적에서는 주로 IV~V형식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흉노 제국 강역 내 유적들⁴⁴과 흉노의 중심권역과 조금 떨어진 러시아 투바 지역,⁴⁵ 미누신스크 분지 일대(예니세이강 유역)의 후기 타가르(Tagar culture)~타쉬트크 문화(Tashtyk culture)⁴⁶에서도 I~Ⅲ형식의 동물문대식판만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몽골 고비 이남~중국 내몽골 일대에서는 주로 IV형식과 V형식의 동물문대식판이 출토되고 있다. 이처럼 흉노 강역 내에서 동물문대식판은 형식별로 지역성을 보이며, 흉노 강역 내에서 모든 형식의 대식판이 한 유적에서 출토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흉노 강역의 바깥에서 흉노 전 시기와 전 범위에 유행한 모든 형식의 동물문대식판이 단일 유적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사실은 지금까지 서차구 유적의 사례가 유일하다. 서차구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문대식판은 흉노의 특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흉노의 특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

43 물론 흉노 무덤 유적은 대부분의 무덤이 도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발견 당시부터 도굴이 심하고 유적의 삭평이 심하여 유구가 심하게 훼손된 서차구 유적의 경우도 비슷한 정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굴 피해를 감안 하더라도 서차구 유적에서 흉노 대식판이 다량으로 출토된 것은 흉노 유적들과 견주어도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44 흉노 유적에서는 대체로 1~2점씩 출토되고 있다(한진성, 2015, 앞의 글, 19쪽).

45 러시아 투바 지역의 테레진(Terezin)과 알라-테이(Ala-tei) 유적을 언급할 수 있으며, 이들 유적은 기원전 2~1세기의 흉노로 편년된다[Л. П. Михайлович, 2019,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бронзы эпохи Хунну в Туве, *Искусство Евразии*, 3(14), pp. 50~65].

46 타쉬트크(Tashtyk) 문화는 남시베리아 미누신스크 지역(예니세이강 유역)에 펼쳐진 시베리아 유형의 초기 철기시대 문화로 타가르 문화에 후행한다. 러시아 학계에서는 이 문화를 흉노-사브로마트기(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의 정령(丁零)에 대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연대는 기원후 1세기~2세기에 속한다(최몽룡 외, 2003,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주류성, 405~4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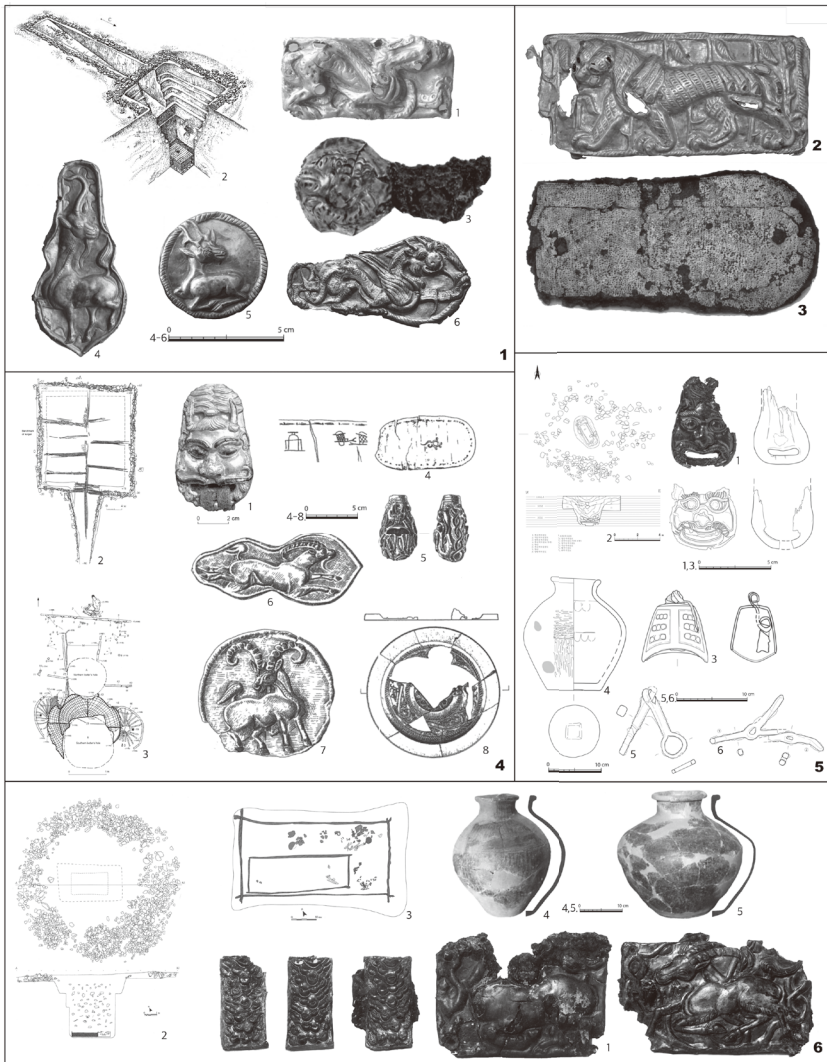


그림 6 기원전 2~1세기 흉노 대형고분 출토 금은제 대식판의 현황

금제: 1, 노용 올 20호(Полосьмак · Богданоп, 2016), 2, 울란 시베르(에렉젠 · 양시은, 2017에서 편집), 3, 셴보 쟁 벨치르(에렉젠 · 양시은, 2017에서 편집), 4, 차람 7호분(Minyaev and Sakharovskaia, 2008; Minyaev, 2009에서 편집), 은제: 5, 도르릭 나르스 160-E3호(국립중앙박물관 · 몽골과학원고고학연구소, 2021에서 편집), 6, 타미린 올란 호쇼 36호묘(Төрбат · Крюбезы, 2021에서 편집)

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홍노의 스키토-시베리아 계통 동물문대식판을 부장한 무덤의 피장자 성격은 시간적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먼저 기원전 4~3세기로 비정되는 초기 홍노의 대형 고분군에서 선우왕족·귀족급 위세품으로 채택되었다. 기원전 3세기경 조묘(曹廟, Caomiao) 25호묘, 객성장(客省庄, Keshengzhuang) 140호묘 등의 사례와 같이 외부로 파견된 홍노의 장군 등의 무덤에서 확인된다. 기원전 2~1세기에 접어들면 중소형 무덤에서 청동제 대식판이 출토되는데 이들 무덤의 피장자는 일반 전사계급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와 동시기 홍노의 대형급 고분군에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용 계열, 그리핀 계열, 맹수 계열 등 환상동물문⁴⁷과 신화적 요소가 부각된 금은제 동물문대식판⁴⁸이 출토되고 있어, 홍노 이전부터 유행하였던 스키토-시베리아 동물양식 계통의 동물문대식판이 청동제로 제작되어 중소형 묘에 부장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그림 6).

이와 연계하여 서차구에 부장된 홍노 대식판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서차구 출토 홍노 유물은 구체적으로 기원전 2~1세기 홍노 무덤에서 출토된 동물문대식판에 가장 근접하다. 서차구 유적 출토 동물문대식판의 경우 홍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그 문화는 적어도 홍노 최상위 계층의 문화라기보다는 일반 전사계급 수준의 문화였을 가능성이 높다.

2. 웅문장식품의 동아시아 확산

웅문장식품은 홍노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확산

47 기원전 2~1세기 홍노 대형고분에서는 용 계열, 그리핀 계열, 맹수 계열, 일각수 계열, 환상동물문이 장식된 대식판, 마구, 카펫트 등이 크게 유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8 최상위 대형급 고분의 경우, 일반 무덤에 비해 허리띠 유물의 출토량이 적는데, 이는 대형 고분이 필연적으로 도굴 피해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소량의 출토품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홍노 자체 제작품과 더불어 대외 교류를 통해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받은 교역품이 확인된다. 고분마다 다른 도상의 대식판이 출토되며, 동일·유사품은 최상위급 고분 내에서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된 양상을 보인다(그림 7). Ⅱ장 2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웅문장식품, 특히 웅문 동포(熊紋銅泡)의 기원이라 볼 수 있는 I식은 기원전 5~3세기 시베리아 컬렉션에서 대표적인 예시를 구할 수 있다. 이 장식품은 곰을 포함한 각종 동물이 앉거나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자세를 담고 있으며, 재질은 황금으로 눈, 코, 귀, 발톱, 몸통 등 신체의 일부를 물방울 모양의 소켓으로 표현하고 그 안에 마노, 녹송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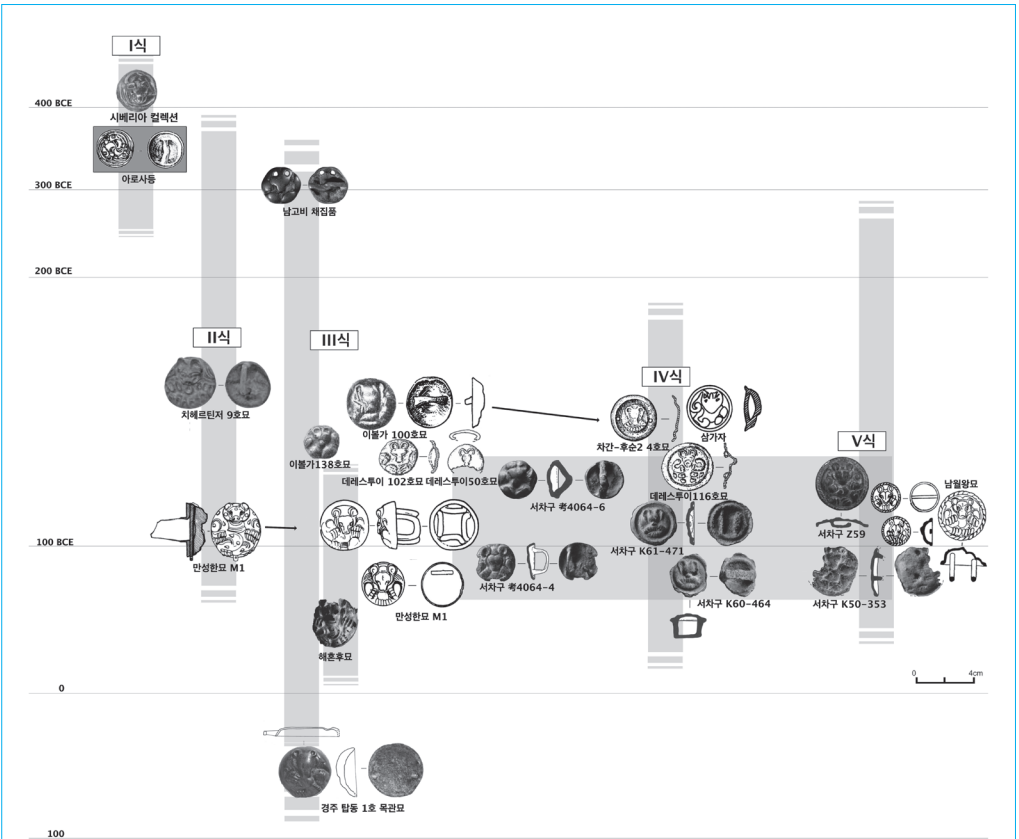


그림 7 웅문장식품의 동아시아 전개

* 가로방향 음영=서차구 유적 출토품

** 여러 점이 출토된 경우 대표적인 것만 선별

같은 보석을 감입하여 꾸몄다.⁴⁹ 기원전 2세기 중엽에는 흉노 대형 고분 유적인 치헤르틴 저 9호묘에 Ⅱ식 웅문장식품이 출토되었는데, 곰 도상은 환상동물문에 가까운 사나운 맹수로 표현되어 있으며, 늑는 종방향으로 1개 설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흉노 토기, 원형 절약, 순가락형 절약이 공반되었다.

웅문장식품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전후 시기까지 흉노와 중원 양 지역에서 확산되었는데, 모두 곰 모티프에 기초하면서도 재질과 묘사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성을 보인다. 중원에서는 황금과 금동 제품의 웅문장식품이 출토되었는데, 둥근 귀와 뾰족한 발톱이 강조된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묘와 제후왕묘에서 황금과 금동제로 된 I식, Ⅲ식, V식 웅문장식품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단추와 절약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흉노에서는 청동 제품이 주로 출토되며, 귀와 몸통의 표현이 더욱 단순화된 도식적인 양상을 보인다. 바이칼 일대의 일반 무덤에서는 Ⅲ식, IV식 웅문장식품이 청동제로 출토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차간-후손 2, 데레스투이, 이불가 유적에서 확인된다. 이들 유적은 흉노 선왕족이나 귀족급의 고분군이 아닌 일반 고분군인 데다가, 몽골 초원의 중심지에서 약 500km 이상 떨어져 있다. 서차구 유적에서 출토된 Ⅲ식 웅문장식품(考 4064-6)은 데레스투이 50호묘와 102호묘, 이불가 138호묘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한편, V식 서차구 Z59 출토품과 유사한 사례는 남월왕묘에서 확인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웅문 벽돌이 공반되는 양상이 확인되어, 왕실 건축에 웅문이 채택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음을 시사한다.⁵⁰ 이와는 대조적으로, 흉노에서는 스키토-시베리아 동물양식에서 유행한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청동으로 모방하면서 문양이 단순해지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또한 흉노 초기에는 최상위 계층의 전용물이었던 것들이 일반 계층 무덤에서도 출토되는 현상이 확인되는데(그림 8)⁵¹ 이는 흉노 동물문대식판의 전개와도 동일한 양상이다. 동시기의 대형고분

49 C. И. Руденко, 1962, 앞의 책, 도판 23.

50 P. Andreeva, 2022, 앞의 글, p. 447.

51 한진성 2015, 앞의 글, 57~62쪽; 한진성, 2020, 「흉노를 통해 본 고대 유라시아

들에서는 사실적인 동물문이 아닌 환상 동물문 계열의 마구 장식이 출토되고 있다(그림 6-1, 6-4). 이처럼 서차구 유적에서는 흉노와 중원 지역에서 서로 다른 계층의 무덤에 부장되는 옹문장식품의 Ⅲ~Ⅴ식이 모두 출토되고 있다.

Ⅳ식 옹문장식품의 경우, 프리바이칼의 차간-후순 2유적과 중국 흑룡강성 송눈평원 서부의 자자합이(齐齐哈尔) 대도(大道) 삼가자(三家子)의 삼가자 유적에서 출토 사례가 확인된다. 서차구 보고서에서는 흉노 문화의 서차구 유입에 대한 경로를 ‘자바이칼 흉노 → 한서 2기(汉书二期) → 서차구’로 보고 있지만⁵² 흉노 Ⅲ식, Ⅳ식 옹문장식품이 반드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서차구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서 2기 문화 중 흉노 요소가 보이는 유적은 삼가자 유적과 호룬패이(呼伦贝尔) 완공묘지(完工墓地) 등을 들 수 있다. 삼가자 유적에서는 Ⅳ식 흉노 옹문장식품이 가장 이른 형식인 I~II형식 흉노 동물문대식판과 전국 시기 청동장식들이 함께 공반되고 있으며, 연대는 진말~서한 초에 해당한다.⁵³ 삼가자 유적은 기원전 2~1세기로 편년되는 자바이칼, 프리바이칼의 흉노 유적보다 연대가 앞서고, 완공묘지는 기원후 1세기로 편년되기 때문에, 상술한 경로를 통한 흉노 문화의 확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전반적으로 서차구의 흉노 유물들은 한서 2기로 유입된 흉노 관련 유물들⁵⁴보다 흉노 강역에서 출토된 유물들과의 공반 양상과 더욱 유사하다. 따라서 한서 2기 내 흉노 문화보다 서차구와 흉노 문화의 관련성이 더욱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8, 9). 물론 흉노 문화가 흑룡강성을 거쳐 길림 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서차구 유적에서 보이는 흉노 문화는 적어도 프리바이칼, 자바이칼 지역 흉노와

초원 유목사회의 허리띠 문화』, 『흉노 제국의 미술』, 국립문화재연구소·몽골고고학연구소, 380~397쪽.

52 黑龙江省博物馆, 1988, 앞의 글, 1098쪽.

53 李陈奇, 2013, 「松嫩平原商周至西汉时期青铜器的发现与初步研究」, 『北方文物』第3期, 12~25쪽.

54 삼가자 유적에서는 제단식 기하문 허리띠 장식, 손가락형 절약, 동물문 단추가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서차구 유적에서는 여기에 대식판, 마구(재갈) 등의 기종이 다양하게 추가되고 수량도 압도적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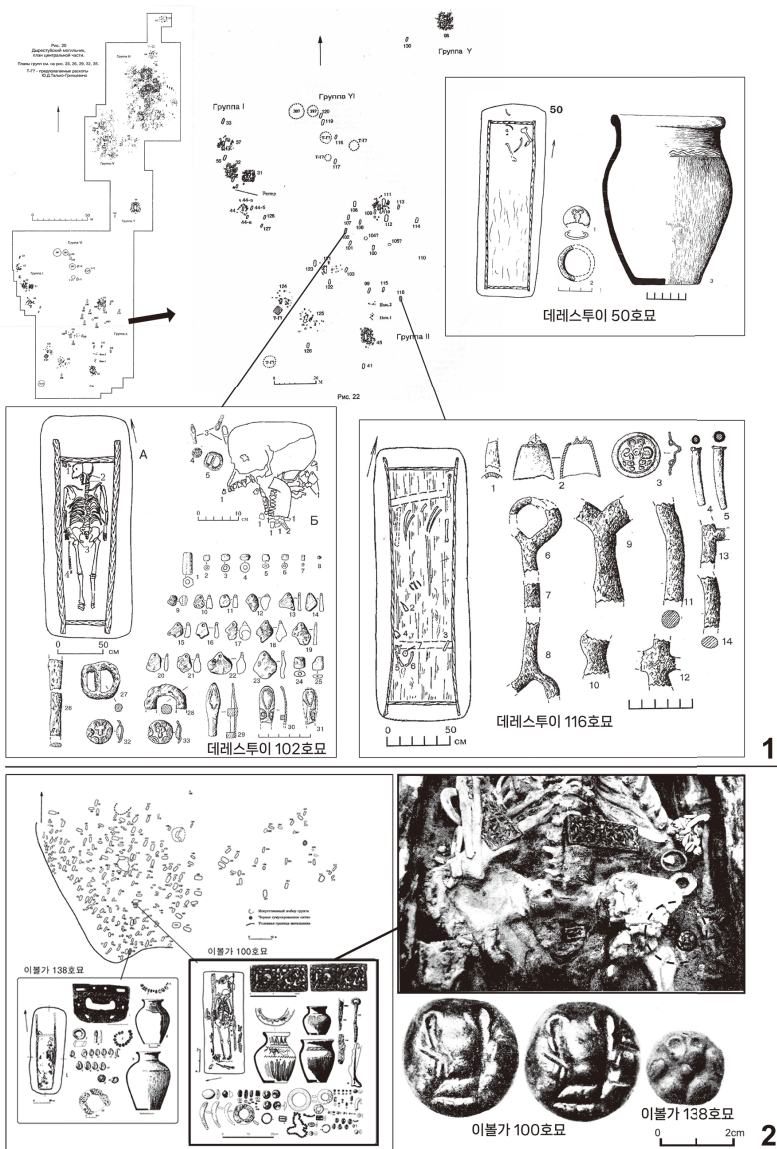


그림 8 자바이칼 흥노 유적 내 웅문장식품 출토 현황

1. 데레스투이 유적(Миняев, 2007에서 편집), 2. 이불가 유적(Давыдова, 1971, 1996에서 편집)



그림 9 홍노-한서2기(삼가자)-서차구에서 출토된 홍노 유물

홍노: 1. 차간-후손 2(Харинский, 2014에서 편집), 2. 노용 올(梅原末治, 1960에서 편집), 3. 테레스투이(Миняев, 2007에서 편집), 한서2기: 4. 삼가자(黑龙江省博物馆, 1988에서 편집), 5. 서차구(辽宁省博物馆 等, 2020에서 편집)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웅문장식품은 기원후 홍노와 중원 지역에서는 소멸하며, 한반도에서는 평양 낙랑 석암리 9호분과 경주 탑동 1호 목관묘에서 출토가 확인된다. 이들 유물은 한반도 유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특히 탑동 유적에서 출

토된 호형 장식품과 웅문장식품의 기원과 계보 추정에 대한 문제를 두고 사카 계통, 서북 계통, 중원 또는 홍노 등 여러 견해로 제시되었다.⁵⁵ 함께 출토된 호형 장식품은 현재까지 알려진 유물들 가운데 기원전 4~3세기로 편년되는 감숙성(甘肅省) 청수(淸水) 류평(劉坪, Liuping) 유적 출토 호형 대구와 가장 유사하다. 류평 유적에서는 서차구 M35호 출토 지그재그 기하문대식판과 동일한 형태의 대식판이 1점 출토되었다. 이로써 이들 유물의 기원은 기원전 4세기경으로 추정되며, 직접적 계보를 통해 제작이 이어졌거나 오랜 기간 전세를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양식적인 측면에서 경주 탑동 1호 목관묘 출토 웅문장식품은 곰 문양이 도식화된 Ⅲ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자바이칼 홍노 이불가 유적 100호묘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홍노 동물문장식품 출토의 의미

서풍 서차구 유적에서 출토된 홍노 동물문장식품은 동부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들 지역의 자료가 서차구 유적에서 모두 발견된 것이다. 특히, 홍노 전 시기와 전 범위에 걸쳐 분포한 I~V형식의 동물문대식판이 모두 출토된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출토는 홍노 대식판의 성립(A유형), 발전과 확산(B유형), 지역화(C유형)의 모든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매우 독특한 현상으로, 홍노 유적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이다. 홍노 동물문장식품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당시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위세품 이론(*prestige goods theory*) 관점에서⁵⁶ 존 클라크와 마이클 블레이크는

55 강인욱, 2018, 「북방 유라시아 초원지역과 한반도 교류의 고고학」, 『한국상고사학보』 100호, 51~76쪽; 김동일, 2019, 「동북아시아 虎形裝飾의 표상과 한반도 출토 虎形帶鉤의 기원 연구」, 『고고광장』 25호, 33~60쪽; 김동일, 2024, 앞의 글, 241~274쪽; 이양수, 2023, 「경주 탑동 목관묘 출토 청동기로 본 대외관계와 피장자의 성격」, 『중앙고고연구』 39호, 55~85쪽.

사회 계층을 이끄는 중심인물들이 대중적인 명성과 추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위세품을 사용한다고 보았다.⁵⁷ 이에 따르면, 서차구의 동물문장식품은 흉노로부터 제공받은 위세품으로서 흉노와 연결된 사회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더욱이 유목 사회에서 허리띠는 단순한 의복 구성품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고중세 시기의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유목국가들에서 허리띠는 부족 간의 신뢰와 맹약, 통합을 의미하고,⁵⁸ 개인의 지위와 권력, 성인 의식, 영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이었다.⁵⁹ 이러한 맥락에서 흉노로부터 받은 동물 문대식판의 소유는 흉노 제국민에 준하는 수준으로서의 소속감을 부여받는 것과 동시에 그 문화권에 속한 사회적 구성원이라는 통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⁶⁰ 즉, 당시 북방 초원의 패자였던 흉노로부터 서차구 집단이 그 세력을 인

56 G. Clark, 1986, *Symbols of Excell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7 J. E. Clark and M. Blake, 1994, "The power of prestige: competitive generosity and the emergence of rank societies in lowland Mesoamerica", In E. M. Brumfiel and J. W. Fox(eds.), *Factional competi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7~30.

58 Ц. Одбаатар, 2011, "Хүннү нарын бүс", *Хүннүгийн өв*, p. 130; C. Kost, 2012, "Eurasian steppe bronzes (re)discovered", *The Silk Road*, 10, p. 146.

59 U. Brosseder, 2011, "Belt plaques as an indicator of east-west relations in the Eurasian steppe at the turn of the millennia", *BCAA5: Xiongnu archaeology*, pp. 349~350.

60 크리스토퍼 벡위드(Christopher I. Beckwith)는 사회정치적-종교적 이상형으로서 영웅적 군주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친위부대인 '코미타투스(Comitatus)'와의 관계가 스키타이시대부터 중세 몽골에 이르기까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유라시아 문화복합체 초기 형식의 핵심적 요소라고 정의했다. 코미타투스는 주군에 대한 충성을 대가로 황금, 보석, 비단, 무기, 말 등의 각종 재물과 명성을 보상받은 친위부대이며 고도로 훈련된 전사들이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주군을 지킬 것을 맹세했고, 주군이 먼저 죽으면 자살을 하거나 의례를 통해 죽어서 함께 묻혔다(크리스토퍼 벡위드 저, 이강한 류형식 역, 2014, 『중앙유라시아 세계사』, 65쪽). 이러한 관계를 군대 조직으로 구성된 흉노 사회에도 대입하여 살펴볼 수 있다. 스키타이 동

정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차구는 동북 만주지역 일대에서 유일하게 흉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해당 지역에서 독보적으로 흉노와의 소통을 담당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와 더불어, 서차구 유적에서 확인되는 흉노 문화 요소가 주로 동물문장식품에 국한된다는 점은 서차구 집단이 실제 흉노인들이 아니었지만, 흉노의 선민 의식을 표방하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서차구 집단이 흉노와의 사회적 연결성을 강조하며 대내외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서차구 Z49-1호 동물문대식판의 출토 상황에서 이러한 해석이 뒷받침된다. Z49-1호에서는 두 점의 동물문대식판이 무덤 중앙에서 나란히 출토되었는데, 다른 도상(사슴문, 인물문)의 대식판 2매가 세트를 이루어 출토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동남부 시베리아~중국 북방 일대의 초기철기시대~흉노·선비시기에는 동일한 형태와 문양의 동물문대식판 2매가 세트를 이루어 대칭 구도로 출토되지만,⁶¹ 서차구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인 것이다. 또한 서차구에서 출토된 흉노 Ⅲ식, Ⅳ식 웅문장식품의 경우도, 흉노의 최상위 대형급 고분군 부장품이 아닌 일반 중소형 무덤 부장품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일반 중소형 무덤과 공통된 유물이 많다는 사실은, 흉노가 서차구 집단의 사람들을 흉노 귀족급이 아닌 일반 제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세품은 실용적인 기능보다는 그 소유와 전시를 통해 소유자의 명성을

물양식 허리띠 대식판은 흉노 제국 초기에는 대형급 무덤 부장품으로 금제품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중소형급 무덤에서 청동제품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흉노 초기에는 최상위 계층의 전유물로서 사용되었지만, 점차 일반 전사계층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물문대식판은 전사들로 구성된 흉노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귀족과 일반 전사들에게 분배된 위세품으로서 충성과 결속력을 의미한다(한진성, 2020, 앞의 글, 391~393쪽).

- 61 동일한 형태와 문양의 대식판 2매가 세트를 이루어 출토되는 것은 흉노와 동시기 예니세이강 일대의 초기철기시대 타쉬트익문화 유적, 중국 내몽골 일대의 초기 흉노 선우왕족급 무덤인 서구반 유적, 기원전 2~1세기 자바이칼 흉노의 데레스투이, 이불가 고분군, 몽골 흉노의 타미린 올란 호쇼 등 다수 유적에서 확인되며, 초기 선비의 찰뢰낙이(扎賚諾爾) 유적 등에서도 엿보인다.

높이는 역할을 한다. 개인의 사회적 권력과 집단의 힘을 나타내는 값비싼 신호로 사용되었으며,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추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경쟁적으로 획득하였다.⁶² 이러한 맥락에서 서차구 집단에서 흉노 장식품의 소유는 동북 만주 일대에서 흉노 제국민의 소속감을 대변하는 과시적인 의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서차구 집단의 사람들이 흉노의 정체성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구색만 맞으면 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흉노 정체성의 상징물을 ‘소유하는 행위 그 자체’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차구에서 흉노 동물문장식품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체와 관련하여 ‘이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서차구 집단의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흉노를 표방하면서도 그 이면에 존재한 실질적인 정체성이 관건인 셈이다. 이에 대한 단서는 흉노 동물문대식판과 함께 공반된 원주식 동병철검에 있다. 특히 이 동병철검은 서차구 단계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으며, 부여로 연결되는 중요한 유물이다. 1980년대 전운(田耘)에 의해 부여설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적된 사항이며,⁶³ 동병철검은 부여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유물 중 하나로 이해된다.⁶⁴ 후행하는 길림 유수현 노하심 부여 유적과 한반도의 청주 오송 유적에서 그 연속성이 확인된다(그림 10).⁶⁵ 주지하듯 부

62 주3)의 참고문헌.

63 田耘, 1984, 「西岔溝古墓群族屬問題淺析」, 『黑龍江文物叢刊』 1984年 第1期, 29~34쪽.

64 林沄, 1993, 「西岔溝式銅柄鐵劍與老河深·彩嵐墓地的族屬」, 『馬韓百濟文化』 제13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49~265쪽; 윤정하·강인옥, 2021, 「청주 오송 유적 출토 부여계 동병철검의 의의」, 『한국상고사학보』 112호, 31~54쪽.

65 주지하듯 부여는 지금의 만주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존재하였는데, 거기에서 동부여가 나오고, 그 동부여에서 고구려의 지배층이 된 주몽집단이 나왔다. 주몽집단은 압록강 일대에 진출하여 졸본부여(고구려)를 세웠다. 이에 압록강 유역에 먼저와 살고 있던 주민의 일부가 다시 한강유역으로 남하하여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송호정, 2002, 「Ⅲ.부여」,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편 한국사 4』, 국사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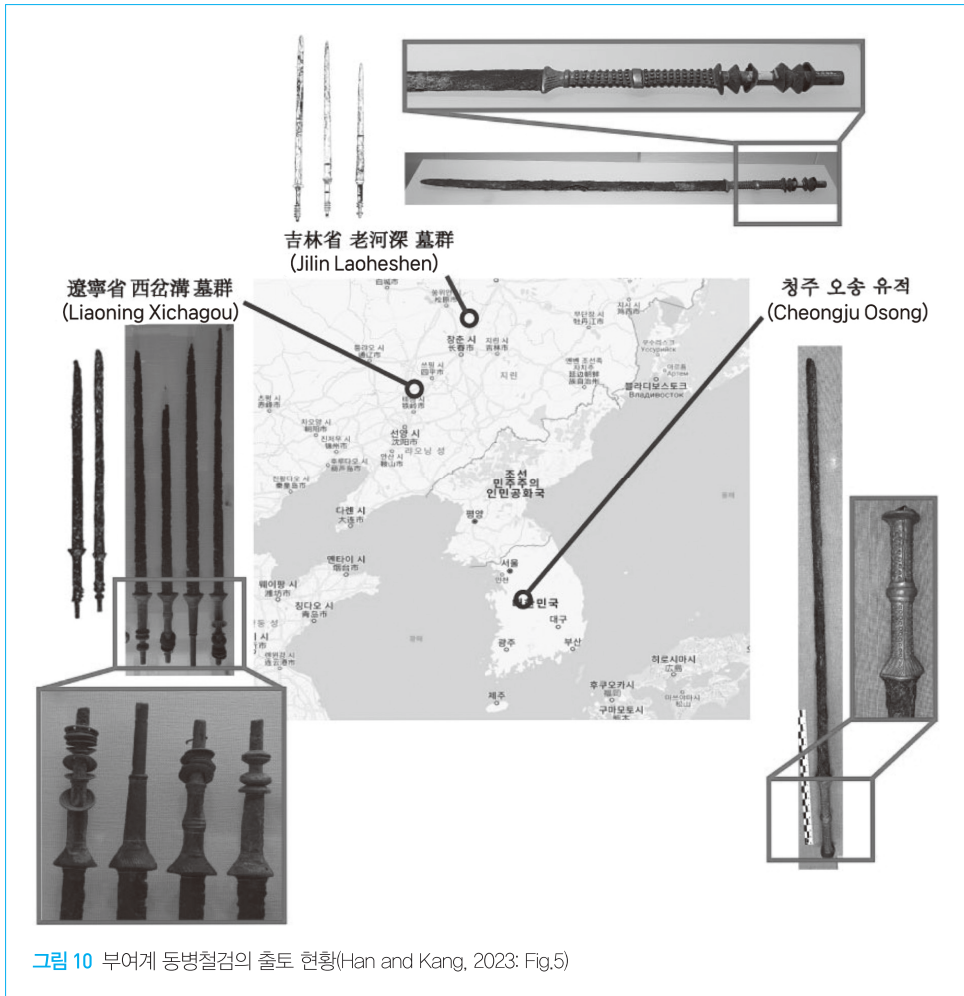
여는 지금의 만주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존재하였는데, 거기에서 동부여가 나오고, 그 동부여에서 고구려의 지배층이 된 주몽집단이 나왔다. 주몽집단은 압록강 일대에 진출하여 졸본부여(고구려)를 세웠다. 이에 압록강 유역에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주민의 일부가 다시 한강유역으로 남하하여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⁶⁶ 최근 청주 오송의 백제 토광묘(기원후 2세기대)에서 원주식 동별철검이 출토되면서, 부여계 세력의 이동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로서 원주식 동별철검을 지목하고 있다.⁶⁷ 서차구 유적에서는 흉노의 전형적인 토기, 무기, 동북 등의 출토는 확인되지 않으며, 허리띠 및 의복 장식품과 같은 흉노의 위세품이 주로 출토되고 있다. 이들 유물과 공반된 원주식 동별철검과 금사를 끈 금제이식과 같은 부여계 유물은 우수 노하심 중층 단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서차구 단계에서 흉노 동물문대식판 위주의 허리띠가, 우수 노하심 단계에서는 흉노의 것 대신 선비 문화의 승마문대식판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즉, 부여의 발흥과 맞물려 부여를 형성하는 세력이 주변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성장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가면서, 흉노에서 선비로 초원의 권력 질서가 재편된 상황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서차구 유적에서 흉노 장식품이 부장된 무덤의 주체는 적어도 부여의 발흥과 맞물려 부여를 형성하는 세력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결국, 서풍 서차구 유적에서 관찰되는 흉노문화는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융합한 그 집단의 모습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은 서차구를 특정한 집단에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세력이 주변 세력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제품으

위원회, 150쪽). 최근 청주 오송의 백제 토광묘(기원후 2세기대)에서 출토 사례가 확인되면서, 부여계 주민의 남하와 관련된 핵심적인 유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부여계 세력의 이동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로서 원주식 동별철검이 지목되고 있다(윤정하·강인옥, 2021, 앞의 글).

66 송호정, 2002, 「Ⅲ.부여」,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편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50쪽.

67 윤정하·강인옥, 2021, 앞의 글.



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과시하며 성장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서풍 서차구 집단은 당시 초원의 패권주자였던 흉노로부터 그 상징물인 대식판 및 기타 장식품을 사여받고, 흉노 제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동북 만주지역에서 흉노와 소통하는 외교 창구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한편, 초원의 권력 질서가 흉노에서 선비로 재편되면서 유수 노하심 중층 단계에서는 흉노계

유물들이 선비계로 대체되고, 부여계 유물의 연속성이 나타난다. 즉, 그들은 주변 지역의 정세 변화에 맞춰 다양한 문화 요소를 흡수한 다양성을 강조하며 성장했을 것이며, 이러한 특징은 문화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여 문화의 형성에 바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V. 맺음말

서풍 서차구 유적에서는 흉노의 표지 유물인 동물문대식판을 비롯한 소형 청동기가 다수 출토되었으나, 토기, 무구, 마구 등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요소들은 토착 및 주변 지역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곳을 점유했던 인구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으나, 뚜렷한 문화적 공통성을 도출하지 못해 이에 대한 합의점은 찾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유구와 유물의 단순 비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외부 문화 요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시간적 변천 양상을 통한 문화의 전개를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서차구 출토 유물 중 흉노 이전의 스키타이 동물양식에서 시작하여 흉노를 기점으로 크게 발전하고 주변으로 확산된 동물문장식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예시로 동물문대식판과 웅문장식품을 들어 흉노 문화의 전개 맥락에서 서차구 유적 출토품의 특징과 소유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서차구에 유입된 흉노 문화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흉노 동물문대식판은 I~V형식, 웅문장식품은 I~V식까지 분류되며, 서차구 유적에서는 흉노 동물문대식판의 I~V형식, 웅문장식품의 Ⅲ~Ⅴ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형식은 시간과 지역에 따른 분포 차이를 보이며, 공반되는 유물의 특성도 공통된 양상을 나타낸다. 동물문대식판과 웅문장식품은 흉노 발흥 초기에 스키타이 동물양식에서 기원한 형식이 최상위 계층의 위세품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화된 형식으로 변하면서 일반

계층의 무덤에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서차구에서 출토된 흉노 동물문대식판과 웅문장식품은 흉노의 최상위 고분군 부장품이 아닌 일반 중소형 무덤 부장품과 유사하다. 따라서 서차구 유적에서 보이는 흉노 유물은 흉노 최상위 계층보다는 일반 전사 계급의 문화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흉노 문화권 전 범위에서 확인되는 동물문대식판과 웅문장식품이 서차구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점은, 서차구 집단이 흉노의 특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 결과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흉노의 동물문대식판은 사회적 통합과 제국민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속감을 부여하는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흉노로부터 서차구 집단이 그 세력을 인정받고, 동북만주 지역에서 흉노와 소통을 담당했으나, 실제 흉노에 편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서차구 유적에서 확인되는 흉노 문화 요소가 주로 동물문장식품에 국한된다는 점은 서차구 집단이 실제 흉노인이 아니었지만, 흉노의 선민의식을 표방하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서차구 집단이 흉노와의 사회적 연결성을 강조하며 집단 대내외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서차구 유적에서 흉노 동물문장식품을 소유한 이들은 동병철검을 표지로 하는 부여 집단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차구 단계부터 등장한 동병철검은 부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유물로 유수 노하심 유적과 청주 오송 유적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처럼 부여계 유물의 연속성은 이어지지만, 서차구 유적에서 대량 출토된 흉노의 허리띠는 유수 노하심 단계에서 선비의 승마문대식판으로 대체된다. 이는 초원의 권력 질서가 흉노에서 선비로 대체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서차구 집단은 당시 초원의 권력 질서에 호응하여 흉노 문화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며, 핵심적으로 그들이 구축하려는 문화적 정체성은 부여의 원주식 동병철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서차구 집단을 특정 주변 문화에 귀속시키기보다는, 주변 세력의 변화에 맞추어 문화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새롭게 성장한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립중앙박물관·몽골과학원고고학연구소, 2021,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흥노무덤Ⅲ -160호분 매장묘-』, 국립중앙박물관.

에렉젠·양시은, 2017, 『흥노』, 진인진.

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몽골의 무덤』, 진인진.

크리스토퍼 벡위드 저, 이강한·류형식 역, 2014, 『중앙유라시아 세계사』, 소와당.

폴 반 저, 이희준 역, 2006, 『현대고고학의 이해』, 사회평론.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首都博物馆 编, 2016, 『五色炫曜』, 江西人民出版社.

乌恩, 2008, 『北方草原考古学比较研究-青铜器时代至早期匈奴时期』, 科学出版社.

遼寧省博物館 等, 2020, 『西丰西岔沟-西汉时期东北民族墓地』, 文物出版社.

梅原末治, 1960, 『蒙古ノイン・ウラ發見の遺物』, 東洋文庫.

Bunker, E. C., 1997, *Ancient bronzes of the eastern eurasian steppes*, Harry N. Abrams.

_____, 2002, *Nomadic art of the eurasian steppes: The Eugene V. Thaw and other New York collections*,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nker, E. C., et al., 1970, "Animal Style" *Art from East to West*, Asia Society.

Clark, G., 1986, *Symbols of Excell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stovzeff, M., 1973, *The Animal Style in South Russia*, New York: Hacker art books.

Артамонов, М. И., 1973, *Сокровища саков: Аму-Дарьинский клад. Алт айские курганы. Минусинские бронзы. Сибирское золото*, Искусство(아르타모노프, 1973, 『사카의 보물들: 아무다리야의 보물, 알타이 쿠르간, 미누

신스크 청동기, 시베리아의 금 예술』, 미술).

Давыдова, А. В., 1996, *Иволгинск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Иволгинский могильник. СПб-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다브이도바, 1996, 『이볼가 고고학 복합체-이볼가 무덤』, 상트페테르부르크 피터스버그 동양학).

Дэвлет, М. А., 1980, *Сибирские поясные ажурные пластины: II в. до н.э. -I в. н.э.*, Изд-во Наука(데블레트, 1980, 『시베리아의 투조 허리띠 고리: 기원전 2~1세기』, 러시아과학원).

Миняев, С. С., 2007, *Дырестуйский могильник*, Филолог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гос. университета(미나예프, 2007, 『데레스 투이 무덤 유적』,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교 언어학부).

Полосьмак, Н. В., Богданов, Е. С., 2016, *Ноин-улинская коллекция: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2006-2012гг.*, Litres(폴로스막·보그다노프, 2016, 『노용울 컬렉션: 2006-2012 러몽 공동조사 보고서』, Litres).

Төрбат, Ц., Крюбезы, Э., 2021, *Тамирын улаан хошууны Хүннугийн соёл(2017 оны малтлага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투르바트·크류베즈, 2021, 『타미린 올란 호쇼의 흥노 유산(2017년도 발굴성과)』, 몽골과학원 고고학연구소).

Эрдэнэчулуун, П., 2011, *Тэнгэрийн илд, Нарлаг Монгол Өнөөдөр*(에르데네출론, 2011, 『하늘의 검』, 나를락 몽골 우즈드르).

논문

강인욱, 2003, 「고고학으로 본 匈奴의 발생과 분포」, 『文化財』 36호.

_____, 2010a, 「기원전 1천년기 요령~한반도 비파형동검문화로 동물장식의 유입과정」, 『호남고고학보』 36.

_____, 2010b, 「기원전 4~서기 1세기 고고학자료로 본 흉노와 동아시아-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구축을 겸하여-」, 『중앙아시아연구』 15.

_____, 2018, 「북방 유라시아 초원지역과 한반도 교류의 고고학」, 『한국상고사학보』 100호.

- 김재윤, 2022, 「포트르 I세 시베리아 컬렉션」수집지에 대한 검토-유라시아 스키타이 문화를 중심으로, 『동양학』 87호.
- 김동일, 2019, 「동북아시아 虎形裝飾의 표상과 한반도 출토 虎形帶鉤의 기원 연구」, 『고고광장』 25호.
- _____, 2024, 「어느리 출토 장식품으로 본 진한(辰韓)과 진한(秦漢)의 교류: 간접적 연결에서 시장의 형성으로」, 『한국상고사학보』 124호.
- 박양진, 2023, 「랴오닝 시핑 시차거우(西岔溝, 서차구) 유적의 초보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2023권 3호.
- 송호정, 2002, 「Ⅲ. 부여」,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편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 오강원, 2018, 「서풍현 서차구 고분군의 문화적 성격과 계통-토기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8.
- 윤정하·강인옥, 2021, 「청주 오송 유적 출토 부여계 동병철검의 의의」, 『한국상고사학보』 112호.
- 에렉젠, G. 저, 한진성 역, 2018, 「흥노 동물양식 예술의 특징」, 『한·몽 문화유산 공동 연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양수, 2023, 「경주 탐동 목관묘 출토 청동기로 본 대외관계와 피장자의 성격」, 『중앙고고연구』 39호.
- 이종수, 2007, 「서차구 고분군의 성격과 사용집단에 대하여」, 『백산학보』 77호.
- _____, 2013, 「송화강유역 초기철기문화의 변천과 부여문화 성립과정 고찰」, 『동양학』 53집.
- _____, 2018, 「부여 강역 연구현황과 쟁점」, 『백산학보』 110호.
- _____, 2023, 「미완의 발굴, 풀지 못한 수수께끼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 『동북아역사논총』 81호.
- 林沄, 1993, 「西岔溝式銅柄鐵劍與老河深·彩嵐墓地的族屬」, 『馬韓百濟文化』 제 13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주경미, 2022, 「흥노시대 幻想動物文의 특징과 문화사적 의의」, 『중앙아시아연구』 27(1)호.
- 한진성, 2015, 「흥노 동물문교구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20, 「흥노를 통해 본 고대 유라시아초원 유목사회의 허리띠 문화」 『흥노 제국의 미술』, 국립문화재연구소·몽골고고학연구소, 380~397쪽.

高浜秀, 1997, 「中国北方の青銅器」, 『大草原の騎馬民族-中国北方の青銅器-』, 東京国立博物館.

罗丰, 2010, 「中原制造-关于北方动物纹金属牌饰」, 『文物』第3期.

潘玲, 2009, 「外贝加尔匈奴遗存的年代」, 『华夏考古』第4期.

庞昊, 1998, 「翁牛特旗发现两汉铜牌饰」, 『文物』第1期.

孙守道, 1957, 「西岔沟古墓群被掘事件的教训」, 『文物参考资料』第1期.

_____, 1960, 「匈奴西岔沟文化」古墓群的发现」, 『文物』第8, 9期 合刊.

乌恩, 1983, 「中国北方青铜带饰」, 『考古学报』第1期.

李陈奇, 2013, 「松嫩平原商周至西汉时期青铜器的发现与初步研究」, 『北方文物』第3期.

田广金·郭素新, 1980, 「内蒙古阿鲁柴登发现的匈奴遗物」, 『考古』第4期.

田耘, 1984, 「西岔溝古墓群族屬問題淺析」, 『黑龍江文物叢刊』1984年 第1期.

朱和平·谭媛媛, 「匈奴饰牌类型辨析」, 『中原文物』2010年 第1期.

黑龙江省博物馆, 1988, 「齐齐哈尔市大道三家子墓葬清理」, 『考古』第12期.

Andreeva, P., 2018, “Fantastic Beasts of the Eurasian Steppes: Toward a Revisionist Approach to Animal-Style Art”,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reeva, P. 2022, “Re-making animal bodies in the art of early china and north asia: perspectives from the steppe”, *Early China* 45, pp. 413~365.

Brosseder, U. 2011, “Belt plaques as an indicator of east-west relations in the Eurasian steppe at the turn of the millennia”, *BCAA5: Xiongnu archaeology*, pp. 349~424.

Clark, J. E. and Blake, M., 1994, “The power of prestige: competitive generosity and the emergence of rank societies in lowland Mesoamerica”, In E.M. Brumfiel and J.W. Fox(eds.), *Factional competi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World*, pp. 17~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n, J. and Kang, I. U., 2023, “Ethnic and Cultural Affiliation of the Xichagou Burial Ground Based on Materials of the Xiongnu Culture Belt Plaques”, *Vestnik NSU. Series: History and Philology*, 22(5).

- Kost, C., 2012, "Eurasian steppe bronzes (re)discovered", *The Silk Road*, 10.
- Meskel, L., 2001, "Archaeologies of Identity", *Archaeological Theory Today*, edited by Hodder, I., Polity Press.
- _____, 2002, "The Intersections of Identity and Politics in Archae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
- Minyaev, S. S., 2009, "Tsaram: a burial ground of the Hsiung-nu elite in Transbaikalia", *Archaeology Ethnology & Anthropology of Eurasia*, 37(2).
- Miniaev, S. S. and Sakharovskaia, L. M., 2008, "An Elite Complex of Xiongnu Burials in the Tsaraam Valley", *Anthropology & Archeology of Eurasia*, 46(4).
- Neiman, F. D., 1997, "Conspicuous Consumption as Wasteful Advertising: a Darwinian Perspective on Spatial Patterns in Classic Maya Terminal Monument Dates", In C. M. Barton and G. A. Clark(eds.), *Rediscovering Darwin: Evolutionary Theory and Archaeological Explanation*.
- Давыдова, А. В., 1971, "К вопросу о Хуннски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бронзах",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다브이도바, 1971, 「홍노 청동기의 제문제」, 『소비에트의 고고학』 1).
- Миняев, С. С., 1995, "Новейшие находк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бронзы и проблема формирования 'геометрического стиля' в искусстве Сюнну",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вести* 4(미냐예프, 1995, 「홍노 최신 발견 청동기와 그 예술의 '기하학적 스타일' 문제」, 『고고학 소식』 4).
- Михайлович, Л. П., 2019,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бронзы эпохи Хунну в Туве", *Искусство Евразии* 3(14)[미하일로비치, 2019, 「투바의 홍노시기 청동기」, 『The Art of Eurasia』, 『유라시아의 미술』 3(14)].
- Харинский, А. В., 2014, "Елгинские захоронения прибайкалья". *Эпоха палеометалла* 3(12)[하린스키, 2014, 「기원전 4~3세기 바이칼 엘가 유형의 무덤」, 『팔레오메탈시대』 3(12)].
- Одбаатар, Ц., 2011, "Хүннү нарын бүс", *Хүннүгийн өв*, Шинжлэх Үхааны Академи,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오드바타르, 2011, 「홍노인들의 허리

띠], 『홍노의 유산』, 몽골과학원고고학연구소).

Рудеко, С. И., 1962, *Сибирская коллекция Петра I*, САИ Д3-9(루덴코,
1962, 「시베리아의 표트르 1세 콜렉션」, 『소련 레닌그라드과학원보』 D3-9).

중국 요령성 서퉁 서차구 출토 홍노 동물문장식품 검토

— 동물문대식판과 옹문장식품을 중심으로 —

한진성

이 글은 스키타이 동물양식에서 기원한 홍노 문화의 동물문장식품을 분석하여, 서차구 유적에 유입된 홍노 문화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소유한 서차구 집단의 성격을 추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차구 유적에서는 홍노 문화권에서 출토된 I~V형식의 동물문대식판과 홍노와 중원에서 출토된 Ⅲ~Ⅴ식의 옹문장식품이 발견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서차구 유적의 홍노 유물은 홍노의 특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과의 관계망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서차구에서 출토된 홍노 동물문장식품은 홍노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초기에는 최상위 계층의 위세품으로 사용되었으나, 중·후기에는 일반 계층의 중소형급 무덤에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서차구 유적에서 확인된 홍노 동물문장식품은 당시 홍노 최상위 계층의 문화가 아닌, 중소형 무덤을 사용하는 일반 전사계급의 문화와 매우 유사하다. 홍노의 동물문대식판은 사회적 통합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홍노 제국민으로서의 상징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차구 집단이 홍노로부터 제국민에 준하는 세력으로 인정받아 동북 만주 지역에서 홍노와의 소통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차구 유적에서 확인되는 홍노 문화 요소

가 주로 동물문장식품에만 국한된다는 점은 서차구 집단이 흉노인이었을 가능성이 낮으며, 흉노의 선민의식을 표방하는 상징적 역할만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서차구 유적에서는 흉노 동물문장식품과 함께 원주식 동병철검이 공반하는데, 동병철검은 후속하는 길림 우수 노하심과 청주 오송 유적에서 부여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유물이다. 따라서 서차구 유적에서 흉노 동물문대식판을 소유한 이들은 이 지역에서 발흥한 부여 세력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서차구 집단을 특정 문화에 귀속시키기보다는, 주변 세력의 변화에 맞추어 문화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새롭게 성장한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서풍 서차구, 흉노, 위세품, 동물문대식판, 웅문장식품

ABSTRACT

An Examination of Xiongnu Animal Style Artifacts Unearthed from the Xifeng Xichagou Site: Focusing on Animal Style Belt Plaques and Bear Motif Adornments

Han Jinseo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nimal-shaped artifacts of Xiongnu culture, derived from Scythian animal styles, to elucidate the characteristics of Xiongnu cultural elements present at the Xichagou site and to infer the identity of the group inhabiting this area. The Xichagou site is distinguished by the presence of animal motif plates (types I–V) and ceremonial artifacts (types III–V) associated with both the Xiongnu and Han regions of China. The data indicate that the Xiongnu artifacts at Xichagou were not confined to a specific Xiongnu region but were introduced through a network of various regions. Additionally, the Xiongnu animal-shaped artifacts found at Xichagou reveal a temporal shift in their usage: initially as prestige goods of the highest social status, and later as grave goods in small

to medium-sized tombs of the general population. The artifacts from Xichagou closely resemble those of the common warrior classes, rather than the elite Xiongnu culture. These artifacts, particularly the Xiongnu animal motif plates, functioned as symbols of social integration and affiliation within the Xiongnu Empire. This suggests that the Xichagou group was recognized by the Xiongnu as a quasi-imperial entity and likely acted as a liaison with the Xiongnu in the northeastern Manchurian region. The predominance of Xiongnu cultural elements, specifically animal-shaped artifacts, at Xichagou, implies that the Xichagou inhabitants were unlikely to be ethnically Xiongnu but instead may have adopted a symbolic role reflecting Xiongnu elite consciousness. Furthermore, the co-occurrence of these artifacts with bimetallic iron swords-key indicators of Buyeo culture in subsequent archaeological sites such as Jilin Laoheshen and Cheongju Osong-suggests a possible connection between the Xichagou group and the emerging Buyeo power in the region. Therefore, it is more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Xichagou group as a newly emerging entity characterized by cultural pluralism and diversity, adapting to the evolving regional power dynamics, rather than attributing them to a specific surrounding culture.

Keywords: Xichagou, Xiongnu(Hsiung-nu), prestige goods, animal style belt plaques, bear motif adornments

서차구 유적에서 나타나는 중원 습속과 내세관의 의미

— 금속제 형벌 도구를 중심으로

김동일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 I. 머리말
- II. 서차구 유적에 대한 이해
- III. 중원의 습속 자료
- IV. 장송의례와 내세관의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서차구 유적은 20세기 중반에 발생한 여러 도굴 사건과 1956년 동북박물관의 조사로 인해 학계에 알려지게 된 유적이다. 최초의 보고에서는 서차구 유적의 출토품 일부와 평면상의 유구배치도, 사진과 도면 몇 장이 제공되었다.¹ 이후 다수의 무기류, 마구류, 동경 및 장식 등 보다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졌지만,² 근본적으로 보고된 전체 분량이 서차구 유적의 규모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2022년이 되어서야 『西豐西岔溝-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라는 제목으로 총 3권의 정식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된다. 그러므로 이 글은 발굴조사 보고서의 청동기와 철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서차구 유적에 대한 연구는 간보의 고찰을 제외하여도 중국학계에서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왔으며, 어떠한 종족이 서차구 유적을 남긴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 1960년 보고자인 손수도(孫守道)³는 서차구 유적을 흉노 문화라 인식하였지만,⁴ 1961년 증용(曾庸)은 서차구 유적에 대해 문헌자료를 참고할 때 오환이라 주장하였으며,⁵ 1962년 공손연(公

* 투고: 2024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8월 6일, 게재 확정: 2024년 8월 13일

** 이 글의 내용은 2023년 6월 29일에 고조선부여사연구회에서 발표한 「서차구유적의 습속으로 본 정체성 추론」과 2024년 5월 31일에 제9회 동양학연구원 산하연구소·백산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고조선에서 부여로”에서 발표한 「서차구유적에서 나타나는 중원 습속과 내세관」, 2024년 7월 24일 고조선부여사연구회에서 발표한 「서차구유적과 중원의 관계 재검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1 孫守道, 1957, 「西岔溝古墓群被掘事件的教訓」, 『文物參考資料』 1957-1.

2 孫守道, 1960, 「“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發現」, 『文物』 1960-8·9.

3 중국 연구자는 국내 연구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한글명(한자명)’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4 孫守道, 1960, 위의 글.

5 曾庸, 1961, 「遼寧西豐西岔溝古墓群爲烏桓文化遺迹論」, 『考古』 1961-6.

孫燕)은 문헌자료를 검토할 때 부여라 주장하였다.⁶ 그러나 1973년 요령성박물관은 『요령역사문물(遼寧歷史文物)』 10월호에서 서차구 유적이 한나라와 흉노의 밀접함을 나타낸다고 손수도(孫守道)의 견해를 지지하였는데,⁷ 요령성박물관의 전신이 동북박물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들이 작성한 기존 보고 내용을 재차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 공손연(公孫燕) 역시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면 서차구 유적은 흉노의 것이라 주장하였다.⁸ 이로 인해 1980년까지 서차구 유적은 흉노의 유적으로 인식되었다.

1984년 전운(田耘)은 토기를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로는 문화의 명칭을 설정할 수 없지만, 서차구 유적 자체는 부여의 유적이라 주장하였다.⁹ 서차구 유적의 부여설은 1962년에 공손연(公孫燕)이 주장하였다가 1973년에 철회한 주장인데, 전운(田耘)이 부여설을 다시 주장하면서 흉노설에 대한 의문이 대두된다. 1984년 장석영(張錫瑛)은 한반도에서 출토되지 않으면서¹⁰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축각식 검을 검토하였고, 문헌자료를 종합할 때 서차구 유적은 흉노가 아니라 동호에 해당되며, 해당 시기에는 동호에 속하는 오환이라 주장하였다.¹¹ 이때부터 서차구 유적의 흉노설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2000년대 이전까지 부여설¹²과 선비설¹³이 대두된다.

-
- 6 公孫燕, 1962, 「論濊貉之“貉”非東胡人—兼考漢初濊貉地望」, 『考古』 1962-10.
 - 7 遼寧省博物館, 1973, 「西豐西岔溝匈奴古墓群」, 『遼寧歷史文物』, 遼寧省中小學校學研究室.
 - 8 公孫燕, 1980, 「古代匈奴人到過遼寧嗎?」, 『理論與實踐』 1980-6.
 - 9 田耘, 1984, 「西岔溝古墓群族屬問題淺析」, 『黑龍江文物叢刊』 1984-1.
 - 10 1980년대 이전에 한반도에서 축각식 동검이 출토되었지만 당시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한반도의 고고자료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
 - 11 張錫瑛, 1984, 「試論我國北方和東北地區的“觸角式”劍」, 『考古』 1984-8.
 - 12 劉升雁, 1985, 「東遼縣石驛公社古墓群出土文物的研究」, 『博物館研究』 1985-1; 李殿福, 1985, 「漢代夫余文化芻議」, 『北方文物』 1985-3; 田耘, 1987, 「兩漢夫余研究」, 『遼海文物學刊』 1987-2.
 - 13 靳維柏, 1988, 「關於鮮卑早期文化的再認識」, 『北方文物』 1988-3; 烏恩, 1990, 「試論漢代匈奴與鮮卑遺迹的區別」, 『中國考古學會第六次年會論文

이러한 학계의 흐름이 서차구 유적의 보고자인 손수도(孫守道)에게도 영향을 준 것인지, 1993년의 논문에서 흉노인지, 혹은 흉노에 속하는 선비나 오환, 부여족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¹⁴ 1995년의 논문에서 서차구 유적 출토 동경을 검토하면서 서차구 유적이 흉노와 같은 유목민족 문화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언급하였다.¹⁵ 즉, 흉노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손수도(孫守道)는 간접적으로 흉노라는 언급을 반복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흉노와 같은 유목 문화’라고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였다.

2000년대부터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다. 2004년 이종수는 박사학위논문에서 부여 문화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였고, 그중에는 서차구 유적의 고고자료도 포함되었으며, 연구 결과 서차구 유적을 비롯한 서차구 유형은 부여 문화와 다른 연원을 가진 별개의 문화이고, 서차구 유형은 보산 문화와 한서2기 문화가 그 기원이라 주장하였다.¹⁶ 즉, 이전까지 중국학계의 중심이었던 부여설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이후 2010년대에는 범은실(范恩實)¹⁷과 반령(潘玲)¹⁸에 의해 오환설이 다시 제기되는데, 반령(潘玲)은 정식 서차구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의 주요 집필자로 합류하게 되면서 2022년에 발간된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도 오환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¹⁹

정리하면, 중국학계의 서차구 유적 연구는 흉노설에서 시작되지만 1980년

集』, 文物出版社.

14 孫守道, 1993, 「再論“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文化內涵, 族屬及國別問題(中文提要)」, 『內蒙古文物考古』 1993-1·2.

15 孫守道, 1995, 「西岔溝古墓群西漢銅鏡斷代研究」, 『遼海文物學刊』 1995-1.

16 李種洙, 2004, 「夫余文化研究」, 吉林大學 考古學及博物館學 博士學位論文.

17 范恩實, 2012, 「論西岔溝古墓群的族屬-兼及烏桓、鮮卑考古文化的探索問題」, 『社會科學戰綫』 2012-4.

18 潘玲, 2013, 「烏桓、扶余抑或匈奴? 西岔溝墓地族屬之謎」, 『大眾考古』 2013-3.

19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西豐西岔溝-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文物出版社.

대를 전후하여 2000년까지 부여설이 지지를 받으면서 소수의 오환설과 선비설이 존재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는 부여설이 부정되면서 오환설을 지지하는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

한편으로 한국학계에서는 1993년부터 서차구 유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주목할 점은 첫 연구자가 임운(林潤)이라는 점이다. 1993년 중국 고고학자 임운이 한국의 학술지에 「西岔溝型銅柄鐵劍與老河深, 彩嵐墓地的族屬」이라는 논문을 게재한다.²⁰ 이 논문이 국내에서 발표된 첫 서차구 유적 관련 논문이며, 내용은 서차구·노하심 유적 등에서 출토된 동병철검 및 고고자료를 검토하고 문헌자료를 고려할 때 서차구 유적 등은 부여가 남겼다는 것이다.²¹

이후 2000년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서차구 유적은 부여의 유적으로 인식된다. 엄장록은 서차구 유적을 부여로 인식하면서 자료 소개를 하였고,²² 정상석은 서단산 문화를 연구하면서 서차구 유적을 부여의 것으로 인식하였다.²³ 오영찬 역시 서차구 유적을 부여로 보았고, 부여의 하위 유형으로 서차구 유형과 포자연 유형을 제시하였다.²⁴ 이러한 흐름은 중국학계의 1990년대 인식이 임운(林潤)의 소개로 인해 그대로 유입된 결과라 생각한다.

2000년대가 되면 이종수가 한국학계에 등장하고, 관련 연구는 새롭게 전개된다. 2007년의 논문에서는 기존의 보산 문화에서 탈피하여 발전한 집단이 서차구 유적을 조성하였다고 제시하였고,²⁵ 2018년의 논문에서는 서차구 유적 발

20 林潤, 1993, 「西岔溝型銅柄鐵劍與老河深, 彩嵐墓地的族屬」, 『마한·백제문화』 13,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1 林潤, 1993, 위의 글.

22 엄장록, 1994, 「夫餘의 遺蹟과 遺物에 對하여 (BC 2세기~AD 3세기)」, 『民族文化의 諸問題: 于江 權兌遠教授 停年記念論叢』, 世宗文化社.

23 정상석, 1997, 「西團山文化와 初期扶餘」, 동아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4 오영찬, 1999, 「Ⅷ. 榆樹 老河深 유적을 통해 본 부여 사회」,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5 이종수, 2007, 「西岔溝 古墳群의 性格과 使用集團에 대하여」, 『백산학보』 77, 백산학회.

굴조사 보고서를 신뢰하면서 서차구 유적을 오환의 유적으로 인식하였다.²⁶

한편으로 2018년 오강원은 토기를 중심으로 서차구 유적을 검토하면서 이 유적은 포자연 유형과 같은 문화이지만 다른 하위 유형이라 주장하면서 서차구 유적에서 출토된 포자연 유형의 토기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서차구 유적의 기원을 한서 문화라고 주장하였다.²⁷ 그는 이전복(李殿福)의 주장을 부정하였지만, 이전복(李殿福)²⁸과 마찬가지로 토기를 통해 서차구 유적과 한서 문화의 유사성을 검토하였다.²⁹ 또한 서차구 유형과 포자연 유형이 하나의 문화에 다른 하위 유형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오영찬 등에 의해 이미 제기된 내용이고,³⁰ 서차구 유적과 한서 문화의 유사성 역시 이종수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자에 의해 예전부터 제기된 내용이다.³¹

기존의 연구사에서 주목할 문제점은 토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필자가 이전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유목 문화나 유목 문화와 융합된 문화의 경우 토기를 근거로 집단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없으며, 그 근거는 무덤 출토 토기의 경우 집단의 성격이나 수장층을 반영하는 유물이 아니라 일반주민이 남긴 생활용품이라는 점과 그 일반주민은 주변에 거주하는 재지집단의 주민들이 흡수되거나 수장층을 따라서 이동한 극히 일부 주민이라는 점, 장송의례 과정 중에서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 토기가 한정적으로 부장된다는 점이 있다.³² 즉, 서차구 유적에서 포자연 유형의 토기가 출토된 이유는 포자연 유형에 속하는 주민들을 서차구 유적 조성 집단이 흡수하였고, 장송의례 과정 중 집단의 일

26 이종수, 2018, 「부여 강역 연구현황과 쟁점」, 『백산학보』 110, 백산학회.

27 오강원, 2018, 「西豊縣 西岔溝 고분군의 문화적 성격과 계통-토기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8, 호남고고학회.

28 李殿福, 1985, 앞의 글.

29 오강원, 2018, 앞의 글.

30 오영찬, 1999, 앞의 글.

31 李種洙, 2004, 앞의 글.

32 김동일, 2024a, 『고고학 연구방법론 '문화유형 설정법'의 제언-동아시아 청동기문화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40회 유라시아문명사연구회 정기발표회 발표자료집.

반 주민이 만든 일부 기종의 토기에 음식이 담겨서 무덤에 부장된 것이므로, 무덤 출토 토기로 서차구 유적 조성 집단의 정체성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이때까지의 연구는 정식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되기 이전의 한정된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문제점도 있다. 2023년부터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접근이 시도된다. 그 첫 번째는 이종수가 해제한 발굴조사 보고서의 내용이다. 그는 「미완의 발굴, 풀지 못한 수수께끼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西豐 西岔溝-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라는 제목으로 발굴조사 보고서를 해제하였고, 그 안에는 서차구 유적의 도굴과 훼손,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난제들이 모두 소개되어 있다.³³ 두 번째 연구는 박양진의 연구이다. 그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체 자료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전반적인 검토 결과 오환이 아니라 부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³⁴ 이종수와 박양진의 연구는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이후에 진행된 연구이고, 이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서차구 유적은 부여 혹은 오환이 조성한 공동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서차구 유적은 조사 이전에 훼손이 상당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유물도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서차구 유적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흉노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부여로 전환된 후, 오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다시 부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서차구 유적 출토 청동기와 철기의 현황을 간략히 분석하고, 이어 몇몇 특징적인 유물의 용도와 유입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몇몇 특징적인 유물에 대해 용도와 명칭이 잘못 알려진 것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금속기 중 중원 습속과 내세관을 반영하는 유물을 통해 서차구 유적의 정체성을 추론하고자 한다.

33 이종수, 2023, 「미완의 발굴, 풀지 못한 수수께끼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西豐 西岔溝-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동북아역사논총』 81, 동북아역사재단.

34 박양진, 2023, 「랴오닝 시핑 시차거우(西岔溝, 서차구) 유적의 초보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2023-3, 한국고고학회.

II. 서차구 유적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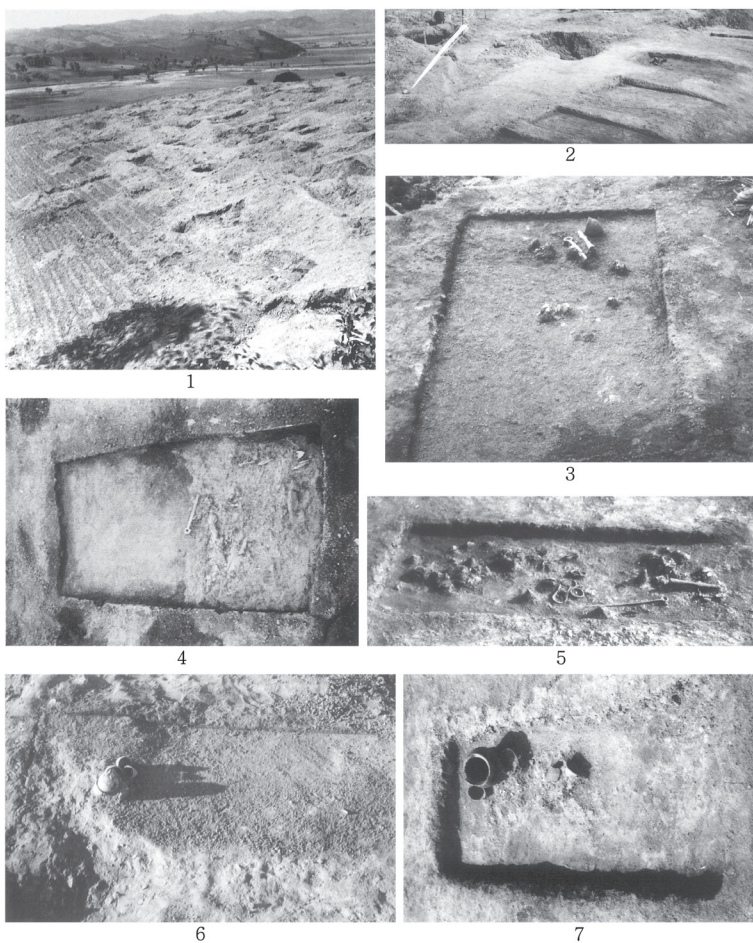
1. 조사와 연구에서의 문제점

서차구 유적의 경우 국내의 보편적인 유적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차구 유적은 1956년에 조사되었지만 20세기 중반에 다수의 도굴로 인해 부장된 유물이 무덤 조성 당시에 안배되었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 도굴된 모든 유물이 완전히 회수되지도 않았다. 또한 중국 발굴조사 보고서의 특성상 전체 유물이 보고되지도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도 주목할 점이 있다. 대부분의 발굴조사는 현 지표에서부터 오래된 층위로 조사가 진행된다. 이로 인해 무덤을 발굴하는 경우에는 무덤의 봉분이나 그 상부부터 조사가 시작되거나, 적어도 관 상부에서부터라도 조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서차구 유적의 경우 조사 전에 이미 도굴을 비롯하여 농사 및 자연에 의한 훼손과 파괴가 심각한 상태였다(그림 1-1). 이후의 조사는 고고학자가 인식하고 있는 보편적인 발굴조사가 아니라, 유실된 유물을 회수하고 이미 파괴된 무덤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고고학계의 보편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될 수 없었음을 의미하며, 보고된 내용은 유적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다른 유적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아 있는 무덤들 역시 대부분 삭평 및 훼손되어 무덤의 바닥면 인근 일부만 잔존하였다(그림 1-2~7). 무덤의 중상부 전체가 사라졌다는 것은 무덤 내 유물 다수가 유실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최초의 보고에서도 무덤은 최소 95%가 파괴되었고, 그중 적어도 80% 이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고되었다.³⁵ 심지어 무덤의 한쪽 측면이 조사 이전에 사라진 경우도 다수이고(그림 1-2), 잔존 높이가 몇 cm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그림 1-6). 즉,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유물은 서차구 유적에 부장된 전체 유물이 아니며, 다수의 유물이 유실되고 남

35 孫守道, 1957, 앞의 글, 54쪽.



1. 수습조사 전 상황 2. 제74수습구역(K74) 3. M62 4. M45 5. M59 6. M55 7. M53

그림 1 서차구 유적 진존 상태(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수정 후 전제)

은 유물과 회수에 성공한 유물만 보고된 것이다.

문제는 서차구 유적이 1950년대 조사된 이래 발굴조사 보고서의 미발간의

로 인해 한국학계와 중국학계가 유적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1957년과 1960년의 두 보고문에서는 사진과 도면을 모두 포함하여도 전체 분량이 14쪽에 불과하였고,³⁶ 한국학계와 중국학계는 이 한정된 자료만으로 서차구 유적을 바라보아왔다. 서차구 유적에 대해서는 유적 전체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에 정상적으로 발굴조사된 다른 유적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왔고,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이 실제 부장품의 대부분이라 착각하여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도 도면이나 사진이 제공되지 않은 유물이 다수이고,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유적이 파괴되어 유적에 대한 각종 정보가 상당히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차구 유적은 다른 유적과 달리 출토품의 구성에 대해서 누락된 것을 인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종이 출토된다면 실제로는 해당 기종의 부장 사례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유적에서는 짝을 이루어 출토되는 기종이 서차구 유적에서는 짝을 이루지 않는다면 도굴이나 훼손으로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서차구 유적에 대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은 유물이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2. 출토 금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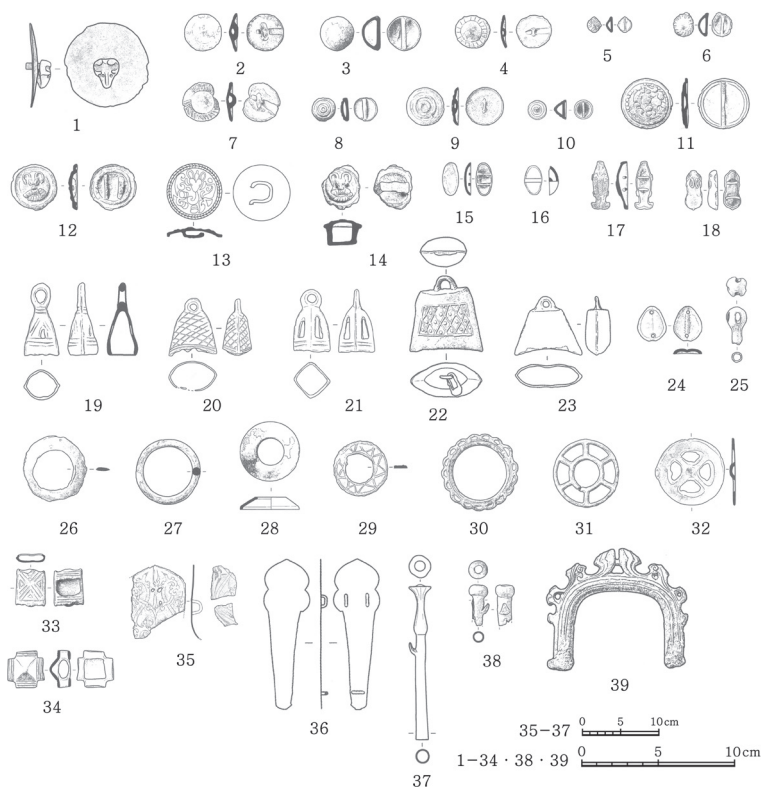
서차구 유적에서는 다종다양한 청동기가 출토된다(그림 2-4). 농공구류로는 동부(銅斧)와 동도(銅刀)가 출토되었고, 무기류로는 동검(銅劍), 동모(銅鉞), 동촉(銅鏃)이 출토되었다. 동촉의 경우, 양익유경동촉과 삼익유공동촉, 삼릉유경동촉, 유공동촉(管鑿銅鏃) 등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차마구류로는 동편관(銅扁管)과 절약(節約), 동당로(銅當盧), 동개궁모(銅蓋弓帽) 등이 출토되었는데, 일부 단추 장식은 절약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6 孫守道, 1957, 위의 글; 孫守道, 1960, 앞의 글.



1, M6 2, Z27 3, Z161 4, Z10 5, Z186 6, M36 7, M32 8, M63 9, M121 10, 考4035-15
 11, Z76 12, Z2 13, K45-235 14, K60-462 15, Z149 16, Z38 17, Z14 18, Z118 19, Z84 20, M12
 21, Z26 22, Z163 23, M12 24, Z14 25, Z2 26, Z35 27, Z183 28, Z152 29, Z164 30, M15

그림 2 서차구 유적의 청동기 1



1, M12(금박) 2, M15 3, Z129 4, Z14 5, 考3964-1 6, 考4065-40 7, M15 8, 考3957-n
9, 考4061-1 10, M45 11, K42-272 12, K60-464 13, Z59 14, K61-471 15, M4(금박) 16, M4
17, M45 18, M45 19, M13 20, 考4054-6 21, 考3968-6 22, Z113 23, M17 24, Z38
25, Z24 26, M16 27, Z14 28, 考4052-1 29, M63 30, Z103 31, Z182 32, M15 33, Z194
34, Z3 35, Z3 36, Z95 37, 考3981,2 38, 考4067-1 39, Z183

그림 3 서차구 유적의 청동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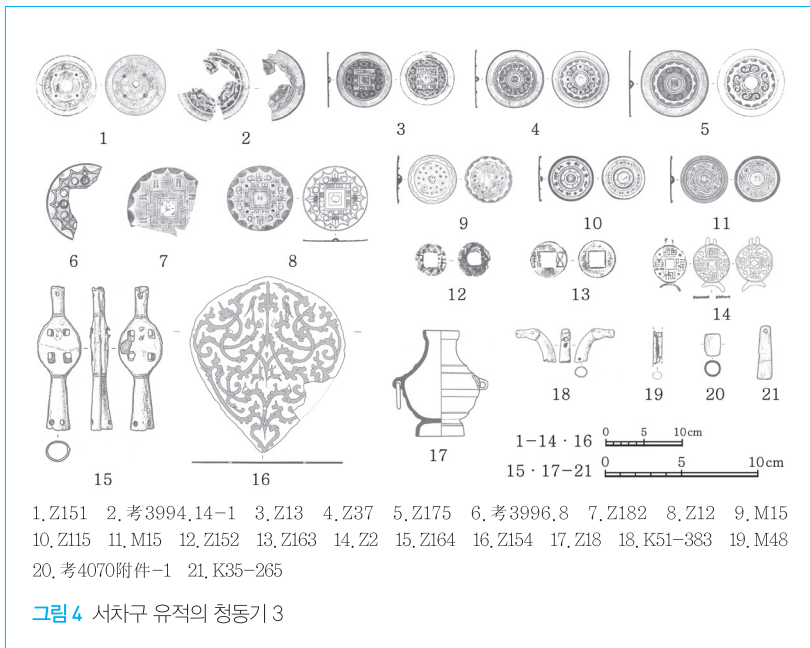
복식 및 장신구류로는 패식(牌飾)과 요대장식(腰帶裝飾), 작형동대식(勺形銅帶飾), 동추식(銅墜飾), 바클형 대구(銅帶扣), 고리형 대구(銅帶鉤), 청동 단추(銅泡), 이중 뉴의 마차 장식품, 동패(銅貝), 동령(銅鈴), 동환(銅環), 동륜(銅輪), 동이식(銅耳飾) 등이 출토되었다. 주의할 점은 요대장식이 패식으로 보고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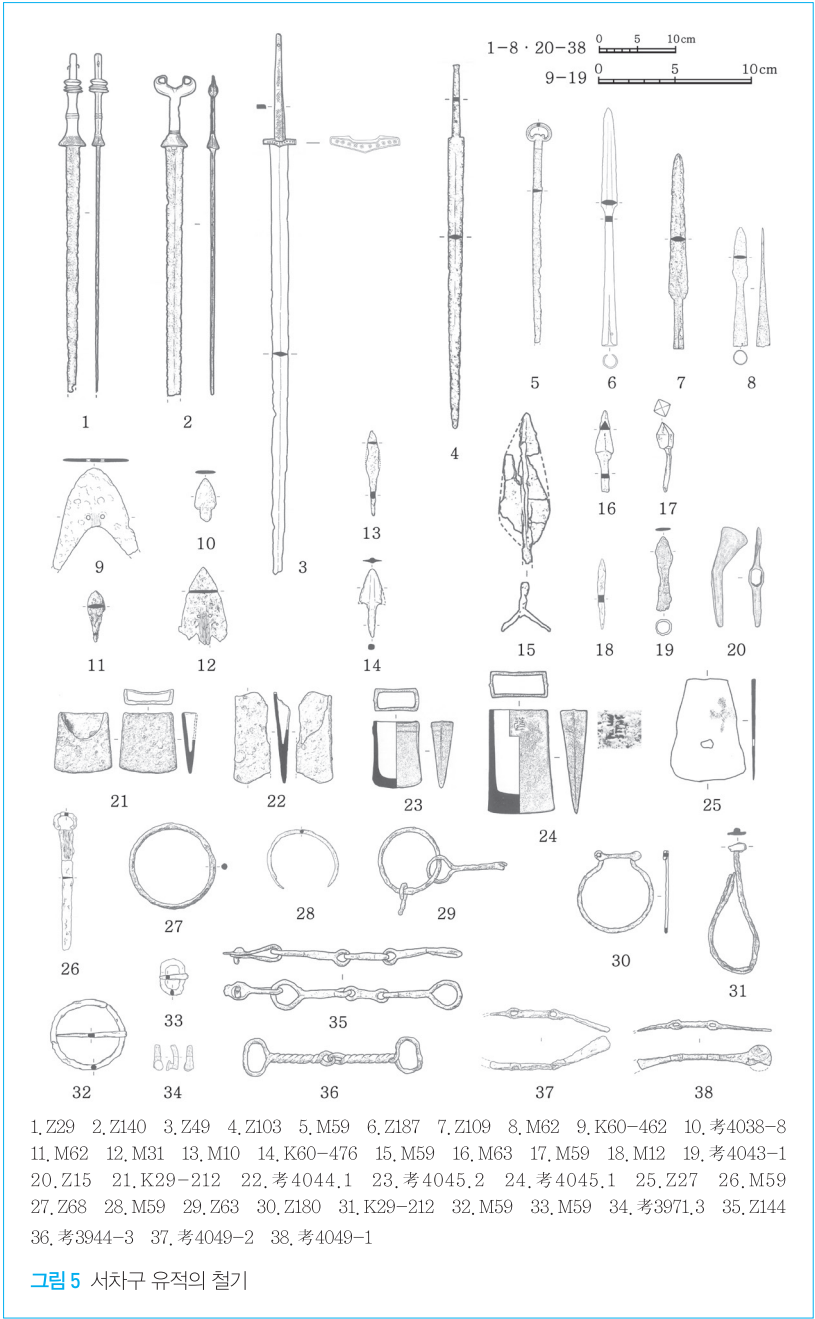
고, 이중 뉴의 마차 장식품은 단추 장식 등으로 보고되었다는 점이다. 이중 뉴의 마차 장식품은 Ⅲ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동경은 반리문경(蟠虺紋鏡)과 반휘문경(蟠虺紋鏡), 사리문경(四虺紋鏡), 사휘문경(四虺紋鏡), 화엽문경(花葉紋鏡), 초엽문경(草葉紋鏡), 성운문경(星雲紋鏡), 일광명문경(日光銘文鏡) 등 다양한 형식이 확인된다. 이 외에 화폐로 일화원전(一化圓錢)과 반량전(半兩錢), 오수전(五銖錢) 등이 출토되었다.

서차구 유적 출토 철기로는 농공구류로 철부(鐵斧)와 철분(鐵鏟), 철서(鐵鋤), 철도(鐵刀), 철제 곡갱이(鐵鶴嘴斧)가 출토되었으며, 곡갱이는 무기로 보고되었지만 이 글에서는 기능성에 주목하여 농공구류로 분류하였다.

무기류로는 철장도(鐵長刀)와 동병철검(銅柄鐵劍), 철제 장검신, 중원식 철검(中原式 鐵劍), 중원식 철검의 검신, 철모(鐵矛), 철촉(鐵鏃) 등이 출토되었다. 철촉은 무경편평철촉(無銚扁體鐵鏃)과 유경편평철촉(扁體扁銚鐵鏃), 유경철촉





(有脊柱鋌鐵鏃), 삼익철촉(三翼鐵鏃), 삼릉철촉(三稜鐵鏃), 사릉철촉(四稜鐵鏃), 유공철촉(管鑿鐵鏃) 등 다양한 형식이 확인된다.

복식 및 장신구류로는 철환(鐵環), 철제 바클형 대구(鐵帶扣), 철제 고리형 대구(鐵帶鉤), 철제 단추(鐵泡) 등이 출토되었고, 차마구류로는 철함(鐵銜)과 철표(鐵鑣)가 출토되었다.

이 외에 취기(炊器)와 철제 형벌 도구가 출토되었다. 철제 형벌 도구의 경우, 鐵帶扣로 보고되었는데 이 문제는 Ⅲ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서차구 유적의 철기(그림 5)는 청동기를 대체하는 목적보다 다른 용도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제작 및 유입된다. 그 근거로는 첫째로 청동기와 철기의 규격 차이가 있다. 실제로 서차구 유적 출토 철기(그림 5)는 청동기(그림 2~4)보다 더 큰 규격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둘째로 기종별 현황 차이가 있다. 금속제 차마구 중 함과 표는 철제로만 제작되고, 형벌 도구 역시 철제로 제작된다. 소도(小刀)의 경우, 사용 시 철제와 청동제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철제 소도는 극히 일부 사례만 확인되고, 대부분 청동제로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은 단추 장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추 장식은 극히 일부만 철제로 확인되고 대부분 청동제로 확인된다. 이 외에 거울류 등 철제로 제작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기종은 청동제로만 제작된다.³⁷

이로 보아, 서차구 유적에서는 철기와 청동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제작 및 유입되며, 일부의 사례에서만 청동기를 철기로 대체한 현상이 확인된다.

3. 중원계 금속기에 대한 인식

서차구 유적에서는 다양한 계통의 청동기와 철기가 확인된다. 특히, 유목 문화와 중원 문화의 기종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 절에서는 중원계 청동기와 철기

37 예외 사례로 철촉이 존재한다. 촉은 철제와 청동제 모두 다종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되므로 기종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촉 역시 철제로 만든 경우 일부 대형의 규격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용 목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무기류를 살펴볼 수 있다. 서차구 유적에서는 철제 장검류와 확인되는데, 이전 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철기류는 농공구류 중심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무기를 철제로 만든다거나, 기존의 도구보다 길이가 훨씬 긴 길이의 도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철기 등장 이전의 금속기는 주로 청동제로 제작되는데, 청동기는 재질의 한계로 인해 대형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대형으로 만들어진 청동기는 합금의 성분비에 따라 쉽게 휘어질 수 있으므로 청동기시대 동아시아의 기술로는 완성된 제품이 대체로 30~40cm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제 장검류의 등장은 중원 문화의 영향(중원식철검)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그림 5-3). 다만, 동병철검의 수량 역시 적지 않으므로 기술의 재지화를 추측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중원계와 구분해볼 수 있다.

동병철검은 철제 검신을 먼저 주조한 후, 그보다 녹는점이 낮은 청동제 검병을 연주(連鑄)하는 방식이다(그림 6). 즉, 검병이 파손되었거나, 혹은 목제로 검병을 만들거나, 검신만 제작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제 검신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서차구 유적에서는 다수의 철제 검신이 확인되는데, 그중에는 부여의 동병철검 전용의 철제 검신이 포함된다고 추측한다.³⁸

다른 무기류로 중원식동모와 삼릉형 철정 동촉 역시 중원계 유물이다. 복식 및 장식구류로는 바클형 대구와 곡봉형(고리형) 대구, 전형동패식 및 한경이 있다. 그중 한경은 서한 전기의 반리문경과 반훼문경 등에서 서한 후기의 일광경과 사유사훼문경 등 다양한 형식이 나타난다. 이것은 중원으로부터의 물자 유입이 단발적인 유입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차마구류로 곱형 장식품(절약용)과 이중 뉴의 마차 장식품, 함, 표, 개궁모, 당로 등이 있다. 이 외에 중원의 화폐와 철제 농공구가 있다.

38 청동 손잡이만 분리하여 고철상에 판매한 경우도 존재하므로(이종수, 2023, 앞의 글, 500쪽), 회수된 철제 검신 중에서는 원래의 형태가 동병철검인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동병철검 주조 가상 예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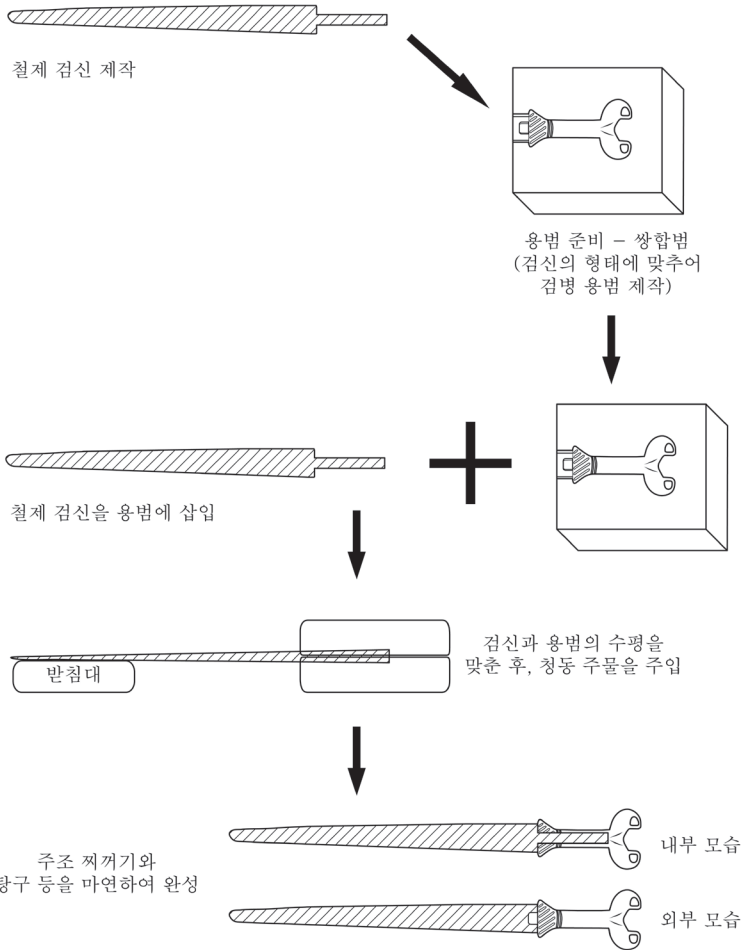


그림 6 동병철검 제작 모식도(이청규·김동일, 2013 수정 후 전제)

다만 철제 농공구의 경우, 전국시기에 이미 고조선에 의해 중국 동북지역으로의 유입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자체 제작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필자의 이전 연구에 의하면 철제 농공구는 전국시기에 이미 민간 제작자와 민간 유통자가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중원의 주변 지역으로 제작 기술 및 제품이 유통되었다.³⁹ 이로 보아 철기 제작 기술 및 제품의 확산은 부여 등장 이전부터 존재하였기에 모든 사례가 중원에서 제작된 것인지는 현재의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정리하자면, 서차구 유적에서는 유목 문화의 유물이 다수 존재하지만 중원의 유물 역시 다수 존재하며, 중원의 유물은 단발적인 유입이 아니라 서한시기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I. 중원의 습속 자료

1. 중원 제후 무덤 부장용 마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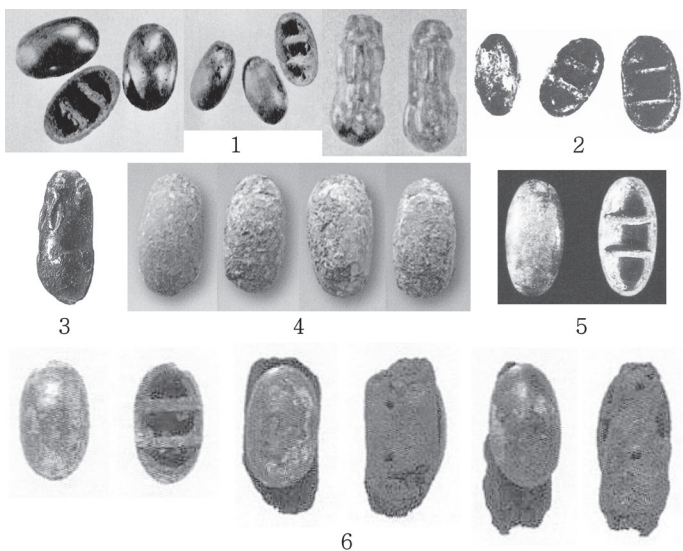
필자의 이전 연구에 의하면, 이중 뉴의 마차 장식품(그림 7)과 곰형 장식품(절약용)(그림 8)은 중원에서 왕급 제후들이 사용하는 마차의 장식품이다.⁴⁰ 이중 뉴의 마차 장식품은 서차구 유적에서도 다량으로 확인된다(표 1).

곰형 장식품은 인간의 복식 등을 치장하는 것과 말에게 절약으로 사용하는 것 등 용도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용도의 차이는 뒷면의 구조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원에서는 뒷면의 구조가 절약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그림 8), 흉노에서는 단추와 같은 구조의 단추 장식이 대부분이다.⁴¹ 앞서 설명

39 김동일, 2022, 「철제 농공구를 통해 본 다호리유적 - 중국에서의 유입과정을 중심으로 -」, 『고고광장』 30, 부산고고학회.

40 김동일, 2024b, 「어은리 출토 장식품으로 본 진한(辰韓)과 진한(秦漢)의 교류-간접적 연결에서 시장의 형성으로-」, 『한국상고사학회』 124, 한국상고사학회.

41 출토 현황을 고려할 때, 곰형 장식품 중 복식용은 흉노나 서차구 유적을 조성한 집단이 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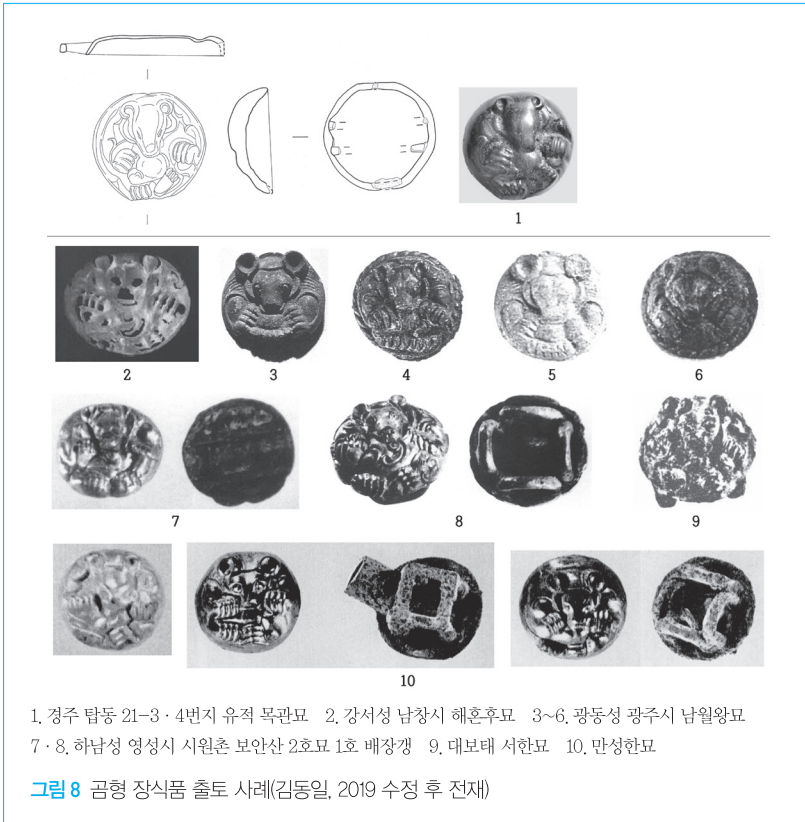
1. 만성한묘 2. 대보테 서한묘 3. 남월왕묘 4. 강둔한묘 41호 무덤 5. 평양묘장 107호 무덤 6. 석암리 9호분

그림 7 이중 뉴의 마차 장식품 출토 사례(김동일, 2024b)

〈표 1〉 서차구 유적 이중 뉴의 마차 장식품 출토 사례

출토 유구	출토 사례	공반 유물 및 비교
M4	무문양 이중 뉴 1점	무문양 일중 뉴, 토제 잔(陶杯), 동축, 철촉 등
M31	물고기형 이중 뉴 1점	철도자, 철촉, 각종 청동단추 등
M45	무문양 이중 뉴 6점, 토끼형 이중 뉴 6점, 물고기형 이중 뉴 4점	각종 청동단추, 철도자, 석촉 등
K57-370	토끼형 이중 뉴 1점	수습
K60-463	무문양 이중 뉴 2점	수습
K69-504	토끼형 이중 뉴 1점	수습
K74-632	무문양 이중 뉴 1점	수습
Z32	무문양 이중 뉴 4점	동축(4점), 동령(2점), 청동단추(11점) 등

Z39	무문양 이중 뉴 2점	토제 환(1점), 동축(13점), 동령(1점), 청동 단추(38점), 작형동대식(1점), 동환(3점), 철모(1점), 철촉(7점) 등
考4060-3	무문양 이중 뉴 1점	
考4060-5	무문양 이중 뉴 1점	
考4060-6	무문양 이중 뉴 1점	
考3963-2~5	토끼형 이중 뉴 4점	
考4062	토끼형 이중 뉴 10점	
考3963-1	물고기형 이중 뉴 1점	
考4060	무문양 이중 뉴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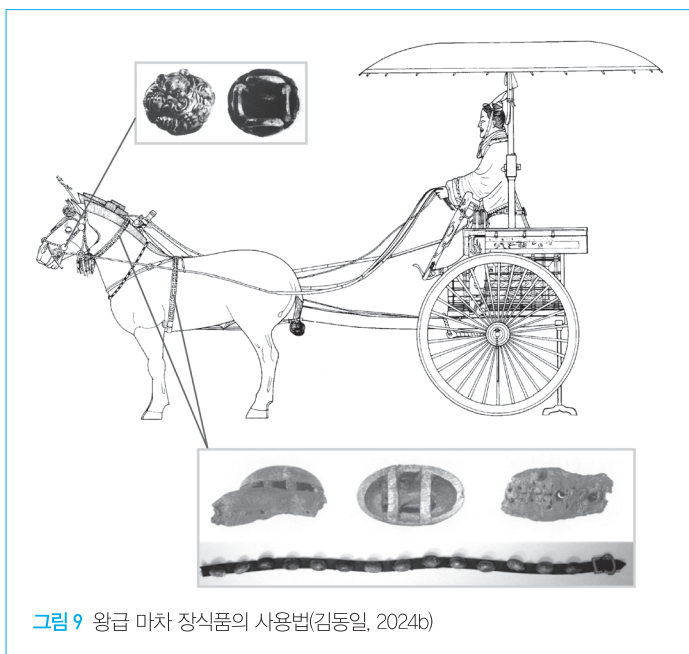


그림 9 왕급 마차 장식품의 사용법(김동일, 2024b)

하였듯이, 이중 뉴의 마차 장식품과 조합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중원에서는 왕급 제후의 무덤에서만 출토되기 때문에 왕급 마차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⁴²

서차구 유적에서도 다수의 곱형 장식품이 확인된다. 출토 사례로는 K42-273과 K50-353, K60-464, K61-471 출토품이 있다. 이 장식들의 사용 위치를 복원하면 <그림 9>와 같다.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서차구 유적에서는 왕급 마차 장식품이 여러 유구에서 확인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서차구 유적의 몇몇 피장자가 중원의 왕급 제후에 준하는 존재로 대우받았거나, 혹은 실제로 다수의 최고위 수장들이 서차구 일대에 무덤이 조성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중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의미한다.

42 김동일, 2024b, 위의 글.

둘째, 서차구 유적 출토 곰형 장식품은 중원의 것뿐만 아니라 흉노의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 곰형 장식품은 이우섭에 의해 흉노에서 기원하였다는 주장이 있다.⁴³ 그러나 흉노의 사례 다수가 채집품이므로 중원 출토품보다 이른 시기의 것을 찾기 어렵고, 중원 출토품과 한반도 출토품은 흉노 출토품과 달리 바깥쪽에 테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흉노보다 이른 시기에 중원에서 먼저 출현한다는 지적이 있다.⁴⁴ 또한 몽골 투브 아이막 바얀차간 솜에 위치한 치헤르틴 저 흉노무덤(묘지) 출토품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속하지만, 이 묘지 자체가 기원전 2세기대에 속하고 그 이전으로 연대가 상향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런데 서차구 유적에서는 바깥쪽에 테가 있는 곰형 장식품이 존재하므로, 서차구 유적의 피장자들과 흉노 간(이불가와 테레스투이 유적 등)의 교류가 존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곰형 장식품은 흉노에서 유입되었거나, 아니면 역으로 서차구 일대에서 흉노로 유입되었다고 추측한다. 이 사례에는 곰형 장식품 중 복식용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해당된다.

셋째, 이중 늑의 마차 장식품은 중원과 유사한 사례가 있으며, 서차구 유적에서만 발견된 사례도 있다. 무문양인 것과 토끼형인 것은 중원에서 이미 출토된 사례가 있다. 반면, 물고기형은 현재까지 서차구 유적에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일부 제품의 재지화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종합하면, 서차구 유적에서는 흉노의 물질자료도 존재하지만, 중원에서 제작된 유물 역시 적지 않게 존재한다. 특히, 중원 제후 왕급이 사용하는 물자가 다수 확인되며, 이것은 서차구 유적의 피장자들에 대한 지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⁴⁵

43 이우섭, 2021, 「삼한의 동물형 장식구와 금속제 복(鍔)」, 『고대 한국의 외래계 문물-다름이 만든 다양성』,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도록.

44 김동일, 2024b, 앞의 글.

45 서차구 유적에서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중원이 현도군을 통해 부여의 수장층에게 옥갑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있다.

2. 죄수의 무덤, 무덤 내 죄수

이 절에서는 중원의 마차 장식품 이외의 자료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용도가 잘못 알려진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진한(秦漢)계 형벌 도구 사례 검토

중원의 죄수를 구분할 수 있는 고고자료로는 대표적으로 형도전(刑徒磚)과 형벌(刑罰) 도구(道具)가 있다. 형도전은 건물의 벽돌 중 사용하고 남은 것 등을 이용하여 죄수에 관한 기록을 새겨 놓으며, 사망 일시와 묘지의 매매계약서인 매지권(買地券)에 대한 내용이 있다. 1기의 무덤에 형도전 2개를 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1개 혹은 3개 이상의 형도전을 부장하는 경우도 있다.

형벌 도구는 연구자에 따라 ‘형구(刑具)’라는 약칭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형벌 도구로는 목에 채우는 철검(鐵鉗), 그리고 발에 채우는 철지(鐵輕)와 철채(鐵鈇) 등이 있다. 철검은 중국 고고·역사학계의 용어이고, 일본 고고·역사학계에서는 수가(首枷)라고 지칭한다. 철지 역시 중국 고고·역사학계의 용어이고, 일본 고고·역사학계에서는 족가(足枷)라고 지칭한다. 국내 고고·역사학계에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하다. 다만, 도미야 이타루(富谷 至)의 『古代中國の刑罰』이 국내에 번역되어 『유골의 증언-古代中國의 刑罰』로 소개되어 있으며,⁴⁶ 이것이 유일한 국내 자료이다.⁴⁷

근현대의 형벌 도구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지만, 고대의 형벌 도구는 종류가 많지 않다. 현재 알려진 도구로는 앞서 언급한 철검과 철지 등이 있다. 철검의 경우, 국내 고고학계에서는 철검(鐵鉗)과 철검(鐵鎌)의 음독이 같기 때문에 ‘철검’으로 지칭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목에 차는 형벌 도구를

46 도미야 이따루 저, 임병덕·임대희 역, 1999, 『유골의 증언-古代中國의 刑罰』, 서경문화사.

47 형벌 자체에 대한 연구는 국내 역사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고대의 형벌 도구에 대한 접근은 전무하다.

고대에는 ‘칼’이라 칭하였기에 ‘철검(鐵鉞)’을 ‘쇠칼’이라 지칭하고자 하며, ‘철지(鐵輕)’와 ‘철채(鐵鈇)’, ‘철각료(鐵脚鐮)’는 ‘쇠족쇄’라 칭하고자 한다. 덧붙여 현대 중국에서 ‘철검(鐵鉞)’과 ‘철지(鐵輕)’, ‘철채(鐵鈇)’ 등은 모두 집게(혹은 펜치 등)를 지칭하므로, 이 용어가 고대의 용어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벌 도구는 중국학계에서 다양한 한자명으로 보고되었기에 이 글에서는 오해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하여 각 유적마다 보고문에 기재되었던 형벌 도구의 한자명과 그에 해당되는 한글명을 병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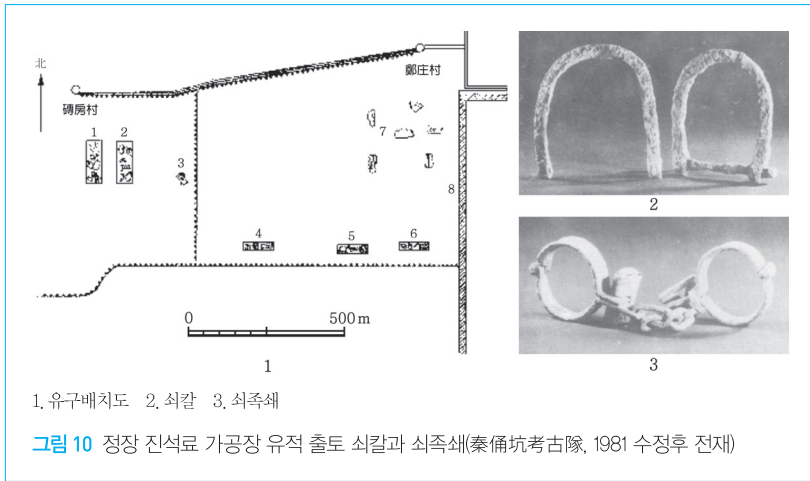
형벌 도구는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이다. 자유를 구속하거나, 혹은 단발적인 고통을 주거나, 지속적인 고통을 주기도 한다. 즉, 형벌 도구는 형벌의 형태에 따라 형벌 도구의 형태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쇠칼과 쇠족쇄의 사례를 통해 고대의 형벌 형태를 추정하고자 한다.

형벌 도구가 출토된 유적에는 서안(西安) 정장 진석료 가공장(鄭庄秦石料加工場) 유적과 서안 강촌대묘(江村大墓) 유적, 함양(咸陽) 한양릉(漢陽陵) 형도묘지(刑徒墓地), 정주(鄭州) 동수촌(桐樹村) 교장, 정주 고형(古榮) 교장, 역현(易縣) 연하도(燕下都) 유적, 서풍(西豐) 서차구(西岔溝) 유적 등이 있다.

서안 정장 진석료 가공장 유적은 섬서성(陝西省) 서안시 임둥구(臨潼區) 정장촌(鄭庄村) 일대에 위치하고, 진시황릉의 서북쪽 모퉁이에 500m 이내로 인접하고 있다(그림 10-1). 이 유적은 진시황릉의 석재 가공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통일 진대(秦代)에 속하고 기원전 3세기 말에서 기원전 2세 초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적의 동쪽 구역에서는 쇠칼(鐵鉞) 9점과 쇠족쇄(鐵輕) 1점이 출토되었으며,⁴⁸ 개별 유구의 존재는 불분명하다(그림 10-2~3).

정장 진석료 가공장 유적 출토 쇠칼은 2개의 규격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길이 16~22cm, 너비 1.5~2.6cm, 두께 0.5~0.8cm, 쇠칼 내부 공간 10~16cm이다. 두 번째는 길이 18cm, 너비 2cm, 두께 0.8cm, 쇠칼 내부 공간

48 秦俑坑考古隊, 1981, 「臨潼鄭庄秦石料加工場遺址調查簡報」, 『考古與文物』 1981-1.



9~12cm이다. 즉, 사람의 목이 들어가는 쇠칼의 내부 공간은 9~12cm 정도로 매우 좁다. 쇠족쇄는 전체 길이 38cm, 너비 3cm, 두께 1cm, 직경 8cm이며, 2개의 쇠족쇄 사이에 쇠사슬이 연결되어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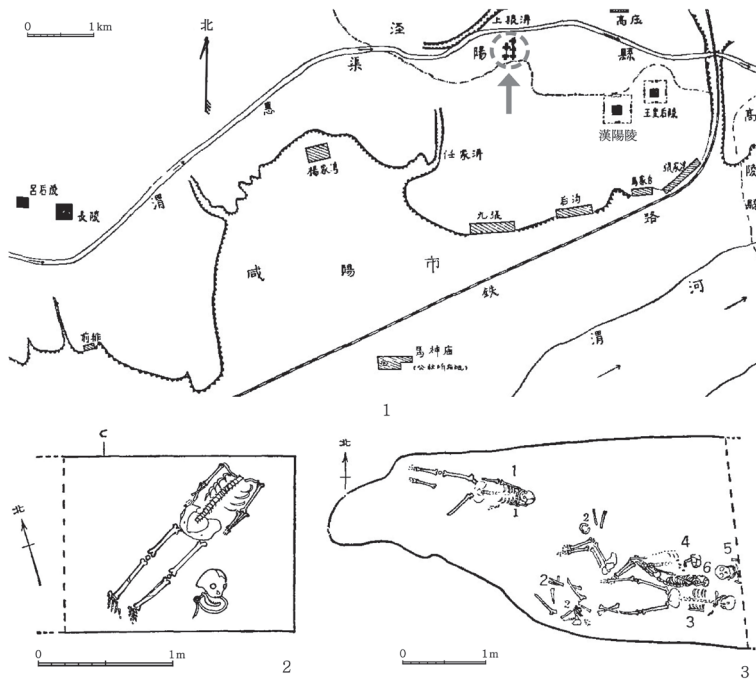
서안 강촌대묘 유적은 섬서성 서안시 파교구(灞橋區) 강촌(江村) 일대에 위치한다. 강촌대묘는 서한(西漢)의 5대 황제인 문제(文帝) 유항(劉恒)의 무덤이며, 그는 기원전 157년에 사망하였다. 강촌대묘는 아직 정식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21년도 전국 10대 고고 신발견(2021年度全國十大考古新發現)’을 통해 알려진 유적이다.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강촌대묘는 여러 유구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외장갱에서 다량의 도용(陶甕)이 발견되었다(그림 11-1). 27호갱에서는 형벌 도구를 찬 형도용(刑徒甕)이 발견되었으며, 형도용에는 쇠칼(鐵鉗)과 쇠족쇄(鐵輕)가 채워져 있었다(그림 11-2~3).

함양 한양릉 형도모지는 섬서성 함양시(咸陽市) 위성구(渭城區) 상랑구촌(上狼溝村) 일대에 위치한다. 한양릉은 서한의 6대 황제인 경제(景帝) 유계(劉啓)의 무덤이며, 그는 기원전 141년에 사망하였다. 경제의 무덤은 그의 황후 무덤과 비교적 나란히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의 무덤에서 서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1. 형도용 2. 쇠칼 확대 3. 쇠족쇄 확대

그림 11 강촌대묘 유적 외장갱 출토 형도용(趙玉國, 2022 수정 후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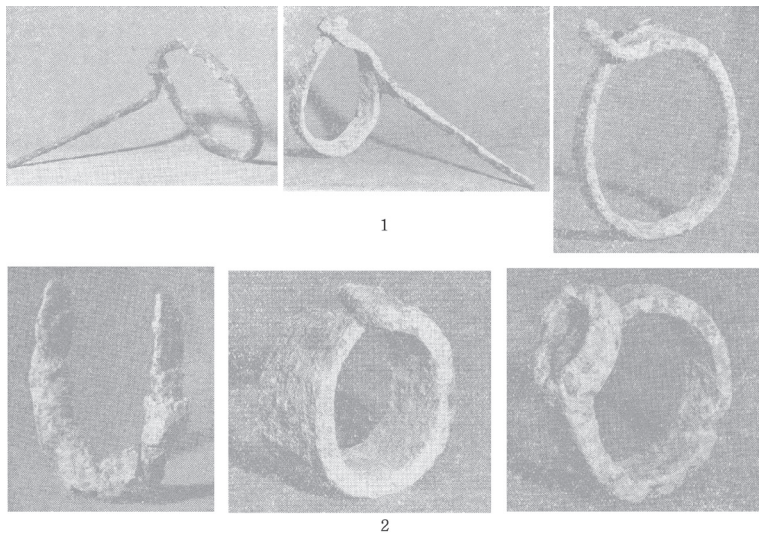


1. 유적 위치 2. 1호묘 3. 2호묘

그림 12 한양릉 형도묘지의 유적 위치 및 유구 도면(秦中行, 1972 수정 후 전재)

진 지점에 형도묘지가 있다(그림 12-1). 형도묘지에는 2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다(그림 12-2~3). 1호묘에서는 1기의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목이 잘린 참수형을 당하였으며, 잘린 목에는 쇠칼(鐵鉗) 1점이 채워져 있었다.⁴⁹ 2호묘에서는 6기의 인골이 발견되었고, 1호 인골의 목에 쇠칼(鐵鉗) 1점이 채워져 있었으며, 2호 인골과 4호 인골의 발 근처에서 쇠족쇄(鐵鈐)가 각각 1점씩 발견되었다.⁵⁰ 함양 한양릉 형도묘지 출토 쇠칼은 직경 17~24cm이고, 무게는 1.15~1.6kg이다. 쇠족쇄는 직경 9.5cm이고, 무게는 0.82~1.1kg이다(그림 13).

정주 동수촌 교장은 하남성(河南省) 정주시(鄭州市) 고흥진(古滎鎭) 동수촌



1. 쇠칼 2. 쇠족쇄

그림 13 함양릉 형도묘지 출토 형벌 도구(秦中行, 1972 수정 후 전제)

49 秦中行, 1972, 「漢陽陵附近鉗徒墓的發現」, 『文物』 1972-7.

50 秦中行, 1972, 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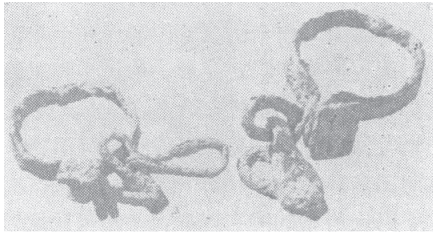


그림 14 동수춘 교장 출토 쇠족쇄(謝遂蓮, 1981 수정 후 전제)

에 위치하며, 보고자는 유적의 연대를 통한 말기로 추정하였다.⁵¹ 교장에서는 쇠갈(鐵鉗)과 쇠족쇄(鐵脚鐐)뿐만 아니라, 철부(鐵斧), 철착(鐵鑿), 철추(鐵錘), 철등(鐵燈), 오수전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쇠갈의 규격은 직경 약 13.5cm이고, 쇠

족쇄는 직경 약 9cm이다(그림 14). 이 외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1점의 쇠족쇄 외에는 도면이나 사진도 보고되지 않았다.

정주 고형 교장은 하남성 정주시 고형진 동수춘에 위치하며, 보고자는 유적의 연대를 통한 말기로 추정하였다.⁵² 교장에서는 쇠족쇄(鐵脚鐐)가 출토되었고, 이외 철리(鐵梨), 능형리경(菱形梨鏡) 등도 공반되었다. 쇠족쇄의 규격은 직경 약 8cm인 것과 약 9cm인 것이 있다. 이 외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도면이나 사진도 보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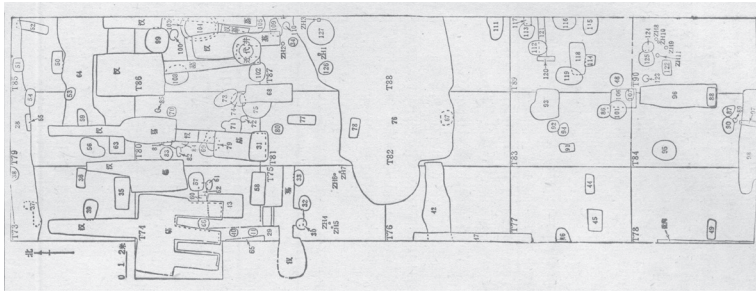
역현 연하도 유적은 하북성(河北省) 보정시(保定市) 역현 고맥향(高陌鄉) 일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연하도는 연(燕)나라의 도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도성 내부에는 여러 공방(作坊)이 존재한다. 그중 무양대촌(武陽台村) 서북(西北) 21호 공방의 67호 수혈(W21T82②H67)과 3호 수혈(W21T8①H3), 36호 트랜치(W21T36③)에서는 형벌 도구가 출토되었다(그림 15-1).

67호 수혈은 바닥이 부정형으로 울퉁불퉁한 형태이고, 동서 길이 1.07m, 남북 길이 0.91m, 잔존 깊이 0.2~0.38m이다.⁵³ 출토 유물은 형벌 도구 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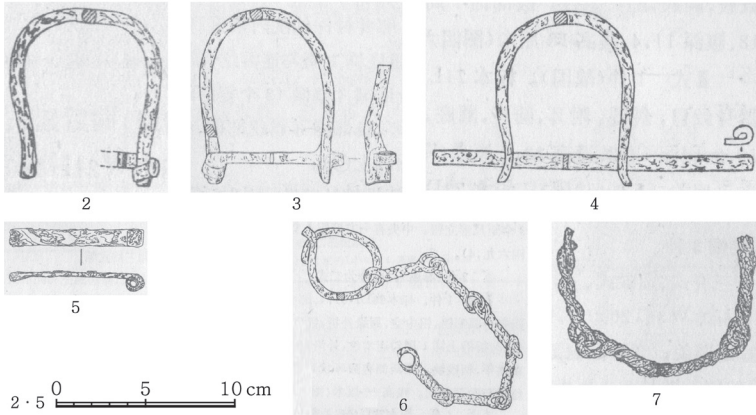
51 謝遂蓮, 1981, 「鄭州市郊發現漢代鐵刑具」, 『中原文物』 1981-1.

52 謝遂蓮, 1981, 위의 글.

53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燕下都』, 文物出版社.



1



1. 유구배치도 2. 67호 수혈 3. 동두성촌 채집 4. 무양대촌 채집 5. 3호 수혈 6. 서침촌 채집 7. 6호 트렌치(3~4·6~7. 축적 불명)

1. 유적 배치도 2~5. 쇠칼 6~7. 쇠족쇄

그림 15 연하도 유적의 유구 배치도와 형별 도구(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수정 후 전재)

투구편(冑甲片)과 철모, 철도, 숫돌 등이 있으며, 유적의 연대는 보고자가 전국 후기로 보고하였다.⁵⁴

주목할 점은 유구의 중복 관계이다. 67호 수혈은 76호 수혈(W21T75② H76)에 의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67호 수혈은 깊이가 20~38cm만 잔존

54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위의 책.

한다. 보고자는 67호 수혈과 76호 수혈을 동시기로 판단하였다.⁵⁵ 그런데 67호 수혈에서는 다수의 유물이 존재하며, 같은 시기에 76호 수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67호 수혈을 파괴하였지만, 그 내부의 유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67호 내부에 존재하는 유물의 연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당시에는 중국 고고학계의 층위 발굴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만큼 얇은 수혈이 다른 유구와 중복되었지만 수혈 내부에 다수의 유물이 잔존한다는 점과 유구의 중복 관계가 동시기로 보기에는 선후 관계에 의심할 점이 있다는 것을 종합할 때, 67호 수혈은 후대에 76호 수혈을 파괴하면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출토된 형벌 도구는 통일 진~서한시기의 것과 유사하고, 전국 시기 유적의 바로 위층에 한대의 고위 무덤이 다수 확인되므로, 67호 유구는 통일 진 혹은 서한시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다른 사례로 3호 수혈에서도 형벌 도구가 출토되었다. 3호 수혈은 다른 유구와 달리 8호 트렌치 내부에 위치하는데, 8호 트렌치 21호 공방의 외곽에 홀로 발견되었으며, 주변에 21호 공방과 관련된 유구가 없다. 즉, 21호 공방과는 무관한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 36호 트렌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36호 트렌치는 21호 공방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으며, 유구가 아닌 트렌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후대의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 무양대촌과 동두성촌(東斗城村), 서침촌(西沈村)에서 형벌 도구가 채집되었다.

연하도에서 발견된 형벌 도구의 규격은 매우 다양하다(그림 15-2~7). 무양대촌 서북 21호 공방의 67호 수혈에서는 쇠칼(鐵鉞) 1점이 출토되었으며, 규격은 직경 10cm이다. 3호 수혈에서는 쇠칼(鐵鉞) 2점이 출토되었으며, 그중 1점은 쇠칼의 걸쇠(鐵鉤)만 출토되었으며, 길이 7.5cm, 너비 0.9cm, 두께 0.2cm이다. 36호 트렌치에서는 쇠족쇄(鐵腳鐐) 3점이 출토되었으며, 그중 1점은 족

55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위의 책.

쇄를 연결하는 쇠사슬만 발견되었고, 잔존 길이는 26cm이다. 무양대촌에서 채집(66W:0195)된 쇠칼(鐵鉞) 1점은 길이 31.8cm이고, 동두성촌에서 채집(66Y DD: 0197)된 쇠칼(鐵鉞) 3점은 규격을 알 수 없다. 서침촌에서 채집(66XSH:0198-1)된 쇠족쇄(鐵腳鎖) 3점 역시 규격을 알 수 없으며, 쇠족쇄와 연결된 사슬은 존재하지만 반대쪽 쇠족쇄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풍 서차구 유적은 요령성(遼寧省) 철령시(鐵嶺市) 서풍현(西豐縣) 악선향(樂善鄉) 집중촌(執中村) 서북 일대의 구릉 위에 위치한다. 유적에서는 3개의 유구에서 쇠칼이 출토되었고, 이 외에 1개의 채집 유물이 있다.⁵⁶ 물론, 59호 무덤(M59)과 제52수습구역(清理區) 485호 수습구덩이(清理坑)(K52-485) 등에서도 쇠칼로 추정되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훼손으로 인해 결쇠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관련 연구 자료가 증가되면 검토가 가능하다. 쇠칼은 기본적으로 환(環) 형태이고, 이와 유사한 형태가 다수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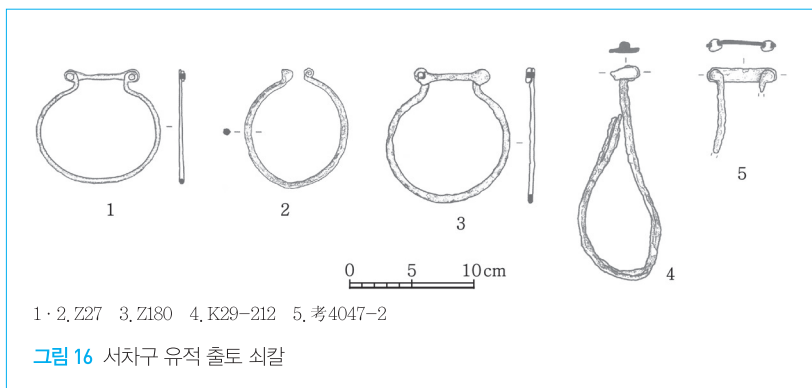
서차구 유적의 보고서에는 쇠칼을 ‘대구(帶扣)’ 혹은 ‘고리(環)’로 보고되었다.⁵⁷ 그러나 일반적인 대구보다 훨씬 큰 규격이기 때문에 대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그 형태가 쇠칼과 매우 유사하다(그림 16). 다만, 결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쇠칼이 아니라 다른 기종이기 때문에 결쇠가 확인된 사례만 쇠칼로 확신할 수 있고, 훼손으로 인해 결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성만 제기하고자 한다.

동구(東區) 제29수습구역 212호 수습구덩이(K29-212)에서는 쇠칼 1점이 출토되었다. 쇠칼은 보고서에서 철대구(鐵帶扣)로 보고되었다.⁵⁸ 그러나 그 형태는 중원의 쇠칼과 매우 유사하며, 결쇠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쇠칼로 인식해야

56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앞의 글.

57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위의 글.

58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위의 글.



한다(그림 16-4). 쇄칼은 결쇠 일부가 훼손되었고, 길이 17.5cm, 너비 7.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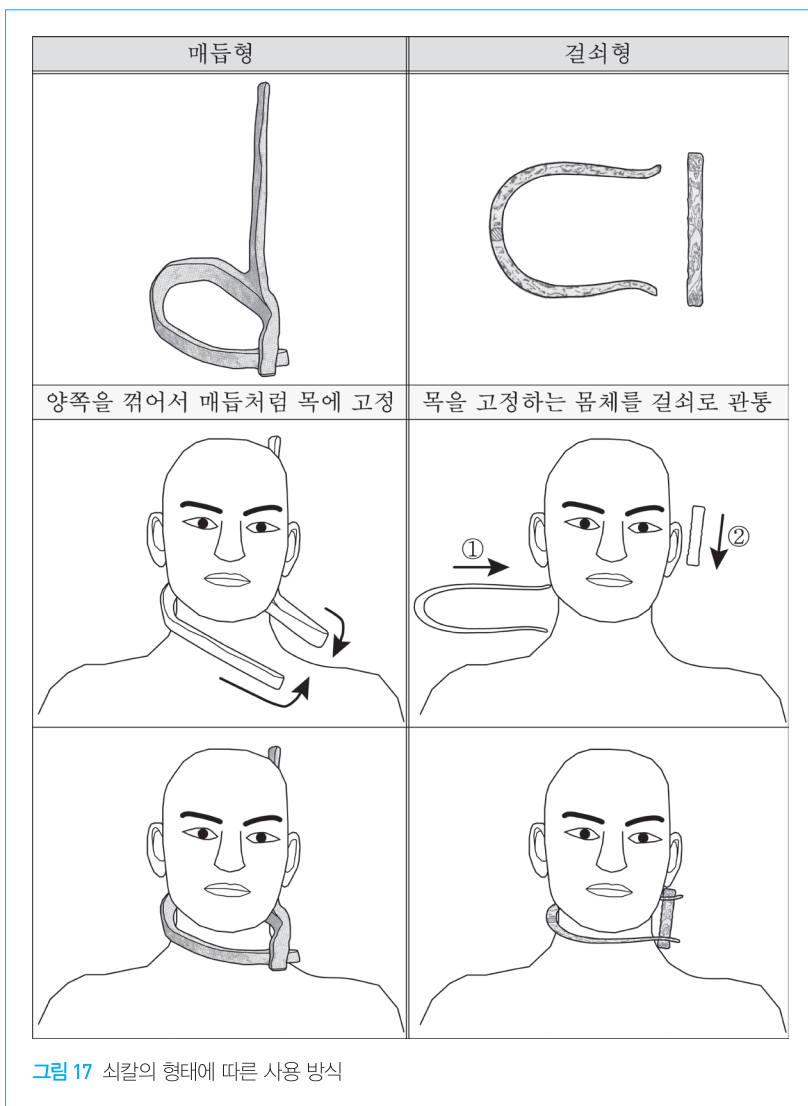
서차구 유적에서 비발굴 수습 무덤은 기호 ‘Z’가 부여된다. 그중 Z27과 Z180에서 쇄칼이 확인된다(그림 16-1~3). 다만, 다른 유구와 달리 Z27과 Z180에 대한 상세 정황은 보고되지 않았다. Z27호 무덤에서는 2개의 쇄칼이 출토되었으며, 규격은 보고되지 않았다. 쇄칼은 1인당 1개씩만 착용 가능하므로, 최소 2인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Z180호 무덤에서는 1개의 쇄칼이 출토되었으며, 규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 외에 채집된 유물(考4047-2)도 1점이 있다(그림 16-5).

혹자는 서차구 유적의 쇄칼 지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쇄칼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 보고문에서 언급한 바클형 대구로 사용하기에는 규격이 너무 크고, 구조도 다르다. 오히려 연하도 유적 등 다른 유적 출토 쇄칼과 규격과 지름이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더 크기 때문에 서차구 유적 출토품 역시 쇄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쇄칼의 지름이 작은 이유는 죄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형별 도구는 쇄칼과 쇄족쇄로 구성된다. 쇄족쇄의 경우 다양한 용어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그 형태가 대동소이하며, 족쇄 사이

의 사슬 형태에서만 명확한 형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쇠칼의 경우 대체로 하나의 용어로 불리지만, 실제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그림 17). 첫 번째는 매듭형이고, 양쪽을 구부려서 매듭처럼 고정한다.



그 과정에서 형벌자(刑罰者)인 죄수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도록 쇠칼을 목에 밀착시킨다. 매듭형은 한쪽에 치우쳐서 안테나처럼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막대가 이어져 있으며, 그 끝이 머리 위쪽까지 도달해 있다.

두 번째는 걸쇠형이고, 원형으로 구부러진 몸체를 목에 끼운 후 걸쇠를 몸체 양끝에 관통시켜서 고정한다. 걸쇠를 관통한 후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완전히 결박하게 된다. 첫 번째는 걸쇠 양끝을 꺾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몸체와 걸쇠를 작은 쇠못으로 관통하여 고정하는 방식이다. 걸쇠형은 매듭형과 달리 걸쇠로 고정하기 때문에 몸체의 형태가 고정 후에도 변화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처음부터 몸체를 곡선으로 만들어서 목에 감기는 방식으로 죄수에게 불편함을 준다. 출토 연대를 고려하면 통일 진대에 사용된 걸쇠형이 먼저 설계되었고, 매듭형은 걸쇠형의 변형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형벌 도구의 구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쇠칼과 쇠족쇄가 함께 사용된다. 그러나 서차구 유적과 연하도 유적에서만 쇠칼이 단독으로 발견되었다. 두 유적의 쇠칼은 모두 걸쇠형이라는 점도 일치한다. 이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점은 서차구 유적과 연하도 유적의 죄수는 이동의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다.

진한대에는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전용의 형도묘지에 부장되는 것에 반해 쇠칼과 쇠족쇄를 찬 죄수는 황제와 왕의 무덤을 조성하는 노동에 동원되다가 사망하게 되면 작업 장소(황제와 왕의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인접지역에 형도묘지가 조성된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한양릉 형도묘지의 사례처럼 참수형이 확인되므로, 무덤 조성 후에 순장의 목적으로 죄수들의 무덤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쇠칼과 쇠족쇄를 찬 죄수는 황제와 왕의 무덤 조성에 동원되고, 사망 후 ‘인접지역에 위치한 별도의 묘지에 안치’된다는 점이다.

2) 진한계(秦漢系) 형벌 도구 출토의 의미

보편적으로 중국학계에서는 진한의 형벌 도구가 상대(商代) 형벌 도구에서 기원



그림 18 안양 은허 소둔 출토 대가노예도용(高移東, 2023)

하였다고 인식되며, 안양(安陽) 은허(殷墟) 소둔(小屯) 유적에서 출토된 다수의 ‘대가노예도용(戴枷奴隸陶俑)’을 그 근거로 인식하고 있다(그림 18). 물론, 상대에는 형벌 도구가 금속제가 아닌 유기물로 제작되었지만, 현재까지 잔존하지는 않으며, 도용(陶俑)의 형상으로만 당시 도구를 추정할 수 있다.

유기물로 제작되었던 형벌 도구는 진한대를 전후하여 금속제로 제작되었다. 주목할 점은 상대의 형벌 도구는 ‘목과 손을 함께 속박’하는 용도이지만, 진한대 형벌 도구는 ‘목과 발을 별도로 속박’하는 용도라는 차이점이다. 이것은 형벌 도구의 발전이자, 형벌 과정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상대의 형벌 제도 중에는 속박에 대한 형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에는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 혹은 형벌 대상자를 속박하는 용도로 형벌 도구가 사용되었다고 추측한다. 즉, 상대의 형벌 도구는 이동의 제한과 고통을 위한 계구(戒具)로 볼 수 있다.

반면, 진한대에는 주목할 만한 형벌 종류가 있다. 한대(漢代)의 기록 중에는 ‘곤겸(髡鉗)’이 있다. 곤겸에 대하여, ‘곤(髡)’은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겸(鉗)’은 목에 쇠칼을 채운다는 견해가 있다.⁵⁹

59 도미야 이파루 저, 임병덕·임대희 역, 1999, 앞의 책, 66쪽.

관련 기사를 보면, ‘한나라 9년, 고조가 장오의 죄를 다스리면서 조의 신하와 빈객이 왕을 쫓아오면 그 사람들의 족속을 멸하라는 조칙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관고와 맹서 등 10여 명이 머리를 깎고 검을 쓴 채 왕을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⁶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검을 찔 때에는 머리를 깎는다는 점과 중죄에 검을 찬다는 점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강춘대묘 유적 외장갱 출토 형도용 역시 머리카락이 없다(그림 11 참조). 즉, ‘곤검’은 죄수에 대한 속박이 하나의 형벌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며, 동시에 머리카락을 제거한 후 목에 속박을 가하는 방식의 형벌(곤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매듭형 쇠칼일 가능성이 높다.

한대의 곤검은 단일하게도 사용되지만, 성단용(城旦舂)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우선 곤검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기(史記)』 「장이진여열전(張耳陳餘列傳)」의 기록처럼 중범죄자에게 쇠칼을 씌우는 것이다. 반면, 성단용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⁶¹ ‘… 髡鉗為城旦舂 …’처럼 하나의 단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양자를 함께 언급한 것으로 추측한다. 실제로 한대까지의 기록에서는 ‘곤검’만 단독으로 언급된 경우가 훨씬 많으며,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서만 함께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곤검성단용(髡鉗城旦舂)’으로 완성된 단어가 기록에 사용되는 것은 남북조시대에 편찬된 『후한서(後漢書)』 「현종효명제기(顯宗孝明帝紀)」부터이다. 이로 보아, 한대에는 곤검 처벌만 내리거나 성단용 처벌을 함께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단용은 성(城)을 쌓는 노역과 곡식 등에 대한 절구질을 함께 지칭하는 형벌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쇠칼을 찬 죄수가 성을 쌓는다는 점이다. 『한서(漢書)』 「소제기(昭帝紀)」에서는 여러 군과 제후국의 죄수를 모아 요동에서 현도성

60 『史記』 「張耳陳餘列傳」, “漢九年, 貫高怨家知其謀, 乃上變告之. 於是上皆并逮捕趙王, 貫高等. … 治張敖之罪. 上乃詔趙群臣賓客有敢從王皆族. 貫高與客孟舒等十餘人, 皆自髡鉗, 為王家奴, 從來.”

61 『漢書』 「刑法志」, “丞相張蒼, 御史大夫馮敬奏言 … 當黥者, 髡鉗為城旦舂 ….”

(玄菟城)을 쌓았다는 기사가 있다.⁶² 또한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에서는 부여가 원래 현도군에 속한다는 기사도 있다.⁶³ 즉, 중원의 죄수가 성을 쌓기 위해 부여의 영역까지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한서』 「소제기」의 다른 기사에서는 고조선의 왕이 요동 도위를 죽였고, 이에 사형에 처할 범죄자를 모아 고조선을 공격하였다는 기사가 있다.⁶⁴ 즉, 부여의 이웃이었던 고조선의 영역으로 중원의 사형수들이 이동하였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중원의 중범죄자들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동한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중원의 중범죄자들이 직접 부여로 이동하였든 아니든 간에, 중원에서 온 중범죄자를 통해 중국 동북지역의 제 집단들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중원의 형벌 도구를 인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여와 중원의 다양한 교류와 전쟁 등으로 인해 중원의 형벌 도구를 인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부여의 형벌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한서』 「동이열전」에서는 부여에 감옥(牢獄)이 존재하며 형벌이 엄격하다.⁶⁵ 이를 통해 부여에서도 중범죄자와 그에 대한 형벌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여에서는 사람을 순장하는 습속이 있으며, 많을 때는 100여 명이 순장되었다.⁶⁶

여기서 주목할 점이 서차구 유적의 사례이다. 앞서 검토한 서차구 유적에서

62 『漢書』 「昭帝紀」, “六年春正月, 募郡國徒築遼東玄菟城。夏, 赦天下。詔曰: 「夫穀賤傷農, 今三輔, 太常穀減賤, 其令以叔粟當今年賦。」右將軍張安世宿衛忠謹, 封富平侯。”

63 『後漢書』 「東夷列傳」, “建武中, 東夷諸國皆來獻見。… 夫餘本屬玄菟, 獻帝時, 其王求屬遼東云。”

64 『漢書』 「昭帝紀」, “朝鮮王攻殺遼東都尉, 乃募天下死罪擊朝鮮。”

65 『後漢書』 「東夷列傳」, “初, 北夷索離國王出行, 其侍兒於後妊身, 王還, 欲殺之。… 以貝柵為城, 有宮室, 倉庫, 牢獄。… 其俗用刑嚴急, 被誅者皆沒其家人為奴婢, 盜一責十二, 男女淫皆殺之, 尤治惡妒婦, 既殺, 復尸於山上。”

66 『後漢書』 「東夷列傳」, “初, 北夷索離國王出行, 其侍兒於後妊身, 王還, 欲殺之。… 死則有槨無棺, 殺人殉葬, 多者以百數, 其王葬用玉匣, 漢朝常豫以玉匣付玄菟郡, 王死則迎取以葬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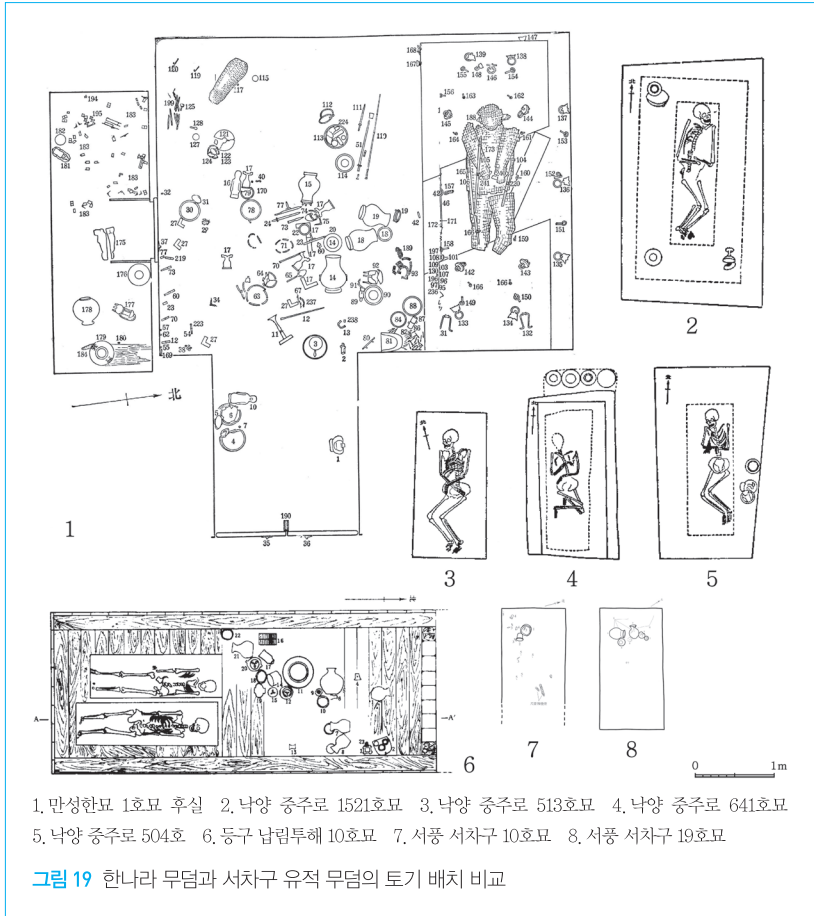
는 형벌 도구인 쇠칼이 무덤에서 다수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형도묘지는 다른 일반 무덤들과 거리를 두고 별도의 묘지가 조성된다. 반면 서차구 유적의 경우, 쇠칼이 나온 무덤과 일반 무덤이 혼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도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시기까지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무덤에 안치되는 피장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수장층 혹은 그에 가까운 지위나 신분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 범죄자를 위한 무덤이 발견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종합하면, 부여의 순장 습속을 고려할 때 쇠칼을 찬 범죄자가 순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관과 곶에 대한 습속 문제

서차구 유적이 부여가 남긴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부여는 “곽은 있고 관이 없다(死則有槨無棺)”라는 기록이 있다.⁶⁷ 이 기록은 증원의 기록이고, 증원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지만, 『후한서』의 작성 시점이 초기 부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여의 어느 시점에 대한 묘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곽무관’은 부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한대 증원의 전형적인 무덤은 관내에 피장자 및 피장자의 착장품 등 일부 유물만 안치하고, 관 밖에 있는 곶이나 묘실에 장송의례에서 사용되는 다종다양한 부장품이 안치된다. 하북성(河北省) 만성현(滿城縣) 만성한묘(滿城漢墓) 유적 1호묘 후실을 살펴보면, 관 내에는 피장자와 피장자의 착장품 등이 배치되고, 음식을 담은 그릇을 비롯하여 장송의례 과정 중에 부장되는 대다수의 물품은 묘실 내부에 배치되어 있다(그림 19-1).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 중주로(中州路)의 동주시기(東周時期) 무덤들을 살펴보면, 토기는 모두 관 밖의 곶 내부에 배치되어 있고(그림 19-2·4·5), 곶이 없는 경우에는 토기 자체가 없다(그림 19-3).

67 『後漢書』「東夷列傳」, “初, 北夷索離國王出行, 其侍兒於後妊身, 王還, 欲殺之, … 死則有槨無棺.”



이러한 현상은 한나라의 중심지가 아닌 곳에서도 나타난다. 몽골국에 거의 인접한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등구현(磴口縣) 남림투해(納林套海) 유적을 비롯하여 이 일대의 한나라와 관련된 무덤들 다수에서 토기를 비롯한 용기가 관 밖에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9-6). 즉, 중원에서는 적어도 동주시기에 이미 용기를 관 밖에 배치한다는 습속이 확산되었고, 이것이 한나라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서차구 유적에서는 중원과 전혀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일단 묘광의 너비 자체가 매우 좁아서 광을 설치할 수 없다. 이것은 서차구 유적의 10호 무덤(그림 19-7)과 19호 무덤(그림 19-8)을 중원의 광이 없는 무덤(그림 19-3)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다른 사례들(그림 19-2·4·5·6)과 비교해보아도 서차구 유적의 무덤은 묘광의 폭이 매우 좁음을 알 수 있다. 서차구 유적의 무덤은 관을 안치한 후, 관의 고정을 위하여 관과 묘광 사이에 약간의 흙을 충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이다. 이 때문에 서차구 유적에서는 광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명확하게 광이 확인된 사례도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토기를 비롯한 몇몇 기종의 출토 위치이다. 중원에서는 관 밖에 부장되는 마구 및 몇몇 부장품이 서차구 유적에서는 관의 내부에서 확인된다(그림 1-5 참조). 또한 토기 역시 무덤의 중앙에 치우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그림 20). 그렇다면 서차구 유적에서 확인되는 관 내부 부장품은 중원인의 관점에서 광이나 묘실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 관 내부에 배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원인은 관을 광이라 판단하여 ‘관이 없고 광

이 있다(유곽무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부여의 특징이라 알려진 유곽무관의 초기 발현을 서차구 유적에서 찾을 수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도 서차구 유적은 부여가 조성한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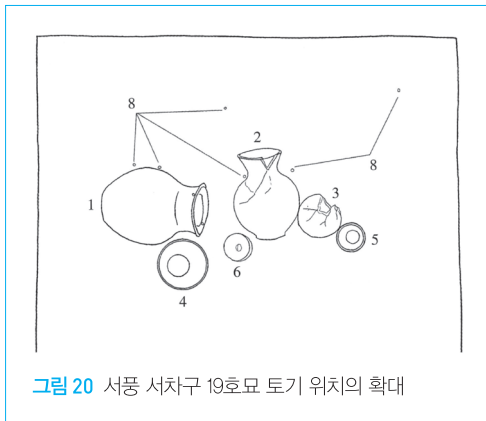


그림 20 서풍 서차구 19호묘 토기 위치의 확대

68 물론, 토기의 관 내부 배치는 부여만의 특징은 아니다. 부여 등장 이전 시기에 존재 하였던 옥항묘문화 등 인근의 유목문화 등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확인된다. 핵심은 이후 부여에서 확인되는 유곽무관의 기원이 서차구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IV. 장송의례와 내세관의 의미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의 장송의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에 의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 상태 등에 대한 연구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부장품이 왜 부장되는지는 깊이 있게 연구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부장품이 피장자의 사용품이나 부장전용 물품으로서 부장되었다는 정도만 밝혀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덤의 부장품이 왜 부장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중원의 내세관에서부터 접근할 수 있다. 중원의 무덤에서는 진묘문(鎭墓文)과 매지권(買地券) 등 무덤과 관련된 문서가 출토된다. 그 형태는 목간과 죽간, 토기, 석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진묘문 중 일부는 고지책(告地策)이라 부른다. 고지책은 진한대 중원 남방지역의 무덤에 부장된 문서이며, 그 내용은 무덤의 피장자가 명계(冥界)로 가기 위해 제작된 일종의 소개장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는 10여 개 정도이다. 그러나 당시 중원지역 고위인물들의 내세관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고지책은 진묘문과 구분하지 않고 진묘문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진묘문은 죽은 자를 위한 내용이 다수이기 때문에 고지책과의 구분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지책에는 내세관이 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책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고지책에는 지하의 관리가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호북성(湖北省) 강릉(江陵) 봉황산(鳳凰山) 168호 무덤과 고대(高臺) 18호 무덤을 참고할 수 있다. 그 해석은 윤재석의 해석을 참고하고자 한다.⁶⁹

예를 들면, 비슷한 시기의 흑룡강성 평양묘장에서는 일부 무덤에서 관 외부에 배치된 토기를 확인할 수 있다.

69 윤재석, 2013, 「중국 고대 『死者의 書』와 漢代人의 來世觀 - 告地策을 중심으로 -」, 『중국사연구』 86, 중국사학회, 49~54쪽.

〈표 2〉 고지책의 내용(윤재석, 2013, 표 1을 수정 후 전재)

연번	출토 자료	내용
A-1	강릉 봉황산 168호 무덤 출토 죽독	文帝前元 13년(B.C. 167) 5월 13일, 江陵縣의 丞이 地下의 丞에게 감히 고하건대: 市陽里의 五大夫人 嬀가自言하기를: “大奴인 良 등 28人, 大婢인 益 등 18人, 輶車 2乘, 牛車 1兩, 駟馬 4필, 駟馬 2필, 騎馬 4필과 함께 (명계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명계의) 吏로 하여금 이 일을 처리하도록 감히 地下主에게 고합니다.
A-2	강릉 고대 18호 무덤 출토 목독	文帝前元 7年(B.C. 173) 10월 25日, (江陵縣) 中鄉의 (嬀夫人) 起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中鄉) 新安里의 大夫人 燕이自言하기를: “大奴甲乙·大婢妨과 더불어 安都로 徙하고자 합니다”라고 함에, 安都丞에게 청하여 고하건대: 이들의 名數를 접수하고, 이 문서가 도착하면 알려주시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10월 25日 江陵縣(令) 龍氏·江陵縣丞인 敬이 이 문서를 安都의 丞에게 移합니다. / 亭이 기록하였음. 産이 기록하였음.

고지책의 자료를 참고하면, 이승에서 저승(명계 혹은 사후세계)으로 갈 때 가려질 자산을 고지하거나(A-1), 전달할 문서의 회신 여부가 기록되기도 한다(A-2). 중요한 점은 고지책을 참고할 때, 당시 한대인들에게는 이승의 삶이 저승에서 이어진다는 관념이 있었다는 점이다. 매지권 역시 죽은 자를 위한 토지 문서라는 점에서 당시 무덤을 조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덤이 사후세계를 위한 공간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승의 삶이 사후에 저승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필자가 처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대 중원인의 내세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언급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자로 마이클 로이(Michael Loewe)가 있으며, 그는 진한대 중원인이 사후에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내용을 주장한 연구자 중에 하나이다.⁷⁰

홍승현은 사람이 죽은 후 이승의 삶이 지하세계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인해 사자를 위한 상장예속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⁷¹ 또한 한대 도교의 사상⁷²

70 마이클 로이 저, 이성규 역, 1987, 『古代中國人の 生死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 강의총서 Ⅸ, 지식산업사, 41~53쪽.

이 유행한 점과 현대의 도교 사상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무덤의 부장품이 사후세계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하였다.⁷³

물론, 명계(사후세계)의 관리와 같은 존재들을 미신적 요소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⁷⁴ 그러나 이것이 미신인지, 아닌지는 이 글에서 중요한 점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미신이더라도 진한대의 중원인이 그 미신을 위해 무덤에 풍부한 부장품을 부장하였으며, 그 목적은 피장자가 해당 물품을 사후세계인 명계로 가져가기 위함이었다는 점이다.

즉, 한대 중원에서 조성된 무덤에는 내세를 위한 물품이 부장되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존재하고, 이 물품들을 피장자가 사후에도 사용하기를 희망하면서 무덤에 부장되었다. 이 때문에 장송의례 전용의 물품뿐만 아니라 사후세계에서 사용할 물품이 무덤에 부장된다.

이러한 내세관이 잘 반영된 여러 무덤의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마왕퇴(馬王堆) 1호 무덤의 사례가 있다. 무덤에서는 견책(遣策)이라는 죽간을 통해 장송의례의 물품 목록 등 부장품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며, 수십 상자에 나무패를 달아 상자별로 물품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이 나무패에는 옷 상자(衣笥)나 구운 소고기 상자(牛炙笥), 사슴고기로 만든 육포 상자(鹿脯笥), 볶은 닭고기 상자(熬鷄笥) 등이 적혀 있으며, 상자 내부에는 해당 물품이 담겨 있다. 고지책의 내용과 당시 내세관을 고려한다면 마왕퇴 1호 무덤의 부장품은 피장자(장사국 승상 이창의 부인)를 위해 무덤 조성자(남은 이창 일가의 사람이 주도)가 안배한 것으로 이해

71 홍승현, 2016, 「後漢 買地券의 분류와 역사적·지역적 특징」, 『중국사연구』 101, 중국사학회, 33쪽.

72 도교 자체의 출현 연대는 논란이 있지만, 도교의 사상은 노자 등의 학자들에게서 비롯되었고, 매지권 등 도교 사상과 맥락을 함께하는 자료들이 서한시기부터 출토되므로 '도교의 사상'이라 칭하였다.

73 이러한 사고가 미신에 해당되지만, 무덤의 부장품이 사자의 사후세계 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마이클 로이(마이클 로이 저, 이성규 역, 1987, 앞의 글)를 비롯하여 여러 중국사 및 중국고고학 전문가들에 의해 언급되어 왔다.

74 홍승현, 2016, 앞의 글.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에서 진한대의 중원에서는 무덤이 매우 화려해지고, 부장품이 대량으로 증가된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내세관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원의 영역이 아니지만 ‘중원과 잦은 교류’가 있으면서, ‘중원의 물품이 대량’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중원과 마찬가지로 무덤 부장품이 대량으로 증가’한 지역의 사례 역시 중원의 내세관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지역마다 기존의 내세관이나 무덤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부여처럼 옥갑이라는 물품과 그 장송의례가 유입된 지역에서는 옥갑 등을 근거로 중원의 내세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심지어 서차구 유적에서는 중원의 철제 형벌 도구뿐만 아니라, 한경과 마차 장식품 등의 다양한 중원계 물질자료가 확인된다. 이것을 통해 필자는 중원의 내세관이 부여로 유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의 내용을 종합하면, 서차구 유적의 피장자들은 생전에 중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그 과정에서 장송의례용 물품과 형벌 도구 등이 유입되었다. 서차구 유적은 왕급 마차 장식품이 여러 무덤에서 출토될 만큼 고위직들의 묘지인데, 이러한 무덤 중 일부에서 죄수가 존재한 것을 보아, 죄수는 고위층을 위한 순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부여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순장의 습속과 중원의 최고위품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차구 유적은 부여의 묘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덧붙여 부여에는 중원의 장송의례 용품 등이 유입되면서 중원의 내세관(사후세계관) 등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무덤 부장품 역시 사후세계를 위한 물품으로 재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V. 맺음말

서차구 유적에서 출토된 금속기 중에는 그 용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다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금속기들의 용도를 재조명하고, 특히 형벌 도구인 쇠칼의 존재를 밝혀내었다. 쇠칼은 진한대 중원에서 등장하여 죄수에게 사용되어왔다. 이 죄수들은 형도묘지라는 별도의 묘지에 안치되지만, 대규모 형도묘지에 무덤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죄수들이 제후의 묘지를 조성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때 제후의 묘지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죄수들만의 무덤이 조성된다. 그런데 서차구 유적에서는 쇠칼이 수장층의 무덤들 사이에서 확인된다. 부여의 죄수와 순장에 대한 기록을 종합할 때, 서차구 유적은 부여이고 죄수들이 순장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추가적인 근거로 관내에 여러 물품이 부장되는 것이 중원인의 관점에서는 관이 없고 껍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부여의 기록을 연상할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서차구 유적은 역시 부여가 조성한 유적이다.

이 글의 고찰에서 사용한 방식은 내세관 등 미신에 대한 내용이 다수이다. 그런데 그 미신도 고고자료로 남았다면 고고학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동아시아의 암각화와 화상석 등에서는 현실적이지 않고, 당대 사람들의 상상이 적용된 그림이 다수 남아 있지만, 현대의 연구자들은 이것을 연구해왔다. 마찬가지로 내세관이 고고자료로 남은 상황에서는 고고학자가 이것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한대 중원인에게 사후세계(명계)는 미신이지만, 사후에 무덤을 통해 사후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었다. 당시의 믿음은 무덤 부장품과 무덤 내부 시설 등으로 연결되었고, 이로 인해 중원인의 내세관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당대에는 미신이었지만, 그 미신에 의한 결과물이 현대에 남았고, 고고학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행위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글에서 서차구 유적 출토 중원계 물질자료의 습속이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헌자료에서 나타나는 부여와 중원의

찾은 접촉을 강조하였지만, 이것은 부여의 상황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부여에 대한 이해 없이 이 글만 읽을 경우 마치 부여와 중원은 매우 호의적인 형태로 잣은 교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부여와 중원은 충돌이 잣았고, 중원은 부여를 달래기 위해 부여의 왕이 사망하면 현도군을 통해 옥갑⁷⁵을 보낼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부여는 중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돌을 통한 물질자료의 유입과 옥갑 등을 통한 인적 교류는 상호 간에 많은 유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를 통해 중원과 충돌이 잣았던 부여에 중원의 습속이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의 과제로는 서차구 유적의 피장자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추후에는 서차구 유적과 동시기에 해당되는 주변 지역의 무덤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75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다른 문헌자료에서 옥갑을 꺾어서 사용한다는 기록을 참고하고, 제후 왕묘의 피장자를 감싸면서 출토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성한묘 등에서 출토된 ‘옥의’가 문헌자료상의 ‘옥갑’이라 인식되고 있다.

참고문헌

사료

『史記』, 『漢書』, 『後漢書』.

단행본

도미야 이파루 저, 임병덕·임대희 역, 1999, 『유골의 증언-古代中國의 刑罰』, 서경문화사.

마이클 로이 저, 이성규 역, 1987, 『古代中國人の 生死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 강의총서 Ⅷ, 지식산업사.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西豊西岔溝-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文物出版社.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燕下都』, 文物出版社.

Loewe, Michael, 1979, *Ways to Paradise-The Chinese Quest for Immortality*, George Allen & Unwin.

논문

김동일, 2022, 「철제 농공구를 통해 본 다호리유적-중국에서의 유입과정을 중심으로-」, 『고고광장』 30, 부산고고학회.

_____, 2024a, 「고고학 연구방법론 ‘문화유형 설정법’의 제안-동아시아 청동기문화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40회 유라시아문명사연구회 정기발표회 발표자료집.

_____, 2024b, 「어은리 출토 장식품으로 본 진한(辰韓)과 진한(秦漢)의 교류-간접적 연결에서 시장의 형성으로-」, 『한국상고사학보』 124, 한국상고사학회.

박양진, 2023, 「랴오닝 시펑 시차거우(西岔溝, 서차구) 유적의 초보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2023-3, 한국고고학회.

엄장록, 1994, 「夫餘의 遺蹟과 遺物에 對하여(BC 2세기~AD 3세기)」, 『民族文化의

- 諸問題：于江 權兌遠教授 停年記念論叢』, 世宗文化社.
- 오강원, 2018, 「西豊縣 西岔溝 고분군의 문화적 성격과 계통-토기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8, 호남고고학회.
- 오영찬, 1999, 「Ⅷ. 榆樹 老河深 유적을 통해 본 부여 사회」,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재석, 2013, 「중국 고대 『死者의 書』와 漢代人의 來世觀-告地策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86, 중국사학회.
- 이우섭, 2021, 「삼한의 동물형 장식구와 금속제 복(鍔)」, 『고대 한국의 외래계 문물-다름이 만든 다양성』,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도록.
- 이종수, 2007, 「西岔溝 古墳群의 性格과 使用集團에 대하여」, 『백산학보』 77, 백산학회.
- _____, 2018, 「부여 강역 연구현황과 쟁점」, 『백산학보』 110, 백산학회.
- _____, 2023, 「미완의 발굴, 풀지 못한 수수께끼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西豊 西岔溝-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동북아역사논총』 81, 동북아역사재단.
- 이청규·김동일, 2013, 「靑銅劍柄의 初期鐵劍에 대하여」, 제7회 아시아주조기술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발표자료집.
- 정상석, 1997, 「西團山文化와 初期扶餘」, 동아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허부문, 2001, 「漢·魏·晉의 肉刑論爭-政治·社會的 背景과 關聯하여-」, 『중국사연구』 15, 중국사학회.
- 홍승현, 2016, 「後漢 買地券의 분류와 역사적·지역적 특징」, 『중국사연구』 101, 중국사학회.
- 高移東, 2023, 「殷墟“戴枷奴隸陶俑”의定名」, 『大衆考古』 2023-1.
- 公孫燕, 1962, 「論濊貉之“貉”非東胡人-兼考漢初濊貉地望」, 『考古』 1962-10.
- _____, 1980, 「古代匈奴人到過遼寧嗎?」, 『理論與實踐』 1980-6.
- 靳維柏, 1988, 「關於鮮卑早期文化的再認識」, 『北方文物』 1988-3.
- 潘玲, 2013, 「烏桓, 扶余抑或匈奴? 西岔溝墓地族屬之謎」, 『大衆考古』 2013-3.
- 范恩實, 2012, 「論西岔溝古墓群的族屬-兼及烏桓、鮮卑考古文化的探索問題」, 『社會科學戰綫』 2012-4.
- 謝遂蓮, 1981, 「鄭州市郊發現漢代鐵刑具」, 『中原文物』 1981-1.

- 孫守道, 1957, 「西岔溝古墓群被掘事件的教訓」, 『文物參考資料』 1957-1.
- _____, 1960, 「“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發現」, 『文物』 1960-8-9.
- _____, 1993, 「再論“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文化內涵, 族屬及國別問題(中文提要)」, 『內蒙古文物考古』 1993-1-2.
- _____, 1995, 「西岔溝古墓群西漢銅鏡斷代研究」, 『遼海文物學刊』 1995-1.
- 烏恩, 1990, 「試論漢代匈奴與鮮卑遺迹的區別」, 『中國考古學會第六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 遼寧省博物館, 1973, 「西豐西岔溝匈奴古墓群」, 『遼寧歷史文物』, 遼寧省中小學校學研究室.
- 劉升雁, 1985, 「東遼縣石驛公社古墓群出土文物的研究」, 『博物館研究』 1985-1.
- 李殿福, 1985, 「漢代夫余文化芻議」, 『北方文物』 1985-3.
- 李種洙, 2004, 「夫余文化研究」, 吉林大學 考古學及博物館學 博士學位論文.
- 林滢, 1993, 「西岔溝型銅柄鐵劍與老河深, 彩嵐墓地的族屬」, 『마한·백제문화』 13,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張錫瑛, 1984, 「試論我國北方和東北地區的“觸角式”劍」, 『考古』 1984-8.
- 田耘, 1984, 「西岔溝古墓群族屬問題淺析」, 『黑龍江文物叢刊』 1984-1.
- _____, 1987, 「兩漢夫余研究」, 『遼海文物學刊』 1987-2.
- 趙玉國, 2022, 「霸陵落定江村大墓 我們與漢文帝“近在咫尺”」, 『中國收藏』 2022-1.
- 曾庸, 1961, 「遼寧西豐西岔溝古墓群爲烏桓文化遺迹論」, 『考古』 1961-6.
- 秦俑坑考古隊, 1981, 「臨潼鄭庄秦石料加工場遺址調查簡報」, 『考古與文物』 1981-1.
- 秦中行, 1972, 「漢陽陵附近鉗徒墓的發現」, 『文物』 1972-7.

서차구 유적에서 나타나는 중원 습속과 내세관의 의미

— 금속제 형벌 도구를 중심으로 —

김동일

서차구 유적은 1955년의 도굴 사건으로 인해 알려진 후 1956년에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오랫동안 정식 발굴조사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다가 2022년이 되어 서야 발굴조사 보고서가 출간된다. 보고 내용상에서는 다종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고, 그중에는 외래계 금속기와 용도가 잘못 알려진 금속기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 금속기들에서는 중원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외래계 금속기 중에는 중원의 왕급 제후만 사용하였던 마차 장식품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 용도가 잘못 알려진 금속기는 죄수에게 사용된 쇠칼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중원계 고위급 금속기와 문헌 자료를 고려할 때 중원과의 잦은 교류를 상정할 수 있고, 쇠칼을 통해 중원의 죄수와 같은 맥락으로 서차구 유적에도 쇠칼을 찬 죄수가 존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중원에서는 쇠칼을 찬 죄수가 죄수전용의 공동모지에 안치되거나, 제후의 무덤과 거리를 두고 무덤이 조성된다. 반면, 서차구 유적에서는 수장층의 무덤 사이에 죄수가 존재하는 양상을 파악하였고, 이를 고려할 때 순장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문헌자료를 참고할 때, 인근에서 죄수와 순장이 존재한 집단은 부여가 있다.

서차구 유적은 부여인지 혹은 오환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지만, 기록과 일치하는 순장의 존재를 바탕으로 부여로 추정할 수 있다.

주제어: 부여, 오환, 죄수, 쇠칼, 내세관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Ancient Chinese Customs and Views of the Afterlife as Revealed in the Xichagou Ruins: With a Focus on Metal Tools

Kim Dongil

The Xichagou ruins were brought to light as a result of a looting incident in 1955, which led to an investigation in 1956. However, an official excavation report was not issued until 2022. The report reveals that a diverse range of artifacts were found, including many foreign metal tools and metal tools whose purposes were unclear. These metal tools displayed signs of influence from Ancient China.

Among the foreign metal tools were several chariot ornaments used exclusively by royal feudal lords from Ancient China, and the metal tools misidentified earlier were actually iron pillories used on prisoners. The evidence of prestigious metal tools of Ancient China and relevant historical accounts support the notion of frequent exchanges between the Xichagou site and Ancient China, while the finding of iron pillories implies the presence of prisoners with iron

pillories akin to those used in Ancient China at the site. In Ancient China, prisoners wearing iron pillories were either buried in communal graves reserved for prisoners or in tombs distanced from those of feudal lords. Conversely, at the Xichagou ruins, prisoners were discovered to be buried among the tombs of political bodies, suggesting a potential practice of human sacrifice.

According to literary sources, Puyeo was the only group in the vicinity that was recognized as both having prisoners and practicing human sacrifices. Although there has been controversy on whether the Xichagou site belonged to Puyeo or Ohwan, the evidence of human sacrifice, which aligns with historical records, indicates that the Xichagou site was likely associated with Puyeo.

Keywords: Puyeo, Ohwan, Prisoner, Iron Pillory, Afterlife view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차구 유적의 토기문화와 특징

배현준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II. 서차구 유적의 토기문화

III. 주변 지역 토기문화와의 비교

IV. 고찰: 서차구 유적의 담당자

V. 맺음말



I. 머리말

부여는 전한(前漢)시기에 편찬된 『사기(史記)』 화식열전(貨殖列傳)에 ‘연의 북쪽에 호환과 부여가 있다’는 기록을 근거로, 늦어도 전한시기인 기원전 2세기경에 부여가 이미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기원후 3세기에 편찬된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부여조(夫餘條)에는 ‘부여가 현도군(玄菟郡) 북쪽 천리, 남으로는 고구려(高句麗), 동으로는 읍루(挹婁), 서로는 선비(鮮卑)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약수(弱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후한서(後漢書)』, 『삼국지』, 『진서(晉書)』 등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후 시기부터 기원후 3세기 중반까지 부여는 안정적인 통치 체제가 확립되어 있었고, 대외적으로 한(漢)·위(魏)·진(晉)과 차례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시기를 부여의 전성기로 여긴다. 그러나 285년 전연(前燕) 모용외(慕容廆)의 침입으로 왕성이 함락되고, 347년에는 다시 모용황(慕容皝)의 침입으로 부여의 왕 이하 5만 명이 포로로 잡히는 등 부여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걷는다. 최종적으로 494년 부여 왕과 그 처자가 고구려에 투항하면서 부여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다.¹

이렇게 문헌 기록만 보면 부여의 존속 기간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5세기까지 약 700여 년이 된다. 하지만 문헌 기록이 단편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의 부족으로 부여사(夫餘史)의 실체는 많은 부분이 모호한 상황이다. 현재 거론되는 전형적인 부여 유적으로는 길림 포자연전산 상층 유적,

* 투고: 2024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8월 7일, 게재 확정: 2024년 8월 13일

** 이 논문은 ‘제9회 동양학연구원 산하연구소·백산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고조선에서 부여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이종수, 2009, 『무덤의 변화양상을 통해 본 부여사 전개과정 고찰』, 『선사와 고대』 30, 125~156쪽.

동단산 평지성(남성자)과 동단산성, 모아산 고분군, 유수 노하심 고분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유수 노하심 고분만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었을 뿐, 나머지 유적들은 간단한 간보(簡報)에 그치고 있어, 고고학적으로 부여문화의 특징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식 보고서가 발간된 유수 노하심 고분군의 중심 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1세기 말~기원후 1세기 무렵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어서 기원전 2세기대 부여문화의 양상은 길림 포자연전산 상층 유적의 소략한 유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여 유적인지 논란이 되어 오던 요령성 서풍 서차구 유적의 발굴보고서²가 최근 발간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유적은 부여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여겨지는 유수 노하심 고분군보다 이른 시기에 해당하고, 길림 포자연전산 상층 유적과는 비슷한 시기에 해당하기에 초기 부여의 문화상을 밝혀줄 수 있는 유적으로 기대를 받는 것이다. 서풍 서차구 유적은 약 500여 기의 고분으로 구성된 대형 유적으로 1950년대 그 존재가 알려진 이래 수많은 도굴이 이루어져 온전한 무덤은 거의 없지만, 중국학계의 긴급 발굴과 유물의 회수 등을 통해 토기, 청동기, 철기, 금은기 등 다량의 고고학 자료가 확보되었다. 이 서차구 유적은 발견 당시부터 다양한 성격의 유물의 존재가 알려짐에 따라 그 성격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대체로 흉노문화, 오환문화, 선비문화, 예맥문화(동요하 중상류역의 토착 집단), 부여문화 등의 견해가 있다.³

이번에 발간된 정식 보고서에서는 서풍 서차구 유적 출토 유물의 한서2기문화(漢書2期文化) 요소, 중원문화 요소, 흉노문화 요소, 재지의 보산문화(寶山文化) 요소, 부여문화 요소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오환과 관련된 유적으로 결

2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西豐西岔溝: 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文物出版社.

3 서풍 서차구 유적을 둘러싼 기존의 주요 논의와 문제점은 다음의 논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오강원, 2018, 「서풍현(西豐縣) 서차구(西岔溝) 고분군의 문화적 성격과 계통-토기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8, 81~90쪽.

론을 내리고 있다.⁴ 그러나 서푼 서차구 유적이 오환과 관련된 것인지 부여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⁵

한편, 서푼 서차구 유적의 성격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고고자료를 해석하거나, 상위층에서 공유되는 청동기 및 금은기 등의 특정 유물을 강조함으로써 집단의 성격을 추론해왔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토기의 경우 문화 정체성을 비교적 보수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해당 유적의 기층 문화를 밝히는 데 보다 안정적인 자료가 된다.⁶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적의 성격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정식 보고된 서차구 유적 출토 토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차구 유적의 기층문화를 담당하던 집단에 대해 초보적인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⁷

II. 서차구 유적의 토기문화

서차구 유적은 1955년 무덤에 금은(金銀)으로 된 유물들이 있다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에 의해 파헤쳐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요령성 문화국은 이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해당 유적의 시기를 비교적 늦은 것으로 파악하여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의 무덤에 대한 도굴은 방치되었

4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앞의 책.

5 박양진, 2023, 「랴오닝 시펑 시차거우(西岔溝, 서차구) 유적의 초보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537~554쪽; 이종수, 2023, 「미완의 발굴, 풀지 못한 수수께끼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西豐 西岔溝-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동북아역사논총』 81, 497~533쪽.

6 오강원, 2018, 앞의 글, 87~90쪽.

7 서차구 유적의 토기문화에 대한 분석은 오강원(2018)에 의해 이미 상세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비교적 한정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고, 도굴을 통해 출토된 토기는 그 자리에서 버려지거나 깨졌으며, 금속기 유물은 팔거나 개인적으로 소장하였다. 이후 1956년 5월 동북박물관 소속 전문가들이 이미 훼손된 서차구 묘지에 대한 정리와 수습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도굴된 유물에 대한 회수 작업을 실시하였다. 유적에서는 총 63기의 훼손된 무덤을 발굴하였고, 72개의 구역을 정리하였다.⁸

이상의 과정을 통해 서차구 유적에서 출토 혹은 수습된 토기 중 145점이 복원되어 그 기형 및 특징을 알 수 있다. 이 중 협사(夾砂)토기는 135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니질(泥質)토기는 10점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한다. 토기로 분류된 유물 중 11점은 토제 방륜(紡輪)이다.

협사토기는 모두 수제(手製)이며, 황갈색·회갈색·흑갈색·홍갈색을 띠고 색조가 균일하지 못하다. 일부 토기는 표면 마연(磨光)을 하였고, 홍색 슬립(紅衣)을 입혔다. 문양은 각점문(刻點文), 각치문(刻齒文)으로 대분된다. 각치문은 주로 구연부, 저부 외연 및 구연부와 경부(頸部)의 부가퇴문(附加堆文)에 시문되어 있다. 각점문은 일반적으로 기하문 형상을 이루며, 경부에서 견북부까지 장식되어 있다. 그 외에 진주문(珍珠文)이 있으며 모두 구연부 아래 위치하고 통상적으로 구연부의 각치문과 조합된다. 기종은 호(壺), 관(罐), 완(碗), 발(鉢), 배

8 당시 발굴, 수습되고 회수된 유물은 출토 상황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된다. 각 유물은 보고서에 M○:○, K○:○, Z○:○, 考○ 등으로 표기된다. 발굴된 63기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M으로 시작하고, 72개의 정리구 내의 정리갱(清理坑)에서 출토된 유물은 K로 시작한다. 그리고 발굴 및 조사되지 않았지만 유물 회수 및 징집을 통해 수집된 유물은 Z로 시작한다. 이 회수 및 징집 유물은 출토 정황의 파악 여부에 따라 1류(무덤 추정 평면도 있음), 2류(무덤 평면도는 없지만 하나의 무덤에서 출토됨), 3류(출토 지점의 대략적인 범위만 알 수 있을 뿐 공반 관계는 불확실), 4류(출토 지점은 불확실하지만 동일 무덤에서 출토됨), 5류(출토 지점 및 공반 관계 모두 불확실)로 구분된다. 한편, 회수 및 징집을 통해 수집된 유물이더라도 무덤 출토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Z○-○로 무덤 번호를 부여한다. 가령 Z135:3은 135조(組)에서 회수된 3번 유물이며, Z135-3은 135조의 3호 무덤이라는 의미이다. 이들 유물은 박물관에 보관되면서 별도의 박물관 소장 유물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때의 유물 번호는 考로 시작한다.

<협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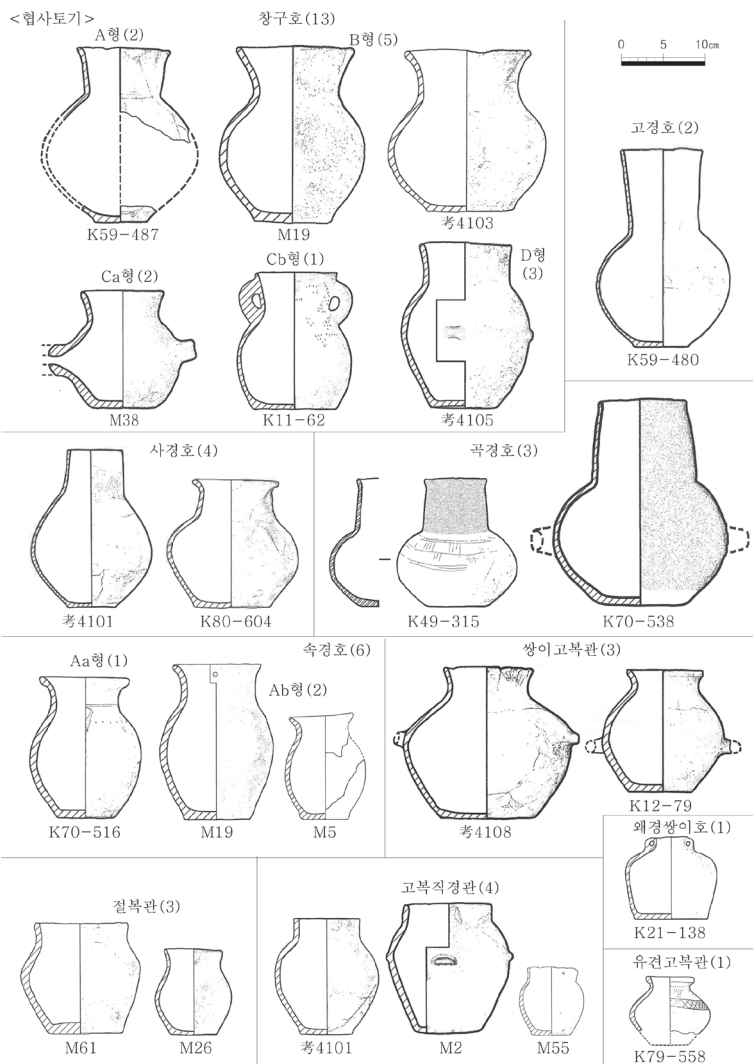


그림 1 서차구 유적 출토 토기 1(괄호는 토기 수량)

(杯), 력(曆), 두(豆)가 있다(그림 1·2).⁹

호는 29점이며, 경부 형태에 따라 창구호(敞口壺, 13점), 곡경호(曲頸壺, 3점), 사경호(斜頸壺, 4점), 고경호(高頸壺, 2점), 속경호(束頸壺, 6점), 왜경쌍이호(矮頸雙耳壺, 1점)로 구분된다.

관은 36점이며, 쌍이고복관(雙耳鼓腹罐, 3점), 절복관(折腹罐, 3점), 고복직경관(鼓腹直頸罐, 4점), 유견고복관(溜肩鼓腹罐, 1점), 무이대구관(無耳大口罐, 15점), 사이대구관(四耳大口罐, 1점), 쌍이대구관(雙耳大口罐, 2점), 단이대구관(單耳大口罐, 6점)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 관 저부편 1점이 있다.

완은 21점이며, 발은 1점이다. 배는 36점으로, 무이대구관, 완과 기형이 유사하지만 구경이 9cm를 넘지 않는 소형이다.

력은 3점이며, 모두 일부 편만 잔존한다. 두 역시 잔편으로 7점이 출토되었다.¹⁰ 그 외에 방륜 8점이 출토되었다.

니질토기는 10점이 출토되었다. 태토는 대다수가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대부분 회색이고, 일부 황갈색이 있다. 호 2점, 관 5점, 방륜 3점이 출토되었다(그림 2).

보고서에 의하면¹¹ 이 중 홍의도(紅衣陶) 특징, 절복창구호, 곡경호, 사경호, 력, 단이대구협사도관의 기형은 전형적인 한서2기문화의 특징이고, 대구관·배·력의 구연부에 시문되는 진주문과 각치문·각점문의 조합은 한서2기문화의

9 보고서의 기종 명칭, 형식분류 중 일부는 그 기준이 다소 애매한 것도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보고서의 기종 명칭, 형식분류를 그대로 따랐다. 또한 정식 보고서임에도 조사 당시 훼손 정도가 심하여 모든 유물이 보고된 것도 아니고, 보고된 유물조차도 출토 맥락, 공반 관계를 알기 어려운 사례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이 보고서는 서차구 유적 출토 유물을 제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이기에 분석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0 실제로 두가 확인되는 것은 1점이며, 나머지는 1950년대 작성된 발굴기록에 따른 것이다.

11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앞의 책, 505~5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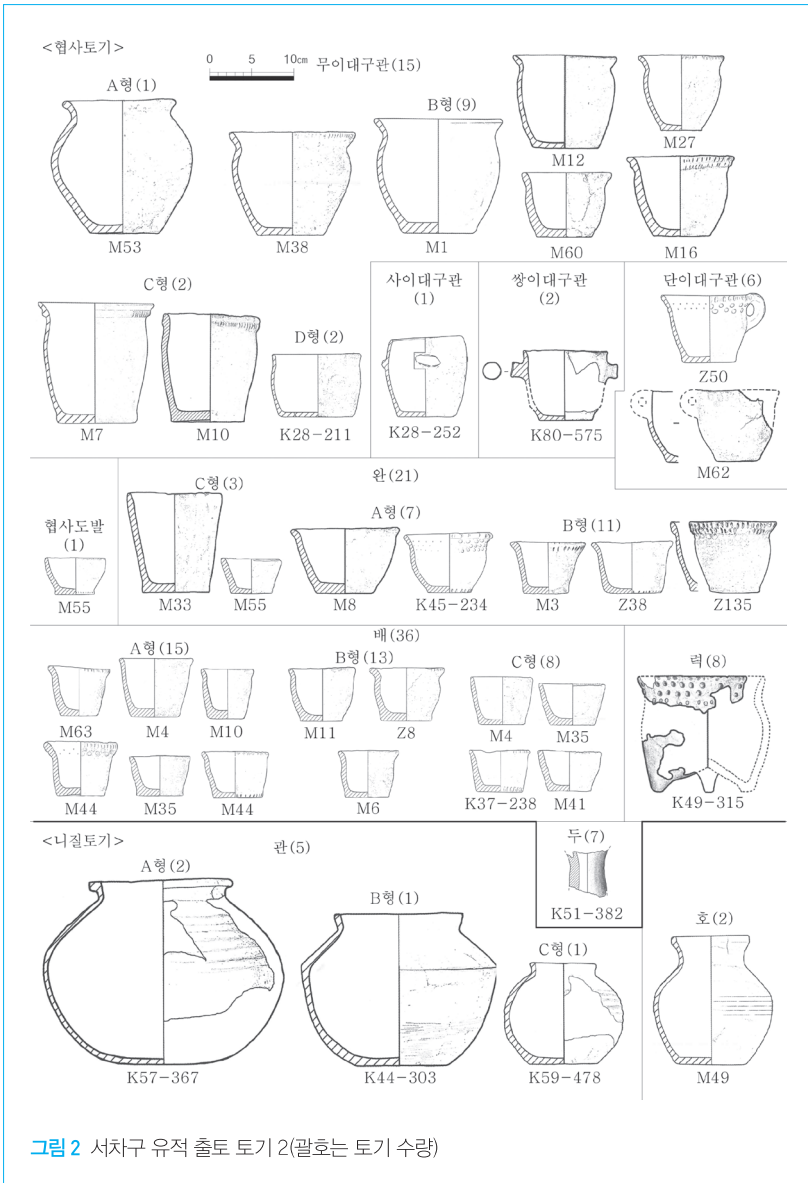


그림 2 서차구 유적 출토 토기 2(괄호는 토기 수량)

평양묘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곡경호는 한서2기문화와 관련되지만 동체에 횡방향의 파수가 부착되는 것은 동북지역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한서2기문화와 재지의 문화 요소가 융합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서차구의 토기에는 흉노문화 요소도 확인되는데, Aa형 속경호, A형 무이대구협사도관이 흉노 토기와 유사하지만 단 1점씩만 확인된다고 한다. 그리고 니질토기의 기형과 승문 등 특징은 중원문화에서 온 것이다.

협사토기 중 D형 창구호, 고복직경관, 사이대구관은 동체에 모두 4개의 대칭되는 횡방향의 맹이(盲耳) 또는 반이(鑿耳)가 부착되어 있는 점, 소형 대구십복관 또는 완, 배 등이 다량 출토되는 점, Ab형 완 동체에 깊은 갱점(坑點)이 시문된 점 등은 요북길남(遼北吉南) 지역의 보산문화 토기와 유사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서차구의 보산문화 요소인 소형 토기는 한서2기문화의 홍의도, 진주문, 각치문 등 장식 수법이 복합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Ca형 창구협사도, 쌍이 고복협사도관은 길림 포자연전산, 유수 노하심 중층 무덤 등의 횡이호(橫耳壺)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요소가 서차구의 토기에서 간취되지만, 역시 한서2기문화와의 관련성이 제일 높으며 보산문화 토기와 융합되더라도 자신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기에, 보고서는 한서2기문화의 주민이 서차구 유적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고, 원 거주민은 여기에 종속되는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 주변 지역 토기문화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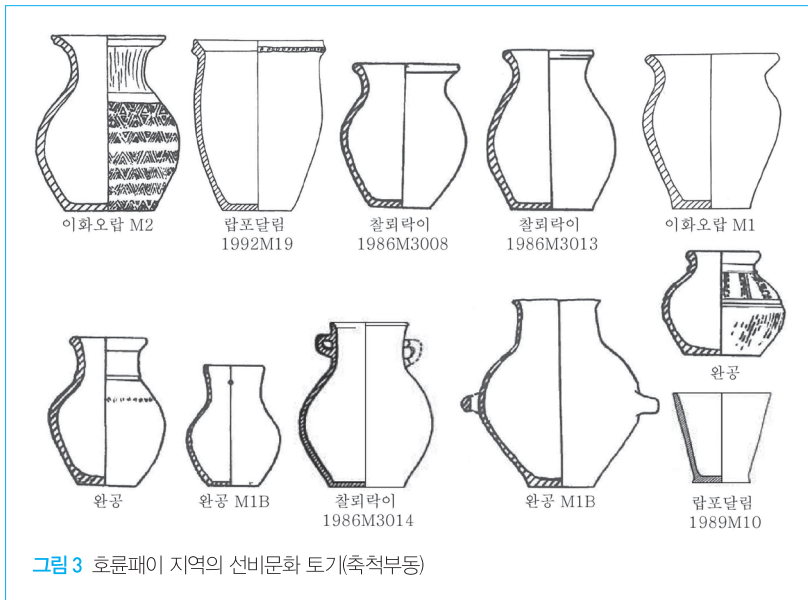
서차구 보고서에서 비록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흉노문화, 중원문화, 한서2기문화, 보산문화, 부여문화와의 관련성을 언급했지만, 정작 도면, 사진 등의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않아 보고서의 분석이 맞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비교 대상 문화의 토기를 살펴봄으로써 보고서의 분석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다만, 기원전 2~1세기 흉노의

토기문화는 서차구의 토기문화와 기종 조합은 물론 개별 기종의 기형과 문양 및 시문 방식에서 현격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기에,¹² 보다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선비문화의 토기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니질토기의 경우 중원문화의 요소가 틀림없으므로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자 한다.

1. 주변 지역의 토기문화

1) 호룬패이(呼倫貝爾) 지역의 선비문화 토기

선비문화 유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들은 내몽골 호룬패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 무덤 유적으로 대체로 기원전 1세기 말~기원후 1세기로 편년된다.¹³ 토기는 협사대구관이 가장 대표적인데 모두 수제이며, 표면은 마연을



12 오강원, 2018, 앞의 글.

하였다. 대부분 구연부 외면에 돌아가며 착문(戡文)을 시문하였고, 일부 부가되
문에 착문을 시문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창구관, 속경호, 유견고복관 등이 확인
된다(그림 3).

2) 한서2기문화 토기

한서2기문화는 길림성 대안 한서 유적 제2기 유존을 대표로 하는 청동기시대
후기~초기철기시대의 고고학문화이다. 한서 유적 외에도 흑룡강성 태래 평양
묘장, 조원 백금보 제4기 유존, 조원 소랍합 유적 등에서도 한서2기문화 요소가
확인되어 이들을 모두 한서2기문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체로 대안(大安), 조
원(肇源), 송료(松辽) 일대의嫩江(嫩江)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강을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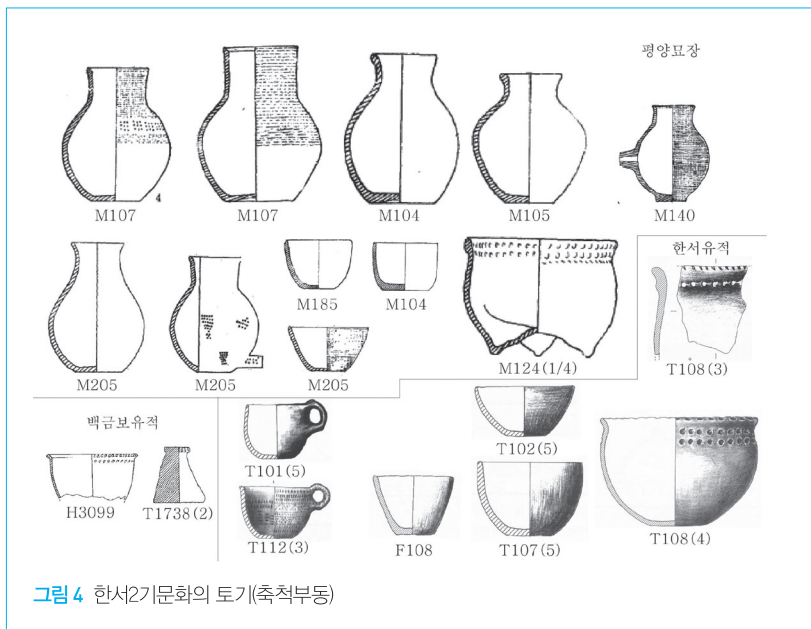


그림 4 한서2기문화의 토기(축척부동)

- 13 魏堅 主編, 2004, 『內蒙古地區鮮卑墓葬的發現與研究』, 科學出版社, 211~221쪽.

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무덤은 순수토광묘로 단인일차장이다. 토기는 니질의 무문 홍·회갈도와 다양한 문양의 채회도, 홍의도를 특징으로 한다. 기종은 고령호(高領壺), 속경호(束頸壺), 치구곡복저당력(侈口曲腹低襠陶甗), 창구절연관(敞口折沿罐), 단이배(單耳杯), 압형호(鴨形壺), 지좌(支座) 등이 있다. 문양은 승문, 착인문, 지갑문(指甲文), 부가퇴문, 비점문 등이 있다(그림 4).¹⁴ 존속 연대는 전국 전기~전한시기로,¹⁵ 대체로 기원전 5세기 후반~기원전 1세기 말이다.

3) 보산문화와 양천유형(涼泉類型) 토기

보산문화는 최초로 길림성 남부 휘발하(輝發河) 상류에 분포하는 유적을 대상으로 명명되었다. 관, 호, 두를 기본 토기 조합으로 하며, 착점문(戳點文), 누공문(鏤孔文)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유적들은 길림 남부와 요령 북부의 요길 접경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데, 길림성에서는 보산문화로, 요령성에서는 양천유형의 두 종류 고고학문화로 구분해서 명명하고 있다. 또한 유적의 지역 특징에 중점을 두고 ‘석립자유형(石砬子類型)’, ‘사가가유형(謝家街類型)’ 등의 명명도 제출되었다.¹⁶

보산문화의 토기는 대부분 크기가 작은 명기(明器)에 속하는 것으로, 관, 호, 두가 주를 이루며, 이 외에도 배, 발 등이 있다.¹⁷ 2개 또는 4개의 반이(鑿耳)가 부착된 통형관(筒形罐)과 횡교이(橫橋耳)가 부착되는 장경호가 확인된다. 한편

14 이종수, 2013, 「松花江유역 初期鐵器文化의 변천과 夫餘文化 성립과정 고찰」, 『동양학』 53, 227쪽.

15 趙賓福, 2009, 「漢書二期文化研究-遺址材料和墓葬材料的分析與整合」, 『邊疆考古研究』 8, 科學出版社, 98~116쪽.

16 金旭東·王國範·周傳波, 1988, 「1985年吉林東豐縣考古調查」, 『考古』 1988-7, 584~591쪽; 金旭東, 1992, 「東遼河流域의 若干種古文化遺存」, 『考古』 1992-4, 347~356쪽.

17 李鍾洙, 2005, 「松花江流域 初期鐵器時代 文化 研究 II -西荒山屯 古墳群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22.

맥립형(麥粒形), 원형의 착점문(戳點文)이 삼각형 또는 열을 이루며 장경호의 경부, 장각두의 대각, 관의 구연부 아래, 반이의 표면 등에 시문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두의 배신, 장경호의 동체부, 소형 고복관의 동체 및 발, 완의 동체에 2개 또는 4개의 삼각형 맹이가 부착된다. 주요 묘제는 개석묘(蓋石墓)이며, 연대는 대체로 춘추 중기에서 전국 중후기에 해당한다.¹⁸

양천유형은 요령성 북부 요하 지류의 청하(淸河), 구하(寇河) 유역에 주로 분포한다.¹⁹ 보산문화와 마찬가지로 관, 호, 두를 기본 조합으로 하며, 분(盆), 발, 완 등이 확인된다. 삼족기는 거의 없다. 토기 특징 역시 비슷한데, 문양은 원형, 맥립형 착점문이 시문되는 것 외에 착점문이 열을 이루거나 삼각형, ‘工’자형, ‘L’자형 등 모양을 형성하며 두의 대각, 호의 경부, 반이 표면에 시문된다. 그 외에 각획현문, 지갑문 장식이 대각에서 확인된다. 주요 묘제는 개석묘(또는 석관묘)이며, 대체로 전국 중기~전한 초까지 존속한다.²⁰

석립자유형과 사가가유형은 동요하 상류에 주로 분포하는데, 이 두 유형은 공간적으로 중첩되기도 하고, 유물 양상 역시 유사한 편이다. 따라서 이 둘을 동일한 문화유형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²¹

어쨌든 이 4개의 문화유형은 기본적으로 보산문화로 통칭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다소간의 차이로 인해 몇 개의 지역유형으로 세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그림 5). 한편, 이 문화유형은 출현 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춘추 중기에 보산문화가 동요하, 휘발하 상류에서 흥기하였고, 점차 번성하면서 요하 동쪽까지 확산한 것으로 이해된다. 분포 범위는 동으로는 제2송화강과

18 李萌·方啟, 2022, 「寶山文化與涼泉類型再探」, 『沈陽考古文集』 8, 科學出版社.

19 鐵嶺市博物館, 1992, 「遼北東部地區幾處青銅時代遺址調查」, 『遼寧省博物館館刊』 1992-1, 31~43쪽.

20 徐志國, 2009,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再探」, 『遼寧省博物館館刊(2009)』, 遼海出版社, 26~34쪽. 기존에는 상한을 춘추시기까지 올리기도 했지만 연식 장각두의 유통지역 출현 시기를 고려하면 전국 중기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1 李萌·方啟, 2022, 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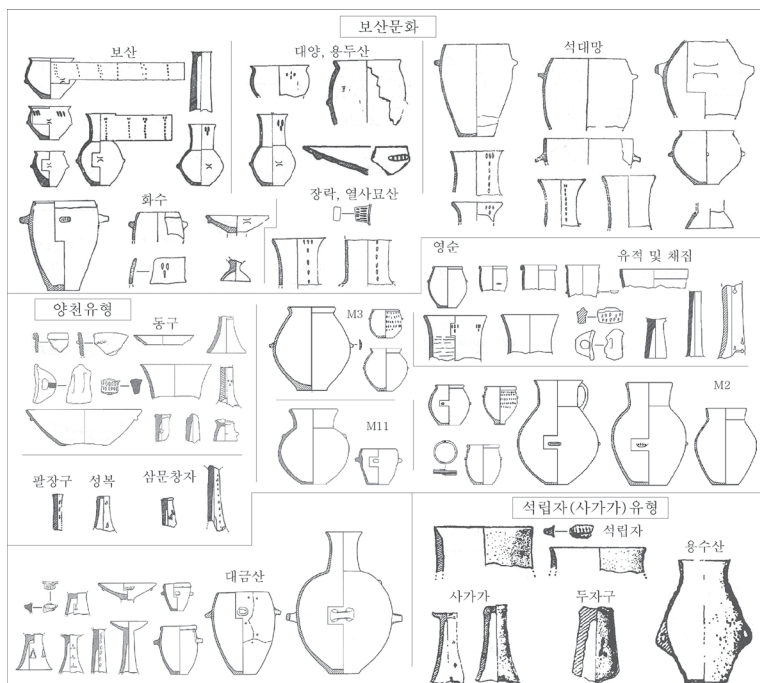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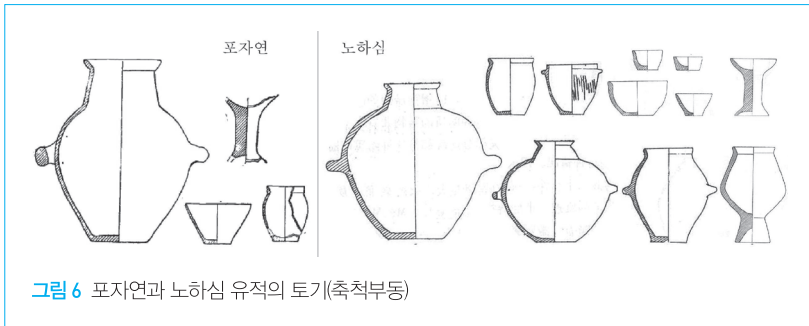
그림 5 보산문화의 토기(축척부동)(李萌·方啟, 2022 수정 편집)

휘발하 교차지대까지 이르고, 북으로는 동요하 중하류까지, 서로는 요하까지, 남으로는 혼하(渾河) 유역까지 퍼져 집안지역에서도 보산문화의 영향이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4) 포자연유형(泡子沿類型) 및 부여문화 토기

포자연유형은 기존의 서단산문화에 이어 제2송화강 유역에 출현한 문화유형으로 이후 부여문화의 표지적인 쌍이호가 표지 유물로 존재한다. 주요 유적으로

22 李萌·方啟, 2022, 앞의 글.



길림 포자연전산 유적, 우수 노하심 유적, 길림 모아산 유적 등이 있다. 존속 연대는 포자연전산 유적이 기원전 2세기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기원 전후시기의 노하심 유적, 기원후 1~2세기대의 모아산 유적까지에 해당한다.²³ 포자연유형 및 부여문화의 토기는 사립이 혼입된 니질토기가 주를 이룬다. 색조는 황갈색, 갈색, 황색, 옅은 황색, 흑갈색, 회갈색, 회색 등 다양하다. 토기는 모두 수제로 성형되었으며, 기종은 호, 관, 두, 배, 완, 충(盅) 등이 있다(그림 6). 이 중 동체부에 횡방향의 교상(橋狀) 또는 환상(環狀)의 파수가 부착된 쌍이호가 제일 표지적이다.

2. 서차구 유적과 주변 지역의 토기문화 비교

서차구 유적 출토 토기와 주변 문화 출토 토기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보고서의 분석대로 서차구 유적과 한서2기문화와의 토기 유사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속경호, 단이대구관(각치문, 진주문), 배 또는 완, 홍의도 특징에서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한편, 주구가 달린 Ca형 창구호는 포자연유형

23 吳江原, 2000, 「中滿地域の 初期鐵器文化 泡子沿式文化의 成立과 展開樣相」, 『第24回 韓國上古史學會 學術發表大會文集: 轉換期の 考古學 III-歷史時代의 黎明-』, 韓國上古史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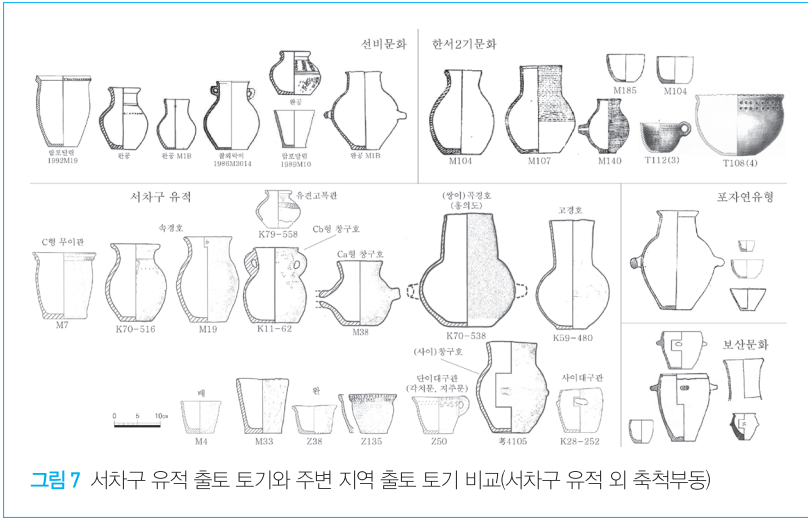


그림 7 서차구 유적 출토 토기와 주변 지역 출토 토기 비교(서차구 유적 외 축척부동)

이나 유수 노하심이 아니라 한서2기문화에서 유사한 기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구연부 각획문과 진주문 역시 한서2기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서차구 유적에서는 소형의 명기화된 토기의 일부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비문화에서 서차구 유적 토기와 유사한 기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속경호, 구연부 부가되문에 각획문을 시문한 C형 무이대구관, 경부에 종상의 파수가 부착된 Cb형 창구호, 유건고복관 등은 호륜패이의 선비문화에서 유사한 기형을 찾을 수 있어, 둘 사이에 동물 패식 등 장신구류를 통한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까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부여문화와 관련된 포자연유형과는 횡방향의 파수가 달린 쌍이호 외에 소형의 완, 발 등에서 공통점이 있을 뿐 그 외의 토기문화에서의 관련성은 찾기 어렵다.

그리고 서차구 유적의 재지적 요소로 거론되는 보산문화의 경우 사이관, 사이호, 고경호, 소형 발 또는 완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기종에서는 연결점을 찾기 어려운 것 같다. 특히 보산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형 또는 맥립형 착점문은 서차구 유적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

한 서차구 유적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소형의 발, 완, 배 등은 보산문화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고고학문화에서도 해당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꾸준하게 출토되고 있어 보산문화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가 수집한 자료에 한계가 있겠지만, 서차구의 토기문화는 소형의 발, 완, 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한서2기문화의 홍색 슬림을 입히는 방식, 구연부와 그 주변에 각획문과 착점문(진주문)을 시문하는 방식이 융합되고, 보산문화의 맹이 또는 반이 부착 특징이 일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선비문화와 관련된 토기는 수량적으로 극소수여서 서차구 유적 집단과 선비집단의 인적 교류 과정에서 반입된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IV. 고찰: 서차구 유적의 담당자

이상 서차구 유적의 토기와 주변 지역의 토기문화를 비교한 결과, 토기만 놓고 보았을 때 재지문화인 보산문화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며, 오히려 한서2기문화의 토기 제작방식이 전반적으로 확인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자연유형으로 대표되는 부여문화와의 관련성도 포자연유형 쌍이호의 존재를 제외하고 적극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다. 자료의 부족이 제일 큰 문제겠으나 현재로서는 서차구 유적은 재지의 문화 전통이 약하고 주변 토기문화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대체로 보고서의 결론처럼 한서2기문화의 주민이 서차구 유적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고, 원 거주민은 여기에 종속되는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

그런데 아무리 한서2기문화의 주민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다고 해도, 서차구 유적이 보산문화 분포권 한가운데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보산문화의 전통

24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앞의 책, 505~508쪽.

이 이렇게 약한 점은 상당히 의외이다. 어쩌면 서차구 유적이 형성되는 시기에 보산문화 세력 자체가 이 지역에서 약화된 상태였던 것은 아닐까.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보산문화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길림합달령과 대흑산산맥을 통해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의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며, 4~3세기에 길림합달령 북동부에서는 서황산둔식(西荒山屯式) 유적군을 형성하고, 대흑산산맥 일대에서는 관마산식(關馬山式) 유적군을 형성한다고 한다.²⁵ 그런데 관마산식 유적군에서는 보산문화 요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간취되는 반면, 서황산둔식 유적군에서는 고복관(또는 折腹罐) 외에는 보산문화 요소가 명확하지 않다. 서황산둔식 유적군의 표지 유적인 서황산둔 무덤에서 보이는 돌기형의 파수(瘤狀耳)가 있거나 없는 통복관(筒腹罐: 심발형토기)의 요소는 오히려 북쪽의 황어권주산M1에서 볼 수 있다.²⁶ 황어권주산M1은 대체로 기원전 3~2세기로 여겨지며,²⁷ 서황산둔 유적은 서차구의 쌍조형동병철검(雙鳥形銅柄鐵劍)보다 이른 것이 분명한 쌍조형동검이 출토되고 있어 기원전 3세기를 중심 연대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황어권주산M1 출토 통복관의 기원을 두만강 지역의 유정동문화(柳庭洞文化) 후기에서 찾고, 유정동문화 → 황어권주산M1유형(黃魚圈珠山M1類型) → 서황산둔식 유적군의 문화 흐름을 상정하기도 한다.²⁸ 이렇게 되면 관마산식 유적군은 보산문화의 복상 과정에서 형성된 유적군으로 볼 수 있으며, 서황산둔식 유적군은 황어권주산M1유형의 남하 과정에서 보산문화와의 결합으로 형성된 유적군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두 문화의 흐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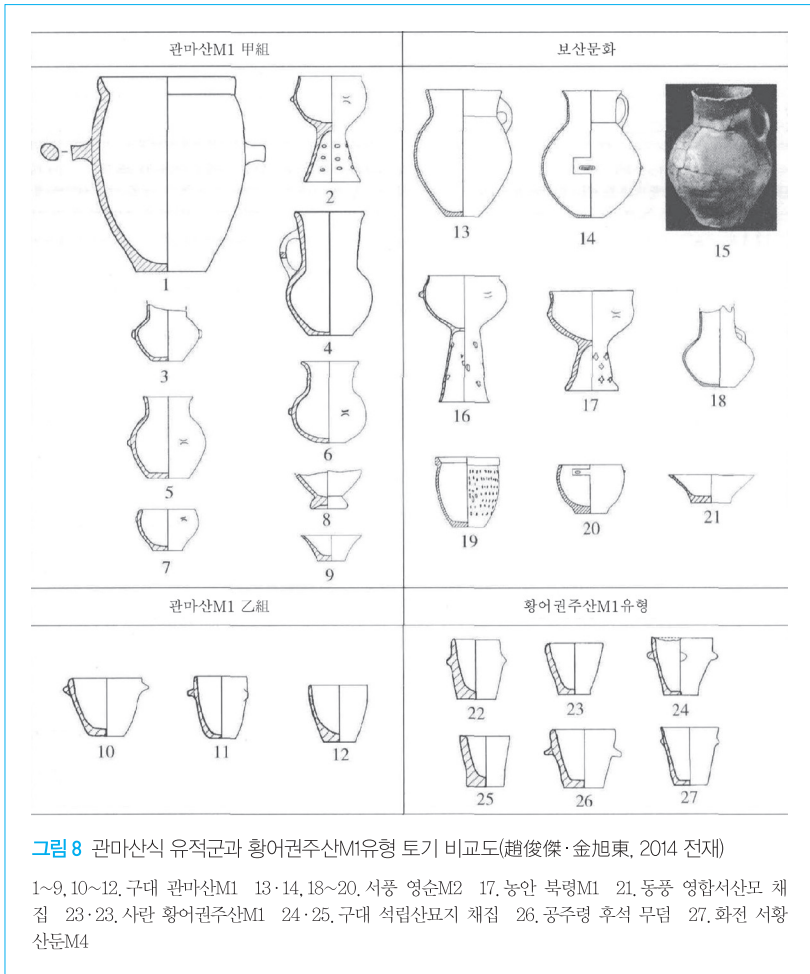
25 이종수, 2013, 앞의 글, 223~246쪽.

26 喬梁, 1993, 「吉長地區西團山文化之後的幾種古代遺存」, 『遼海文物學刊』 1993-2, 64~70쪽; 金旭東·趙俊傑·呂斌, 2011, 「黃魚圈珠山M1類型遺存再辨析」, 『邊疆考古研究』 10, 267~276쪽.

27 오강원, 2007, 「西團山文化와 吉林 中部 地域 初期 鐵器文化 諸 類型 間의 文化的 相關 關係」, 『진단학보』 104, 22~26쪽.

28 金旭東·趙俊傑·呂斌, 2011, 위의 글, 267~276쪽.

29 趙俊傑·金旭東, 2014, 「吉林九台市關馬山M1의 시대·文化性質及相關問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황산둔 유적을 포함한 황어권주산M1유형에서는 보산문화 등 여타의 다른 고고학문화와는 달리 장경호류의 토기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토기가 명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차구 유적에서

『考古』 2014-3, 98~104쪽.

확인되는 호류 토기가 대부분 외래 요소이며, 보산문화에서 보이는 장경호는 단지 2점만 출토되었고 절대다수의 토기가 간단한 기형의 소형 관, 완, 발, 배 등의 토기라는 점에서 서황산둔식 유적군의 토기문화와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차구 유적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재지의 보산문화 토기는 이 지역에서 그 양상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았으며, 황어권주산 및 서황산둔의 사례를 보았을 때 소형의 명기화된 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토기문화가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추정은 신빈 용두산 유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빈 용두산 유적은 서차구의쌍조형동병철검(雙鳥形銅柄鐵劍)이 출토되어 서차구와 비슷하거나 이른 시기로 보이는데,³⁰ 역시 소형의 명기화된 토기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서황산둔의 토기 양상과 일면 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서차구와 서황산둔, 용두산 유적을 포함하는 요동 동부지역은 서황산둔 단계부터 이미 기존의 보산문화 전통이 약해지고 길림 북부의 황어권주산M1유형 토기 요소가 복합되는 등의 문화변동을 겪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쪽에서 파급된 한서2기문화 요소가 적극적으로 복합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서차구 유적에서는 한서2기문화나 선비문화, 보산문화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쌍조형과 원주형(圓柱形)의 동병철검이 중심 무기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 중 쌍조형동병철검의 조형이(祖形)이 되는 쌍조형동검은 서차구 유적 이전 단계부터 요동 동부지역에서 폭넓게 유행하고 있었다.³¹ 이러한 재지 전통의 동검이 서차구 유적에서 동병철검으로 전환된 후 중심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서황산둔식 유적군으로 대표되는 재지집단 역시 서차구 유적 기층집단의 주요 세력이었음을 추정케 한다. 이들은 단순히

30 이후석, 2016, 「요령식 세형동검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1~192쪽.

31 박선미·마크 바잉턴, 2012, 「동북아시아 雙鳥形 안테나식검의 성격과 의미」, 『영남고고학』 63, 71~9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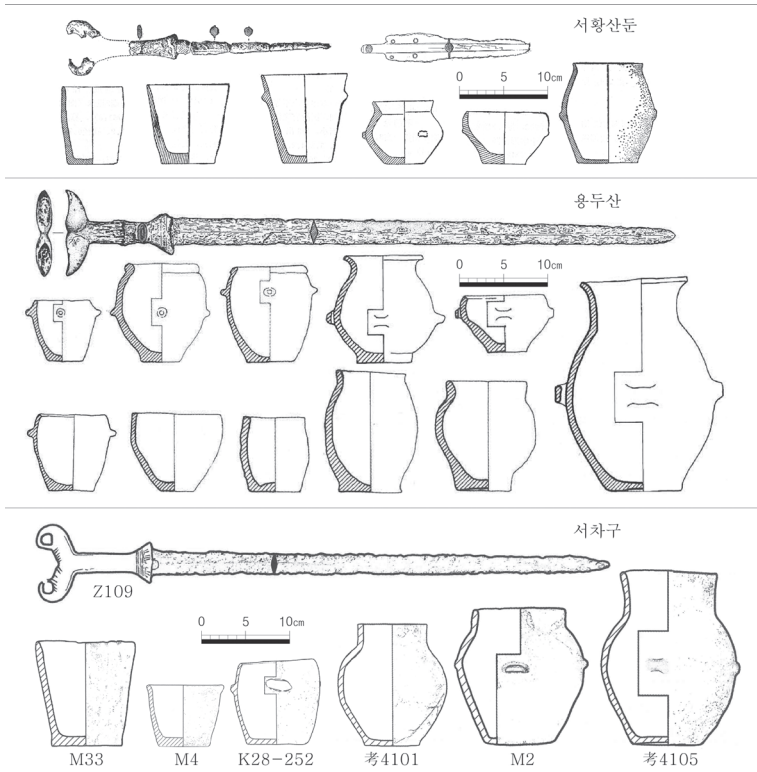


그림 9 서황산돈, 용두산, 서차구 출토 유물 비교도

한서2기문화의 주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쌍조형동병철검을 적극 생산하며, 주변 문화요소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9).

V. 맺음말

서흥 서차구 유적은 약 500여 기의 고분으로 구성된 대형 유적으로 1950년대에 그 존재가 알려진 이래 그 성격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금속기 유물 위주의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토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한정적이었다. 이 글에서는 유적의 성격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번에 정식 보고된 서차구 유적 출토 토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차구 유적의 기층문화를 담당하던 집단에 대해 초보적인 고찰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서차구 유적의 토기와 주변 지역의 토기문화를 비교한 결과, 서차구 유적이 위치한 지역의 재지문화인 보산문화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며, 오히려 한서2기문화의 토기 기형과 토기 제작방식이 전반적으로 확인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포자연유형으로 대표되는 부여문화와의 관련성도 적극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려웠다. 대체로 보고서의 결론처럼 한서2기문화의 주민이 서차구 유적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고, 원 거주민은 여기에 종속되는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차구 유적에서 보산문화 요소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기원전 5~3세기대 보산문화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또는 이동)됨에 따라, 원(原)지역에서의 보산문화 세력 자체가 점차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동요하 상류 및 휘발하 일대에서는 보산문화와 북쪽의 황어권주산M1유형 요소가 결합된 서황산둔식 유적군이 형성되는 등 일련의 문화변동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서2기문화 요소가 복합되면서 서차구 유적의 기층문화를 이루었고, 북쪽의 선비문화나 포자연유형과의 일정한 교류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황산둔식 유적군에서 확인되는 쌍조형동검은 서차구 유적에서 쌍조형동병철검으로 전환되어 원주형동병철검과 함께 이 유적의 주요 무기로 사용되는 양상이 간취된다. 이는 서황산둔식 유적군으로 대표되는 재지집단 역시 서차구 유적 기층집단의 일부가 되었고, 이들은 단순히 한서2기문화의 주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쌍조형

동병철검을 적극 생산하며, 주변 문화요소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토기자료를 통해 서차구 유적과 오환, 부여와의 관계를 밝히기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다. 다만 서차구 유적에서 기원전 1세기 말~기원후 1세기대 선비문화 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서차구 유적은 기원전후까지 존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서차구 유적에서 처음 출현하는 원주형동병철검이 부여 유적으로 평가되는 우수 노하심에서도 출토되며 일부 토기에서 공통점이 확인되는 점, 선비문화(또는 흉노문화)로 대표되는 북방 초원지역과의 네트워크가 우수 노하심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서차구 유적은 기원전후 부여문화의 형성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서차구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유적 출현 이후 소위 부여문화와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종수, 2009, 『무덤의 변화양상을 통해 본 부여사 전개과정 고찰』, 『선사와 고대』 30.

魏堅 主編, 2004, 『內蒙古地區鮮卑墓葬的發現與研究』, 科學出版社.

논문

박선미·마크 바잉턴, 2012, 「동북아시아 雙鳥形 안테나식검의 성격과 의미」, 『영남고고학』 63.

박양진, 2023, 「랴오닝 시핑 시차거우(西岔溝, 서차구) 유적의 초보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2023-3.

吳江原, 2000, 「中滿地域의 初期鐵器文化 泡子沿式文化의 成立과 展開樣相」, 『第24回 韓國上古史學會 學術發表大會文集: 轉換期の 考古學 III-歷史時代의 黎明-』, 韓國上古史學會.

_____, 2007, 「西團山文化와 吉林 中部 地域 初期 鐵器文化 諸 類型 間의 文化的 相關 關係」, 『진단학보』 104.

_____, 2018, 「서풍현(西豐縣) 서차구(西岔溝) 고분군의 문화적 성격과 계통-토기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8.

李鍾洙, 2005, 「松花江流域 初期鐵器時代 文化 研究 II -西荒山屯 古墳群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22.

_____, 2013, 「松花江유역 初期鐵器文化의 변천과 夫餘文化 성립과정 고찰」, 『동양학』 53.

_____, 2023, 「미완의 발굴, 풀지 못한 수수께끼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西豐 西岔溝-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동북아역사논총』 81.

이후석, 2016, 「요령식 세형동검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喬梁, 1993, 「吉長地區西團山文化之後的幾種古代遺存」, 『遼海文物學刊』 1993-2.

- 金旭東, 1992, 「東遼河流域의 若干種古文化遺存」, 『考古』 1992-4.
- 金旭東·王國範·周傳波, 1988, 「1985年吉林東豐縣考古調查」, 『考古』 1988-7.
- 金旭東·趙俊傑·呂斌, 2011, 「黃魚圈珠山M1類型遺存再辨析」, 『邊疆考古研究』 10.
- 徐志國, 2009,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再探」, 『遼寧省博物館館刊(2009)』, 遼海出版社.
-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西豐西岔溝: 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文物出版社.
- 李萌·方啟, 2022, 「寶山文化與涼泉類型再探」, 『沈陽考古文集』 8, 科學出版社.
- 趙賓福, 2009, 「漢書二期文化研究-遺址材料和墓葬材料的分析與整合」, 『邊疆考古研究』 8, 科學出版社.
- 趙俊傑·金旭東, 2014, 「吉林九台市關馬山M1의 時代·文化性質及相關問題」, 『考古』 2014-3.
- 鐵嶺市博物館, 1992, 「遼北東部地區幾處青銅時代遺址調查」, 『遼寧省博物館館刊』 1992-1.

서차구 유적의 토기문화와 특징

배현준

서풍 서차구 유적은 약 500여 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진 대형 유적으로, 1950년대 이후 그 성격을 둘러싸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금속기 유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토기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글은 서차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분석을 통해 유적의 기층문화를 담당한 집단을 고찰하고자 했다.

서차구 유적의 토기와 주변 지역의 토기문화를 비교한 결과, 토기만 놓고 보았을 때 재지문화인 보산문화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며, 오히려 한서 2기문화의 토기 제작방식이 전반적으로 확인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자연유형으로 대표되는 부여문화와의 관련성도 포자연유형의 쌍이호의 존재를 제외하고 적극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다. 자료의 부족이 제일 큰 문제겠으나 현재 서차구 유적은 재지의 문화 전통이 약하고 주변 토기문화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대체로 보고서의 결론처럼 한서 2기문화의 주민이 서차구 유적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고, 원 거주민은 여기에 종속되는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서차구 유적에서는 한서

2기문화나 선비문화, 보산문화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쌍조형과 원주식의 동병철검이 중심 무기로서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요동 동부의 길림 화전 서황산 둔이나 신빈 용두산 유적에서 보산문화의 착점문, 고병두 요소를 제외한 간단한 기형의 토기 요소와 함께 세형동검과 쌍조형동검, 쌍조형동병철검이 공반되고 있는데, 이들 토기 요소 역시 서차구 유적에서 확인된다는 점이다. 즉, 쌍조형동검 또는 쌍조형동병철검을 소유한 요동 동부의 재지집단이 서차구 유적의 기층 집단의 일부가 되었고, 이들은 단순히 한서2기문화의 주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쌍조형동병철검을 적극 생산하며, 주변 문화 요소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부여, 서차구, 보산문화, 토기, 동병철검

ABSTRACT

Pottery Culture and Features of the Xichagou Site

Bae Hyunjoon

The Xichagou site is a large archaeological site consisting of about 500 tombs, and its nature has been debated since its discovery in the 1950s. However, most analyses have focused on metal artifacts, with only a limited number of studies examining pottery. In this article, I will conduct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groups responsible for the underlying culture of the Xichagou site, based on the pottery from the site, which have been officially reported for the first time.

When comparing the pottery of the Xichagou site with those from surrounding areas, it appears that the influence of the Baoshan culture, a local substratum culture, is not as significant as expected. Instead, pottery production methods typical of the Hanshu 2 period culture are predominant. Furthermore, aside from the presence of a two-handled jar from the Paoziyan assemblag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strong connection with the Buyeo culture, which is represented by the Paoziyan assemblage. Although the limited

amount of data remains an issue, the Xichagou site seems to reflect a weak indigenous cultural tradition, combined with elements from surrounding pottery cultures. Overall, the report suggests that the Hanshu 2 period culture was dominant at the Xichagou site, while the indigenous group held a subordinate posi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Xichagou site features antenna-style and pillar-style iron swords with bronze hilts, which are not found in the Hanshu 2, Xianbei, or Baoshan cultures. In the eastern Liaodong region of Jilin, at the Huazhen Xihuangshantun and Xinbin Longtoushan sites, some elements of Baoshan culture pottery are found alongside slender bronze daggers, antenna-style bronze daggers, and antenna-style iron swords with bronze hilts. These pottery elements are also found at the Xichagou site. This suggests that the indigenous eastern Liaodong group, which possessed antenna-style bronze daggers or antenna-style iron swords with bronze hilts, became part of the base group at the Xichagou site. They were not merely subordinate to the Hanshu 2 period group, but actively produced antenna-style iron swords with bronze hilts that reflected their own identity, while adopting elements from the surrounding cultures.

Keywords: Buyeo, Xichagou, Baoshan Culture, Pottery, iron sword with a bronze hilt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낙양 동주왕릉의 연구 현황과 과제

— 피장자 비정과 무덤 배치를 중심으로

이준엽 | 북경대학 고고문박학원 박사과정

I. 머리말

II. 낙양 동주왕릉 발견 현황

III. 피장자 비정과 무덤 배치 연구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동주시기는 상대 이래 등장한 ‘집중공묘제도(集中公墓制度)’가 진한시대의 ‘독립능원제도(獨立陵園制度)’로 과도하는 단계로 능묘제도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¹ 또한 무덤의 형태에서 위웨이차오(俞偉超)가 제창한 ‘주제(周制)’에서 ‘한제(漢制)’로의 변화도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²

『주례(周禮)』의 기록에 따르면 주대에는 총인(冢人)과 묘대부(墓大夫)가 각각 공묘(公墓)와 방묘(邦墓)를 기획·관리하였다. 이 중 공묘³는 왕족의 묘지로, 선왕의 무덤은 중앙에 위치하고 왕의 자손들은 소묘(昭穆)의 순서에 따라 좌우에 배치되며 제후의 무덤은 왕의 자손들 무덤 앞에, 경·대부·사의 무덤은 왕의 자손들 무덤 뒤에 배치된다고 기록하고 있다.⁴ 하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상주시기 왕릉과 제후묘지 중 『주례』의 기록과 온전하게 부합하는 예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⁵ 나아가 공묘가 전국시대에 비로소 형성된 무덤제도라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⁶ 그러므로 당시 무덤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조영·배치되었는

* 투고: 2024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8월 6일, 게재 확정: 2024년 8월 13일

- 1 趙化成, 2006, 「從商周“集中公墓制”到秦漢“獨立陵園制”的演化軌跡」, 『文物』 7.
- 2 俞偉超, 1985, 「漢代諸侯王與列侯墓葬的形制分析-兼論“周制”, “漢制”與“晉制”的三階段性」, 『先秦兩漢考古學論集』, 文物出版社, 117~124쪽.
- 3 정현(鄭玄)은 『주례·춘관·총인』에 대한 『주』에서 ‘공(公)’을 ‘군(君)’이라 혼하였고, 가공연(賈公彥)은 『소』에서 공묘가 왕의 묘역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
- 4 『周禮』 春官, 冢人, “冢人掌公墓之地, 辨其兆域而爲之圖, 先王之葬居中, 以昭穆爲左右, 凡諸侯居左右以前, 卿·大夫·士居後, 各以其族.”
- 5 李伯謙, 1997, 「從晉侯墓地看西周公墓墓地制度的幾個問題」, 『考古』 11; 孫華, 1998, 「周代前期的周人墓地」, 『遠望集-陝西省考古研究所華誕四十周年紀念文集』, 陝西人民美術出版社, 265~289쪽.
- 6 秋山進午, 1982, 「中国における王陵の成立と都城」, 『小林行雄博士古希記念論

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고고학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원전 770년 주 왕실이 낙양(洛陽)으로 동천하고 기원전 256년 진나라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평왕(平王)·환왕(桓王)·장왕(莊王)·희왕(釐王)·혜왕(惠王)·양왕(襄王)·경왕(頃王)·광왕(匡王)·정왕(定王)·간왕(簡王)·영왕(靈王)·경왕(景王)·도왕(悼王)·경왕(敬王)·원왕(元王)·정정왕(貞定王)·애왕(哀王)·사왕(思王)·고왕(考王)·위열왕(威烈王)·안왕(安王)·열왕(烈王)·현왕(顯王)·신정왕(慎靚王)·난왕(赧王) 모두 25명의 왕이 재위하였고, 이들의 능묘는 당시 도읍이었던 왕성(王城)과 성주(成周) 부근에 집중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왕성능구(王城陵區), 금촌능구(金村陵區)⁷와 주산능구(周山陵區) 3개 능구로 나누어 왕릉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⁸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동주왕릉 자료 및 피장자 비정과 무덤 배치 관련 연구를 능구별로 검토한 후 관련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II. 낙양 동주왕릉 발견 현황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동주왕릉이 왕성능구, 금촌능구와 주산능구 3개 능구로 나누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연구를 검토하기 앞서 이 장에서는 중요 무덤 자료들을 능구별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文集』, 平凡社; 秋山進午, 1996, 「晋侯墓地の発掘と幾つかの問題」, 『日本中国考古学会会報』 6, 33~34쪽.

7 하도능구(下都陵區), 성주능구(成周陵區)라고도 부른다.

8 黃明蘭, 1987, 「洛陽歷代皇陵」, 『中原文物』特刊; 李德方, 1987, 「東周王陵分區考辨」, 『中原文物』特刊.

1. 왕성능구

왕성능구는 왕성의 동부와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왕성능구에서 발견된 무덤 중 왕릉으로 비정되거나 추정되는 무덤으로는 제27중학C1M10122, 제27중학 C1M10123, 제27중학(미발굴), 공안국C1M5239, 왕성광장XM66, 왕성광장 XM153, 74C1M4가 있다.

1) 제27중학C1M10122⁹

묘도가 4개 달린 ‘亞’자형 수혈토광묘이다. 주묘도는 남묘도로, 남묘도의 길이는 약 37.2m, 너비는 4.8m이고, 북묘도의 길이는 17.9m, 너비는 4.6m이며, 서묘도와 동묘도의 길이는 12.6m, 너비는 각각 3.6m와 3.5m이다. 묘도와 묘실 사이에는 상당한 낙차가 확인된다.

무덤은 남북향으로 무덤의 크기는 길이 약 7.5m, 너비 약 6.7m, 깊이 13.1m이다. 묘실 바닥에서는 높이 약 1.5m의 이층대(二層臺)가 확인되었으며 매장시설은 도굴로 인해 알 수 없다. 무덤에서는 청동기·옥기·석기·골기 등 모두 2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청동예기로는 정(鼎)·역(鬲)·작(爵)이 있으며 이 중 청동정 1점(C1M10122:76)과 청동역 2점(C1M10122:96, 유물번호 미상)에서는 각각 “王乍(作)鬻彝”¹⁰이란 내용의 명문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피장자의 성별을 나타내는 과(戈)·족(鑕) 등 청동무구류도 함께 발견되었다.

보고자는 출토유물을 근거하여 무덤의 연대를 춘추 초기로 판단하고 4개의 묘도를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장자를 동주의 초대 왕인 평왕으로 추정하였다.

9 洛陽市文物工作隊, 2011, 「洛陽體育場路東周墓發掘簡報」, 『文物』 5.

10 왕이 삶에 데 사용하는 이기(彝器)를 만들었다.

2) 제27중학C1M10123¹¹

묘도가 2개 달린 ‘中’자형 수혈토광묘이다. 남묘도와 북묘도 모두 부분 발굴하여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다. 주묘도는 남묘도로 잔존길이는 10m, 너비는 4.6m이며, 북묘도의 잔존길이는 3m, 너비는 3.4m이다.

무덤 크기는 길이 약 7.6m, 너비 약 5.2m이며, 깊이는 11.4m이다. 무덤 바닥에서는 높이 약 1.4m의 이층대가 확인되었으며 매장시설은 도굴로 인해 알 수 없다.

부장유물로는 청동기·옥기·석기·골기 등 170여 점이 출토되었다. 청동예기는 언(甗)과 준(尊)이 각각 1점씩만 발견되었고 동모(銅矛) 및 할(轄)·함(銜)·표(鏢)·절약(節約) 등의 청동 거마구가 확인되었다. 청동유물에서는 명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보고자는 출토유물을 근거하여 무덤의 연대를 춘추 초기로 판단하고 피장자를 평왕의 부인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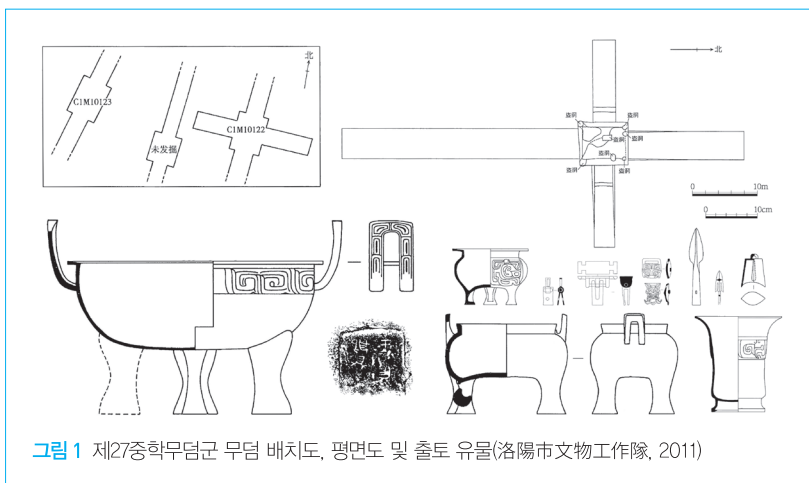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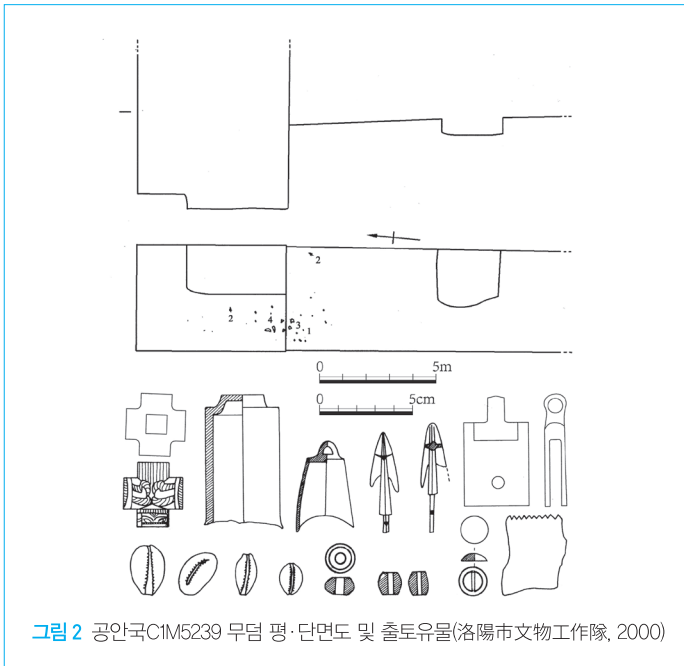
그림 1 제27중학무덤군 무덤 배치도, 평면도 및 출토 유물(洛陽市文物工作隊, 2011)

11 洛陽市文物工作隊, 2011, 앞의 글.

3) 공안국C1M5239¹²

묘도가 1개 달린 ‘甲’자형 수혈토광묘이다. 남묘도의 길이는 15.4m 이상, 너비는 4.25~4.4m이며 묘실과 묘도 사이에는 3.5m 높이의 낙차가 확인된다. 묘실은 평면이 장방형으로 길이는 6.45m, 너비는 4.6m, 깊이는 지표로부터 11m이다.

묘실은 크게 도굴되어 동족·동령(銅鈴)·동합엽(銅合頁) 등 소수의 유물만 발견되었다. 보고자는 동패(銅貝)·동합엽·동절약·동족 등 유물의 형태를 근거로 무덤의 연대를 춘추 후기로 판단하였다.



12 洛陽市文物工作隊, 2000, 「洛陽東周王城第5239號大墓發掘簡報」, 『考古與文物』 4.

4) 왕성광장XM66·XM153¹³

왕성광장에서는 모두 2기의 ‘甲’자형 수혈토광묘가 확인되었으나 두 무덤 모두 발굴하지 않아 정확한 연대를 알기 어렵다. 다만 XM153의 경우, 전국 초기로 편년되는 XM148과의 중복관계를 통해 무덤이 전국 초기 이전에 조성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피장자의 위계에서 XM66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천자가육(天子駕六)’ 거마궐(ZK5)이 발견되어 XM66과 XM153 모두 왕급무덤으로 비정되고 있다.¹⁴

5) 74C1M4¹⁵

묘도가 1개 달린 ‘甲’자형 수혈토광묘이다. 남묘도의 너비는 5.4m이며 길이는 부분 발굴로 인해 알 수 없다. 묘실은 평면이 장방형으로 길이는 7.4m, 너비는 6.4m, 깊이는 13.12m이다.

묘실 바닥과 목곽 주변에서 대량의 돌과 목탄이 확인되었다. 매장 시설은 1관2곽이며 외곽의 크기는 길이 6.4m, 너비 5.7m, 높이 2.5m이며 목관의 크기는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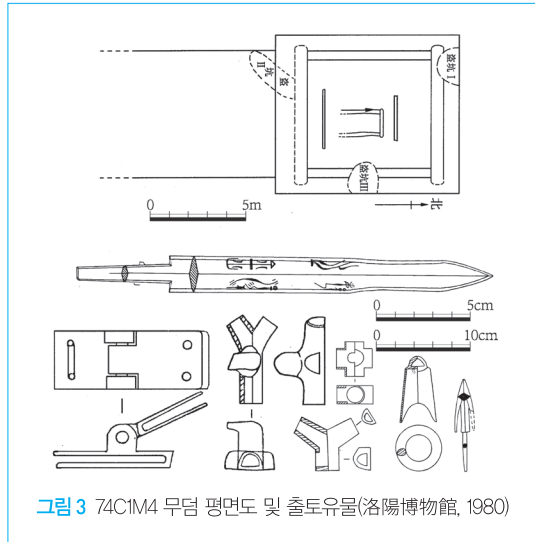


그림 3 74C1M4 무덤 평면도 및 출토유물(洛陽博物館, 1980)

13 洛陽市文物工作隊, 2009, 『洛陽東周王城廣場』, 文物出版社, 6쪽.

14 楊朝明, 2003, 「東周王陵“六馬之駕”發現的學術史意義」,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1卷 4期; 戴雨林, 2004, 「論“天子駕六”車制產生的年代」, 『洛陽大學學報』 19卷1期.

15 洛陽博物館, 1980, 「河南洛陽出土“繁陽之金”劍」, 『考古』 6.

〈표 1〉 왕성능구 왕릉 추정 무덤 일람

(단위: m)

무덤	연대	방향	묘제	묘도		묘실 크기 (길이×너비-깊이)
제27중학C1M10122	춘추 초기	1°	'亞'자형 수혈토광묘	남묘도	길이 약 37.2, 폭 4.8	약 7.5×약 6.7-13.1
				북묘도	길이 17.9, 폭 4.6	
				서묘도	길이 12.6, 폭 3.6	
				동묘도	길이 12.6, 폭 3.5	
제27중학C1M10123	춘추 초기	1°	'中'자형 수혈토광묘	남묘도	길이 10 이상, 폭 4.6	약 7.6×약 5.2-11.4
				북묘도	길이 3 이상, 폭 3.4	
제27중학(미발굴)	?	?	'中'자형 수혈토광묘	남묘도	미상	미상
				북묘도		
공안국C1M5239	춘추 후기	355°	'甲'자형 수혈토광묘	남묘도	길이 15.4 이상, 폭 4.25~4.4	6.45×4.6-11(지표)
왕성광장XM66 (미발굴)	?	?	'甲'자형 수 혈토광묘	남묘도	미상	미상
왕성광장XM153 (미발굴)	?	?	'甲'자형 수 혈토광묘	남묘도		
74C1M4	춘추 후기? 전국?	0°	'甲'자형 수 혈토광묘	남묘도	길이 미상, 폭 5.4	7.4×6.4-13.12

존길이 1.45m, 너비 1.1m, 높이 0.8m이다.

무덤은 크게 도굴되어 청동예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요 유물로는 “번양
지금(繁陽之金)”이 새겨진 동검·동족·동준(銅鑪) 등 무기류와 동합엽·옥벽(玉
璧)·석경(石磬) 등이 있다. 보고자는 무덤의 연대를 전국시대로 판단하였다.

2. 금촌능구¹⁶

『국어·주어하(國語·周語下)』에 대한 위소(韋昭)의 주(注)에 따르면 직천(翟泉)은 성주의 성(城)과 주묘(周墓)가 있는 곳이다.¹⁷ 그리고 『사기집해(史記集解)』가 인용한 『황람(皇覽)』에 따르면 경왕(景王)의 능은 성주성 동북쪽에 위치한 태창(太倉)에 위치하며,¹⁸ 『후한서(後漢書)』가 인용한 『진원강지도기(晉元康地道記)』에 따르면 위열왕의 능묘 역시 성주성 동북쪽에 위치한다.¹⁹

금촌능구는 망산(邙山)의 남쪽, 한위낙양성(漢魏洛陽城) 북성벽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76.2m(250ft) 떨어진 파상(波狀)의 대지에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능구에서 남쪽으로 2.4km(1.5mile) 안 되는 지점에는 낙하(洛河)가 동서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표에서는 봉토와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1920~1930년대에 진행된 발굴에서는 모두 8기의 묘도가 1개 달린 ‘甲’자형 대형무덤이 발견되었다. 무덤은 북과 남 2열로 나뉘어 배치되었는데 이 중 북열에 속한 I-VI호 무덤은 60.96m(200ft)를 간격으로 나란히 정렬해 있으며 남열에 속한 VII호와 VIII호 2기는 이들보다 남쪽으로 106.68m(350ft)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VII호묘 남쪽에서는 운모 조각으로 가득한 무덤 1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16 顧子剛, 1933, 「韓君墓發見略記」, 『國立北平圖書館館刊』 7卷1號; William Charles White, 1934, *Tombs of old Lo-yang*, Kelly & Walsh, limited, 이 중 「韓君墓發見略記」는 윌리엄 화이트(William Charles White)의 저서 원고의 일부를 중문으로 번역해 출간한 것이다.

17 『國語』 卷三, 周語 下, “翟泉, 成周之城, 周墓所在也.”

18 『史記集解』, “皇覽曰:「景王冢在洛陽太倉中」.” 1962년 여름, 중국과학원고고연구소 낙양공작대는 성주성 동북쪽에서 한진시기 태창으로 추정되는 건물군과 함께 묘도가 1개 달린 ‘甲’자형 무덤을 확인하였다(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工作隊, 1973, 「漢魏洛陽城初步勘査」, 『考古』 4).

19 『後漢書』 志十九 郡國一, 河南·河內·河東·弘農·京兆·馮翊·扶風·右司隸, “晉元康地道記曰:「城內南北九里七十步, 東西六里十步, 為地三百(里)(頃)一十二畝有三十六步, 城東北隅周威烈王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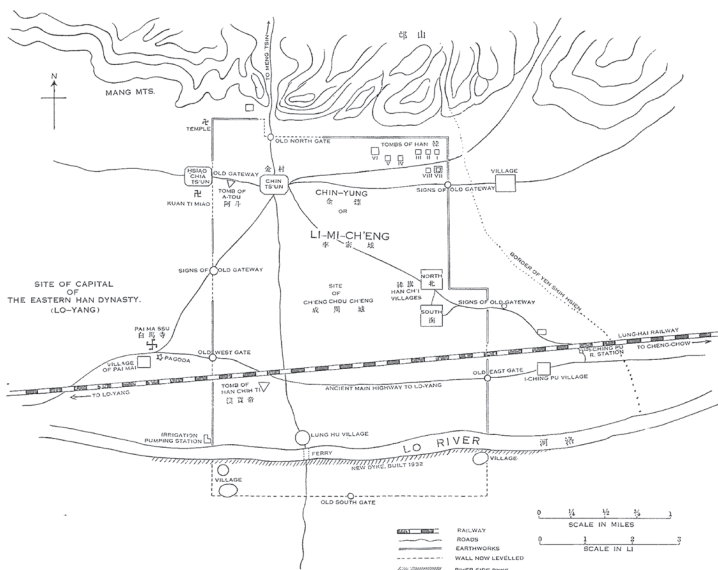


그림 4 금촌능구 위치도(White, 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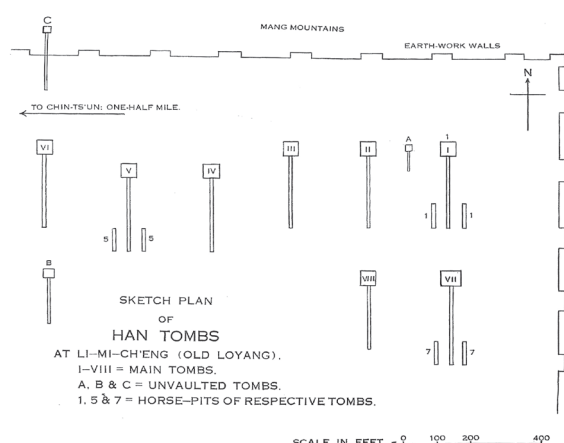


그림 5 금촌능구 유구 배치도(White, 1934)

일부 무덤의 묘도 양측에서는 거마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묘지 범위 내에서는 대형묘와 같은 열에 속하지 않으며 성격도 상이한 유구(A·B·C)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 중 A에서는 마차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어 거마갱으로 판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는 묘도가 1개 달린 ‘甲’자형 수혈토광묘 3기가 추가로 조사되었으나 기존에 발견된 8기 무덤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²⁰

1920~1930년대에 진행된 발굴에서는 V호묘 1기의 묘실만 완벽하게 발굴되었다. 보고서의 기술에 따르면 V호묘 상부의 길이는 12.19m(40ft), 바닥의 길이는 10.67m(35ft)이며, 깊이는 14.33m(47ft)이다. V호묘를 제외한 다른 1기의 무덤 상부의 길이와 폭이 역시 12.19m(40ft)로 V호묘와 함께 금춘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나머지 무덤들은 상부의 길이가 약 9.1m(30ft)이며 깊이는 7.62~14.33m(25~47ft)이다.

V호묘 묘실 남쪽에는 길이 76.2m(250ft), 너비 약 3.05m(10ft)의 묘도가 확인되었다. 묘도는 묘실 바닥 부분과 직접적으로 이어주며 묘실과 묘도 사이에는 묘문의 개폐와 관련된 직경 45cm(1.5ft) 크기의 원형 철제유물이 발견되었다.

묘실 바닥에는 얇은 판석이 남북방향으로 깔려 있으며 그 위에는 각재를 3겹으로 5층을 쌓아 팔각형의 목곽을 완성하였다. 이 중 세 번째 층에는 선반과 같은 부장품을 안치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목관은 좌측 중앙에 위치하며 북쪽을 향하고 있다. 좌측과 생토이층대 사이는 자갈로 채웠으며 목곽개 위에는 목탄과 자갈을 약 30.48cm(1ft)씩 6단을 번갈아가며 쌓아 올렸으며 그 위의 남은 공간은 모두 흙으로 충진하였다.

무덤의 구조를 기술한 윌리엄 화이트는 8기의 무덤이 모두 동일한 구조로

20 앞서 언급한 1962년에 발견된 무덤과 함께 2007년 금춘능구 동릉구(東陵區)에서도 2기의 ‘甲’자형 수혈토광묘가 확인되었다. 동릉구에 대한 시추조사 자료는 낙양 시찬탐관리판공실(洛陽市鑽探管理辦公室)의 미발표 자료로 옌후이(嚴輝, 2021)의 「洛陽金村東周王陵考古調查與勘測的總體構想」(『洛陽考古』 3)에서 재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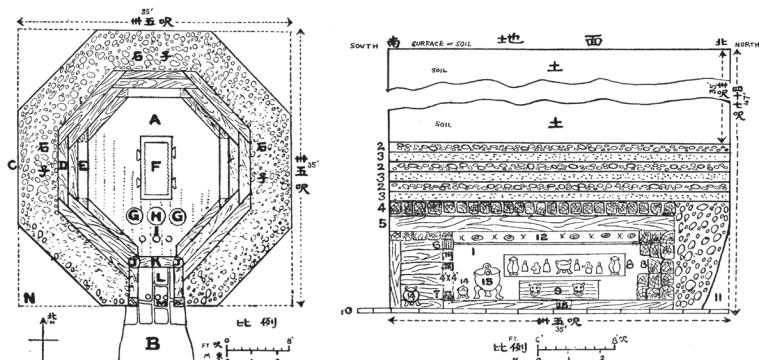


그림 6 V호묘 평·단면도(White, 1934)

되어 있으며 규모에서만 일부 차이가 확인된다고 설명하였다.

8기의 무덤 모두 단순히 유물 채집을 위한 발굴 방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물이 기록되지 못하고 소실되었다. 현재 금촌능구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는 중요 유물로는 Ⅶ호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표강종(虜羌鐘) 및 영호군사자호(令狐君嗣子壺), 착금은수렵문동경(錯金銀狩獵紋銅鏡), 은제인물상(銀製人物像), 옥인(玉印), 동인(銅印) 등이 있다.

3. 주산능구²¹

『사기집해』와 북위 역도원(酈道元)이 지은 『수경주(水經注)』가 인용한 『황람』 등에 따르면 영왕의 능묘는 하남성(河南城) 서남쪽의 주산(周山)에 위치하며,²²

21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2005, 「洛陽西郊周山東周王陵調查記」, 『中原文物』 6.

22 『史記集解』, “皇覽曰:「靈王冢在河南城西南柏亭西周山上 …」.”; 『水經注』 卷十五, 洛水·伊水·瀍水·澗水, “皇覽曰:「靈王冢在河南城西南柏亭西周山上 …」.”; 『水經注』 卷十五, 洛水·伊水·瀍水·澗水, “(洛水)枝瀆又東, 徑周山, 上有周靈王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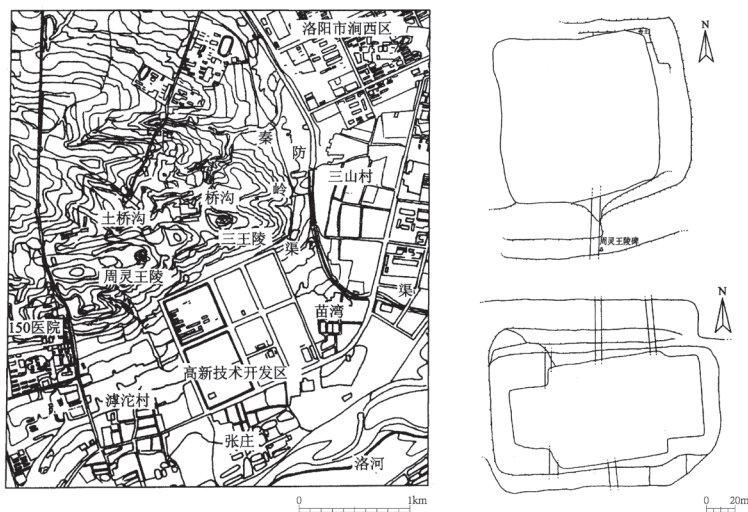


그림 7 주산능구 위치 및 시추(鑽探)조사 평면도(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2005)

주영왕의 능묘 동북쪽에는 경왕(景王)·도왕·정왕 또는 경왕(景王)·도왕·경왕(敬王)의 능묘로 추정되는 삼왕총(三王塚)이 위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²³ 문헌에서 언급되는 주산은 현재 낙양 시내에서 서남쪽으로 약 1km, 동주왕성유적에서 약 3.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주산에서는 문헌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서남-동북 방향으로 조영된 4기의 봉토무덤이 확인되었다. 이 중 서쪽에 홀로 위치한 ZSM1 능묘는 『수경주』에서의 영왕총(靈王塚)에 해당되며 능묘 앞에는 현재 청나라 대에 세운 주영왕릉비가 있다. ‘삼왕총’이라 불리는 ZSM2~ZSM4 등 3기는 ZSM1과 약 625m 떨어져 있으며 동서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수경주』에 따르면 삼왕총 동쪽에는 난

23 『水經注』卷十五, 洛水·伊水·瀍水·澗水, “皇覽曰:「周山在柏亭西北」, 謂斯亭也, 又東北徑三王陵東北出, 三王, 或言周景王·悼王·定王也, 魏司徒公崔浩注「西征賦」云定當爲敬, 子朝作難, 西周政弱人荒, 悼·敬二王, 與景王俱葬于此, 故世以三王名陵.”

〈표 2〉 주산능구 능묘 일람

	묘도		봉토
	묘도 수	크기	
ZSM1	1개	남묘도: 잔존 길이 40m, 폭 5.8~6m	복두형: 길이 105~110m, 높이 약 20m 봉토 중앙부서 길이 1.7m, 너비 1m 두께 0.6m의 거석이 확인됨
ZSM2	2개	남묘도: 잔존 길이 16m, 폭 6m	복두형: 길이 25m, 너비 41m, 높이 약 12m
		북묘도: 잔존 길이 24.5m, 폭 4m	
ZSM3	2개	남묘도: 잔존 길이 16.5m, 폭 5~6m	복두형: 길이 82m, 너비 70m, 높이 약 14m
		북묘도: 잔존 길이 40m, 폭 4m	
ZSM4	2개	남묘도: 잔존 길이 15m, 폭 25m	복두형: 길이 25m, 너비 55m, 높이 약 12m
		북묘도: 잔존 길이 35m, 폭 4m	

왕 이전 여러 왕의 명호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2002년 삼림공원 조성으로 인해 능묘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추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조사에 따르면 무덤의 묘도와 봉토의 크기는 〈표 2〉와 같다.

Ⅲ. 피장자 비정과 무덤 배치 연구

왕성능구는 금촌능구, 주산능구와 달리 문헌에서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왕의 능묘가 주산에 위치한다는 『수경주』의 기록과 경왕(敬王)대에 내란으로 인해 왕실이 성주로 천도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피장자의 범위가 일부 특정되고 있다.

왕성능구의 무덤은 왕성의 동부(왕성 동성벽 내외측)와 북부(한 하남성 북성벽 외측)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 중 왕성 동부에 위치한 무덤의 연대는 대부분

춘추시대에 해당되며, 왕성 북부에 위치한 무덤의 연대는 전국시대로 비정되고 있다. 현재 왕성능구에서 보편적으로 주왕의 능묘로 비정되는 무덤으로는 제27중학대묘C1M10122, 제27중학대묘C1M10123, 공안국C1M5239, 왕성광장XM66과 왕성광장XM153 등이 있다. 일부 연구자는 ‘번양지금(繁陽之金)’명 동검이 출토된 74C1M4를 춘추 중·후기로 편년하고 이를 왕릉에 포함시키기도 하나,²⁴ 무덤의 연대를 이보다 늦은 전국시대 초기²⁵ 또는 전국시대 후기²⁶로 편년하여 전국시대 무덤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주 왕실은 춘추시대 후기 왕자조(王子朝)의 난으로 인해 왕성에서 성주로 천도하므로 현재 왕성능구 북부에 위치한 서교(西郊)M1·서교M4 등 전국시대에 속하는 ‘甲’자형 수혈토광묘는 고왕이 동생 계(揭)를 하남(河南)에 봉한 이후 조영된 서주군(西周君)의 무덤으로 비정되고 있다.²⁷

춘추 초기에 해당하는 제27중학C1M10122는 지금까지 발견된 능묘 중 연대가 가장 이르며 유일하게 4개의 묘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다수의 연구자가 동주의 초대 왕인 평왕의 능묘로 추정하고 있다.

제27중학C1M10122에서 서쪽으로 28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된 제27중학C1M10123은 당초 보고자에 의해 주왕의 부인무덤으로 추정되었으나, 왕전(王震)은 무덤에서 무구류가 출토된 점과 무덤 간의 거리가 비교적 먼 점을 근거로 이를 C1M10122의 부인무덤이 아닌 주천자의 무덤으로 판단하였다.²⁸ 장전텅(張振騰)은 피장자를 남성의 무덤으로 판단한 왕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무덤의 규격을 이유로 피장자를 주천자가 아닌 미처 즉위하지 못하고 죽은 평왕의

24 徐昭峰, 2018, 「試論東周王城的城牆及王陵相關問題」, 『中國國家博物館館刊』 3, 24~25쪽.

25 王震, 2020, 「洛陽東周王城大墓與周王室陵寢的探索」, 『考古』 6.

26 洛陽市文物工作隊, 2009, 앞의 책, 472~474쪽.

27 潘付生·李惠君, 2011, 「洛陽西周君陵墓位置探析」, 『中原文物』 6; 徐昭峰, 2012, 「西周君陵區考辨」, 『華夏考古』 3; 王震, 2020, 위의 글.

28 王震, 2020, 위의 글, 93쪽.

아들 예보(洩父)로 판단하였다.²⁹

C1M10123을 남성의 무덤으로 판단한 왕전과 장전릉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피장자 문제는 왕전의 견해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C1M10123과 C1M10122는 묘도의 개수에서만 차이가 확인될 뿐 무덤의 크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우디(吳迪) 등이 지적한 것처럼 춘추시대 단계에서 왕급무덤이 사용하는 묘도의 개수가 2개, 4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변화가 확인된다.³⁰ 『좌전(左傳)』에 따르면 평왕을 이은 환왕 때에는 천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련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왕실의 위신이 크게 떨어진다. 묘도 개수의 변화는 이러한 시대적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³¹ 그리고 묘도 개수의 변화와 피장자의 위계 간의 관계에서 북조 진후묘지(北趙晉侯墓地)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진후 무덤은 서주 후기에 1개의 묘도를 사용한 ‘甲’자형에서 2개의 묘도를 사용하는 ‘中’자형으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묘도 개수를 제외한 무덤의 크기 및 부장품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1M10123의 피장자는 주 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공안국C1M5239의 연대는 많은 연구자가 대체로 보고자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 왕성광장XM66·왕성광장XM153의 경우 미발굴로 인해 연대 판단이 쉽지 않으나 XM66은 중복관계를 통해 전국시대 초기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연구자는 상대연대가 공안국C1M5239보다 다소 늦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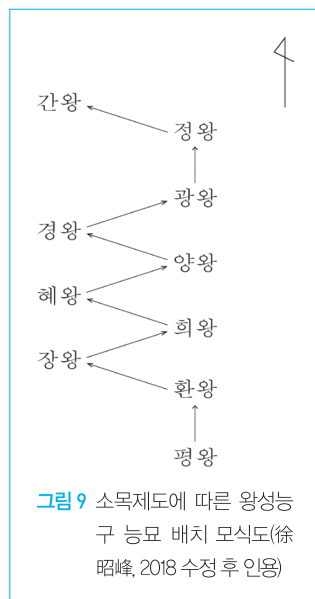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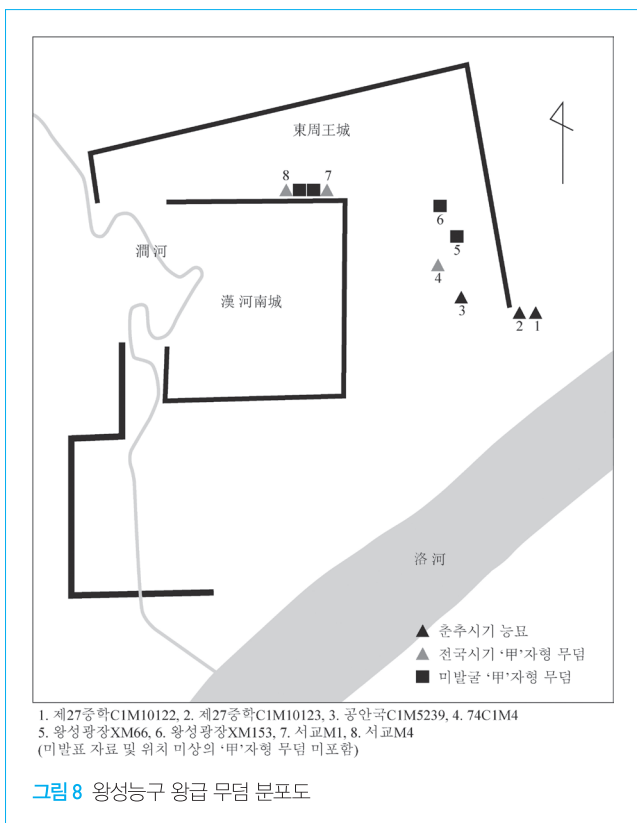
위의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현재 논란이 있는 74C1M4와 미발굴 무덤

29 張振騰, 2023, 「再論洛陽體育場路C1M10123的墓主」, 『中國國家博物館館刊』1.

30 吳迪·李德方, 2007, 「東周王城內大墓與東周王陵」, 『中國古都研究(第二十三輯)-南越國遺跡與廣州歷史文化名城學術研討會暨中國古都學會2007年年會論文集』, 三秦出版社, 407~413쪽.

31 王震, 2020, 앞의 글, 93쪽.

32 徐昭峰, 2018, 앞의 글, 27쪽.



을 제외한 왕성능구 능묘의 조영 순서는 ‘제27중학C1M10122 → 제27중학C1M10123 → 공안국C1M5239’ 순으로 이해된다.³³

이러한 연대 배열순서에 따라 쉬자오평(徐昭峰)·왕전 등 여러 연구자는 왕성의 동성벽 밖에 위치한 왕성능구가 남쪽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여 점차 북쪽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쉬자오평은 문헌에서의 소목제도(昭穆制度)와 연결하여 왕성능구가 소목제도에 따라 조영되었다고 추정하였다. 그의 견

33 徐昭峰, 2018, 앞의 글, 25~27쪽; 王震, 2020, 앞의 글, 88~91쪽.

해에 따르면 제27중학C1M10123, 공안국C1M5239, 74C1M4, 왕성광장XM66, 왕성광장XM153의 피장자는 각각 평왕, 장왕, 혜왕, 경왕(頃王), 간왕에 해당된다.³⁴ 다만 이러한 배치 방식은 무덤의 연대와 모순된다는 약점이 존재하며,³⁵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발견된 상주시기 왕릉 또는 제후무덤군에서 문헌의 기록과 같은 소목에 따른 배치 방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촌능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VII호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표강종(虬羌鐘)의 명문 내용이 초기 연구자들이 금촌능구의 국별(國別)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³⁶ 표강종에서 등장하는 제작자 표강(虬羌)을 ‘한종(韓宗)’ 즉 한(韓)나라 군주의 신하로 해석한 중국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윌리엄 화이트는 금촌능구 무덤을 한나라의 무덤으로 판단하였다.³⁷ 반면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는 금촌에서 출토된 은기 1점의 명문에서의 ‘卅七年’을 진시황 37년으로 해석하여 금촌무덤을 진(秦)나라의 무덤으로 비정하였다.³⁸ 그리고 베른하르트 칼그렌(Bernhard Karlgren)은 왕실의 도읍을 방어하기 위해 파견된 제후국의 통솔자들이 문헌 무덤으로 이해하였다.³⁹

1946년 탕란(唐蘭)은 기존의 주류 학설이었던 한나라설과 우메하라 스에지의 진나라설을 부정하고 서주군이 공(鞏)에 분봉한 동주군(東周君)의 무덤이라

34 徐昭峰, 2018, 앞의 글, 25~27쪽; 徐昭峰, 2019, 「東周王城的王陵分區與辨析」, 『三代考古(八)』, 科學出版社, 97~105쪽.

35 王震, 2020, 앞의 글, 93쪽; 朱鳳瀚, 2022, 「論所謂昭穆制」, 『中國社會科學』 1, 177~178쪽.

36 표강종의 해석을 다룬 당시 주요 논저는 다음과 같다. 徐中舒, 1932, 『虬氏編鐘圖釋』,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唐蘭, 1932, 「虬羌鐘攷釋」, 『國立北平圖書館館刊』 第6卷第1號; 吳其昌, 1931, 「虬羌鐘補考」, 『國立北平圖書館館刊』 第5卷第6號; 劉節, 1932, 「跋虬羌鐘攷釋」, 『國立北平圖書館館刊』 第6卷第1號.

37 William Charles White, 1934, 앞의 책.

38 梅原末治, 1943, 『洛陽古墓聚英(增訂版)』, 小林出版部, 66~75쪽.

39 高本漢(B. Karlgren) 저, 劉叔揚 역, 1936, 「虬羌鐘之年代(On the date of the Piao-bells)」, 『考古社刊』 4.

는 새로운 견해를 발표하였다.⁴⁰ 탕란의 견해는 이후 천명자(陳夢家)⁴¹의 지지를 받으며 중국 학계의 주류 의견으로 떠오르게 된다.

1983년 리쉐친(李學勤)은 표강종의 명문을 재해석하여 표강이 한의 배신(陪臣)이 아닌 주왕의 신하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고 나아가 금촌능구를 동주군의 무덤이 아닌 주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묻힌 능구임을 주장하였다.⁴² 현재 펑펑(馮峰)⁴³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 연구자들은 리쉐친의 견해에 따라 금촌능구를 동주왕릉으로 비정하고 있으며,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금촌능구를 왕자조의 난으로 인해 성주로 천도한 경왕(敬王)과 경왕 이후의 왕들이 묻힌 능구로 이해하고 있다.

능구의 연대는 청동 유물을 통한 연대 범위 비정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중 리쉐친과 주평한(朱鳳瀚)은 전국시대 초기에서 전국시대 후기로,⁴⁴ 왕전은 춘추시대 후기에서 전국시대 중기로 판단하고 있다.⁴⁵ 다만 쉬젠(徐堅)은 칠갑(漆匣)·옥이(玉匣) 등 일부 금촌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유물의 연대가 전국시대 말기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으며 금촌 유물자료를 집성한 윌리엄 화이트와 우메하라 스에지 모두 발굴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고 발굴에 참여한 인부, 유물 경매에 관여한 골동품상 및 유물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이들부터 보고 들은 것을 가감하여 기록한 것이므로 유물의 출처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⁴⁶ 시가 가

40 唐蘭, 1946, 「洛陽金村古墓爲東周墓非韓墓考」, 『大公報』, 1946.10.23.

41 陳夢家, 2005, 『西周年代考·六國紀年』, 中華書局, 101쪽.

42 李學勤, 1990, 「考古發現與東周王都」, 『新出青銅器研究』, 文物出版社, 239~244쪽.

43 馮峰, 2010, 「東周喪葬禮俗的考古學觀察」,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161~162쪽.

44 李學勤, 1990, 앞의 책, 241~243쪽; 朱鳳瀚, 2009, 『中國青銅器綜論』, 上海古籍出版社, 1890~1891쪽. 다만 주평한은 일부 청동 유물이 전국 초기로 편년되나 이것이 곧 금촌무덤군의 상한 연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45 王震, 2017, 「中央集權國家形成的考古學觀察-以中原地區東周時期墓葬爲中心」,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104~113쪽.

즈코(志賀和子)도 금동제마면(金銅制馬面), 동마(銅馬) 등 일부 금촌 출토품을 한대(漢代) 유물로 판단함과 동시에 각명(刻銘)이 있는 은기 대부분이 서한 초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⁷

금촌능구의 유물은 대부분 기록되지 못하고 소실되어 유물의 출토지 및 출토유구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Ⅷ호묘의 경우, 윌리엄 화이트에 의해 표강종이 출토된 무덤으로 특정되면서 피장자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다. 차이운장(蔡運章)은 표강종을 표강이 주 위열왕에게 봉부(贈賻)한 것으로 판단하여 Ⅷ호묘의 피장자를 위열왕으로 판단하였다.⁴⁸ 이에 반해 동주왕릉설을 처음 제기한 리쉐친은 주왕이 아닌 표씨(驪氏)의 무덤으로 추정하였다.⁴⁹

후진주는 비록 왕실이 성주로 천도하였으나 고왕이 동생 계를 하남에 봉하기 이전 왕들과 고왕은 모두 왕성능구로 귀장(歸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 난왕대에 다시 왕성으로 환도한 후 난왕이 주산에 부왕(父王)인 신정왕과 본인을 위한 새로운 능구인 주산능구를 조영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금촌능구에서 발견된 8기 능묘는 고왕 이후, 신정왕 이전에 해당되는 위열왕·안왕·열왕·현왕 등 4명의 왕과 왕후의 능묘로 비정된다.⁵⁰

무덤의 규모 및 형태 면에서 금촌능구를 동주왕릉으로 비정한 리쉐친의 견해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연대가 불분명한 주산능구를 제외하면, 금촌능구의 무덤은 지금까지 발견된 낙양지역 전국시대의 모든 무덤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그리고 진(秦)나라를 제외한 전국시대 왕급무덤의 묘제는 묘도

46 徐堅, 2012, 『暗流: 1940年之前安陽之外的中國考古學傳統』, 科學出版社, 289~313쪽; 徐堅, 2017, 「再造金村: 珍稀文物的失而复得之路」, 『美成在舊』 5, 34~39쪽.

47 志賀和子, 1996, 「洛陽金村出土銀器とその刻銘をめぐる」, 『日本中国考古学会会報』 6.

48 蔡運章, 2023, 『周公營洛邑與周代文明』, 科學出版社, 81~82쪽.

49 李學勤, 1990, 앞의 책, 241~242쪽.

50 胡進駐, 2006, 「關於洛陽周都與東周王陵的幾個問題」, 『考古與文物』 5, 71쪽.

가 1개 달린 ‘甲’자형 수혈토광묘 또는 묘도가 2개 달린 ‘中’자형 수혈토광묘로 나타나는데,⁵¹ 이 중 묘도가 1개인 ‘甲’자형 수혈토광묘는 금춘능구 이전에 조영된 왕성능구에서도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무덤 형태이다.

다만 팔각형 광실은 매우 이질적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윌리엄 화이트는 묘실에서 각재를 3겹으로 쌓아 만든 팔각형 목곽이 발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고마이 가즈치카(駒井和愛)는 이를 수혈식 주거와 연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⁵² 지금까지 발견된 동주시기 대형무덤 중 팔각형 목곽은 전무하다. 리쉐친은 금춘무덤의 목곽이 서교M1·M4와 유사한 장방형으로 추측하였으며,⁵³ 최근 류원hao(劉文豪) 등은 안양 은허왕릉(安陽殷墟王陵)·수주 문봉탑(隨州文峰塔)M18·수현 서권(壽縣西園)M1 등과 같은 ‘亞’자형의 목곽일 것으로 추정하였다.⁵⁴ 만약 금춘능구의 무덤에서도 ‘亞’자형 목곽임이 추후 조사로 밝혀질 경우 리쉐친의 학설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금춘능구서 확인되는 ‘甲’자형 수혈토광묘를 왕급무덤으로 비정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⁵

무덤 배치의 경우,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동주 왕과 왕후가 부부이혈합장의 형태로 묻혔을 것으로 추정된 후진주⁵⁶의 연구와 북조 진후묘지의 무덤 배치와의 유사성을 지적한 쉬자오핑⁵⁷의 연구를 제외하면 관련 연구는 전무하다.

51 梁雲, 2013, 「戰國王陵形制的東西差別」, 『社會科學實踐』 6.

52 駒井和愛, 1936, 「河南省金村出土木槨墓の形式に就いて」, 『人類學雜誌』 51卷 11號.

53 李學勤, 1990, 앞의 책, 240~241쪽.

54 劉文豪·李勇, 2023, 「金村東周王陵墓葬形制辨析」, 『洛陽考古』 2.

55 최근 안휘성(安徽省) 회남시(淮南市) 삼화진(三和鎮)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초나라 무덤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위계가 가장 높은 무왕돈1호묘(武王墩1號墓)를 발굴하였는데 무왕돈1호묘의 묘실에서도 ‘亞’자형 목곽이 확인되었다. 무덤의 연대는 전국시대 후기며, 피장자는 초나라의 왕으로 추정되고 있다(李瑞, 2024, 「楚國最高等級墓葬已提取文物超千件: 武王墩墓考古工作取得重要成果」, 『中國文物報』, 2024.4.19).

56 胡進駐, 2006, 앞의 글, 71쪽.

57 徐昭峰, 2019, 앞의 글, 119쪽.

윌리엄 화이트는 금촌의 능묘가 일정 간격을 두고 1기씩 단독으로 배치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만 천명자의 기록에 의하면 윌리엄 화이트는 금촌의 한 목공이 구술한 것을 토대로 무덤 배치도를 작성하였다고 한다.⁵⁸ 그러므로 위의 배치도는 무덤의 실제 배치 형태와 많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조 진후묘지, 준현 신촌 위국묘지(濬縣辛村衛國墓地) 등 서주시기 희성주인(姬姓周人) 제후무덤과 양설 진후묘지(羊舌晉侯墓地), 양대촌 예국묘지(梁帶村芮國墓地), 신정 호장 한왕릉(新鄭胡莊韓王陵) 등 동주시기 희성 제후무덤과 왕릉은 모두 부부이혈합장묘의 형태로 나타나 윌리엄 화이트가 기록한 금촌능구의 배치 방식과 대별된다. 지금까지 발굴된 제후급무덤과 왕급무덤 중 단일무덤 또는 남성무덤만 집중 매장된 경우는 안양 은허왕릉, 예현 대보자산 진공묘지(禮縣大堡子山秦公墓地), 한단 조왕릉(邯鄲趙王陵) 등 소위 비희성주인계 제후무덤 또는 왕릉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금촌능구의 능묘가 부부이혈합장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본 후진주의 견해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주산능구는 왕성능구·금촌능구와 달리 문헌에서 능묘의 수 및 피장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된다. 북위 역도원이 지은 『수경주』에는 ZSM1을 영왕의 능으로, ZSM2~ZSM4의 피장자를 각각 경왕(景王)·도왕·정왕으로 추정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다.⁵⁹ 그리고 『서정부(西征賦)』에 대해 주를 단 위나라의 사도공(司徒公) 최호(崔浩)는 ZSM2~ZSM4의 피장자를 각각 경왕(景王)·도왕·경왕(敬王)으로 추정하였다.⁶⁰

『수경주』의 기록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리더팡(李德方)·차이원장 등은 모두 역도원의 『수경주』를 인용하여 ZSM1의 피장자를 영왕으로, ZSM2~M4의 피장자를 경왕(景王)·도왕·경왕(敬王)으로 비정하였

58 潘辰, 2017, 「金村傳說：懷履光與洛陽文物之謎」, 『美成在舊』 5, 21쪽.

59 『水經注』 卷十五, 洛水·伊水·瀍水·澗水, “皇覽曰：「周山在柏亭西北」, 謂斯亭也。又東北徑三王陵東北出, 三王, 或言周景王·悼王·定王也。”

60 『水經注』 卷十五, 洛水·伊水·瀍水·澗水, “魏司徒公崔浩注「西征賦」云定當爲敬, 子朝作難, 西周政弱人荒, 悼·敬二王, 與景王俱葬于此, 故世以三王名陵。”

는데,⁶¹ 이 중 리더팡은 낙양지역서 한대 다묘도(多墓道) 봉토무덤의 발견 예가 적은 점, 봉토무덤이 춘추-전국 교체기에 등장하는 점 및 『국어·주어하』에 기록된 영왕 22년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왕성능구가 왕성과 함께 홍수로 피해를 입으면서 부둣이 새로운 능구를 조성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자오자오(趙兆)는 영왕과 경왕(景王)의 능묘가 주산에 위치한다는 『수경주』의 기록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부부이혈합장묘의 형태로 나타나는 제후무덤자료와 『주례』의 “凡死于兵者，不入兆域” 기록을 참고하여 삼왕총을 문헌에 언급된 3명의 왕이 아닌 1명의 왕과 2명의 왕후가 묻힌 무덤군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묘도 수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하여 ZSM2~M4의 피장자를 영왕과 왕후로, 묘도 1개만 사용하는 ZSM1의 피장자를 영왕의 아들인 경왕(景王)으로 비정하였다.⁶²

우예형(吳業恒)과 스자전(史家珍)은 『수경주』의 기록에 따라 ZSM1의 피장자를 영왕으로 판단하였으나 삼왕총의 피장자에 있어 왕자조의 난으로 피살된 도왕이 아닌 영왕의 아들 경왕(景王)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⁶³

후진주는 주산능구를 난왕이 왕성으로 환도한 후 조성된 것으로 보고 ZSM1을 난왕, 삼왕총의 피장자를 신정왕과 왕후로 판단하였다. 이는 금촌능구가 고왕 이후 3대에 걸쳐 조성되었다는 본인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⁶⁴

왕전은 후진주와 같이 ZSM2~ZSM4를 난왕이 왕성으로 환도한 후 조성한 부왕 신정왕과 왕후의 능묘 그리고 ZSM1을 난왕의 능묘로 판단하면서 영왕 22년에 발생한 홍수가 왕릉 조성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61 李德方·李月娥, 2006, 「洛陽周山“周王三陵”考」, 『河洛春秋』 4; 李德方, 2009, 「洛陽周山東周王陵考述」, 『三門峽職業技術學院學報』 8卷4期; 蔡運章, 2007, 「中華第一陵-洛陽高新區周山東周王陵考」, 『建築與文化』 3.

62 趙兆, 2016, 「周山王陵墓主身份考」, 『洛陽考古』 1.

63 吳業恒·史家珍, 2019, 『考古洛陽』, 科學出版社, 63쪽.

64 胡進駐, 2006, 앞의 글, 71쪽.

〈표 3〉 주산능구 피장자에 대한 연구 일람

연구자	피장자	
	ZSM1	ZSM2~M4
李德方(1987)	靈王	景王·悼王 및 赧王(?)
胡進駐(2006)	赧王	愼靚王과 왕후
李德方 등(2006)	靈王	景王·悼王·敬王
李德方(2009)		
蔡運章(2007)	靈王	景王·悼王·敬王
趙兆(2016)	景王	靈王 및 靈王의 부인
王震(2018)	赧王	愼靚王 및 愼靚王의 부인
徐昭峰(2019: 112~115)	靈王	景王·悼王 및 赧王
吳業恒 등(2019: 63)	靈王	景王
蔡運章(2023: 82~86)	靈王	景王·悼王·敬王

기존 왕성능구와 금촌능구에서 확인되지 않는 거대한 봉토는 주왕이 제후들의 봉부를 받아 축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⁶⁵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산능구는 현재 피장자 문제에 연구자 간 이견이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주산능구의 조영기간은 현재 춘추시대 후기(영왕~경왕)와 전국시대 후기(난왕)로 보는 견해로 이분되고 있다. 『수경주』의 기록을 따르는 경우 주산능구의 피장자는 영왕 및 영왕 이후에 재위한 경왕(景王)·도왕 등으로 비정되며, 이후 왕자조의 난으로 인해 왕실이 성주로 천도하면서 주산능구의 능묘 조영이 중지되고 금촌능구의 조영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시간 관계상 ‘왕성능구 → 주산능구 → 금촌능구’가 성립된다. 이에 반해 난왕의 환도 이후 조영되었다고 판단하는 연구자들은 문헌기록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를 따를 경우 능구 간 시간적 관계는 ‘왕

65 王震, 2018, 「洛陽周山陵區墓主再議」, 『洛陽考古』 3.

성능구 → 금촌능구 → 주산능구'로 이해된다.

주산능구의 조영기간으로 추정되는 두 시기 모두 동주 왕실이 가장 혼란했던 시기에 해당된다. 먼저 영왕~경왕 대에는 경왕(景王) 사후 왕자조의 난이 두 차례 발발하여 도왕이 살해당하고 왕실은 성주로 천도하게 된다. 난왕 대에는 왕실이 다시 본래 수도였던 왕성으로 환도하나 서주군에 의해 사실상 왕성에 거거하는 신세에 지나지 않았으며,⁶⁶ 난왕 59년 제후들과 연합하여 진나라를 공격하려다 도리어 왕조가 멸망한다. 그러므로 대규모 봉토무덤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두 견해 모두 합리적인 해석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추조사만 진행되어 무덤의 정확한 연대는 파악할 수 없으나 류센핑(劉賢鵬)은 봉토의 형태와 외장갱(外藏坑)의 부재를 근거로 주산능구 봉토묘의 조영 연대를 전국 중기~동주 멸망 이전(기원전 256년 이전)으로 편년한 바 있다.⁶⁷ 이 중 복두형 봉토의 경우, 앞서 여러 연구자가 지적한 것처럼 춘추-전국교체기에 처음 등장하여 전국시대에 크게 유행한다. 그리고 서한시기의 경우, 황제릉과 일부 제후왕묘에서 복두형의 봉토가 확인된다.⁶⁸ 그러므로 주산능구의 연대를 판단하는데 복두형의 봉토 형태는 시간적 의의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외장갱의 경우, 전국시대 일부 왕릉과 제후무덤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으며, 한대의 경우 서한 초기 이른 단계(西漢早期偏早)부터 서한 중기 늦은 단계(西漢中期偏晚)까지 약 100년간 유행하며 이후 시기에는 제후와 왕급 무덤에서 외장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다.⁶⁹ 따라서 외장갱의 유무를 통해 주산능구의 영왕릉과 삼왕릉이 서한 중기 늦은 단계 이후에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66 『史記正義』, “敬王從王城東徙成周, 十世至王赧, 從成周西徙王城, 西周武公居焉.”; 『史記集解』, “赧是慘耻之甚, 輕微危弱, 寄住東西, 足爲慘赧, 故號之曰赧.”

67 劉賢鵬, 2021, 「洛陽周山大墓年代試探」, 『三代考古(九)』, 科學出版社, 538~549쪽.

68 劉振東, 2015, 『冥界的秩序: 中國古代墓葬制度概論』, 文物出版社, 73, 106~107쪽.

69 劉尊志, 2021, 『漢代墓外設施研究: 以王侯墓葬與中小型墓葬爲參考』, 科學出版社, 146~149쪽.

더욱이 전언에 따르면, 1936년 이전 영왕총으로 비정되는 ZSM1에서 발생한 도굴 과정에서 주대의 유물이 아닌 진한시기의 대반(大盤)·동정(銅鼎) 등이 출토되었다고 하며,⁷⁰ 1920년대 도굴된 삼왕총 중 1기의 능묘에서도 한대 도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⁷¹ 또한 무덤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희성주인 계통의 무덤은 남북향을 중시하여⁷² 두향을 북쪽에, 주묘도를 남묘도에 두는 것과 달리 주산능구의 삼왕총은 북묘도가 남묘도보다 긴 형태로 나타나 전형적인 희성주인 계통의 무덤과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동주왕릉의 조영 순서와 피장자를 밝히는 데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산능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비록 동주왕릉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은 다소 미진하나 왕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피장자 문제는 능구의 조영과정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문헌에서 간략하게 언급되는 능묘제도를 복원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이다.

현재 각 능구별 피장자 문제에서 왕성능구와 금촌능구는 일부 피장자를 제외하면 큰 이견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산능구는 연대와 성격에서 연구자 간의 의견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원인 중 3개의 능구 모두 체계적인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으나, 다른 능구와 달리 거대한 봉토와 묘도가 2개인 ‘中’자형 무덤이 확인되는

70 李健人, 1936, 『洛陽古今談』, 史學研究社, 308쪽.

71 李德方, 1987, 앞의 글, 49쪽.

72 劉緒, 2008, 「晉乎? 衛乎?—琉璃閣大墓的國屬」, 『中原文物』 3, 46~47쪽.

등 무덤형태의 변천과정에서 이전 시기의 능묘들과 계승적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하나의 큰 원인으로 뽑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산능구의 연대와 성격은 추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무덤 배치의 경우, 금촌능구와 주산능구 모두 개별 능묘의 연대를 파악할 수 없어 어떠한 원칙과 순서로 조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왕성능구의 경우 일부 능묘를 통해 대략적인 조영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문헌에 등장하는 소목제도에 따른 조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낙양시고고연구원(전 낙양시문물고고연구원)에서 금촌능구에 대한 조사 계획을 이미 세웠으며 2024년 금촌능구에 대한 시굴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⁷³ 해당 조사가 금촌능구의 범위·연대·성격 등 산재한 여러 학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73 嚴輝, 2021, 「洛陽金村東周王陵考古調查與勘測的總體構想」, 『洛陽考古』 3.

참고문헌

사료

- [南朝宋]範曄, 2012, 『後漢書』, 中華書局.
- [北魏]酈道元, 陳橋驛·葉光庭·葉揚 譯, 陳橋驛·王東 注, 2020, 『水經注』, 中華書局.
- 楊天宇 撰, 2004, 『周禮譯注』, 上海古籍出版社.
- [戰國]左丘明 著, [吳]韋昭 注, 胡文波 校點, 2015, 『國語』, 上海古籍出版社.
- [漢]司馬遷, [宋]裴駟 集解, [唐]司馬貞 索隱, [唐]張守節 正義, 2013, 『史記』, 中華書局.

단행본

- 洛陽市文物工作隊, 2009, 『洛陽東周王城廣場』, 文物出版社.
- 徐堅, 2012, 『暗流: 1940年之前安陽之外的中國考古學傳統』, 科學出版社.
- 孫華, 1998, 「周代前期的周人墓地」, 『遠望集-陝西省考古研究所華誕四十周年紀念文集』, 陝西人民美術出版社.
- 吳業恒·史家珍, 2019, 『考古洛陽』, 科學出版社.
- 俞偉超, 1985, 「漢代諸侯王與列侯墓葬的形制分析-兼論“周制”, “漢制”與“晉制”的三階段性」, 『先秦兩漢考古學論集』, 文物出版社.
- 劉尊志, 2021, 『漢代墓外設施研究: 以王侯墓葬與中小型墓葬爲參考』, 科學出版社.
- 劉振東, 2015, 『冥界的秩序: 中國古代墓葬制度概論』, 文物出版社.
- 李健人, 1936, 『洛陽古今談』, 史學研究社.
- 李學勤, 1990, 「考古發現與東周王都」, 『新出青銅器研究』, 文物出版社.
- 朱鳳瀚, 2009, 『中國青銅器綜論』, 上海古籍出版社.
- 陳夢家, 2005, 『西周年代考·六國紀年』, 中華書局.
- 蔡運章, 2023, 『周公營洛邑與周代文明』, 科學出版社.
- 梅原末治, 1943, 『洛陽古墓聚英(增訂版)』, 小林出版部.

William Charles White, 1934, *Tombs of old Lo-yang*, Kelly & Walsh, limited.

논문

- 高本漢(B. Karlgren) 저, 劉叔揚 역, 1936, 「甌羌鐘之年代(On the date of the Piao-bells)」, 『考古社刊』 4.
- 顧子剛, 1933, 「韓君墓發見略記」, 『國立北平圖書館館刊』 7卷1號.
- 洛陽博物館, 1980, 「河南洛陽出土“繁陽之金”劍」, 『考古』 6.
- 洛陽市文物工作隊, 2000, 「洛陽東周王城第5239號大墓發掘簡報」, 『考古與文物』 4.
- _____, 2011, 「洛陽體育場路東周墓發掘簡報」, 『文物』 5.
-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2005, 「洛陽西郊周山東周王陵調查記」, 『中原文物』 6.
- 戴雨林, 2004, 「論“天子駕六”車制產生的年代」, 『洛陽大學學報』 19卷1期.
- 潘付生·李惠君, 2011, 「洛陽西周君陵墓位置探析」, 『中原文物』 6.
- 徐堅, 2017, 「再造金村: 珍稀文物的失而复得之路」, 『美成在舊』 5.
- 徐昭峰, 2012, 「西周君陵區考辨」, 『華夏考古』 3.
- _____, 2018, 「試論東周王城的城牆及王陵相關問題」, 『中國國家博物館館刊』 3.
- _____, 2019, 「東周王城的王陵分區與辨析」, 『三代考古(八)』, 科學出版社.
- 瀋辰, 2017, 「金村傳說: 懷履光與洛陽文物之謎」, 『美成在舊』 5.
- 梁雲, 2013, 「戰國王陵形制的東西差別」, 『社會科學實踐』 6.
- 楊朝明, 2003, 「東周王陵“六馬之駕”發現的學術史意義」,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1卷 4期.
- 嚴輝, 2021, 「洛陽金村東周王陵考古調查與勘測的總體構想」, 『洛陽考古』 3.
- 吳迪·李德方, 2007, 「東周王城內大墓與東周王陵」, 『中國古都研究(第二十三輯)-南越國遺跡與廣州歷史文化名城學術研討會暨中國古都學會2007年年會論文集』, 三秦出版社.
- 王震, 2017, 「中央集權國家形成的考古學觀察-以中原地區東周時期墓葬為中心」,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 _____, 2018, 「洛陽周山陵區墓主再議」, 『洛陽考古』 3.
- _____, 2020, 「洛陽東周王城大墓與周王室陵寢的探索」, 『考古』 6.
- 劉文豪·李勇, 2023, 「金村東周王陵墓葬形制辨析」, 『洛陽考古』 2.
- 劉緒, 2008, 「晉乎? 衛乎?-琉璃閣大墓的國屬」, 『中原文物』 3.

- 劉賢鵬, 2021, 「洛陽周山大墓年代試探」, 『三代考古(九)』, 科學出版社.
- 李德方, 1987, 「東周王陵分區考辨」, 『中原文物』特刊.
- , 2009, 「洛陽周山東周王陵考述」, 『三門峽職業技術學院學報』8卷4期.
- 李德方·李月娥, 2006, 「洛陽周山“周王三陵”考」, 『河洛春秋』4.
- 李伯謙, 1997, 「從晉侯墓地看西周公墓墓地制度的幾個問題」, 『考古』11.
- 張振騰, 2023, 「再論洛陽體育場路C1M10123的墓主」, 『中國國家博物館館刊』1.
- 趙兆, 2016, 「周山王陵墓主身份考」, 『洛陽考古』1.
- 趙化成, 2006, 「從商周“集中公墓制”到秦漢“獨立陵園制”的演化軌跡」, 『文物』7.
- 朱鳳瀚, 2022, 「論所謂昭穆制」, 『中國社會科學』1.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工作隊, 1973, 「漢魏洛陽城初步勘查」, 『考古』4.
- 蔡運章, 2007, 「中華第一陵—洛陽高新區周山東周王陵考」, 『建築與文化』3.
- 馮峰, 2010, 「東周喪葬禮俗的考古學觀察」,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 胡進駐, 2006, 「關於洛陽周都與東周王陵的幾個問題」, 『考古與文物』5.
- 黃明蘭, 1987, 「洛陽歷代皇陵」, 『中原文物』特刊.
- 駒井和愛, 1936, 「河南省金村出土木槨墓の形式に就いて」, 『人類學雜誌』51卷11號.
- 志賀和子, 1996, 「洛陽金村出土銀器とその刻銘をめぐって」, 『日本中国考古学会會報』6.
- 秋山進午, 1982, 「中国における王陵の成立と都城」, 『小林行雄博士古希記念論文集』, 平凡社.
- , 1996, 「晋侯墓地の発掘と幾つかの問題」, 『日本中国考古学会會報』6.

기타 자료

- 唐蘭, 1946, 「洛陽金村古墓爲東周墓非韓墓考」, 『大公報』, 1946.10.23.
- 李瑞, 2024, 「楚國最高等級墓葬已提取文物超千件：武王墩墓考古工作取得重要成果」, 『中國文物報』, 2024.4.19.

낙양 동주왕릉의 연구 현황과 과제

— 피장자 비정과 무덤 배치를 중심으로 —

이준엽

동주왕릉은 왕성능구, 금촌능구, 주산능구 등 3개의 능구로 나누어 조영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중 금촌능구와 주산능구는 문헌에서 피장자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 능구의 피장자를 논하는 데 많이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산능구에서 확인되는 봉토와 묘도 등 무덤의 형태는 왕성능구, 금촌능구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피장자를 비정하는 데 여러 이견이 존재하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능구의 조영순서와 능묘제도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 능구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산능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발굴이 중요하다.

금촌능구와 주산능구는 발굴의 한계로 인해 무덤의 배치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왕성능구에서는 문헌에서 언급되는 소목제도에 따른 배열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낙양시고고연구원에 따르면 추후 금촌능구에 대한 발굴이 계획되어 있다. 해당 조사를 통해 금촌능구와 관련된 여러 학술적 난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동주왕릉, 피장자 비정, 무덤 배치

ABSTRACT

Current Research Status and Tasks of the Royal Tombs of Eastern Zhou: Focused on Identification of Tomb Owner and Tomb Arrangement

Lee Joonyup

The Royal Tombs of Eastern Zhou are considered to be constructed in 3 mausoleum areas which consist of Wangcheng Mausoleum area(王城陵區), Jincun Mausoleum area(金村陵區), and Zhoushan mausoleum area(周山陵區). The Jincun and Zhoushan Mausoleum areas are partially mentioned in historical records and are thus frequently cited when identifying the owners of these tombs. However, the tombs in the Zhoushan Mausoleum Area differ significantly from those in the Wangcheng and Jincun Mausoleum Areas in terms of tomb structure, such as the passage and burial mounds. This discrepancy has led to various disagreements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tomb owners. These differing views significantly impact the understanding of the construction sequence of the Mausoleum areas and the evolution of tomb structures.

Therefore, to clarify the nature of each mausoleum area, further research and excavation of the Zhoushan Mausoleum Area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erms of the arrangement of tomb. Jincun Mausoleum area and Zhoushan Mausoleum area cannot be identified due to the limitation of excavation, but in Wangcheng Mausoleum area, there has not confirmed the zhaomu(昭穆) system that in historical records

According to Luoyang City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Research Institute(洛陽市考古研究院), there will be an excavation in Jincun Mausoleum area and it is expected to solve various academic problems which is related to Jincun Mausoleum area.

Keywords: Royal tombs of Eastern Zhou, identification of tomb owner, arrangement of tomb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성곽의 편년 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 한국고대 축성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종오 |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박물관장

I. 머리말

II. 한국고대 축성사의 전개과정

III. 고구려 성곽 발굴의 현 단계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고구려는 성을 구루(溝婁), 흘(忽)이라 불렀으며 이는 곡(谷), 동(洞), 읍(邑)¹을 나타내는 고을과 통한다. 험준한 산에 의지해 성을 쌓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냈으니, 산성(山城)의 나라인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 신대왕 8년(172)조에는 “우리나라에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으니, 이는 이른바 한 사람이 관(關)을 지키면 만 명도 당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가 도량을 깊이 파고 루(壘)를 높이 쌓아 들판을 비운다면 저들(한나라군)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굶주리고 곤궁해져 돌아갈 것이다”²라고 명령답부가 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영성고수(嬰城固守)를 통한 산성에서의 농성전과 성내·외 시설물의 효율성을 언급한 것으로 여겨진다.³ 또 동서(同書) 보장왕 6년(647)조 기사를 보면 당나라 정천숙이 “고구려는 산에 의지하여 성을 쌓아서 빨리 쳐서 빼앗을 수 없다”⁴라고 하였는데, 이로 보아 고구려는 전시기 동안 산성 중심의 수성전 및 방어체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웅혼한 느낌과 함께 한민족의 자부심이 되살아난다. 고구려의 성곽⁵

* 투고: 2024년 7월 17일, 심사 완료: 2024년 8월 6일, 게재 확정: 2024년 8월 13일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검토 학술회의(2023. 12.17.)”에서 발표한 ‘고구려 성곽의 편년 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邕’, ‘營’ 따위에 쓰인 ‘邑’을 이른다. ‘郡’, ‘鄉’ 따위에 쓰일 때는 자형이 ‘卩’으로, 명칭은 ‘우부방’으로 바뀐다(『표준국어대사전』).

2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 新大王 8年條, “且我國山險而路隘 此所謂 一夫當關 萬夫莫當者也 … 若我深溝高壘 清野以待之 彼必不過旬月 饑困而歸.”

3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 新大王 8年條, “王然之 嬰城固守 漢人攻之 不克 士卒饑餓引還.”

4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 寶藏王 6年條, “高句麗依山爲城, 不可猝拔.”

은 과연 언제부터 쌓여진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특히 거대 석축산성들의 출현 시기가 그 대상이다. 현재 보기에도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더욱 자랑스러워진다. 우리가 접하는 역사상(歷史像) 중 고수전쟁, 고당전쟁 등을 훌륭히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자부심은 대단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때의 성은 어떠한 재료와 구조 등이었기에 강력한 중국의 세력들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두 번째 궁금증이 더해진다. 다시 말해 고구려 성의 발달과정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저 가공의 역사상으로 만족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고구려의 광활했던 영역은 현재 중국과 북한,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멸망기에 5부 176성 69만여 호를 나누어 9도독부 42주 100현으로 만들었다⁶고 쓰여 있다. 이는 대략적인 성의 숫자와 군현 등의 행정구역을 알려주고 있다.⁷ 하지만 어떠한 성을 어떻게 쌓으면서 지방통치를 유지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만주와 한반도를 걸치는 고구려 성곽의 분포양상이 현 정세나 국제질서에 맞물렸다는 현실적인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고구려 성곽이 산재한 지역에 체제가 다른 국가들이 었몰리다 보니, 조사 및 연구가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각기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역사적 맥락과 조사결과를 부합시키

5 고구려 성곽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여호규, 1998, 『高句麗 城I-鴨綠江 中上流篇』, 국방군사연구소; 여호규, 1999, 『高句麗 城II-遼河流域篇』, 국방군사연구소; 양시은, 2016, 『高句麗 城 研究』, 진인진(양시은, 2013, 「高句麗 城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 역사재단(鄭元喆, 2010, 「高句麗山城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6 『三國史記』 卷22 高句麗本紀 寶藏王 27年條, “分五部 百七十六城 六十九萬餘戶 爲九都督府 四十二州 百縣.”

7 고구려의 지방성인 176성을 9도독부 42주 100현으로 나누었을 때, 당시 고구려 지방통치단위를 대략적으로 구성해볼 수 있다. 즉, 고구려 후기의 지방통치 단위는 지방관명을 기준으로 褥薩(都督), 處閭近支(道使·刺史), 累肖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9도독부는 옥살급, 42주는 처려근지급, 100현은 루초급에 대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임기환, 2015, 「요동반도 고구려성 현황과 지방지배의 구성」, 『韓國古代史研究』 77, 111~115쪽).

기는 매우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고구려 성곽의 시기적 전개양상을 일반론에 입각해 정리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다만 중국이나 북한에 비해 남한에서는 고대 성곽들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성과들도 상당한 수준에서 축적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성곽들과 비교·검토가 가능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 성곽들의 구조와 성격에 대해서는 남한지역의 연구성과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보다 정치하게 진행한다면, 고구려 성곽만이 아니라 한국고대 성곽들의 시기별 변천과정과 구조물들의 계보적 정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 역사와 그 인식의 범위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역사인식과 문제의식이 얼마나 취약하였는지를 대한민국 구성원 개개인까지도 위축되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식은 당시에만 논란이었지, 지금은 그저 평온한 상태이다. 주변국들의 ‘힘의 논리’라는 말을 역사에서도 실감케 할 수 있다. 앞으로 ‘역사 정의’ 또는 ‘사회 정의’라는 말도 강단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강해진다. 그간 가르친 결론은 ‘학술적 역량 축적(學術的 力量 蓄積)’, 이를 바탕으로 한 ‘대내·외적 홍보’ 등이다.

이 같은 결실의 조사 및 연구성과물이 있다. 그것은 무려 15년간의 대장정을 통한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의 완간이다. 이 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과 지원으로 2007년부터 10년간 중국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과 유물 정리 사업을 진행했고 이후 5년의 공력을 들여 10권의 책으로 완간하게 되었다.⁸ 실로 대견한 프로젝트였다. 중국학계도 꿈꾸지 못한 고구려 유적과 유물의 집대성 작업을 남한의 몇몇 전공자가 의기투합하여 오랜 기간 헌신한 것이다. 순수한 연구자들이 엄화미소(拈華微笑)로 뭉쳐 현재의 결과물을 서가에 등직하게 꽂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들 칭찬할 일이다.⁹ 국가도 학계도 그 열정에 감사해야

8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중은·이경미·정동민, 2020~2022,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X, 동북아역사재단.

한다. 필자 역시 원론적인 ‘학술적 역량 축적’에 일조했다는 자족감(自足感)을 가지고 이 글을 준비하게 되었다. 동료 연구자 및 재단 관계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 성곽의 시기별 변천과정을 예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세한 고구려 성곽의 고고자료들을 보완하기 위해 남한지역의 삼국시대 성곽의 최근 발굴성과와 연구 경향을 정리한 후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의 발굴조사의 현 단계를 되짚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한지역의 삼국시대 성곽은 입지와 구조에 따른 축성술의 변화과정이 테피식에서 포곡식으로, 토성에서 석성으로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구려 역시

이들 범주에서 시기와 규모의 차이를 일부 보일 뿐 통시적인 맥락은 유사하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한국고대 성곽의 축성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 권 : 압록강 중상류 1 환인
- II 권 : 압록강 중상류 2 집안-신빈
- III 권 : 압록강 중상류 3 통화-백산-임강-장백
- IV 권 : 통구분지 1 우산하-하해방-만보정-칠성산고분군
- V 권 : 통구분지 2 마선구-산성하고분군-벽화고분
- VI 권 : 통구분지 3 성곽, 기타 유적, 유물
- VII 권 : 요동반도-태자하 유역
- VIII 권 : 훈하-요하 중상류
- IX 권 : 심양 석대자산성
- X 권 : 송화강-묵단강-두만강 유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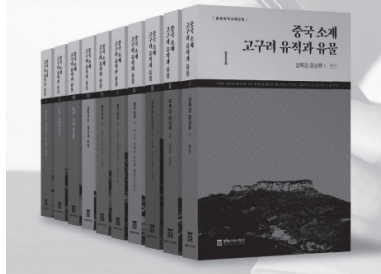


그림 1 완간 책자 및 기념사진(상: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하: 2016년 필자 촬영)

- 9 양시은, 2023, 「고구려 연구자를 위한 친절한 길라잡이-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동민 저,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X(동북아역사재단, 2020·2021·2022)-, 『고구려발해연구』 77; 윤성호, 2023,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연구』-고구려 연구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하다, 『동북아역사논총』 79.

II. 한국고대 축성사의 전개과정

우리는 성을 쌓을 때 ‘축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성을 쌓음”, “요새, 보루, 포대(砲臺), 참호 따위의 방어 구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영구 축성과 야전 축성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흙을 다져 쌓는 것을 ‘축(築)’, 돌로 첩첩이 쌓는 것을 ‘체(砌)’, 벽돌로 층층이 쌓은 것을 ‘추(甃)’라 하므로 글자의 뜻이 각각 다르다. 『시경(詩經)』과 『춘추』에는 축성(築城)이라 했다.¹⁰ 이와 같이 흙으로 쌓으면 축성, 돌로 쌓으면 체성(砌城), 벽돌로 쌓으면 추성(甃城) 등으로 축조재료에 따른 용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고래(古來)로부터 성곽의 개념이나 구조, 축조 재료 등이 원전의 조영원리에 의해 섬세한 퍼즐을 맞추듯이 결합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 나간다면 성곽의 기원과 발전과정, 시기별 특징들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선사시대나 원사시대의 환호, 환구, 목책, 토루 취락들이 역사시대 들어 목책성, 토축성, 석축성, 전축성 등으로 자연스러운 발전단계를 거쳐 오늘날 우리 앞의 육축구조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고래로부터 한반도 중부는 삼국의 각축장이었다. 그러다보니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많은 성곽이 축조되었는데 임진강, 한강, 금강, 낙동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임진강 유역, 한강 유역, 금강 상류, 낙동강 상류 유역에는 독특한 지형 및 지세가 형성되었는데 이를 우리 고유의 지리 개념에서는 ‘산자분수령(山子分水嶺)’이라고 부른다. 산자분수령은 ‘산은 스스로 분수령(drainage divide, watershed)이 된다’는 뜻으로 조선 영조 때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저술한 역사지리서인 『산경표(山經表)』의 원리이다.

임진강과 한강 유역은 양주분지, 한강 상류와 금강 상류는 속리산, 금강 상류와 만경강 유역은 진안고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모두 분수령이면서 하천의

10 『牧民心書』 工典六條 修城篇.

발원지이기도 하다. 이들 하천과 지류는 고대로부터 교통로로 활발히 이용되었기에 하천과 지천의 합류지점에는 성곽들이 축조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산자분수령이 분기되는 고갯길인 령(嶺), 치(峙), 참(站) 등도 또 하나의 성곽이 입지할 포인트(point)가 된다. 전자는 양주 불곡산보루군과 천보산보루군, 서울 아차산보루군, 대전·옥천·영동·금산 일대의 소규모 성들이 이에 포함된다. 후자에는 양주 태봉산보루와 천보산2보루, 금산 백령성 등이 있다. 요컨대 산성의 입지와 규모는 산자분수령을 중심으로 하천의 합수머리나 고갯길의 강제지점에 의해 성역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이런 군사적 포인트에는 비교적 소규모의 보루급 요새들이 밀집 분포하는 양상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 성곽 발달사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삼국시대 입지 및 규모 결정론이 한 지역 안에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고대 성곽과 그 주변 지역의 성곽 분포와 교통로, 방어체계만이 아니라 성의 입지와 규모, 축성술 등의 파악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양주분지 일원이다.¹¹ 이곳 양주분지 일원을 분수령으로 문산천, 설마천, 신천, 중량천, 왕숙천 등이 복류하여 임진강에, 남류하여 한강에 합류하는 지세를 보여준다. 당연히 하천로와 고갯길을 중심으로 보루급 요새들이 촘촘히 분포하는 환상과 능형의 방어라인과 함께 고로봉형의 입체적인 관방체계를 형성한 소위 ‘보루의 표본 전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한국고대의 각축장이었던 지정학적 특징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북위 38도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중심으로 휴전선의 철책과 군사요새인 GP(Guard Post, 감시초소)와 GOP(General

11 白種伍, 1999,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 『京畿道博物館年報』 3; 2005, 「最近 發見 京畿地域 高句麗遺蹟」, 『北方史論叢』 7; 2006,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22b,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문화』 25-2; 2024, 「한국고대 성곽문화의 결절지, 양주」, 『先史와 古代』 74; 백종오·신영문, 2005, 『高句麗遺蹟의 寶庫 京畿道』, 京畿道博物館.

Outpost, 일반전초/Ground Observation Post, 지상관측소), 방어진지가 뚝뚝히 배치된 현상을 기시감처럼 느끼게 된다. 즉, 한반도의 허리를 횡단한 장성과 같은 임진적벽을 천혜의 요새로 이용한 무등리1·2보루와 두루봉보루, 동파리보루 등은 현대의 군사시설인 GP나 GOP와 절묘하게 오버랩(overlap)되니 말이다.

지금까지 양주분지에서 발굴조사된 성곽유적은 대모산성, 태봉산보루, 독바위보루 등 3개소이다. 대모산성은 1980년대부터 2023년까지 모두 13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¹² 그 결과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나말여초기에 걸치는 유구와 유물들이 다종다양하게 검출되었는데, 현재 대모산성의 기단보축의 석축성벽과 현문식 성문은 통일신라시대, 2차 성벽과 성내 집수시설은 후삼국 시대인 태봉국(901~918)과 관련된 10세기 초반으로 밝혀졌다.

최근에 대모산성의 북문지 및 북벽부 외곽(1차 발굴지)과 동벽 외측 등에서 또 다른 설책축성단계(設柵築城段階)의 삼국시대 성벽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¹³ 이는 대모산성의 시기별 변천과정만이 아니라 한국고대 축성사의 발전단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최고의 고고학 사례로 평가된다. 여기에서는 기존 성벽과 선대 성벽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고산성(古山城)’으로 부르고자 한다. 당초 명명된 대모산성은 그 외곽 라인에서 또 다른 선대유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모고산성(大母古山城)으로의 명칭 부여가 유적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2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1990, 『楊州大母山城 發掘報告書』; 翰林大學校 博物館, 2002, 『양주 대모산성-동문지·서문지-』; 기호문화재연구원, 2021,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8·9차 발굴조사보고서 합본』; 2022,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10차 발굴조사 보고서』; 2023,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1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22, 『양주 대모산성(사적 제526호) 12차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23, 『양주 대모산성(사적 제526호) 13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김용, 2024, 『양주 대모산성의 조사성과와 변천양상』, 『先史와 古代』 74.

13 백종오, 2024, 앞의 글, 63~66쪽.



그림 2 양주 대모산성 발굴 현황(기호문화재연구원, 2021·2022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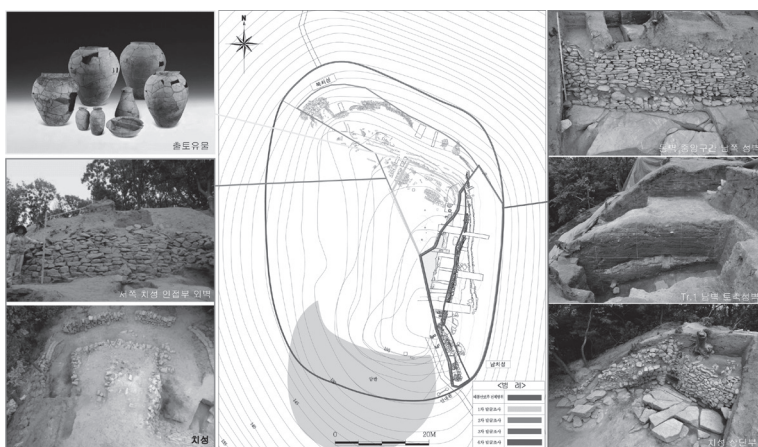


그림 3 양주 태봉산보루 발굴 현황(거레문화유산연구원, 2016~2018 재편집)



그림 4 대모산성 지적원도(1914, 동쪽 구간 지목 '성(城)' 표시됨)(백종오, 2024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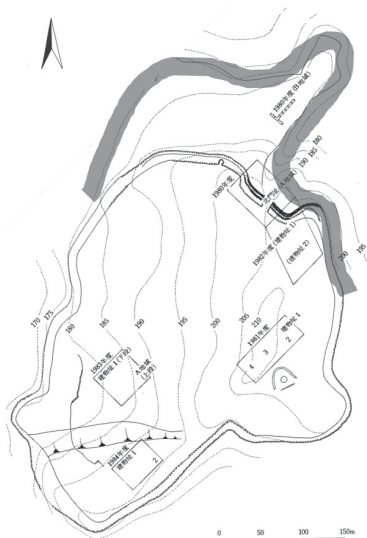


그림 5 대모산성 평면도 및 발굴지역(1980~1984년, 북쪽 붉은 선은 대모고산성 확인 구간)(백종오, 2024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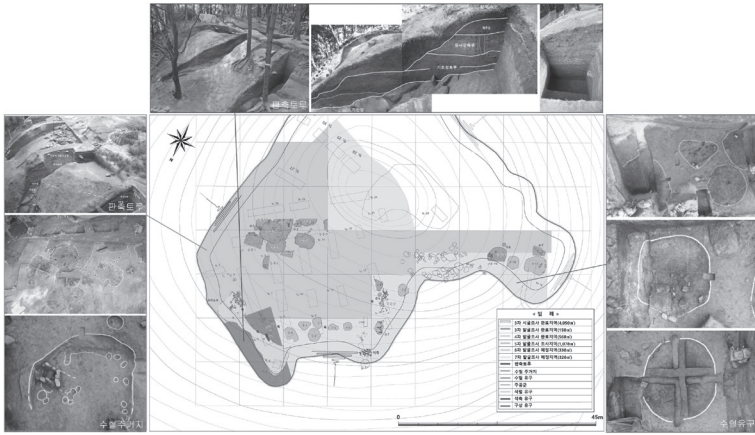


그림 6 양주 독바위보루 발굴 현황 2(화서문화재연구원, 2020~2023 재편집)

태봉산보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4차 발굴을 진행한 결과,¹⁴ 토축외면축석양식의 체성부와 치, 성내 수혈유구와 집수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한강 유역의 기존 발굴 성과와 비교할 때 5세기 후반~6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독바위보루는 본래 태봉산보루와 같은 고구려 유적으로 알려졌으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¹⁵ 백제 한성기의 유적으로 밝혀졌다. 성벽은 자연절벽(초벽장)과 토축성벽, 성토대지층을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한 방어요새이다. 특히 북봉에서는 수혈주거지 14기와 수혈유구 24기, 토축부 1기, 주공군 2기 등 총 43기가 노출되었으며 환두대

14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6, 『양주 태봉산보루Ⅰ』; 2017, 『양주 태봉산보루Ⅱ』; 2018, 『양주 태봉산보루Ⅲ·Ⅳ』; 김진웅, 2024, 「양주지역 고구려 관방유적의 조사성과와 과제-태봉산보루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74.

15 화서문화재연구원, 2020, 『양주 독바위보루Ⅰ』; 2021, 『양주 독바위보루Ⅱ』; 2022, 『양주 독바위보루Ⅲ』; 2023, 『양주 독바위보루Ⅳ』; 2022, 「양주 독바위 보루 유적(5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3, 「양주 독바위 보루 유적(6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강기원, 2024, 「양주 독바위 보루의 축성과 운영」, 『先史와 古代』 74.

도, 한식경 등의 위세품들이 다수 관찰되는 점이 이채롭다.

이와 같이 양주 분지에서는 백제 한성기인 4세기 중후반~5세기 전반의 독바위보루, 고구려 남진기인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엽인 태봉산보루, 신라 북진기부터 나말여초기인 6세기 중반~10세기 전반의 대모산성이 삼국의 한강 유역 쟁패 과정을 말해주는 것처럼 발굴조사된 점이 주목되었다.

그런데 삼국시대인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중반의 유구와 유물 양상이 국가별로 너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일부 연구자는 백제는 토축, 고구려는 토심석축, 신라는 석축이라는 공식을 내세워 삼국시대 축성술을 설명하고 있다. 발굴 사례가 많지 않을 때는 일견 이해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고고학적 조사방법론이 세련되어지고 새로운 사례가 폭증하면서 그와 같은 공식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다시 말해 삼국이 각축을 벌였던 시기에는 “백제=토축, 고구려=토심석축, 신라=석축”이 아니라 “백제+고구려+신라=토축”이라는 등식의 설정이 문헌자료와 고고자료, 그리고 당시 역사상과의 정합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6세기 삼국시대 성곽 축성양식

기존: 백제=토축, 고구려=토심석축, 신라=석축

최근: 백제+고구려+신라=토축 중심

다음으로 금강 상류역인 금산, 옥천, 영동, 대전 등에 분포한 주요 성곽들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은 삼년산성¹⁶과 옥천 굴산성(이성산

16 보은군, 1979, 『보은 삼년산성-기초조사보고서-』; 충청북도·보은군, 1980, 『삼년산성 서문지 조사개보-1980년도』; 충북대학교박물관, 1982, 『삼년산성-추정 연못터 및 수구지발굴조사-』; 보은군, 1987, 『삼년산성-성벽구조 및 서북지 조사개보-』;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삼년산성-기본 자료 및 종합 보존·정비계획 안-』; 2005, 『보은 삼년산성-2003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보은 삼년산성-2004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2008, 『보은 삼년산성-2006년도 내측 성벽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북도, 2008, 『삼년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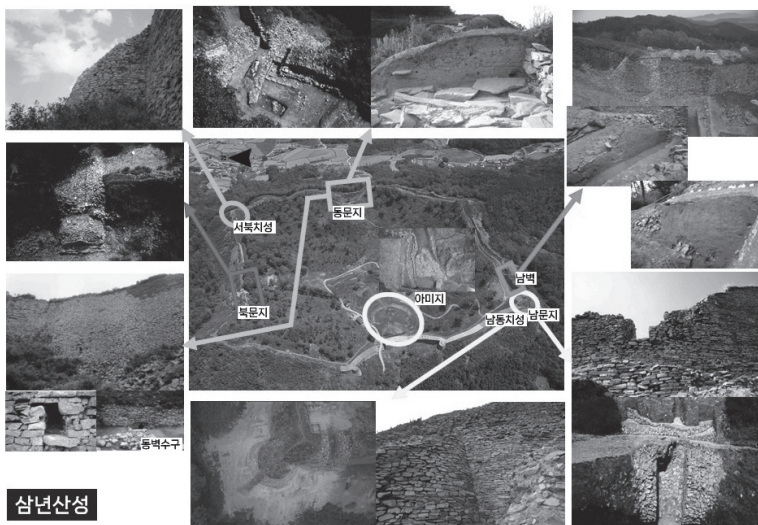


그림 7 보은 삼년산성 현황(오른쪽 위는 5세기 후반 신라 토축성벽, 이 외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석축성벽)(중원문화재연구원, 2008·2009 전채 및 재편집)

성),¹⁷ 금산 백령성이다. 삼년산성과 굴산성은 『삼국사기』에 초축 및 수축 기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위치가 명확히 비정된 몇 안 되는 성곽 유적 중의 하나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자비마립간 13년(470)에 삼년산성을 쌓고 소지마립간 8년(486)에 삼년산성과 굴산성을 고쳐 쌓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삼년산성을 비정하면서 최종 구조물인 현재의 거대 석축산성 자체를 『삼국사기』 기년과 맞추다 보니, 높이 10~20m의 석축성벽과 외벽 기반보축,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보은 삼년산성-동문지 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9, 『보은 삼년산성-남문지 내측·서남 곡성 발굴조사 보고서-』.

- 17 中原文化財研究院, 2015, 『沃川 山桂里 屈山城(已城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沃川 已城山城(1차) 긴급발굴조사 보고서』; 한국 선사문화연구원, 2022, 「옥천 이성산성 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백종오, 2022a, 「沃川 已城山城의 城內 施設物 檢討와 築城史의 意味」, 『韓國史學報』 87.

현문식 구조 성문과 그 옆의 곡성, 성벽통과식 수구 등은 모두 ‘5세기 후반 신라 거대 석축산성 축성설(5世紀 後半 巨大 石築山城 築城設)’의 주요 속성이자 편년 설정의 기준이 되었다. 왕경이 아닌 변경에서 공공 건축물의 원형모델(prototypical model)이 처음으로 탄생된 것이다. 왕경의 명활산성작성비(551)와 남산신성비(591)보다도 이른 시기이다. 과연 가능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최근 논고를 보면 “신라 석축산성은 보은 삼년산성에서 시작되었다”는 교시를 머리말에 전제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주체사상을 보는 듯 씩씩하다. 거기에 덧붙여 신라는 5세기 후반에 석축공법과 판축기법을 동시에 채용하였다는 신조 논리를 펼치고 있다. 우리가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역사, 찬란한 우리 문화, 단일 혈통의 순수한 백의민족”이라는 과거 군사정권과 유신의 정서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의 정합관계 속에서 그나마 역사적 사실, 즉 팩트(fact)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삼년산성과 같은 거대 석축산성과 달리 486년에 삼년·굴산 이성을 수축한 굴산성은 옥천 이성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순수 판축토성이었다가 이후 토축외면축석양식으로 개축한 토성으로 조사된 바 있다. 출토유물은 6세기 초반부터 7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¹⁸

보은 삼년산성과 옥천 굴산성은 구릉성 산지를 고로봉형으로 둘러친 성으로 둘레는 각각 1,700m, 1,140m 정도이다. 2006년에 삼년산성 남벽부 내측 트렌치 2개 지점에서 석축 내벽 안쪽으로 판축토성이 확인되었다. AMS 측정 결과치를 보면, 남쪽 성벽 Tr.1토루는 AD 320(#1)·AD 280(#2)·AD 440(#3)·AD 450(#4)·AD 480(#5) 등의 연대를 보여준다. 이중 판축성벽 중북부에서 채취한 시료 #4와 #5는 5세기 중후반으로 측정되었다. 또 남쪽 성벽 Tr.2토루의 경우 AD 480(#1)·AD 510(#2)으로 나타나는데 판축성벽의 하부와 전면에서 채집된 시료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중심시기는 문헌의 기록과

18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報恩 三年山城-2006年度 内側 城壁 發掘調査 報告書』, 34, 39, 141~147쪽.

유사한 5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삼국사기』에 기록된 삼년산성의 초축과 수축기사는 굴산성과 마찬가지로 토성을 기반으로 한국고대 축성사가 전개되었다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듯 보는 삼년산성을 첫 조사¹⁹한 1970년대 말 이래 반세기가 다 되었음에도 그간 많은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고고학 자료에 대하여 층위와 출토 유물, 공반유물 등을 통해 그 정합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점은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즉, 초창기에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자비마립간과 소지마립간 대의 초축(470년) 및 수개축(486년) 기사를 삼년산성에 대입한 이래, 이것이 원형모델(prototypical model)이나 전범이 되었는데 이를 가지고 한국 고대 석축산성의 시원이나 원형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제 다시 고구(考究)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²⁰ 그간 삼년산성만 하더라도 10여 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주변 지역에서도 수많은 발굴 결과들이 축적되었다. 그런데 ‘5세기 후반 거대 석축산성 축성설’이 아직도 학계의 통념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강하다.

고고학의 특성상 고고자료의 증가에 따라 하나의 학설은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개진되고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새롭게 학문적으로 정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산성들이 축조 후 1,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시의 축성법을 간직하고 있다는 관념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현재 보는 고대 산성들은 당시로부터 1,000년에서 1,500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이기 때문에 성곽의 특성 중 하나인 ‘연용성(沿用性)’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19 文化財研究所, 1979, 『三年山城基礎調查報告書』.

20 백종오, 2019, 「6세기 중반 신라 丹陽 赤城의 景觀」, 『先史와 古代』 61; 2020, 「한국고대 산성의 집수시설과 용도」, 『목간과 문자』 25; 2022a, 「沃川 己城山城의 城內施設物 檢討와 築城史의 意味」, 『韓國史學報』 87.

Ⅲ. 고구려 성곽 발굴의 현 단계

고구려 축성술의 시기별 전개는 국가 발전단계에 걸맞게 중앙집권적 통치질서 하의 지방제도 확립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나부체제(那部體制)에서는 고희처(高險處)를 이용한 설책축성단계(設柵築城段階)에 따른 초기 적 방어시설의 출현, 성곡촌체제(城谷村體制)에서는 축성설책단계(築城設柵段階)의 토축성 중심으로 변화, 성중심체제(城中心體制)에서는 체축단계(砌築段階)의 석축성을 보편적으로 축조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발전 양상은 적석층의 발달과정과도 어느 정도 맥락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무기단식, 기단식, 계단식으로의 발전은 고분 자체의 자중 담보와 횡압력 분산, 지내력 확보 등과 깊게 연관된다. 고분이나 성곽과 같은 육축구조물은 구조역학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되며 이에 대한 기술적 발달은 국가 단계의 발전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야만 한다.

한강 유역이나 임진강 유역 고구려성곽들의 중심부나 내측에서 토축인 판축층(다집층) 위주에 외피에 해당하는 외면축석양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는 사실도 축성술의 전개과정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한강 유역의 흥련봉 1·2보루, 시루봉보루, 구의동보루, 아차산3보루, 용마산2보루 등과 양주분지의 천보산2보루, 태봉산보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강 유역의 아차산 4보루와 임진강 유역의 호로그루, 당포성 등은 외면축석양식보다 발달한 상면(上面)·내면(內面)까지 축석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이전보다 한 단계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축성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차산4보루의 수·개축 과정, 흥련봉2보루의 수·개축 과정, 개주 고려성산성의 구간별 변화단계, 길림 용담산성의 곡간부와 문구부 석축화 과정 등은 고구려의 시기별 축성술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눈여겨 살펴볼 것들이다. 아차산 4보루는 하층유구의 존재와 함께 지속적인 수·개축 과정을 석축성벽의 축성술과 비교해서 언급이 가능하다. 물론 흥련봉2보루의 판축성벽과 일부구간 외면축석양식 등은 토축성→외면축석양식→석축성으로의 발전단계를 그대로 반

영한다고 하겠으며 이를 통해 유적의 시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강 유역의 고구려 유적은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일부 527년 황해도 오곡원 전투 이후부터 551년 나제연화에 의한 한강 유역 회복 시가지로 제한해서 보기도 한다. 또 경자년 명문토기를 가지고 520년이 아닌 580년으로 설정한 의견도 있다. 이들 제 견해 모두 타당한 근거 속에서 각자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만큼, 속단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한강 유역의 특성상 각축전의 결과로 지속적인 점령과 후퇴를 반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축성술의 일반적인 발전과정과 지역별 혹은 유역별 특징적인 전개과정을 보다 세분해서 검토한다면 좀 더 정치한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요하 유역이나 송화강 유역 등 대하천 변에 축조한 성곽들은 대부분 토축성이다. 후대까지도



연주성 발굴조사 모습 1



연주성 발굴 조사 모습 2



연주성 1호문지 조사 모습



연주성 5호 치성

그림 8 등탑 연주성(燈塔 燕州城) 조사 모습(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 홈페이지)



① 환인 고검지산성 북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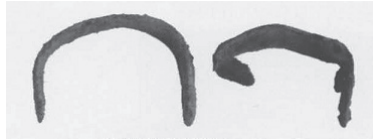
② 환인 고검지산성 1호 등성시설



③ 환인 고검지산성 2호 등성시설



④ 환인 고검지산성 출토 토기류



⑤ 환인 고검지산성 출토 철제류

그림 9 환인 고검지산성 성벽 및 출토유물(① 梁志龍·王俊輝, 2011, ②~⑤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 2012)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개주 고려성산성²¹과 길림 용담산성²²의 경우 외면

21 中國社會科學院考古學研究所·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蓋州市文物局, 2022, 「遼寧蓋州市青石嶺山城四號門址」, 『考古』 20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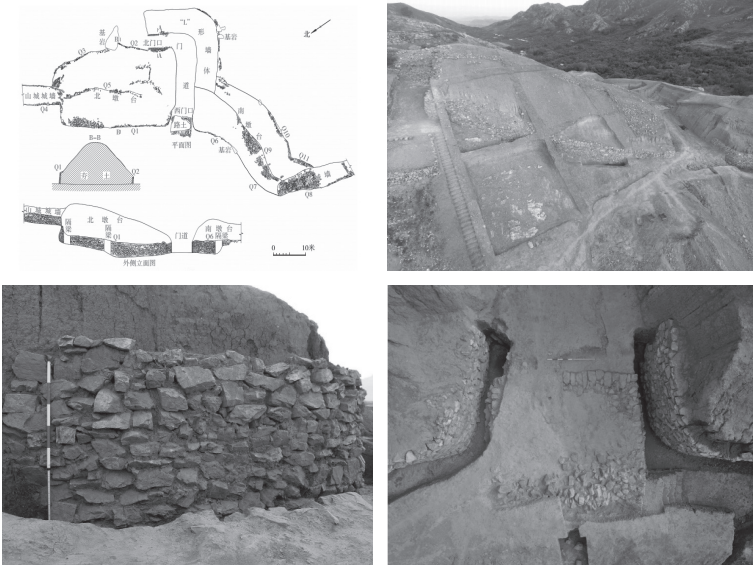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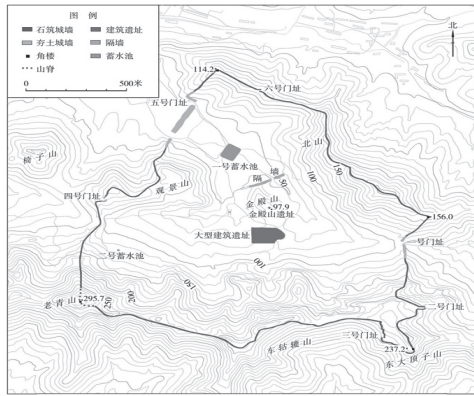


그림 10 개주 고려성산성 현황도(上), 4호문지 평면도(中左) 및 발굴 후 상태(서북-동남, 中右), 4호문지 남단대 외측 세부(下左) 및 문도부 세부(下右), (중국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요령성문물고고연구원·개주시문물국, 2022 전제)

- 2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市文物處·吉林市博物館, 2014, 「吉林市龍潭山鹿場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 2014-1.

축석양식부터 점차 석축화되어가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그리고 축성 관련 금석문 자료에 관한 것이다. 평양성 각자성석은 552년부터 586년 혹은 592년으로 파악되는데, 내성, 외성, 북성의 순으로 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신라의 명활산성작성비(551)나 남산신성비(559)는 시기적인 유사성은 있다. 하지만 이들 고구려와 신라 축성비는 동일 성격의 동일 시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라 축성비에는 토축성에서 석축성으로의 전환 시 책임구간을 명시하여 품질 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의도로 왕명에 의거 삼년붕파자(三年崩破者)는 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별도의 구간별(남산신성 230구간 추정) 입비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평양성 각자성석은 비석 형태가 아닌 면석의 전면부를 이용해 각석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축조 시기와 구간, 책임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축성 주체의 명확성은 고구려와 신라가 같지만, 석축성벽의 숙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구간별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점은 고구려와 신라의 차이점으



평양성석각 제4석(566년)



평양성석각 제5석(6세기 후반)



평양성석각 제4석(589년)



남산신성비 제1비(591년)



명활산성 작성비(551년)



남산신성비 제2비(591년)



남산신성비 제3비(591년)

그림 11 축성 관련 금석문 자료(국가유산 지식이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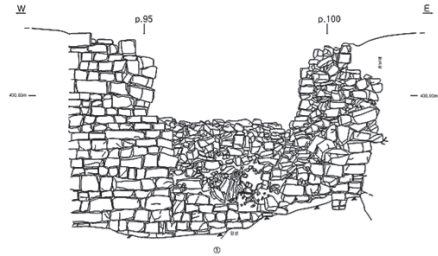
로 볼 수 있다. 평안북도 태천군 농오리산성 마애석각은 555년으로 추정되는데, 축성시기와 책임자, 축성 규모 등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석축산성의 축조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다음에 기본 정보만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백제는 북나성 출토 명문석과 동나성 각자성석이 있다. 신라의 경우 관문성 단계부터 각자성석이 나타나므로 고구려와 비교할 때도 그 시기 차이가 매우 크다.

다음으로 성벽시설물로서 석축 성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문은 성내·외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로서 성벽시설물 중 그 위상이 가장 높은 구조물이다. 그런 만큼 수성자의 입장에서는 공격의 주요 목표가 되는 취약지점으로 방어력 향상을 위해 성문 설치 지점만이 아니라, 각종 성문 형태, 성문 내외 방어시설 등에도 공력을 많이 들여야만 한다. 산성의 경우, 능선과 계곡이 어긋나는 지점과 같이 외부에서 관찰이 용이하지 않은 곳을 주로 택하여 설치하였다. 성문의 종류는 개거식, 평거식, 홍예식, 현문식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고대에는 개거식과 현문식이 대부분이다. 이들 성문 주변에 있는 내용성이나 외옹성, 적대의 기능을 하는 치성 또는 곡성, 성문 주변의 체성 회절부나 회곡부 모두 성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에 해당된다. 이렇듯 성문은 수성자의 입장에서 매우 취약한 시설물이기에, 공격자나 외적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공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내·외의 연결통로인 까닭에 수시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하며 시기별 연용성이 매우 강한 유구가 된다. 그만큼 편년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성문에는 누층의 역사적인 층위가 섬세하게 형성되었기에 발굴조사 시에도 섬세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문지의 경우, 성내 우수를 유도하고 배수의 역할도 겸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으므로 발굴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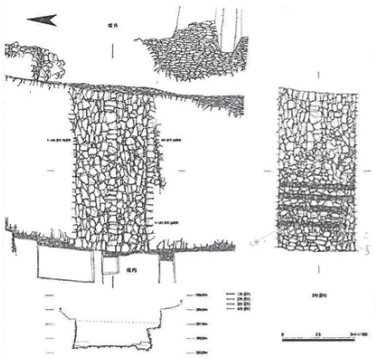
성문은 체성부의 시기별 특성에 맞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문은 체성부의 구조나 재료 등의 영향을 가장 손쉽게 받게 된다. 일반적인 토축성이나 석축성은 체성부를 절개하거나 끊어놓은 형태인 개거식이 일반적이다. 고래로부터 흔히 사용된 개구부 형태이다. 하지만 현문식 성문은 개거식과는 정반대로 성벽의 중간부를 터서 누다락식으로 개구부를 조성하였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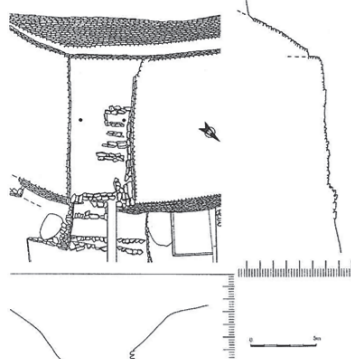
통화 자안산성 3호 문지(고구려)



금산 백령산성 남문지(백제)



보은 삼년산성 동문지(통일신라)



문경 고모산성 서문지(통일신라)

그림 12 현문식 구조 성문(백종오, 2017a 재편집)

다보니 널판지나 사다리 등 2차적인 가구물에 의지해 성문으로 진출입할 수밖에 없다. 성내·외가 동일하거나 약간의 경사를 둔 개거식과는 구조적인 차이가 많다. 이를 정리하면 아주 발전된 단계의 거대 석축산성에 부가된 성문형식이 현문식인 것이 된다. 체성의 높이가 5m, 10m, 15m 등 거대한 석축성벽에 개거식과 같은 개구부의 성문을 개설한다면 이들 성벽의 자중은 성문으로 쏠려 도괴(倒壞, collapse)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토목공학적으로 볼 때도 누다락식의 현문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성벽의 구조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석축 성벽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 개설되는 성문이 현문식인 것이다. 그래서 시간성을 반영하는 구조물로 볼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보은 삼년산성과 문경 고모산성 등에서 나타나는 거대 석축산성의 기단보축, 현문식 성문, 곡치(曲雉), 성벽통과식 수구 등이 신라의 5세기 후반 석축산성의 속성으로 편년되었으며 그 영향을 받은 고대의 석축산성들은 6~7세기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이었다. 하지만 신라의 경우 이러한 발달된 현문식 성문은 거대 석축 성벽과 함께 8~9세기에 들어서 축조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현문식 성문은 통화 자안산성의 서벽 3호문지, 봉성 봉황산성의 북서문지, 보란점 위패산성 등에서 확인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고구려의 현문식 성문은 6~7세기대로 추정되는데 추후 사례 증가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의 발굴 현 단계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고대사와 관련된 성곽들은 중국의 동북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부터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만주지역에는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와 발해 등의 문화유산이 폭넓게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고대사의 연구 및 복원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1991년 한중수교 이후, 이들 지역에 소재한 고구려 성곽에 대한 접근은 물론 고고학적 성과를 신속히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²³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집안 국내성²⁴과 환도산

23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동민, 2020~2022,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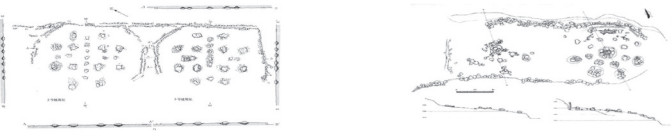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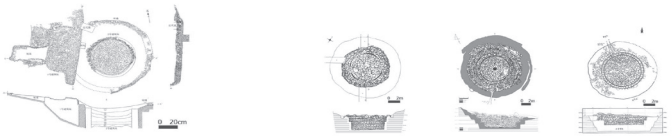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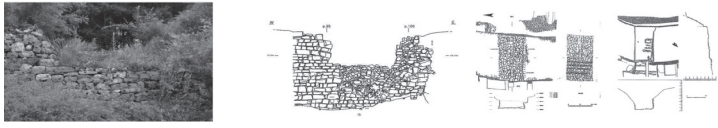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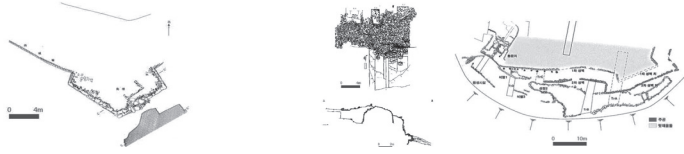
성내 시설물	다각형 건물지	 좌: 집안 환도산성 궁전지(5세기 이후), 우: 용인 할미산성(7세기 이후)
	원형 집수지	 (좌로부터) 심양 석대산성(6세기 말 이후), 청주 부도산성·거제 폐왕성, 남해 대국산성(이상 7세기 중반 이후)
수구	성문 통과식	 좌: 집안 국내성(4세기 중반 이후), 우: 심양 석대자산성(6세기 말 이후)
	성벽 통과식	 좌: 집안 환도산성(5세기 이후), 우: 통화 자안산성(6세기 이후)
성벽 시설물	현문식 성문	 (좌로부터) 통화 자안산성(6세기 이후), 금산 백령산성(6세기 말~7세기 중반), 보은 삼년산성 및 문경 고모산성(통일신라 이후)
	치성	 (좌로부터) 집안 국내성(4세기 중반 이후), 환인 고검지산성(6세기 이후), 심양 석대자산성(6세기 말 이후), 인천 제양산성(7세기 이후)
	각루	 (좌로부터) 집안 국내성(4세기 중반 이후), 금산 백령산성(6세기 말~7세기 중반), 하남 이성산성(통일신라~고려시대)

그림 13 고구려 축성술의 확산 사례(백종오, 2017a 전제 및 수정)

성²⁵ 환인 오녀산성²⁶과 고검자산성·성장립자산성·와방구산성·북구관애,²⁷
 등탑 연주성,²⁸ 심양 석대자산성,²⁹ 서풍 성자산산성,³⁰ 봉성 봉황산성,³¹ 유하
 나동산성,³² 통화 자안산성,³³ 길림 용담산성,³⁴ 집안 패왕조산성,³⁵ 개주 고려

- 2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博物館, 2004, 『國內城』, 文物出版社: 魏存成, 2011, 「高句麗國內城西牆外排水涵洞及相關遺蹟考察」, 『邊疆考古研究』 1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博物館, 2012, 「集安國內城東南城垣考古清理收穫」, 『邊疆考古研究』 11.
- 2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 2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文物出版社.
- 27 本溪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01, 「遼寧桓仁縣高儉地高句麗山城調查」, 『東北史地』 2001-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09, 「桓仁縣高儉地山城」,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梁志龍·王俊輝, 2011, 「遼寧省桓仁縣高儉地高句麗山城調查」, 『東北史地』 2011-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2008-2009年遼寧桓仁縣高儉地高句麗山城發掘簡報」, 『東北史地』 2012-3; 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22, 「遼寧桓仁縣三座高句麗山城及北溝關隘遺址調查報告」, 『北方文物』 2022-4.
- 28 蘇鵬力, 2011, 「燈塔市燕州城城址」,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 29 李曉鍾·劉長江·倫俊岩, 1993, 「瀋陽石臺子高句麗山城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 1993-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工作隊, 1998, 「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一次發掘簡報」, 『考古』 1998-10; 2001, 「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二次發掘簡報」, 『考古』 2001-3;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7, 「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2002年Ⅲ區發掘簡報」, 『北方文物』 2007-3; 2007, 「瀋陽石臺子山城2004年Ⅲ區發掘簡報」, 『瀋陽考古文集』 2007-3, 科學出版社; 2007, 「瀋陽石臺子山城西門址的補充發掘」, 『瀋陽考古文集』 2007-1, 科學出版社; 2007, 「瀋陽石臺子山城2006年Ⅲ區發掘簡報」, 『瀋陽考古文集』 2007-3, 科學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0, 「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蓄水設施遺址」, 『考古』 2010-12; 2012, 『瀋陽石臺子山城』, 文物出版社.
- 30 周向永, 2009, 「西丰城子山城始建年代再考」, 『東北史地』 2009-2; 2011, 「西丰城子山, 铁岭崔阵堡两山中戍卒营地的相关问题」, 『東北史地』 2011-1.
- 31 崔玉寬, 1994, 「鳳凰山山城調查簡報」, 『遼海文物學刊』 1994-2; 李龍彬, 2007, 「遼寧丹東鳳凰山山城首次發掘取得重大收穫」, 『中國文物報』 2007-3; 李龍彬·司偉偉, 2008, 「鳳城市高句麗鳳凰山山城」,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 32 李東, 2010, 「羅通山城考古調查與試掘」, 『中國考古學年鑑-2009』, 文物出版

성산성(靑石嶺山城 改名),³⁶ 도문 성산자산성(磨盤村山城 改名)³⁷ 등이 있다. 또한 중국 고대 도성과 고구려 도성의 구조 검토,³⁸ 고구려 성곽의 주요 유구 재고,³⁹ 고구려 적석총의 석재 가공술과 성석(城石)의 비교⁴⁰ 등 심화된 연구 성과

-
- 社: 2011, 「柳河縣羅通宋金時期山城」, 『中國考古學年鑑-2010』, 文物出版社.
- 33 通化市文物保護研究所, 2010, 「吉林省通化市自安山城調查報告」, 『北方文物』 2010-3; 徐坤·裴지勇·張迪, 2012, 「再論吉林省通化自安山城的年代」, 『博物館研究』 2012-2.
- 34 李建才, 1995, 「吉林市龍潭山山城考」, 『博物館研究』 1995-2.
- 35 王春燕·鄭霞, 2008, 「霸王朝山城的調查與研究」, 『東北史地』 2008-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集安市霸王朝高句麗山城」,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7, 「集安市霸王朝高句麗山城」,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8, 「集安市霸王朝山城」,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21, 「吉林集安市霸王朝山城2015~2016年發掘簡報」, 『考古』 2021-11.
- 36 王禹浪·王海波, 2009, 「營口市靑石嶺鎮高句麗山城考察報告」, 『民族歷史』 2009-5; 王飛峰·熊增琄·孫麗·王柳·賈笑冰, 2016, 「遼寧蓋州靑石嶺鎮高句麗山城遺存」, 『大眾考古』 2016-7; 王飛峰·李新全·熊增琄·孫麗·王柳, 2017, 「遼寧蓋州市靑石嶺山城的調查與發掘」, 『考古』 2017-12; 王飛峰·李新全·李海波·文臻·栗媛秋·張偉振·孟麗, 2022, 「遼寧蓋州市靑石嶺山城四號門址遺」, 『考古』 2022-5.
- 37 李強·潘晶琳, 2016, 「磨盤村山城:金東夏國南京遺址」, 『吉林畫報』 2016-6; 李強·張恒斌·滿世金·白淼, 2018, 「吉林省圖們市磨盤村山城2013~2015年發掘簡報」, 『邊疆考古研究』 2018-24; 王亮·鄭寶祥, 2018, 「山城遺址公園建設探索-以圖們市磨盤村山城為例」, 『四川水泥』 2018-4; 王禹浪·吳博, 2022, 「近二十年來渤海早期王城東牟山山城再研究」, 『哈爾濱學院學報』 2022-1.
- 38 魏存成, 2016, 「魏晉至隋唐時期中原地區都城規劃布局的發展變化及其對高句麗渤海的影响」, 『邊疆考古研究』 2016-20.
- 39 魏存成, 2011, 「高句麗國內城西牆外排水涵洞及相關遺迹考察」, 『邊疆考古研究』 2011-10; 趙俊杰, 2012, 「再論高句麗山城城牆內側柱洞的功能」, 『考古與文物』 2012-1; 王培新, 2018, 「磨盤村山城爲渤海早期王城假說」, 『新果集(2)』, 科學出版社.
- 40 王志剛, 肖景慧, 劉浩宇, 2015, 「申遺以來吉林省高句麗考古工作的主要收獲」, 『北方文物』 2015-4; 王志剛, 2016, 「高句麗王城及相關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물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상황이다.

예컨대 환인 오녀산성의 경우, 현존 석축성벽의 축조연대에 대해서는 ① 4세기 후반설,⁴¹ ② 4세기 말~5세기 초설,⁴² ③ 국내성 축성 이후설⁴³ 등이 있다. 또한 당초 발굴보고서에서는 오녀산성 4기 유구와 유물의 연대를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보았지만, 이들 유물 가운데 당대(唐代) 철제 등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존 성벽의 축성술도 6세기 이후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외 지방의 집안 패왕조산성, 등탑 연주성, 서풍 성자산산성, 봉성 봉황산성, 도문 성산자산성 등 거점성들과 북구관애의 석축성벽 역시 발굴 결과를 토대로 6세기 이후로 편년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여 한반도내 고대 성곽들과의 집성 및 검토 작업도 진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⁴⁴

I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고대 축성사의 비교를 통해 고구려 성곽의 편년 설정을 위한 예비적인 검토를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남한지역의 경우 5~6세기대의 삼국시대 성곽은 모두 토축성이며, 중국 경내 고구려 성곽의 경우 5세기대부터 포곡식의 석축산성이 조영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신라의 경우, 통일 이전까지는 테피식의 소규모 석축성과 함께 포곡식의 토축산성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현재까지 발

41 田中俊明, 1999, 「高句麗의前期王都」, 『歷史與考古信息·東北亞』 1999-2.

42 金旭東, 2012, 「高句麗早中期都城年代的考古學考察-兼論“高句麗都邑區”의形成與發展」, 『東北亞古代聚落與城市考古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王志剛, 2016, 「高句麗王城及相關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論文.

43 양시은, 2020, 「오녀산성의 성격과 활용 연대 연구」, 『韓國考古學報』 115.

44 백종오, 2017b, 「中國內 高句麗山城의發掘 現況과 主要 遺構·遺物の檢討-2005~2016年 發掘調査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53; 2017a, 「高句麗城郭 築城術의 擴散에 대한 豫備的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59.

굴된 중국 내 고구려의 포곡식 석축성벽은 모두 6~7세기대로 편년되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따라서 고구려 축성술의 전개는 국가발전단계에 걸맞게 중앙집권적 통치질서하의 지방제도 확립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함처의 설책축성 단계에 따른 초기적 방어시설의 출현과 토축성 중심의 축성설책단계, 그리고 석축성 중심의 체축단계로 통시적인 변화 및 발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삼국시대 석축산성의 편년안과는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신라와 고구려의 성곽유적은 고대의 웅혼한 정기를 보여주는 데 손색없는 물질유산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거대 석축산성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삼년산성에서 신라정통론(新羅正統論)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타자(他者)의 입장에서 고구려의 산성들도 그 시기를 올려잡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덧붙여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신라정통론과 고구려정통론(高句麗正統論)이라는 체제 대립의 결과는 또 하나의 가공을 형성시킨 산물로서 이해하게 되었다. 즉, 신라정통론과 고구려정통론에 의한 물질문화의 확대 재생산이 현재의 편년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통념은 통사로서 개설서에 등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고고학회에서 『한국 고고학 강의』(2007)에 나온 고구려 성의 개설을 읽어보았다.⁴⁵

고구려는 전 영역에서 성을 축조하여 성을 단위로 통치하였다. 도성은 평지성과 산성으로 이루어졌고, 지방 각지에서는 주로 산성이 축조되었다. 성의 축조는 췌기돌로 축조한 석성과 판축 후 바깥쪽에 돌을 덮는 석성, 흙과 돌을 섞어서 축조한 토석혼축성, 판축토로 쌓은 토성이 있다. 평지성 중에는 토성이나 토석혼축성이 있으나 산성의 대부분은 석성이다. 고구려 성의 시설로는 성문과 성벽, 그리고 성벽에는 마면과 여장, 성벽이 꺾이는 곳에 각루 등이 있고, 성 내부에는 장대나 망

45 한국고고학회, 2007, 『한국 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234~237쪽.

대, 저수지나 우물, 샘 등이 있고, 건물터와 병영터 등이 있다. 성 둘레에는 해자를 둘러거나 참호를 파기도 한다.

산성은 4세기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기 성은 교통로 차단을 목적으로 한 차단성과 군사적 초소로 절벽과 가파른 산등성이 등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일부만 쌓기형 돌을 이용하여 층마다 안으로 들여쌓았다. 전기의 성은 환인, 집안, 신빈, 통화지역에 집중 분포해 도성의 방위를 담당하였다. 후기의 성은 확대된 고구려 전 영역에 분포하며, 자연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성문은 평지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였다. 평상시 거주성과 방어의 기능을 겸하였다. 대형 산성은 내·외성으로 이루어지거나 보조성을 갖는 등 복합식이 많으며, 행정소재지로서 전쟁 시 주민을 입거시키는 지방 지배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이 책은 삼불 김원룡 선생의 『한국고고학개설(韓國考古學概說)』(1973)⁴⁶ 이후 가장 많이 읽히는 고고학 개설서이다. 역사학과나 고고학과에서 기본 교재나 텍스트로 많이 사용한다. 2007년에 초판이 간행된 후 16년이 지났다. 도성의 평지성과 산성의 관계, 석축산성 면석 형태, 석축산성의 출현 시기 등 짧은 내용이지만 현재까지의 고구려 고고학의 양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고고학은 유구와 유물의 층위관계, 출토 상황과 공반유물 등의 명료한 발굴과 상관관계를 따져 그 정합성을 실증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기존 조사자의 통념과 경험을 그대로 고고자료에 대입하다 보니, 객관성과 실증성보다는 주관성과 증흥적 판단이 발굴현장의 편견과 성격을 예단하기 일쑤이다. 앞으로는 좀 더 차분히 삼국시대, 아니면 고대 유구를 소소익선(小小益善)하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보다 정직한 물질자료의 역사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라는 일국사(一國史)가 아닌 삼국시대의 맥락적 이해와 주변국과의 통시적 교류관계하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학제현의 고견과 질정을 바란다.

46 金元龍, 1973,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管子』.

『牧民心書』.

단행본

金元龍, 1973,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백종오·신영문, 2005, 『高句麗遺蹟의 寶庫 京畿道』, 京畿道博物館.

양시은, 2016, 『高句麗 城 研究』, 진인진.

여호규, 1998, 『高句麗 城Ⅰ-鴨綠江 中上流篇』, 국방군사연구소.

_____, 1999, 『高句麗 城Ⅱ-遼河流域篇』, 국방군사연구소.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동민 엮음, 2020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VII: 요동반도-태자하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0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VIII: 훈하-요하 중상류』,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0c,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IX: 심양 석대자산성』,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0d,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X: 송화강-목단강-두만강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1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I: 압록강중상류1: 환인』,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1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II: 압록강중상류2: 집안-신빈』,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2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III: 압록강 중상류3 통화-백산·임강-장백』,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2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IV: 통구분지1 우산하·하해방·만보정·칠성산고분군』,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2c,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V: 통구분지2 마선구·산성하고분군-벽화고분』,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2d,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VI: 통구분지3 성곽-기타유적-유물』, 동북아역사재단.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고학회, 2007, 『한국 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國內城』, 文物出版社.

_____, 2004b,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 『瀋陽石臺子山城』, 文物出版社.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6, 『양주 태봉산보루I』.

_____, 2017, 『양주 태봉산보루II』.

_____, 2018, 『양주 태봉산보루III·IV』.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沃川 己城山城(1차) 긴급발굴조사 보고서』.

기호문화재연구원, 2021,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8·9차 발굴조사보고서 합본』.

_____, 2022a,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10차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22b, 『양주 대모산성(사적 제526호) 12차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_____, 2023a,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11차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23b, 『양주 대모산성(사적 제526호) 13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文化財研究所, 1979, 『三年山城基礎調査報告書』.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1990, 『楊州大母山城 發掘報告書』.

보은군, 1979, 『보은 삼년산성-기초조사보고서-』.

_____, 1987, 『삼년산성-성벽구조 및 서북치 조사개보-』.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보은 삼년산성-2004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08a, 『報恩 三年山城-2006年度 內側 城壁 發掘調査 報告書』.

- _____, 2008b, 『보은 삼년산성-동문지 2차 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09, 『보은 삼년산성-남문지 내측·서남 곡성 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15, 『沃川 山桂里 屈山城(己城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 충북대학교박물관, 1982, 『삼년산성-추정연못터 및 수구지발굴조사-』.
- 충청북도·보은군, 1980, 『삼년산성 서문지 조사개보-1980년도』.
- 충청북도, 2008, 『삼년산성』.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삼년산성-기본 자료 및 종합 보존·정비계획 안-』.
- _____, 2005, 『보은 삼년산성-2003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22, 「옥천 이성산성 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 翰林大學校 博物館, 2002, 『양주 대모산성-동문지·서문지-』.
- 화서문화재연구원, 2020, 『양주 독바위보루Ⅰ』.
- _____, 2021, 『양주 독바위보루Ⅱ』.
- _____, 2022a, 『양주 독바위보루Ⅲ』.
- _____, 2022b, 「양주 독바위 보루 유적(5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_____, 2023a, 『양주 독바위보루Ⅳ』.
- _____, 2023b, 「양주 독바위 보루 유적(6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논문

- 강기원, 2024, 「양주 독바위 보루의 축성과 운영」, 『先史와 古代』 74.
- 김용, 2024, 「양주 대모산성의 조사성과와 변천양상」, 『先史와 古代』 74.
- 김진웅, 2024, 「양주지역 고구려 관방유적의 조사성과와 과제-태봉산보루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74.
- 白種伍, 1999,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 『京畿道博物館年報』 3, 경기도박물관.
- _____, 2005, 「最近 發見 京畿地域 高句麗遺蹟」, 『北方史論叢』 7, 고구려연구재단.
- _____, 2006,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 _____, 2017a, 「高句麗 城郭 築城術의 擴散에 대한 豫備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59.
- _____, 2017b, 「中國內 高句麗山城의 發掘 現況과 主要 遺構·遺物의 檢討-2005~

- 2016年 發掘調査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53.
- _____, 2019, 「6세기 중반 신라 丹陽 赤城의 景觀」, 『先史와 古代』 61.
- _____, 2020, 「한국고대 산성의 집수시설과 용도」, 『목간과 문자』 25.
- _____, 2022a, 「沃川 己城山城의 城內 施設物 檢討와 築城史的 意味」, 『韓國史學報』 87.
- _____, 2022b,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문화』 25-2.
- _____, 2024, 「한국고대 성곽문화의 결절지, 양주」, 『先史와 古代』 74.
- 양시은, 2020, 「오녀산성의 성격과 활용 연대 연구」, 『韓國考古學報』 115.
- _____, 2023, 「고구려 연구자를 위한 친절한 길라잡이-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동민 저,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X (동북아역사재단, 2020·2021·2022)-」, 『고구려발해연구』 77.
- 윤성호, 2023,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연구』-고구려 연구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하다」, 『동북아역사논총』 79, 동북아역사재단.
- 임기환, 2015, 「요동반도 고구려성 현황과 지방지배의 구성」, 『韓國古代史研究』 77, 한국고대사연구회.
- 王志剛, 2016, 「高句麗王城及相關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集安市霸王朝高句麗山城」, 『中國考古學年鑑-2015』, 文物出版社.
- _____, 2017, 「集安市霸王朝高句麗山城」, 『中國考古學年鑑-2016』, 文物出版社.
- _____, 2018, 「集安市霸王朝山城」, 『中國考古學年鑑-2017』,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市文物處·吉林市博物館, 2014, 「吉林市龍潭山鹿場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 2014-1.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 「集安國內城東南城垣考古清理收獲」, 『邊疆考古研究』 11.
- _____, 2021, 「吉林集安市霸王朝山城2015~2016

- 年發掘簡報」,『考古』2021-11.
- 本溪博物館·桓仁縣文物局,2001,「遼寧桓仁縣高儉地高句麗山城調查」,『東北史地』2001-1.
-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2007a,「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2002年Ⅲ區發掘簡報」,『北方文物』2007-3.
- _____,2007b,「瀋陽石臺子山城2004年Ⅲ區發掘簡報」,『瀋陽考古文集』1,科學出版社.
- _____,2007c,「瀋陽石臺子山城2006年Ⅲ區發掘簡報」,『瀋陽考古文集』1,科學出版社.
- _____,2007d,「瀋陽石臺子山城西門址的補充發掘」,『瀋陽考古文集』1,科學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2012,「2008-2009年遼寧桓仁縣高儉地高句麗山城發掘簡報」,『東北史地』2012-3.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局,2009,「桓仁縣高儉地山城」,『中國考古學年鑑-2008』,文物出版社.
- _____,2022,「遼寧桓仁縣三座高句麗山城及北溝關隘遺址調查報告」,『北方文物』2022-4.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工作隊,1998,「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一次發掘簡報」,『考古』1998-10.
- _____,2001,「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二次發掘簡報」,『考古』2001-3.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2010,「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蓄水設施遺址」,『考古』2010-12.
- 中國社會科學院考古學研究所·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蓋州市文物局,2022,「遼寧蓋州市青石嶺山城四號門址」,『考古』2022-5.
- 通化市文物保護研究所,2010,「吉林省通化市自安山城調查報告」,『北方文物』2010-3.
- 金旭東,2012,「高句麗早中期都城年代的考古學考察-兼論“高句麗都邑區”的形成

與發展」,『東北亞古代聚落與城市考古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徐坤·遲勇·張迪, 2012,「再論吉林省通化自安山城的年代」,『博物館研究』2012-2.

蘇鵬力, 2011,「燈塔市燕州城城址」,『中國考古學年鑒-2010』,文物出版社.

梁志龍·王俊輝, 2011,「遼寧省桓仁縣高句麗山城調查」,『東北史地』2011-1.

王亮·鄭寶祥, 2018,「山城遺址公園建設探索-以圖們市磨盤村山城為例」,『四川水泥』2018-4.

王培新, 2018,「磨盤村山城為渤海早期王城假說」,『新果集(2)』,科學出版社.

王飛峰·熊增琿·孫麗·王柳·賈笑冰, 2016,「遼寧蓋州青石嶺鎮高句麗山城遺存」,『大眾考古』2016-7.

王飛峰·李新全·熊增琿·孫麗·王柳, 2017,「遼寧蓋州市青石嶺山城的調查與發掘」,『考古』2017-12.

王飛峰·李新全·李海波·文臻·栗媛秋·張偉振·孟麗, 2022,「遼寧蓋州市青石嶺山城四號門址遺」,『考古』2022-5.

王禹浪·吳博, 2022,「近二十年來渤海早期王城東牟山山城再研究」,『哈爾濱學院學報』2022-1.

王禹浪·王海波, 2009,「營口市青石嶺鎮高句麗山城考察報告」,『民族歷史』2009-5.

王志剛·肖景慧·劉浩宇, 2015,「申遺以來吉林省高句麗考古工作的主要收穫」,『北方文物』2015-4.

王春燕·鄭霞, 2008,「霸王朝山城的調查與研究」,『東北史地』2008-3.

魏存成, 2011,「高句麗國內城西牆外排水涵洞及相關遺蹟考察」,『邊疆考古研究』10.
——, 2016,「魏晉至隋唐時期中原地區都城規劃布局的發展變化及其對高句麗渤海的影響」,『邊疆考古研究』20.

李強·潘晶琳, 2016,「磨盤村山城:金東夏國南京遺址」,『吉林畫報』6.

李強·張恒斌·滿世金·白森, 2018,「吉林省圖們市磨盤村山城2013~2015年發掘簡報」,『邊疆考古研究』24.

李建才, 1995,「吉林市龍潭山山城考」,『博物館研究』2.

李東, 2010,「羅通山城考古調查與試掘」,『中國考古學年鑑-2009』,文物出版社.

——, 2011,「柳河縣羅通宋金時期山城」,『中國考古學年鑑-2010』,文物出版社.

李龍彬, 2007,「遼寧丹東鳳凰山山城首次發掘取得重大收穫」,『中國文物報』2007-3.

李龍彬·司偉偉, 2008,「鳳城市高句麗鳳凰山山城」,『中國考古學年鑑-2007』,文物

出版社.

李曉鍾·劉長江·倫俊岩, 1993, 「潘陽石臺子高句麗山城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 1993-1,

趙俊杰, 2012, 「再論高句麗山城城牆內側柱洞的功能」, 『考古與文物』 2012-1,

周向永, 2009, 「西丰城子山城始建年代再考」, 『東北史地』 2009-2,

——, 2011, 「西丰城子山, 铁岭催阵堡两山城中戍卒营地的相关问题」, 『東北史地』 2011-1,

崔玉寬, 1994, 「鳳凰山山城調查簡報」, 『遼海文物學刊』 1994-2,

田中俊明, 1999, 「高句麗的前期王都」, 『歷史與考古信息·東北亞』 1999-2,

기타 자료

국가유산 지식이음, <https://portal.nrich.go.kr/kor/index.do>

동북아역사재단, <https://www.nahf.or.kr/main.do>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 www.inwwkg.com

고구려 성곽의 편년 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 한국고대 축성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백종오

이 글에서는 한국고대 축성사의 비교를 통해 고구려 성곽의 편년 설정을 위한 예비적인 검토를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남한지역의 경우 5~6세기대의 삼국시대 성곽은 대부분 토축성이었으며 일부 테피식의 석축산성을 축조하였다. 또한 중국 경내 고구려 성곽은 5세기대부터 포곡식 석축산성이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신라의 경우, 통일 이전까지는 테피식의 소규모 석축성과 함께 포곡식의 토축산성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발굴된 중국 내 고구려의 포곡식 석축성벽은 모두 6~7세기대로 편년되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따라서 고구려 축성술의 전개는 국가발전단계에 걸맞게 중앙집권적 통치질서하의 지방제도 확립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함처의 설책축성 단계에 따른 초기적 방어시설의 출현과 토축성 중심의 축성설책단계, 그리고 석축성 중심의 체축단계로 통시적인 변화 및 발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삼국시대 석축산성의 편년안과는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신라와 고구려의 성곽 유적은 고대의 옹혼한

정기를 보여주는 데 손색없는 물질유산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거대 석축산성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삼년산성에서 신라정통론(新羅正統論)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타자(他者)의 입장에서 고구려의 산성들도 그 시기를 상향한 내셔널 히스토리(national history)가 되었다. 이에 덧붙여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신라정통론과 고구려정통론(高句麗正統論)이라는 체제 경쟁의 결과는 또 다른 가공의 역사상을 구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신라정통론과 고구려정통론은 고대 국가 물질문화 확대 재생산하며 현재의 편년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통념은 통사로서 개설서에 등장하며 우리의 역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고구려, 석성, 토성, 신라, 석축산성, 신라정통론, 고구려정통론

ABSTRACT

A Preliminary Review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Koguryo Fortress: A Comparison of Korea's Ancient Construction Methods

Baek Jongoh

In this article, a preliminary review was attempt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guryo fortres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ancient Korean construction history. To this e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cavation of Koguryo fortresses in China and the Three Kingdoms period fortresses in South Korea, the construction principle of the fortress, the process of change in construction techniques, and the relationship with surrounding tombs were examined.

As a result, in the case of South Korea, all the fortresse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were earthen fortresses, and in the case of Koguryo fortresses in China, Pogok-style(包谷式) stone fortresses began to be built in the 5th century. Of course, in the case of Silla, it is estimated that only the Temoe-style small-scale stonework and the Pogok-style native livestock

were built before unification. All of Koguryo's Pogok-style stone-building walls excavated in China are from the 6th to 7th centuri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development of Koguryo construction technology is close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system under a centralized governance order in line with the stage of national development. In other words, it is understood that the initial defense facilities emerged according to the stage of establishing a policy, the stage of establishing a policy centered on the earthwork, and the stage of establishing a system centered on the stonework.

If so, why is this difference from the annual plan of stone fortresse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remains of the fortresses of Silla and Koguryo, our splendid cultural heritages, show the grand spirit of ancient times and have been considered a material heritage. However, the Silla-centered theory(新羅正統論) came from Silla's Samnyeon Fortress(三年山城), which is represented by the huge stone fortresses, and based on this, I think Koguryo's fortresses also emerged as a result of raising the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In addi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two Koreas were divided, the result of the system conflict of Silla-centered theory and Koguryo-centered theory(高句麗正統論) embodied another fictitious history.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expansion and reproduction of material culture based on the Silla-centered theory and the Koguryo-centered theory directly influenced the current chronological view, and this conventional wisdom appeared in the opening book as a Diachronic history and became an imaginary

history.

Keywords: Koguryo, Silla, stone fortress, earthen fortress, Silla-centered theory(新羅正統論), Koguryo-centered theory(高句麗正統論)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성으로 본 가야, 백제, 중국 남조

이동희 | 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교수

- I. 머리말
- II. 가야 도성
- III. 백제 도성
- IV. 중국 남조 도성
- V. 중국·백제 도성과 비교해 본 가야 도성
- VI. 가야 도성의 발굴을 위한 향후 과제
- VII. 맺음말



I. 머리말

도성(都城)이란 왕도(王都) 전체를 에워싼 성곽을 말한다.¹ 삼국시대에 왕이 거주하는 ‘궁성(宮城)’과 외곽의 ‘성곽’이 분리되는 중국식의 도성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6세기 이후이기에 그 이전의 경우에는 왕성 혹은 도성의 특별한 의미 구분 없이 ‘도읍(都邑)’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도성은 비록 외곽의 광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궁성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도시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도성은 왕이 거주하는 궁성 외에도 왕릉과 일반인의 거주구역, 생산시설 및 이러한 공간 전체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성 등이 포함된 광범위한 도시 개념이다.² 가야의 왕성지나 도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김해(금관가야), 함안(아라가야), 고령(대가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역사 기록, 고분군이나 토성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고고학적 성과 등을 근거로 추정되고 있지만, 훼손되거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³

다행히 최근에 금관가야의 봉황토성, 아라가야의 함안 가야리 토성, 대가야 궁성지 등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대가야 멸망 기사에 대가야 도성에 대한 내용, 즉 성곽·해자·성문 등이 언급되고 최근 발굴조사에서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다.⁴

이와 같이 가야 왕성·도성에 대한 조사·연구는 일천하여 이제 시작 단계

* 투고: 2024년 7월 12일, 심사 완료: 2024년 8월 1일, 게재 확정: 2024년 8월 13일

1 박순발, 1996, 「백제 도성의 변천과 특징」, 『한국사의 이해』, 94~97쪽.

2 신희권, 2015, 「중국의 고대 왕성과 풍납토성」, 『고대 동아시아의 왕성과 풍납토성』, 풍납토성의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9~10쪽.

3 박상욱, 2016, 「합천 성산토성의 구조와 특징」, 2016 한국성곽학회 춘계학술대회.

4 이동희, 2017, 「후기 가야 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85.

이다. 가야는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진 초기 정치체여서 고대국가이자 그 영역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중국 남조의 여러 나라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도 사실이다.

가야 도성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보다는 인접한 고대국가인 백제나 신라,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가인 중국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로는 동아시아의 중심인 중국의 도성 조영 방식이 한반도나 일본열도의 고대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은 가야 도성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가야는 공식적으로 479년에 중국 남제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 전부이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 남조 도성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가야는 삼국 가운데 중국 남조와 가장 많은 교섭 관계를 가진 백제⁵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 도성 축조 방식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가야 도성이 조영된 중심시기인 5~6세기에 가야가 백제의 선진문물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현재까지 가야 도성에 대한 조사 성과가 미미하여 중국과의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가야 도성의 조사·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인접한 백제와의 관련성에 주목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가야는 중국과 긴밀한 교섭관계를 가진 백제와 우호관계가 오래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변형되었지만 백제 도성에서 보이는 중국적 요소를 주목해보고자 한다.

가야는 멸망기까지 여러 나라로 분립되어 존재했는데, 이 글에서 다루는 가야 도성은 조사·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금관가야·대가야·아라가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5 백제는 동진(東晉)에 6차례, 송(宋)에 12차례, 제(齊)에 4차례, 양(梁)에 7차례, 진(陳)에 4차례, 북위(北魏)에 1차례, 북제(北齊)와 북주(北周)에 각 2차례에 걸쳐 외교사절을 파견하였다.

II. 가야 도성

1. 금관가야 도성

김해 봉황토성은 봉황대 구릉의 동쪽 일대~북쪽 그리고 회현리패총 일대로 이어지는 봉황대 유적을 에워싸고 있다. 봉황동 유적 내에는 주거지, 수혈유구, 고상창고, 패총, 토기가마, 선착장 또는 접안시설 등 한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모두 갖춘 당대 금관가야의 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봉황토성의 규모는 둘레 1.5km로 추정된다.⁶

『삼국유사』 「가락국기」 기사⁷에 보이는 금관가야의 궁성은 나성(羅城)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고고자료로는 봉황토성에 비정할 수 있다.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형 건물지는 궁궐 전각이나 관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상창고는 식량창고 및 무기고 등으로 추정된다.⁹ 그리고, 봉황토성 북쪽으로 왕과 지배층의 묘역인 대성동고분군과 의례공간인 구지봉이 위치한다(그림 1).

상기한 「가락국기」의 내용은 가야 도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가야 도성은 중국 남북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백제 사비도성과 달리 도성 전체를 두른 대규모가 아닌 궁궐을 두르는 소규모의 왕성으로, 이는 가야 정치체가 여러 나라로 분립되어 있고 국의 규모가 작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성벽 선을 추정하면 봉황토성의 규모는 1.5km

6 두류문화연구원, 2016, 『김해 부곡동·봉황토성』.

7 “1500步 둘레의 나성, 궁궐의 전각과 여러 관청의 청사, 무기고와 곡식 창고를 지을 터를 마련한 뒤에 궁궐로 돌아왔다.”

8 「가락국기」에서 확인되는 나성(羅城)은 백제 사비도성에서 보이듯 도성 전체를 두르는 성곽이 아닌 왕궁(궁궐)을 에워싸는 왕성(宮城)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김지연, 2023, 「금관가야 도성의 경관」, 『가야고분군 Ⅷ』, 가야고분군세계유산추진단, 83쪽).

9 김재홍, 2020, 「문헌으로 본 가야제국의 궁성과 성곽」, 『대가야의 도성』, 제14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34~35쪽.



그림 1 금관가야 도성 내의 주요 유적 위치도(김지연, 2023)

이다. 봉황토성의 규모는 백제 풍납토성(3.5km), 신라 월성(2.3k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야 성곽 중에는 대규모에 속한다. 해상교통의 관문에 해당하는 입지를 고려하면 왕성으로서 최적의 조건이다. 성벽 기저부의 너비는 22m, 잔존 높이는 2.8m, 원래 성벽의 높이는 5m 이상이다.¹⁰

10 심광주, 2023, 『가야 왕성과 산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가야고분군 VIII』, 가야고분군세계유산추진단,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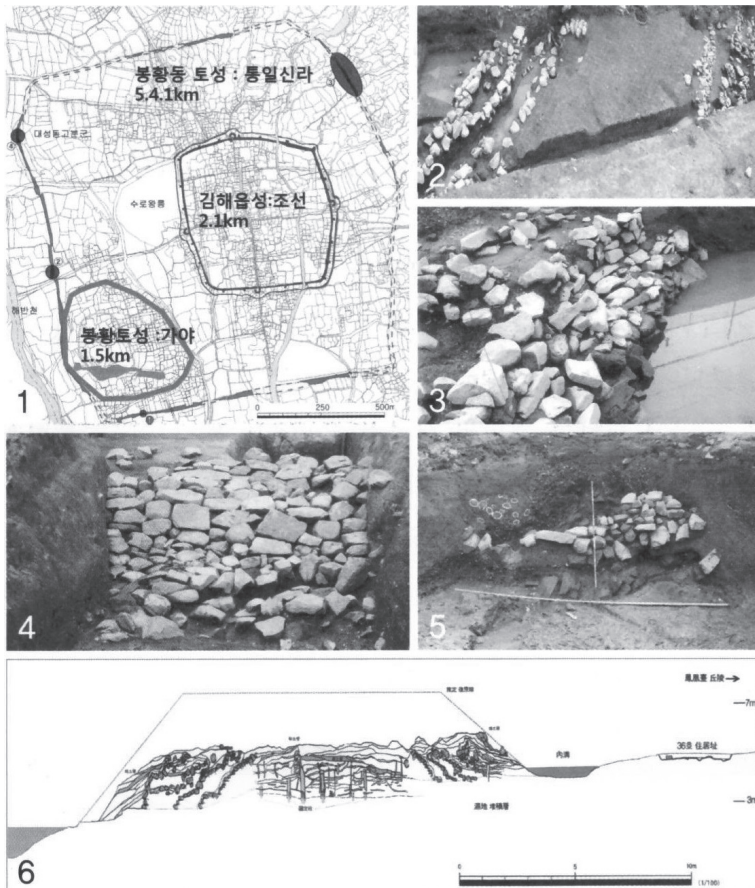


그림 2 1. 봉황토성 위치도, 2~3. 석축보강유구, 4~5. 보강 석축, 6. 모식도(심광주, 2023)

봉황토성의 독특한 축조공법이 ‘목주공법’이다. 성벽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대의 정지말뚝공법처럼 토성벽 중심부의 기반층에 목주를 박은 후 성토 다짐을 하였다. 목주는 30cm의 원목을 사용하여 뿔층의 기저부까지 깊이 박아 넣었다. 목주는 토성의 중심부를 지탱하는 구조체로 기능하였다.¹¹

봉황토성에서는 토성벽을 보강하는 석축 구조물이 확인되었다(그림 2). 즉,

중심토루 조성 후 성벽 내외면에 3겹 또는 4겹의 석축을 덧대어 보강하였다. 석축은 약 45°의 경사를 유지하도록 흘겹으로 쌓아 올렸다. 석축 외면을 점토로 피복하고 다시 석축을 덧붙여 쌓아 올렸다. 최종적으로 점토를 피복하고 불다짐을 하는 형태로 구축하였다.

토성 내부에 보강한 석축은 토성 외벽의 경사각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용한 공법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술한 고구려·백제·신라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가야의 독특한 축성기술이다. 봉황토성의 외벽부 석축 보강시설은 특정 구간에서만 확인되고 조사지점 구간에 따라 축성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형에 따라 다양한 공법이 적용된 것이다.¹²

봉황토성 내·외부에는 백제 사비기 도성과 같이 도시구획된 도로와 사찰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대 도성체제의 구성요소인 왕궁·취락·왕묘·의례시설·생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¹³

토성 내부의 봉황대 구릉 동쪽 사면 아래 평탄면에는 46호 주거지, 중층적 심건물지 등의 대형건물지가 확인되어 특수 건물들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즉, 금관가야 지배층의 거주공간, 관청, 제의 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봉황대 정상부는 의례의 중심지이자 각종 제의 공간으로 신전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며, 천신에 대한 제의, 항해 안전 기원 등의 국가적 차원의 제사를 거행했을 것이다. 봉황토성의 초축 시기는 체성 기저부 출토유물 등을 통해 5세기 전후로 추정된다.¹⁴

금관가야 도성의 범위에 대해서, 봉황대 구릉의 반경 5km로 설정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¹⁵ 금관가야 도성의 경관을 살펴보면, 왕과 지배층이 거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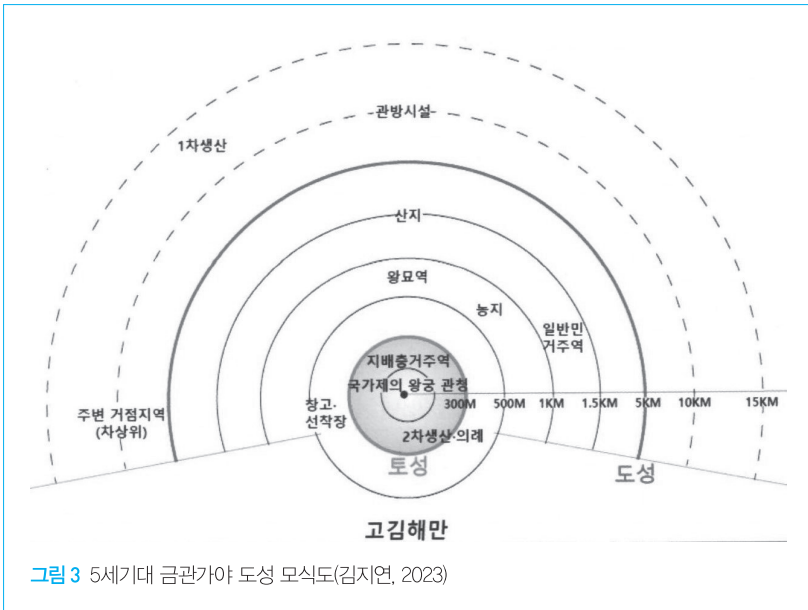
11 최종규, 2005, 「봉황토성의 특징에 대한 모색」, 『봉황토성』, 경남고고학연구소.

12 심광주, 2023, 앞의 글, 13쪽.

13 최경규, 2019, 「가야 왕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고대 도성과 월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제51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14 김지연, 2023, 앞의 글, 83~85쪽.

15 김지연, 2023, 위의 글, 86쪽.



는 왕궁을 중심으로 외곽에 토성을 축조하고 내부에는 왕궁-관청-제의-지배층 거주역, 배후에는 창고군·선착장-2차 생산시설-왕요역-경작지-일반민거주역 등의 시설을 배치하였다(그림 3). 이는 토성 내부로 권력이 집중화되는 가시적인 경관을 조영한 결과일 것이다. 왕궁을 보호하는 토성을 통해 왕요역과 경계를 이루지만, 왕요역이 왕궁과 인접하며 상호가시권에 포함되는 경관이다.¹⁶

2. 대가야 도성

대가야의 평상시 왕성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가야 궁성지(大加耶宮城址)

16 최경규, 2021, 「금관가야 왕성의 공간활용 및 구조 검토」, 『금관가야 봉황토성』, 김해 봉황토성 학술대회.



그림 4 1954년 항공사진에서의 대가야 궁성지 위치와 범위(최재현, 2023)

는 대가야읍의 주산을 배경으로 한 해발 50m 정도의 구릉대지에 위치한다(그림 4).¹⁷

대가야 궁성지의 평면형태는 동쪽이 넓고 서쪽이 좁은 장타원형이며 둘레는 약 1km이다. 상단이 평탄하고 동북쪽은 계단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남쪽은 완경사를 이룬다. 궁성지의 중심공간으로 추정되었던 평탄 지형은 향교가 들어서면서 삭평되고, 일제강점기 이래 각종 시설물에 의해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⁸

대가야 궁성은 2000년 경북대학교박물관에서 벽주건물지와 외증건물지가 발굴조사되면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¹⁹ 벽주건물지는 백제의 왕도였던 웅진의

17 대가야 궁성의 위치에 대해 2가지 견해가 있다. 즉, 고령향교가 위치한 연조리 설상대지(김세기, 2003,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및 설상대지를 포함한 그 서편 골짜기에 해당되는 지산리 모산골 일대(이희준, 2017, 『대가야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등의 견해이다.

18 심광주, 2023, 앞의 글, 18쪽.

공산성 및 정지산 유적에서 확인된 것과 형태와 시기가 유사하며, 와즙건물지는 6세기 중엽경의 유구이다. 연조리 설상대지는 후대에 대부분의 지형이 암반층까지 삭평되어 궁성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이후 연조리 일대 설상대지의 복사면에 대한 조사 결과, 궁성의 방어시설인 구상유구(해자)와 토성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²⁰

대가야 궁성지와 관련된 문헌사료는 『삼국사기』의 대가야 멸망기사이다. 562년 대가야 멸망 당시에 궁성의 출입문에 해당되는 전단문 혹은 전단량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전단량을 “전단량 성문명 가라어위문위양운(梅檀梁 城門名 加羅語謂門爲梁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볼 때 대가야에서는 ‘문(門)’을 ‘양(梁)’으로 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때 ‘양’은 ‘교량, 다리, 들보’의 의미로 쓰이며, 이를 두고 관련 학계에서는 대가야 궁성지의 문루가 통행을 위한 교량의 형태로 해자로 둘러싸인 성곽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가야의 궁성 형태는 신라 월성과 같은 토성 혹은 토석혼축의 성곽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²¹

최근 궤번리 일대에서 확인된 대규모의 인공 수로는 궁성 주변에 왕도를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그림 5). 인공수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목교(木橋)를 통과해야만 왕도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기에 전단문을 전단량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²²

대가야 도성으로서 자연적 경계를 이루는 범위는 궁성을 중심으로 대가야읍 북편의 내곡천과 동편의 대가천, 그리고 남편의 안림천을 경계로 그 내부 지역으로 한정된다. 이 범위는 자연 해자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성 내에는 통치공간(궁성과 주산성), 사후공간(지산동·연조리 고분군), 제의공간, 생활공간 등으로 구

19 경북대학교박물관, 2006, 『傳大加耶宮城址』.

20 최재현, 2023, 「대가야 왕도의 공간적 범위」, 『가야고분군 VIII』, 가야고분군세계유산추진단, 163쪽.

21 조효식, 2014, 「대가야의 방어체계」, 『대가야의 고분과 산성』, 대가야박물관·대동문화재연구원.

22 최재현, 2023, 앞의 글, 172쪽.



그림 5 대가야 도성의 공간배치 및 추정 인공수로(최재현, 2023)

분된다(그림 5). 대가야 궁성과 대피성인 주산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경에는 궁성을 중심으로 대가야 도성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대가야 도성 내 궁성과 대피성은 고구려 국내성과 환도산성, 백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신라 월성과 명활산성 간의 관계로 비교가 가능하다.²³

대가야의 도성에는 백제 사비도성에서 보이는 외곽을 둘러싼 방어용 성곽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신라 왕경과 같이 성벽이 없고 주변 성곽들이 도성을 보호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고령 도성 주변에는 대가야시대에 해당하는 20개소의 산성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주산성과 봉화산성이 최근 발굴조사되었는데 초축시기가 대가야시대임이 밝혀졌다.²⁴

3. 아라가야 도성

아라가야 도성은 궁성인 가야리 유적, 궁성의 침수를 제어하는 가야리 제방, 왕과 지배층의 무덤인 말이산·남문외 고분군, 신전으로 추정되는 충의공원 대형 건물지 등으로 이루어진 중심지의 경관이다. 즉, 가야리 유적-말이산고분군-충의공원-봉산산성 등이 조영된 가야읍 일대가 도성지로 추정된다.²⁵

가야리 유적의 서북쪽에는 봉산산성이 위치하는데 함안천 유역권 전체가 조망되고 가야리 유적과 인접해 배후 산성으로 이해된다. 배후 산성은 평지성과 더불어 도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²⁶

아라가야 궁성인 가야리 유적은 가야리 구릉 일대에 축조한 평지성으로 토성벽과 고상 건물지, 수혈 건물지, 수혈,²⁷ 주혈군 등이 확인되었다(그림 7). 토성

23 최재현, 2023, 위의 글, 156~180쪽.

24 최재현, 2023, 위의 글, 169~172쪽.

25 하승철, 2017,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 『한국의 고도, 현재와 미래』, 익산시·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김재홍, 2020, 앞의 글.

26 김현봉·김보상, 2023,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가야리 유적을 통해 본 아라가야 도성의 경관」, 『가야고분군 VIII』, 가야고분군세계유산추진단, 116쪽.



그림 6 함안 가야리 토성 전경(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2)

의 전체길이는 2.4km로 경주 월성과 부여 부소산성의 규모와 대등하며, 가야권역 내에서 확인된 토성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건물지는 수혈 건물지 7동과 고상 건물지 1동이다. 대형 취사 건물지(7호)²⁸는 길이 11m, 잔존 너비 5m이다.²⁹

그리고 가야리 유적 정상부에서 철촉 등이 다수 출토된 1호 수혈건물지(그림

27 가야리 유적 내에는 배수구가 존재하는 원형의 수혈(1호 수혈)이 확인되는데 水庫 또는 수비시설 또는 집수시설로 추정된다(김현봉·김보상, 2023, 앞의 글).

28 7호 건물지는 조사단에서는 취사 건물지로 보았지만, 난방에 공을 들인 대형건물지로 거처한 사람은 높은 지위의 인물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권오영, 2022, 「가야의 왕성을 찾아서」, 『가야사의 제문제-가야사 새로 보기-』, 선인, 203쪽).

29 김현봉·김보상, 2023, 앞의 글, 1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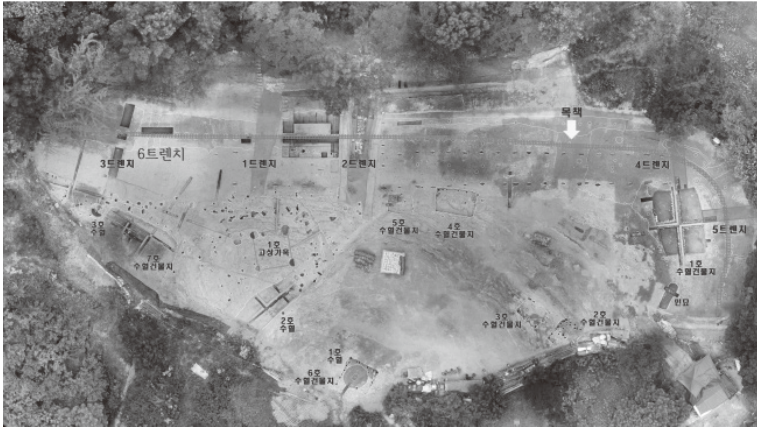


그림 7 함안 가야리 유적 발굴구역 내 유구 배치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0)

7)가 주목되는데, 수비병의 막사로 볼 수 있다. 서울 몽촌토성 내 수혈주거지에 서도 고지대의 성벽 혹은 성문에 인접한 곳에 입지하면서 철모 등 무기류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수비병의 막사로 추정된 바 있다.³⁰

가야리 토성의 특징적인 토목기술은 ‘목주공법’이다. 가야리 토성 축성에는 수 천 주의 통나무가 필요했을 것이다. 가야리 유적의 토축 공정이 완성된 이후에는 정상부와 사면부에는 2층의 목책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7).³¹

한편, 가야리 제방유적은 제방의 동쪽에 위치한 하천의 범람으로부터 서쪽의 곡간지를 방어하기 위한 차수용 제방으로 이해되며, 축조시기는 5~6세기로 보고되었다.³² 함안 가야리 성과 제방을 함께 고려한다면 제방의 기능은 물의

30 김낙중, 2014, 「백제의 도성」, 『삼국시대 고고학개론 1-도성과 토목편-』, 진인진, 118쪽.

31 심광주, 2023, 앞의 글, 17쪽.

32 김현봉·김보상, 2023, 앞의 글, 110쪽.

관리, 형태는 나성과 같은 면모를 띠게 된다.³³

4. 소결

가야 왕성과 관련하여 금관가야의 김해 봉황토성, 아라가야의 함안 가야리 토성, 대가야의 고령 연조리 토성 등을 살펴보았는데,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가야의 주요 왕성은 해안 또는 하천변에 입지하는데, 입지 선정 시 수로 교통이 우선적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성은 해발고도가 40~60m로 높지 않지만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이며, 주변에는 왕릉이나 최상위 수장층의 고분군이 분포한다. 규모는 둘레 1~2km에 달하여 산성보다 대규모로 축조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토성은 모두 가야 소국의 왕성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왕성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상의 길목에 산성들이 분포한다.³⁴

가야 도성의 경관을 정리하면, 왕과 지배자가 거주하는 왕궁을 중심으로 토

<표 1> 주요 가야 왕성 현황

유적명	해발 고도 (m)	입지	둘레 (km)/ 평면형태	수장층 고분군	구조		초축 시기
					성벽 형태	주요 부대 시설	
김해 봉황토성	40	바다인접 해반천변	1.5 / 타원형	대성동 고분군	토성	교역창고시설, 제사 유구, 제철시설, 초대 형건물지	4세기 말~ 5세기 초
고령 연조리 토성	47	대가천변	1 / 부정형	지산동 고분군	토성	해자, 대벽건물지	5세기 후반
함안 가야리 토성	56	신음천변	2.4 / 장타원형	말이산 고분군	토성	목책, 수혈 건물지, 고상건물지, 제방	5세기 후반

33 권오영, 2022, 앞의 글, 201쪽.

34 심광주, 2023, 앞의 글, 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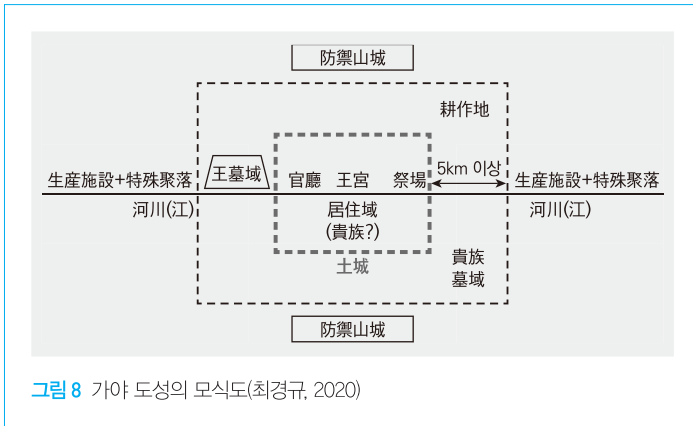


그림 8 가야 도성의 모식도(최경규, 2020)

성을 축조하고 내부에는 왕궁-관청-특수건물(제외), 배후에는 왕묘와 귀족묘·생산시설·경작지·제방 등의 시설을 배치한다(그림 8). 가야 토성은 금관가야의 봉황토성을 제외하면 대개 5세기 후반에 축조된다. 아라가야와 대가야의 경우, 5세기 후반대에 왕권을 상징하는 대형 고층이 조영된다.³⁵ 가야는 신라나 백제와 같이 도시구획을 기본으로 하는 도로와 사찰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대 도성체제의 구성요소인 왕궁·왕묘·제의시설·생산시설·취락 등을 갖추고 있다. 가야는 지배자 거주지의 분리, 왕궁의 축조, 왕묘역 조성, 제장 및 공공시설, 생산시설의 분리, 중심지 방어시설 구축 등 완전한 도성체제를 갖추기 이전의 다소 미숙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야는 6세기 이후 급박한 대외정세로 인하여 성숙한 도성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가야 왕성은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도성체제로 이행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볼 수 있다.³⁶

35 최경규, 2020, 「가야 왕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문물연구』 38, 동아문화재단, 51~52쪽.

36 최경규, 2020, 위의 글, 53쪽.

III. 백제 도성

고대사회에 가야와 인접한 백제와 신라는 가야 도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상이다.

신라는 당시 궁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경주 월성(月城)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백제의 경우, 아직 도성의 정궁(正宮)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성의 기능을 보조하는 배도(陪都) 혹은 복도(複都)로서 익산 왕궁유적을 통해 궁성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³⁷

가야가 도성을 조영하는 시기인 5세기~6세기 전반대에는 백제와 가야는 긴밀한 교섭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삼국시대에 중국 남조와 교섭을 가장 많이 하였던 나라가 백제라는 점에서 가야는 백제를 통하여 도성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얻었을 수 있다. 다만, 가야 여러 나라가 백제와 중국 남조 도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식을 했더라도 그 수용 여부는 현지 사정에 따라 달랐을 것이기에 남조의 도성이 직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백제도 중국 도성을 모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백제보다 영역과 국력이 훨씬 미약한 가야 여러 나라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1. 가야와 백제의 교섭

가야 도성은 대체로 5세기대를 전후하여 조영되기 시작한다. 당시 가야와 우호 관계가 있었던 백제를 통해 중국의 도성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5세기대를 중심으로 가야와 백제의 교섭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성기의 백제와 가야의 관계는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5세기 중

37 박순발, 2020, 「동아시아 고대 궁성과 대가야」, 『대가야의 도성』, 제14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17~18쪽.

엽경에 이르면 백제는 고령·함안 등의 가야세력에 대하여 환두대도 등의 위세품을 사여함으로써 정치적 동맹관계를 지속해나간 것으로 보인다.³⁸

이처럼 5세기대를 중심으로 가야지역 수장급 고분에서는 가야보다 선진적이었던 백제계 위세품이 주로 나오는 데 비해, 풍납토성을 포함한 한성기 백제의 여러 유적에서는 가야계 토기류가 출토되고 있다. 당시에 백제권 유적에서 확인된 가야토기들의 분포지는 가야인들의 대백제 교섭 과정에서 남겨진 생활용 토기로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서울 소재 백제 유적에서 출토된 가야계 토기는 44점인데, 풍납토성 31점, 몽촌토성 7점, 석촌동고분군 6점으로 풍납토성 출토비율이 높다.³⁹ 서울 소재 백제유적 출토 주요 가야계 토기를 정리해보면 <표 2>와 같

<표 2> 서울 소재 백제 유적 출토 주요 가야계 토기 일람표⁴⁰

유물명	유구명	시기	계통	유례
통형고배	석촌동1호직석묘	4세기 후엽	아라가야	합천 삼가 8호묘, 창원현동 31호묘
뚜껑	풍납토성 grid	5세기 2/4분기	아라가야	함안 도항리 13호묘
광구소호	석촌동5호분 남쪽	5세기 2/4분기	아라가야	함안 도항리 10호묘
고배대각	풍납토성 현대리버빌 부지 가-9호주거지	5세기 전반	아라가야	산청 옥산리 107호묘
유대대부완	풍납토성 미래마을 다-grid	5세기 3/4분기	비화가야	창녕계성2호분, 교동3호분
수평구연호	풍납토성 미래마을부지 가-7호주거지	5세기 전반	소가야	산청 옥산리 35호묘, 진주 우수리 18호묘
뚜껑(2점)	풍납토성 경당지구	5세기 3/4분기	소가야	진주 무촌2구55호묘·3구55호묘
뚜껑	몽촌토성87-2호주거지	6세기 전반	대가야	

38 박순발, 2000, 「가야와 한성백제」, 『가야와 백제』(제6회 가야사학술회의), 김해시.

39 하승철, 2020, 「서울 소재 백제역사유적 출토 가야토기에 대한 검토」, 『한성백제 유물자료집 I -서울 백제유적 출토 외래유물』, 한성백제박물관, 346~360쪽.

은데, 아라가야토기가 가장 많다.

한편, 대가야가 웅진-사비기에 백제의 영향을 받고,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은 사실을 고려하면 대가야 도성제에 백제의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전 대가야 궁성지에서 발견된 벽주건물도 백제와 대가야의 밀접한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합천 성산토성에서의 벽주건물도 백제 영향의 증거이다.⁴¹

2. 백제 도성의 조사·연구 성과

1) 한성기

한성기 도성에 대해서는 서울 풍납토성(둘레 3.5km)과 몽촌토성(둘레 2,285m)이 주 논의 대상이다. 평지성인 풍납토성(北城)과 산성에 가까운 몽촌토성(南城)이 세트를 이루어 한성(漢城)이란 도성체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⁴² 즉, 한강변 충적대지에 자리하면서 규모가 더 큰 풍납토성은 왕의 평상시 거성(居城)이고, 구릉 위의 몽촌토성은 비상시의 산성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요컨대, 백제 한성기의 도성제도는 초기에 풍납토성이 ‘하남 위례성’으로 존재하다가 몽촌토성이 추가로 축조되면서 ‘한성’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성의 구조는 ‘하남 위례성’(풍납토성)인 단일 궁성 체제에서 북성인 풍납토성과 남성인 몽촌토성의 양궁성 체제로 발전되어 475년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⁴³

이와 같이 한성기 도성제의 큰 특징은 양성 체제로서, 대성(북성)과 왕성(남성)은 각각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으로 지정된다. 풍납토성 내부 유구 밀집도가 높은 점으로 보아 일반인들의 거주구역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발굴

40 하승철, 2020, 앞의 글.

41 권오영, 2022, 앞의 글, 194~195쪽.

42 신희권, 2003, 「백제 한성기 도성제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43 신희권, 2017, 「백제왕도 한성과 풍납토성 조사·연구 성과」, 『백제왕성 풍납토성의 현재와 미래』, 2017 백제왕성 풍납토성 발굴조사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결과 풍납토성에는 몽촌토성보다 더 많은 국가 시설물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몽촌토성은 구릉에 의지해 성을 쌓아 방어력을 높였으며 평지가 풍납토성에 비해 좁다. 그래서 왕궁이나 일부 관청 등이 주된 내부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거주자들도 대개 왕과 왕족, 특정 귀족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인력들이었을 것이다.⁴⁴

근래 연구성과로 보면, 풍납토성 초축 성벽의 축조는 3세기 중후엽~4세기 초엽에 착공하여 4세기 전중엽에 완공된 것으로 파악된다.⁴⁵ 성벽 취락의 축조가 시작되고 진행되던 3세기 중하반경 이후는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립되던 시기이다. 몽촌토성의 초축 시점은 3세기 말·4세기 초를 하한으로 보고 있다.⁴⁶

한성기에는 사비기와 같은 정연한 도성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풍납토성 내부의 조사과정에서 공간분할의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일부 확인되었다. 자갈로 포장된 도로면과 측구(側溝)를 갖춘 도로가 확인되면서 성의 남북 중축선과 평행, 직교하는 도로의 존재가 상정되고 있다. 궁궐 등 중요 시설은 성의 북반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풍납토성 동남부는 주거 밀집지역, 중앙부(경당지구)는 종교 및 의례 관련 유구 밀집지역, 서편의 미래마을 부지는 도로 및 창고, 대형 건물 집중구역으로 추정된다.⁴⁷ 그리고, 미래마을 부지에서는 돌을 이용하여 물이 흐르게 만든 시설이 발견되어 익산 왕궁리유적에서 발견된 정원시설과 유사한 구조이다.⁴⁸

따라서 풍납토성은 북쪽부터 궁전·종묘구역, 공공시설구역, 거주구역으로

44 최경환, 2016, 「도성」, 『세계유산 백제』, 국립중앙박물관, 20~21쪽.

45 이성준·김명진·나혜림, 2013, 「풍납토성 축조연대의 고고과학적 연구」, 『한국고고학보』 88.

46 박순발, 2013, 「백제 도성의 시말」, 『중앙고고연구』 제13호, 중앙문화재연구원, 8쪽.

47 신희권, 2007, 「풍납토성의 도성구조 연구」, 『풍납토성, 500년 백제왕도의 비전과 과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회의.

48 권오영, 2012, 「한국고고학 연구에서 풍납토성의 가치」, 『동북아시아 속의 풍납토성』, 학연문화사, 183쪽.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⁴⁹(그림 9), 궁전은 풍납토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⁰

한성기의 도성은 중국 고대 도성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성기의 백제가 중국 도성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연한 도성공간을 창출

49 소재운, 2010, 「백제 도로를 통해 본 풍납토성의 도성구조 이해」, 『한국의 도성』, 국립경주·부여·가야문화재연구소.

50 김낙중, 2014, 「백제의 도성」, 『삼국시대 고고학개론1-도성과 토목편-』, 진인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산지가 많은 지형의 특성상 중국 도성과 같이 성벽과 건물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구릉과 같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력과 자원을 절감한 점이나 별도 제방 건설 없이 도성 주변의 농경지를 한강의 범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을 풍납토성의 위치 선정 등에서는 백제인의 창의성이 돋보인다.⁵¹

2) 웅진기

웅진기 도성의 핵심시설인 웅진성은 공산성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산성은 해발 110m인 공산의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한 포곡식 산성에 해당한다.

공산성은 전체 길이 2,660m 중 석성이 1,925m이고, 735m가 토성이다. 공산성 내부의 추정 임류각지 서쪽 쌍수정 광장의 조사에서 대형 건물지가 발견되어 백제의 추정 왕궁터로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왕궁을 공산성 외부에서 찾기도 한다.⁵²

즉, 공산성 남쪽 기슭 일대가 왕궁터로 추정되는 것은 공산성 내부와는 달리 넓은 평탄대지가 있고 그곳에서 방형 초석이 발견되었으며 주산을 뒤로하고 개활지를 앞으로 하여 왕궁이 자리하는 것이 통례라는 것이 고려되었다. 이럴 경우 웅진도성의 구조는 후원적인 성격도 띤 공산성이라는 산성과 그 아래 저평지에 위치한 왕궁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⁵³

3) 사비기

사비도성은 내성외곽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사비도성은 외곽(羅城) 및 내성으로 부소산성이 있다. 사비도성은 지배집단의 거주공간뿐만 아니라 사서인(士庶人)들의 거주지역을 포함한 도시 전체를 외곽으로 두르고 있다.⁵⁴ 사비도성에서

51 최경환, 2016, 앞의 글, 20~21쪽.

52 최경환, 2016, 위의 글, 22쪽.

53 박순발, 2010, 『백제의 도성』, 충남대학교출판부; 김낙중, 2014, 앞의 글.

왕궁은 따로 궁장을 두르지 않고 후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부소산성이 위치한 부소산 남쪽 기슭 일대의 완만한 경사면에 산성과 일체가 되도록 조성되었을 것이다.⁵⁵

사비도성은 부소산성과 이곳에서 연결되는 나성으로 둘러싸여 있다(그림 10). 나성은 총연장 6.6km에 이르는 반월형이고, 서쪽과 남쪽은 금강을 자연의 해자(垓子)로 이용하였다. 부소산성은 왕궁의 배후에 위치하여 평상시에는 후원(後苑)의 기능을 하다가 전란 시에는 최후의 방어 거점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부소산성은 백제시대에는 길이 2.5km의 포곡식 산성으로 전형적인 판축토성이다. 사비도성 내 왕궁의 위치는 대개 부소산 남쪽과 이에 이어지는 부여 시내의 북편에 걸친 곳으로 추정된다(그림 10~12).

문헌에 따르면, 사비도성의 내부는 5부(部)로 편제되어 있으며, 각 부는 다시 5개의 향(巷)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한다. 도성 내부의 구획과 관련된 도로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관북리 유적에서는 공방 등 생산시설이 먼저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저장시설과 관련된 창고도 확인된다.⁵⁶

사비도성에서 도읍지의 북쪽에 왕궁을 배치하는 것(그림 11)과 나성, 계획적인 공간 배치(5부5향) 등은 중국 도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⁵⁷

사비도성은 웅진 도성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된 계획도시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도성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최신 토목건축기술이 동원되었다. 사비도성이 한성기와 웅진기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은 훨씬 더 큰 공간을 나성이라는 인공 시설로 감싸 왕궁과 일반인의 거주구역을 보호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거주구역을 외곽으로 온전히 감싼 예로는 우리나라 고대국가

54 박순발, 2005a, 「사비도성 연구 현황과 과제」, 『백제 사비시기 문화의 재조명』,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89쪽.

55 김낙중, 2014, 앞의 글, 122쪽.

56 김낙중, 2014, 위의 글, 126~138쪽.

57 서정석, 2010, 「백제 웅진왕도와 사비도성」, 『한국성곽연구의 새로운 관점』, 한국성곽학회·초대회장 심봉근박사 퇴임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2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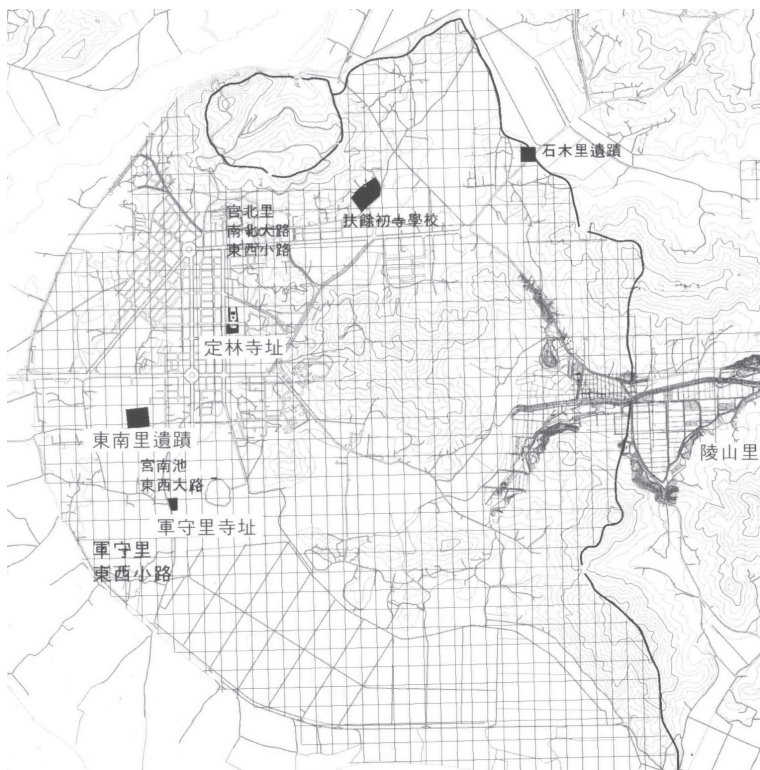


그림 12 사비도성 공간 구획 모식도(박순발, 2005b)

의 도성 중 최초이다. 그리고 도성 거주민들을 외곽 안에 살게 했다는 대목에서 조위 업성(曹魏 鄴城)과 비교할 수 있다. 외곽 건설의 사례로 북위 평성(平城)과 낙양성이 있다. 개별 방리(坊里)가 별도 담장을 시설하지 않은 개방형이었다는 것은 북조~당대 중국 도성제와 차이점이다.⁵⁸

58 최경환, 2016, 앞의 글, 28쪽.

4) 익산 왕궁

사비도성 왕궁의 구체적인 모습은 현재로서 알기 어려우나 사비 시기의 이궁(離宮)으로 추정되는 익산 왕궁성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⁵⁹ 익산 왕궁성은 동서 약 240m, 남북 약 490m의 장방형 평면으로, 약 3m의 궁장(宮牆)으로 둘러싸여 있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낮은 구릉(해발 41.8m)을 깎고 낮은 곳을 메우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통해 평탄한 대지 위에 조성한 백제 사비기의 또 하나의 왕궁이다.⁶⁰ 유적을 둘러싼 장방형 궁장의 장단비(동서 240m, 남북 490m)는 1:2로 중국 위진남북조시대의 궁성(조위~서진의 낙양성, 북위 낙양성 등)이 가졌던 1:2~1:3의 장단비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⁶¹

중국 남북조시대 도성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고대 도성의 궁성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나, 백제 사비기의 궁성 혹은 이궁으로 비정되는 익산 왕궁리 유적의 평면형은 1:2로서 당시 중국 도성제와 일치한다. 이로 미루어 사비기 백제의 정궁(正宮) 역시 동일한 평면형일 것으로 추정된다.⁶²

둘레 1.5km에 달하는 장방형의 궁장으로 둘러싸인 익산 왕궁의 내부 공간은 후원, 전각구역, 공방·화장실구역 등으로 대별된다(그림 13). 이러한 공간구분은 사비기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부여 관북리 유적 및 그 배후의 부소산성 일대와 유사하다.

왕궁리 유적의 왕궁 중심 공간인 전각구역(남쪽)과 그 뒤편(북쪽)으로 정원(後苑)이 확인된다. 이 정원은 방지(放池)라는 백제적인 요소에 수경(水景)처리 기법과 조경석의 활용 등 중국 남조의 영향이 복합되어 나타났으며 일본에서 유

59 박순발, 2005a, 앞의 글, 112쪽.

60 전용호, 2010, 「익산 왕궁리유적-궁성에서 사찰로의 변화상에 대한 연구」, 『한국의 도성』, 국립경주·부여·가야문화재연구소.

61 최경환, 2016, 앞의 글, 28~29쪽.

62 박순발, 2010, 「동아시아 고대 도성 비교를 위한 몇 가지 관점」, 『한국의 도성』, 국립경주·부여·가야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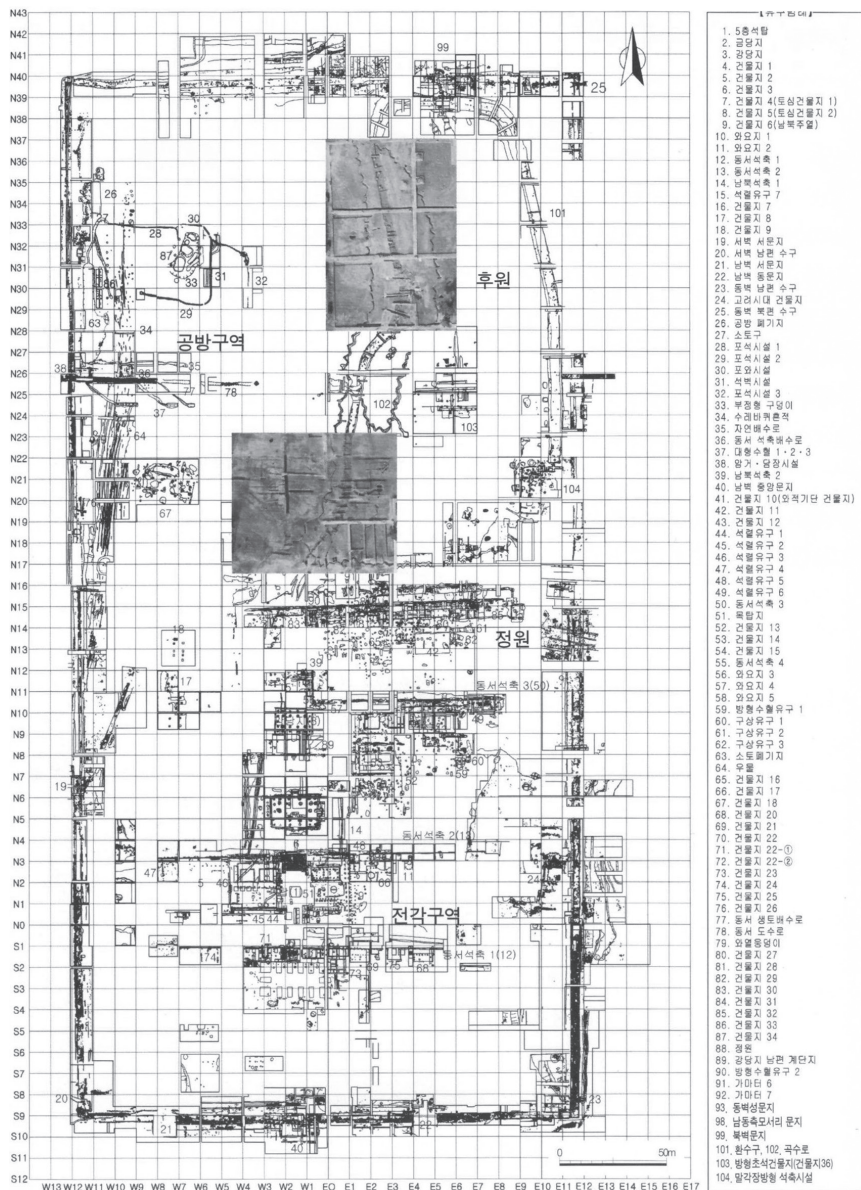


그림 13 익산 왕궁리 유적의 유구 배치도(김낙중, 2011)

행한 ‘축경(縮景)’의 요소도 내포되어 있다. 익산 왕궁성 후원은 중국 남조 원유(園囿)의 두 가지 유형 중 화림원(花林園)과 같은 궁성 내 내원(內苑)의 축소판이다.⁶³

이처럼 왕궁리 유적은 위진남북조 시기 도성제를 바탕으로 정원과 후원 구역을 접목하여 백제적 변용을 이룩한 유적이다. 6세기 후엽의 정제된 백제 왕궁은 일본 아스카시대의 왕궁 조성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⁶⁴ 익산에 대한 경영은 백제 무왕이 즉위한 7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고고자료 및 건축학적 관점에서 왕궁리 유적의 건설 시점을 무왕 이전의 6세기 후반으로 보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⁶⁵

IV. 중국 남조 도성

1. 문헌과 고고자료에서 보이는 가야와 남조의 교섭

가라국은 479년 중국 남제와 교섭한다. 6세기에 편찬된 『남제서(南齊書)』에 실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라국(加羅國)은 삼한의 한 계통이다. 건원 원년(479년)에 국왕 하지(荷知)가 사신을 보내와 방물을 바쳤다. 이에 조서를 내렸다. 널리 헤아려 비로소 (조정에) 올라오니, 멀리 있는 이(夷)가 두루 덕에 감화됨이라. 가라왕 하지는 먼 동쪽 바다 밖에서 폐백을 받들고 관문을 두드렸으니, 보국장군본국왕의 벼슬을 제수함이 합당하다.

63 김낙중, 2011, 「백제 궁성의 원지와 후원」, 『백제연구』 5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김낙중, 2014, 앞의 글.

64 최경환, 2016, 앞의 글, 31쪽.

65 최경환, 2016, 위의 글, 28~29쪽.

『남제서』에 기록된 가라국왕을 안라국왕으로 보는 설도 있으나 당시 가야의 전반적 상황으로 보아 가라국(대가야)의 왕으로 보는 설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남조와 통교한 이 기사로 보아 가라국이 5세기 중후엽에 가야 여러 나라 가운데 맹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야국의 가실왕이 중국 악부의 쟁을 모방하여 가야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볼 때,⁶⁶ 이 시기 중국문화가 가야에 직·간접적으로 수입되고 있었을 것이다. 우륵이 만든 가야금곡 12곡 가운데 10곡의 이름은 당시 가야 여러 나라의 이름이지만, 사자기와 보기 2곡은 중국 남조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기악곡(伎樂曲)이다.⁶⁷

한편, 함안 말이산 75호분에서는 5세기 후반 중국 남조에서 이입된 것으로 추정된 청자연판문완이 출토되어, 아라가야와 중국 남조와의 직접 교섭 가능성도 제기⁶⁸되고 있다.⁶⁹

또한 함안 도항리 8호분과 고령 송림리 가마터의 연화문은 남조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즉,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도항리 8호분의 복판 연화문은 동진 만기~남조 초기로 편년되는 절강성 소횡산(小橫山) M18호분의 연화문전과 흡사하다. 그리고 6세기 전반 고령 송림리 가마터의 연화문전에서 연판의 전체적인 형태는 남경 출토 남조 연화문수막새와 유사하다.⁷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야와 중국 남조는 직·간접적 교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6 『삼국사기』 권32, 잡지1(악) 가야금조.

67 백승욱, 2021, 「문헌으로 본 가야의 대외관계」, 『가야인, 바다에 살다』, 국립김해박물관·부경대학교박물관, 92~93쪽.

68 조신규, 2022, 「최신 조사성과를 통해 본 아라가야의 재인식」, 『가야사의 제문제-가야사 새로 보기-』, 선인, 50~58쪽.

69 말이산 75호분 출토 청자 완의 유입 과정에 백제가 개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권오영, 2022, 앞의 글, 195쪽).

70 양은경, 2017, 「가야 연화문과 가야 불교」, 『고고광장』 21, 부산고고학연구회, 74~83쪽.

2. 중국 남조 도성 개요

중국 강소성 남경시는 동진(317~420)과 남조의 송(420~479)·제(479~502)·양(502~557)·진(557~589) 4개 왕조의 도성인 건강성(建康城) 유지(遺址)가 있는 곳이다. 건강성은 오나라 손권의 건업성(建業城)을 개축하여 조성한 도성으로, 동진(317)부터 진이 수(隋)에 의해 멸망할 때(589)까지 272년 동안 도성의 역할을 하였다⁷¹(그림 14).

동진 및 남조의 건강성은 잔존한 유적이 분명하지 않지만 문헌자료에서 개략적인 도성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남경 육조의 도성은 손오(孫吳)의 건업성(229)으로부터 시작한다. 진 황실은 남침하여 오나라의 옛 성터 위에 자리 잡고 건강으로 개칭하였다. 326~334년에 동진은 오나라의 태초궁과 소명궁 성터 중심부에 2층의 궁성을 건설하였다(그림 14-左下). 동진이 개축한 건강의 도성과 궁성은 구조상 위진의 낙양성을 모방했지만, 그 기초는 건업성이었으며 그 후의 남조시기 내내 큰 변화가 없었다. 『건강실록(建康實錄)』에 따르면, 처음에는 흙벽과 대나무로 둘레를 둘렀지만, 동진 말기부터 부분적으로(성문 부분) 벽돌을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남제 건원 2년(480)에 정식으로 도성의 담장이 건설되면서 모두 벽돌을 사용하였다. 양나라 천감 10년(511)에 세 번째 담장에 해당하는 궁성이 증축된다. 이러한 3층의 궁성은 당시의 정국 불안과 관련될 것이다. 육조시기 도성의 주위에는 일부 군사 보루와 부속 성곽이 차례로 건설되었다. 도성을 방어하는 보루와 요새는 서쪽의 석두성(石頭城), 북쪽의 백하루(白下壘), 동남쪽의 동부성(東府城), 서남쪽의 야성(冶城)이다⁷²(그림 14~15).

『건강실록』과 『금릉고적도고(金陵古迹圖考)』에 따르면, 건강궁(建康宮)은

71 龔國強, 2018, 「中國先秦至隋唐時期宮城的考察」, 『金海 鳳凰洞遺蹟과 古代東亞細亞-加耶 王城을 探究하다-』, 仁濟大學校 加耶文化研究所·金海市.

72 나종진 저, 정대영 역, 2012, 『중국고고학-위진남북조-』, 사회평론, 42~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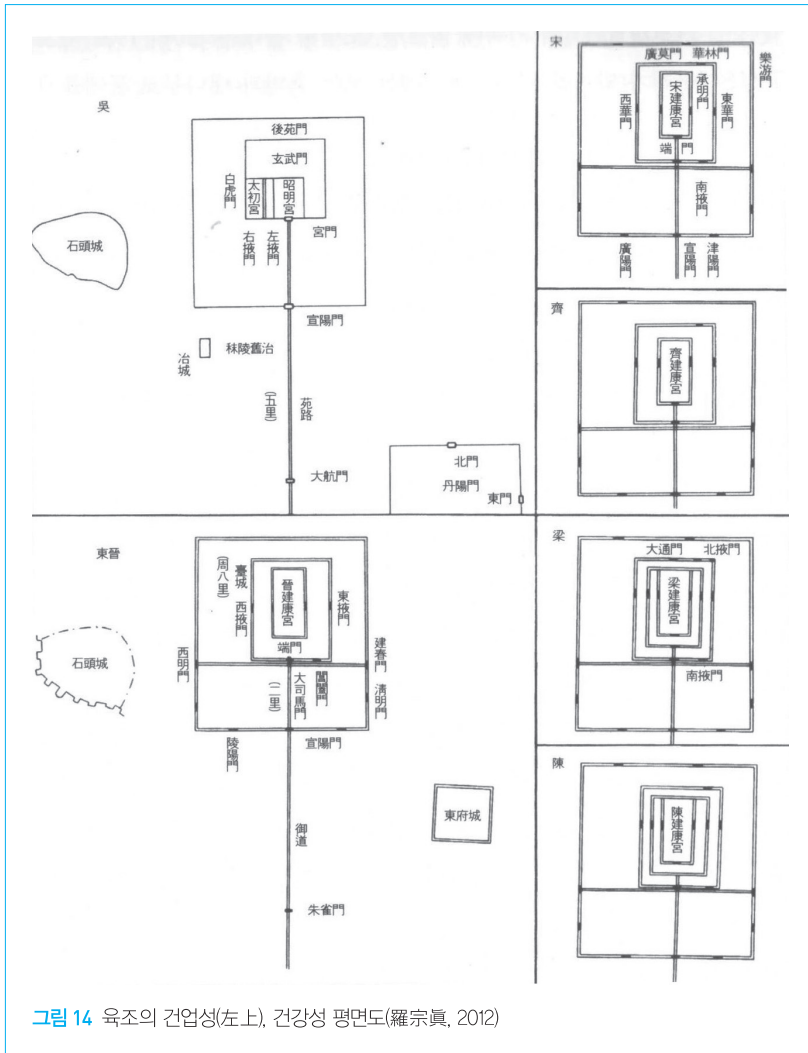


그림 14 육조의 건업성(左上), 건강성 평면도(羅宗眞, 2012)

도성 북쪽 중앙에 위치하며, 정전(正殿)을 태극전(太極殿)이라 칭하였다. 궁 전면(前面)에 남-북 중심선으로 어가(御街)를 만들고, 궁성 내에는 2개의 남북방향 건축 중심선이 있다. 궁전 구도는 정전인 태극전이 전면(前面)에 자리하고,



그림 15 남조 건강성 평면복원도(龔國強, 2018)

황제 침전과 황후 침전이 남북 세로로 병렬한 삼대 전각 형태이다. 태극전 양측에 동당(東堂)과 서당(西堂)을 설치하였다. 태자가 머무르는 동궁(東宮)은 궁성 동쪽에 위치한다. 궁성 북쪽은 화림원(華林園)이 위치하고, 궁성 앞 어가 양측에 종묘와 사직, 관서(官署)가 위치한다(그림 15). 건강성 유지는 명나라 남경성(南

京城)이 덮고 있어 발굴조사 작업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⁷³

더구나 수문제(隋文帝)가 589년에 진(陳)을 평정함에 이르러 건강성을 초토화시키고 경작지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렸기에 고고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양 무제 통치기에 건강성이 가장 번영한 시기이다. 양나라 말기에 건강성이 파괴되고 진이 양을 이어 건국한 32년간 건강성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한편, 북위(386~534)가 효문제 태화 17년에(493) 낙양에 건도하였는데, 효 문제가 낙양을 건설하기 전에 일찍이 장소유를 파견하여 남방의 궁전을 모방하였으니 건강성이 낙양의 건설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⁷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조 건강성의 기본 플랜을 북조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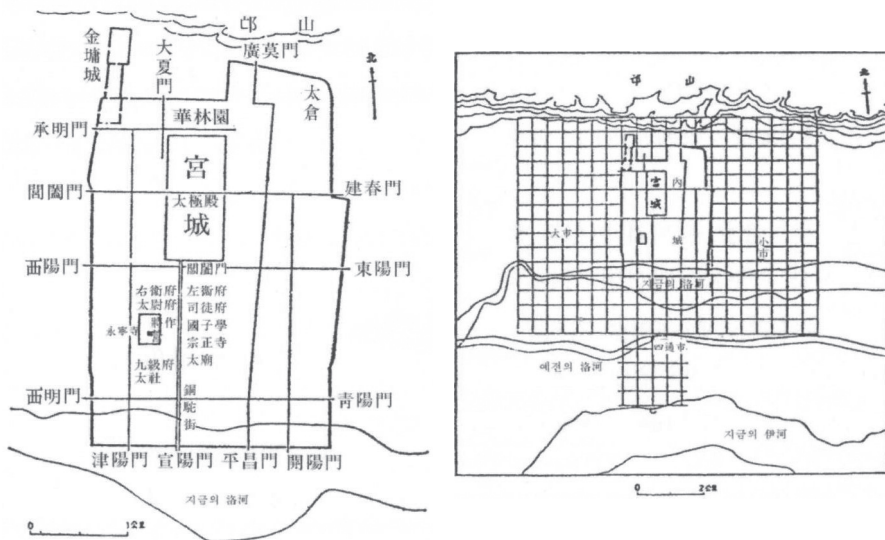
지리적 환경으로 보면, 낙양과 건강은 매우 흡사하다. 낙양은 북쪽으로 망산(邙山)이 있고 남쪽으로 낙수(洛水)에 접하며 서쪽에 이수(伊水)가 있다. 동쪽으로는 곡수(穀水)가 에워싸고 있다. 건강의 북쪽에는 북주산·계룡산이 있고, 남쪽에는 진회하(秦淮河)에 접하였으며 서쪽으로 멀리 장강(長江)에 임하였다. 동쪽에는 청계(靑溪)가 있어 양자의 산천형세는 상당히 유사하다.⁷⁵

북위는 493년부터 534년까지 42년간 낙양성에 도읍하였다. 낙양성은 궁성, 내성, 외곽성으로 구성된다. 궁성은 동서 660m, 남북 1,398m이다. 남벽은 고대 낙하(洛河)의 북안에 위치한다. 493년 북위 효문제는 위진 낙양성을 기초로 하여 낙양성에 대한 중건을 추진하였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외곽성에 모두 320개의 리방(里坊)이 설치되었다고 한다(그림 16-右). 리방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한 변의 길이는 500m이다. 리방의 사면에는 네 벽을 축조하였으며 사면에 문을 설치하고 리방 내부에는 십자가(十字街)가 설치된다. 도성 내부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구역은 명확히 구분되었다. 외곽성 서부는 선비족 황실귀족

73 龔國強, 2018, 앞의 글.

74 유숙분 저, 임대희 역, 2007, 『육조 시대의 남경』, 경인문화사.

75 유숙분 저, 임대희 역, 2007, 위의 책, 218쪽.



의 주거지역이고 동부는 한족(漢族)관료와 일반 사서(士庶)의 주거지역이며, 남부는 주변 소수민족과 외국인의 주거구역이다. 외곽성의 서쪽에는 ‘대시(大市)’, 동쪽에는 ‘소시(小市)’, 남쪽에는 ‘사통시(四通市)’가 설치되었다. 서로 다른 시장의 규모는 상이한 주민집단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다. ‘사통시’는 국제무역의 성격을 가진 시장이다.⁷⁶

V. 중국·백제 도성과 비교해 본 가야 도성

1. 중국의 역대 도성의 변화와 가야 도성

우리나라 고대 도성의 기원은 인접한 중국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과의 교섭이 적었던 가야는 중국 도성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백제 등의 이웃 국가로부터 간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에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순발은 도성의 핵심시설인 궁의 위치 변화와 일반인들의 거주구역과 공간적 배치 상황의 변화를 기준으로 중국 역대 도성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⁷⁷ (그림 17).

1유형은 궁과 거민구(居民區)가 미분화된 단계로 아직 궁성이 뚜렷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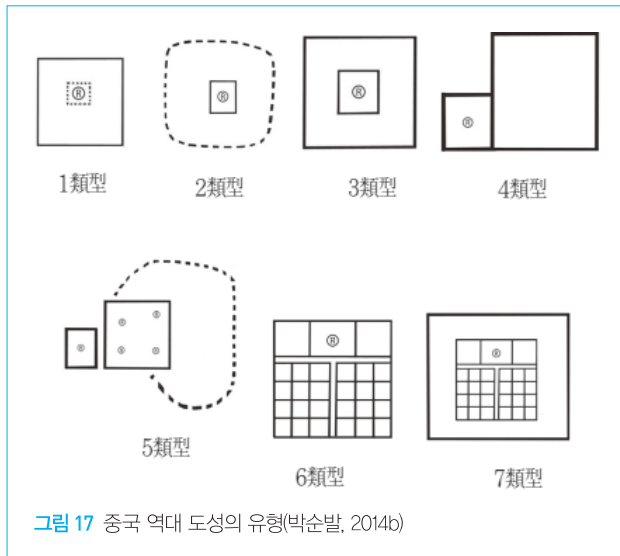


그림 17 중국 역대 도성의 유형(박순발, 2014b)

77 박순발, 2014b, 「동아시아 고대 도성 民里의 형성과 전개」, 『역사문화연구』 5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유형은 지배층의 공간인 궁이 도성 주민의 거주구역 중앙에 위치하지만 외곽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서 하(夏)의 중기 이후 도성으로 여겨지는 하남성 연스(偃師) 얼리터우(二里頭)로 대표되는 도성 유형이다. 도성의 가운데에 위치한 궁은 주변에 담장을 두른 궁성의 형태이다.

3유형은 궁성이 도성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1유형과 동일하나 주변의 도성 주민 거주구역까지도 외곽성으로 두른 내성외곽형인 점이 다르다. 이 유형의 가장 이른 예는 상(商) 이른 시기의 도성인 하남성 상성(商城)이다. 이러한 도성의 형태는 주나라에도 이어지는데, 주의 제후국 노(魯)나라 도성도 동일하다.

4유형은 궁성과 외곽이 분리된 형태로서 춘추전국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도성 형태이다. 궁성은 전체 도성의 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성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으나 군왕의 시해가 잦아진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기도 한다.

5유형은 진(秦)의 통일 이후에 등장하는 도성 형태이다. 도성의 외곽이 없어지면서 도성 내부에는 곳곳에 궁성이 다수 배치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전통은 한나라로 이어진다.

6유형은 궁성과 외곽성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 점에서는 3유형과 유사하지만, 궁성의 위치가 전체 도성의 북쪽 중앙에 자리 잡은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조위(曹魏)의 하북성 업성(鄴城)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위진남북조시대 외에도 수·당 도성에 이르기까지 이 유형의 도성 형태는 지속되었으며, 한반도 및 일본 등에도 그 영향을 미친 고대 동아시아 도성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7유형은 5유형 외곽성 밖에 다시 외곽성을 부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의 외곽성을 두른 셈이다. 궁성을 포함한 도성의 핵심시설이 최외곽성의 중앙에 위치한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하남성 개봉에 위치한 송나라 동경(東京)에서 비롯된 이 유형은 청의 북경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중국 도성의 발전 단계와 아라가야의 도성을 비교한 연구성과가 주목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라가야의 도성은 2유형 혹은 3유형에 해당한다. 가야리유적은 백제의 풍납토성과 같이 성 내부에 최상위 위계 공간과 차상위 위계의 공간이 모두 성벽에 의해 보호받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고 신라의 월성과 같이 최상위 위계의 거주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가야리 유적의 동쪽에는 가야리 제방이 존재하고 가야리 구릉 사면부에서 생활유적이 확인되고 있어 가야리 유적의 성벽 바깥으로 일반민 또는 차상위 위계의 거주공간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궁성이 독립되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가야리 일대는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2유형에 해당하고, 가야리 제방과 남문 외 구릉 등의 외곽을 상정해 거주구역의 형성을 추론해보는다면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3유형에 해당한다.⁷⁸

이와 같이, 아라가야의 도성을 중국 도성 유형에 적용했을 때는 하·상(夏·商)시대(기원전 21세기~11세기)인 2·3유형에 해당하기에 시기적으로 너무 큰 격차를 보인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가야의 도성이 조성된 5~6세기대가 중국 남조에 해당하여 가야가 남조 도성을 인지하였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규모 차이일 뿐 아니라 노동력 동원 규모와 관련지을 수 있다. 대가야, 아라가야, 금관가야 등의 가야 여러 나라의 크기 및 노동력 동원 규모는 동시기 중국 왕조의 작은 지방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비교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가야는 중국(남조)에 비해 공간적으로 매우 제한된 여러 소국으로 구분되어 있기에 가야 도성을 중국의 고대 국가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그 규모 면에서 턱없이 미약하다. 요컨대, 가야의 도성은 동시기 중국 도성에 비해 소규모·초보적인 도성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78 김현봉·김보상, 2023, 앞의 글, 117~119쪽.

2. 중국 남북조 도성⁷⁹과 백제·가야 도성의 비교

1) 도성의 유형

전술한 바와 같이, 가야와 동시기인 중국 남북조시대에는 궁성이 도성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고 주변의 도성 주민 거주구역까지도 외곽성으로 두른 내성외곽형이 기본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조위의 하북성 업성에서 처음 등장하였다(그림 18-6 유형). 위진남북조시대 외에도 수·당 도성에 이르기까지 이 유형의 도성 형태는 지속되었다.⁸⁰

한편, 백제도성은 풍납토성·몽촌토성·웅진성·사비성 등의 예를 보면, 자연지리적인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도성을 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⁸¹

우리나라 고대 도성에서 중국 남북조시대와 같이 내성외곽형이 희소한 것은 자연환경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중국은 넓은 평지가 많아 방어를 견고하기 위해서는 내성외곽형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평면형태도 방형을 띠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중의 방어를 위해 평상시의 궁성과 전시의 산성을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고구려 국내성+환도산성, 백제 풍납토성+몽촌토성, 신라의 월성+명활산성 등의 조합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가야도 동일하여, 가야는 주변에 담장을 두른 궁성은 확인되지만 외곽은 보이지 않는다. 즉, 얇은 구릉 위의 궁성 외에 인근 산 정상부에 방어를 위한 배후 산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합상은 아라가야의 가야리토성+봉성산성, 대가야의 연조리 궁성지+주산성에서 확인된다.

79 남조 도성(건강성)에 대한 조사·연구 성과가 제한적이어서 남·북조 도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80 박순발, 2020, 앞의 글.

81 최완규, 2023, 「백제 무왕의 천도와 익산」, 『동아시아 속의 고도 익산』, 마한·백제 문화연구소 설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익산시·마한백제문화연구소, 138쪽.

2) 도성의 평면형태와 장축방향

중국 역대 도성의 궁성 평면형은 기본적으로 남북방향의 장방형 또는 방형이다. 예컨대 중국 남북조시대의 북위가 낙양에 도읍을 한 시기(494~534)에 궁성의 평면형은 남북 길이 1,400m, 동서 폭 660m로 2.1:1 비례의 장방형이다.⁸²

이에 비해 가야 도성은 특별한 평면형태나 장축방향은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김해 봉황토성은 타원형에 남-북향, 함안 가야리토성은 지형에 따른 부정형에 북동-남서향, 고령 대가야 궁성지는 장타원형에 동-서향이다. 모두 자연 지형에 따라 평면형태나 장축방향을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고대의 궁성 가운데 중국의 도성과 같이 남북방향의 장방형 평면형태에 가장 근접한 예는 익산의 왕궁성이다. 즉, 중국 남조와 밀접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던 백제의 익산 왕궁은 동서 240m, 남북 490m로 약 2: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 궁성제를 모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³ 6세기 후엽 혹은 7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익산 왕궁성은 남조 건강궁과의 유사성이 제기된 바 있다.⁸⁴

이처럼 익산 왕궁 유적의 설계는 동시기의 남조 도성인 건강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왕궁성의 평지는 남북으로 된 장방형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정치영역, 생활영역, 궁원영역 등이 분포한다. 이러한 구조는 남조 태성(台城) 기능의 공간적 구조를 모방한 것으로 이는 남조의 태성궁(台城宮)의 금원(禁苑)인 화림원(華林園)과 거의 일치한다.⁸⁵

이처럼 백제 후기인 사비기(538~660)에 들어와서야 전형적인 중국 도성을 적극적으로 구현한 것은 백제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백제는 한성기에 자연 지형에 맞추어 풍납토성·몽촌토성을 조영하였고, 웅진기에는 정치적 급

82 박순발, 2020, 앞의 글, 12쪽.

83 박순발, 2020, 위의 글, 13쪽.

84 賀云翱, 2010, 「中國南朝都城与百濟」, 『馬韓·百濟文化19』,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85 賀云翱, 2010, 위의 글.

변으로 급하게 웅진 왕도가 만들어졌다. 이에 비해 계획 도성인 사비도성과 익산 왕궁은 중국 도성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중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던 백제조차도 중국 도성의 여러 속성을 도입하는데, 중국과의 교섭 이후 200년 이상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자연지형을 이용해 방어에 치중했던 웅진성 등에 비해, 자연 지형을 따르지 않고 넓은 면적의 지형을 정지하고 한 번 수백 m의 평탄면을 조성할 만한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는 계획 도성인 익산 왕궁성의 조영은 백제 말기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백제보다도 통치영역과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 훨씬 못 미치는 가야 여러 나라의 경우, 중국 도성의 평면 형태와 장축방향을 인지했더라도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대신 자연 지형에 맞는 도성을 조영하였을 것이다. 가야는 백제와 같이 200년 이상 도성을 조영한 경험도 없었다. 가야가 직·간접적으로 중국 남조의 도성을 인지하였더라도 그것은 전체적인 모습이 아닌 부분적인 속성만 변용된 채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가야에서는 중국·백제의 도성을 원용했겠지만 현지에 맞추어 더욱 더 변용·축약된 형태였을 것이다.

3) 도성의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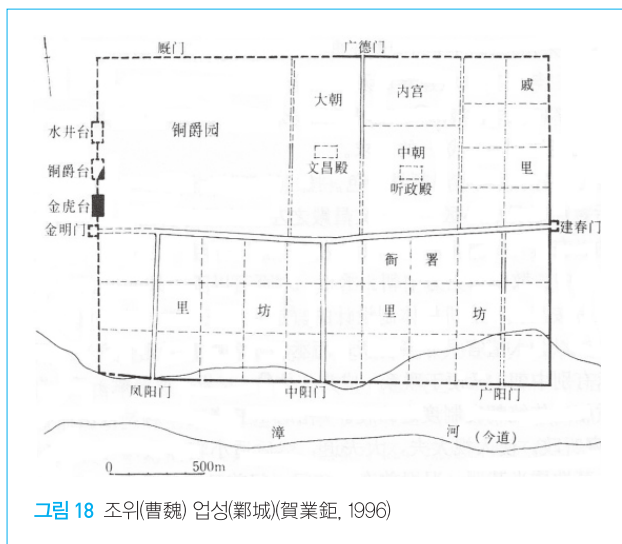
중국 역대 도성은 강을 끼고 자리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대 산성의 입지와 거의 동일하다. 강을 끼고 도성이 자리한 이유는 방어적인 면 이외에도 교류·교역을 위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고대 도성의 입지는 전파 관계도 배제할 수 없지만, 오히려 자연발생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이 더 강할 것이다. 백제의 경우, 한성기에 풍납토성이 한강변에, 웅진기의 웅진성과 사비기의 사비도성이 금강변에 자리한다. 가야의 경우, 금관가야의 봉황토성은 해반천변에, 아라가야의 가야리토성은 신음천변에, 고령 연조리 궁성지는 대가천변에 각기 위치한다.

중국 남조의 경우, 건강성 내부의 수로는 중형으로 교차되어 강물이 직접 석

두성과 현무호(玄武湖)까지 이어졌다. 물길은 성내의 여러 수로를 관통하였다(그림 15). 이는 당시 수로가 교통, 운수, 군사방어 그리고 주민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⁸⁶

4) 도성 내 리방제도(里坊制度)

조위의 업성 이래 중국 남북조시대의 도성에는 리방제도⁸⁷를 열었다(그림 18). 즉, 업성에는 리를 다시 여러 골목으로 나누었다. 북위 평성, 낙양과 동위·북제 업남성에도 방(坊)을 두었다. 방의 설치는 동아시아 각국에도 영향을 미쳤다.⁸⁸



86 나종진 저, 정대영 역, 2012, 앞의 글, 58쪽.

87 중국에서는 도성의 거민(居民)구역을 대개 ‘리방’이라고 부르는데, ‘방’은 사방을 담장으로 둘러싼 공간을 의미하므로 리(里)의 방호시설을 강조하는 말이 된다(박순발, 2014b, 앞의 글, 4쪽).

88 牛潤珍, 2023, 「益山与東亞古代都城」, 『東亞細亞속의 古都 益山』, 馬韓·百濟文化研究所 設立 50週年記念國際學術會議, 206~207쪽.

민리(民里)의 격자형 구획과 외곽성이 결합된 완성도 높은 새로운 도성제는 한반도에서는 백제 사비도성이 가장 빨라 538년 사비 천도 무렵부터 민리의 격자형 구획이 채택되었다⁸⁹(그림 12).

이러한 도성 내 리방제도는 신라 왕경⁹⁰에서도 확인되지만 가야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가야 도성은 그 규모가 작고 구릉 위에 위치한 자연 지형 때문에 리방제도를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향후, 조사성과를 기대해 본다.

5) 백제와 가야 왕성의 축조 방식

중심체(중심토루)를 올리는 방식이 백제 한성기 풍납토성은 정연한 판축인 데 비하여 봉황토성은 다양한 성토재를 쌓아 올리는 성토란 차이가 있다.⁹¹ 이에 비해 함안 가야리 토성은 가야 토성 가운데 풍납토성과 같이 거의 유일하게 판축 기법이 적용되어 유사한 면이 많다.⁹²

백제 왕성과 가야 왕성의 공통점은 기저부, 즉 기초를 조성하는 부분에 집중된다. 저습지의 연약지반에서는 부엽공법·치환공법·지정말뚝이, 완경사나 급경사에서는 마찰력을 높이기 위한 계단식 정지 방식이 대표적인 공통점이다. 가야 왕성의 특징이 드러나는 공정은 초축 성벽의 마무리 단계이다. 석축부와 토축부를 적절하게 혼용하여 초축성벽을 보강하는 기술은 백제 토성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 가야 왕성의 성벽을 하부와 상부로 구분했을 때, 상부에 비해 하부에서 백제 토성과 공통점이 많은 점은 기술 교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판축을 통해 왕성의 축조를 실현한 아라가야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89 박순발, 2010, 앞의 글, 216쪽.

90 신라의 도성에는 대략 6세기 후반경에 격자형 구획이 시작되어 이후 점차 확대된다(박순발, 2010, 위의 글, 216쪽).

91 권오영, 2022, 앞의 글, 198쪽.

92 장기명, 2023, 「신라 왕경 토성의 축성기술과 가야 토성」, 『가야고분군 VIII』, 가야고분군세계유산추진단, 290쪽.

그리고 상부에서 확인된 기술, 즉 초축성벽의 마무리나 증축성벽의 축조에서 적극적으로 석재를 활용하는 방식은 백제 토성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⁹³

이와 같이, 아라가야가 백제의 판축기법을 적극적으로 채용했음은 가야 여러 나라 중 아라가야 유물이 서울 일원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것(표 2)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가야의 판축기법은 중국에서 기원한 판축기법이 백제를 거쳐 가야로 전파된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가야 성벽 축조 과정에서 백제 토성과 달리 석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가야만의 특징으로서 지역적인 변용으로 볼 수 있다.

6) 중국 도성제에서 변용된 백제·가야 도성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 도성제의 발전과정에서 큰 획기는 궁성이 외곽 내 복단 중앙에 위치하고 그 남쪽에 도로망에 의한 격자 모양의 거주구역이 형성되는 조위 업성 단계이다. 조위 업성 단계의 도성제는 백제의 사비도성이나 고구려의 장안성 등 우리나라의 고대 도성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⁹⁴

사비도성은 풍납토성이나 공산성과 비교할 때 나성 내부에 포용한 일반인의 거주구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그런데 백제 도성에는 중국 도성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도 있다. 예컨대, 한성기의 몽촌토성, 사비기의 부소산성과 같은 배후성의 안배나 비교적 자유로운 도성의 평면구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백제가 천도지마다 남긴 도성제도의 뚜렷한 발전상은 중국의 도성제를 수용하면서도 제반 여건에 맞추어 변용한 결과물이다.⁹⁵

가야 도성의 변화 양상도 백제와 유사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93 이혁희, 2023, 「백제 토성과 가야 왕성의 축조 기술 비교」, 『가야고분군 VIII』, 가야고분군세계유산추진단, 253~254쪽.

94 박순발, 2014a, 「동아시아 도성사에서 본 백제도성」, 『동아시아 고대도성과 익산 왕궁리유적』,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0~11쪽.

95 최경환, 2016, 앞의 글, 18쪽.

즉, 중국 도성제에서 변용된 백제 도성제가 가야 환경에 맞추어 소규모화되면서 한 번 더 변용되었다는 점에서 가야도성에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전형적인 도성제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VI. 가야 도성의 발굴을 위한 향후 과제

1. 도성제의 형성 및 성 내외의 공간활용 방식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성 내부에 분포하는 도로망이 성 외부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선착장은 어디에 있으며 도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추적하여야 한다. 성 외부에 위치한 경작유구, 토기와 기와 가마 등의 생산시설, 민가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주변에 존재하는 산성이나 취락 등과의 공간배치나 네트워크도 밝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⁹⁶

2. 가야 여러 나라의 도성은 삼국의 도성에서 보이는 격자형의 정연한 도로망을 가진 계획도시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삼국의 계획도시는 6세기 이후에 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⁹⁷ 즉, 현재 조사사례가 부족하여 건물지나 도로망 같은 구체적인 도시 구획 양상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⁹⁸ 향후, 가야 도성에서 격자형의 구획도시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3. 『주서(周書)』 백제전(百濟傳) 등에는 당시 사비도성 안에는 ‘만가(萬家)’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성 내에는 왕궁, 관아, 사원, 귀족 저택 외에

96 권오영, 2012, 앞의 글, 195쪽.

97 김재홍, 2020, 앞의 글, 34쪽.

98 최재현, 2023, 앞의 글, 176~180쪽.

사서인(士庶人)들의 택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것이다.⁹⁹ 이를 가야 도성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백제와 비교하여 훨씬 더 좁은 면적과 더 적은 인구였겠지만 가야 도성에도 초보적인 공간 구분은 있었을 것이다. 향후, 가야 도성에서도 백제 사비도성에서의 5부 5항과 같은 공간구조를 밝혀야 한다.

4. 백제뿐만 아니라 가야의 경우도, 도성의 내부 시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고고학적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도성의 필수시설인 시장과 관련된 웅진시(熊津市) 기사가 『삼국사기』에 보인다.¹⁰⁰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 낙양성에서도 ‘대시(大市)’, ‘소시(小市)’, ‘사통시(四通市)’ 등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가야 도성에 대한 발굴 시에도 시장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5. 동아시아 각국이 중국 도성제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지 환경이나 정치상황에 맞추어 취사선택하여 적절히 변용하였을 것이다. 어떤 것을 모방하고 어떤 것을 변용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앞으로 도성 연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¹⁰¹ 가야는 중국 남조와의 교섭이 1회에 한하였기에 당시 중국과 교섭이 가장 많았던 백제를 통하여 변용된 중국 도성제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6. 가야는 호남 동부지역까지 포함하면 최대 20여 개 소국에 이른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가야 소국의 왕성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유적은 함양 척지토성, 합천 성산토성 등이 있다. 모두 가야 소국의 왕릉과 근거리에 있고 하천이나 강에 근접한 나지막한 구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확인된 가야 왕성보다 앞으로 밝혀야 할 가야 왕성이 더 많다는 점에

99 박순발, 2005a, 앞의 글, 107쪽.

100 김낙중, 2014, 앞의 글, 125쪽.

101 서정석, 2010, 앞의 글, 288쪽.

서 향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하여 더 많은 가야 왕성을 찾아야 한다.

가야는 6세기 멸망할 때까지 통합되지 못하였기에 백제와 같은 정연한 대규모 도성은 확인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대국가로 진입하기 직전 단계의 가야 여러 소국에 대한 왕성의 조사·연구는 동아시아 정치체의 사회발전단계 및 왕성의 변화과정의 연구를 위해서도 큰 학술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VII. 맺음말

이 글은 가야 도성 조영 시기에 중국 남조 및 백제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가야 도성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직 가야 왕성 및 도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아직 초보 단계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야가 도성을 조영하는 시기인 5~6세기대에는 백제와 가야는 긴밀한 교섭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삼국시대에 중국 남조와 가장 교섭을 많이 하였던 나라가 백제라는 점에서 가야는 백제를 통하여 중국 도성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얻었을 수 있다. 다만, 가야 여러 나라가 백제와 중국 남조 도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식을 했더라도 그 수용 여부는 현지 사정에 따라 달랐을 것이기에 남조의 도성이 가야의 도성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미약하다. 백제도 중국 도성을 그대로 구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백제보다 영역과 국력이 훨씬 약한 가야 여러 나라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야는 백제와 같이 200년 이상 도성을 조영한 경험을 쌓지 않았다. 가야가 직·간접적으로 중국 남조의 도성을 인지하였더라도 그것은 전체적인 모습이 아닌 부분적인 속성만 변용된 채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가야에서는 중국·백제의 도성을 원용했겠지만 현지에 맞추어 더 축약된 형태였을 것이다.

대가야, 아라가야, 금관가야 등의 가야 여러 나라의 크기 및 노동력 동원 규모는 동시기 중국 왕조의 작은 지방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비교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가야는 중국(남조)에 비해 공간적으로 매우 제한된 여러 소국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야 도성을 중국의 고대 국가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그 규모 면에서 턱없이 미약하다. 따라서 소규모·초보적인 도성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 도성제에서 변용된 백제 도성제가 가야 환경에 맞추어 소규모화되면서 한 번 더 변용되었다는 점에서 가야도성에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전형적인 도성제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야는 6세기 멸망할 때까지 통합되지 못하였기에 백제와 같은 정연한 대규모 도성은 확인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대국가로 진입하기 직전 단계의 가야 여러 소국에 대한 왕성의 조사·연구는 동아시아 정치체의 사회발전단계 및 왕성의 변화과정의 연구를 위해서도 큰 학술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종래 가야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연구는 고분에 치우쳐왔고, 가야의 왕성이나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향후 왕성 및 생활유적에 대한 기획발굴조사가 활성화되어야만 가야사의 입체적인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즉, 도성제의 형성과정 및 성 내외의 공간활용 방식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가야 도성 내부의 궁성의 위치 및 주거구역의 구분, 원지(苑池), 시장, 종교시설 등의 확인도 중요한 과제이다.

가야는 호남 동부지역까지 포함하면 최대 20여 개 소국에 이른다. 지금까지 확인된 가야 왕성보다 앞으로 밝혀야 할 가야 왕성이 더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하여 더 많은 가야 왕성을 찾아야 하고 그 구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경북대학교박물관, 2006, 『傳大加耶宮城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0, 『함안 아라가야 추정왕성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22, 『함안 가야리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羅宗眞 著, 정대영 역, 2012, 『중국고고학-위진남북조-』, 사회평론.
- 董鑒泓 主編, 成周鐸 譯註, 1993, 『中國都城發達史』, 學研文化社.
- 두류문화연구원, 2016, 『김해 부곡동·봉황토성』.
- 박순발, 2010, 『백제의 도성』, 충남대학교출판부.
- 劉淑芬 著, 임대희 역, 2007, 『육조 시대의 남경』, 경인문화사.
- 이희준, 2017, 『대가야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賀業鉅, 1996, 『中國古代城市規劃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논문

- 권오영, 2012, 「한국고고학 연구에서 풍납토성의 가치」, 『동북아시아 속의 풍납토성』, 학연문화사.
- _____, 2022, 「가야의 왕성을 찾아서」, 『가야사의 제문제-가야사 새로 보기-』, 선인.
- 김낙중, 2011, 「백제 궁성의 원지와 후원」, 『백제연구』 5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_____, 2014, 「백제의 도성」, 『삼국시대 고고학개론1-도성과 토목편-』, 진인진.
- 김세기, 2003,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 김재홍, 2020, 「문헌으로 본 가야제국의 궁성과 성곽」, 『대가야의 도성』, 제14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 김지연, 2023, 「금관가야 도성의 경관」, 『가야고분군 VIII』, 가야고분군세계유산추진단.
- 김현봉·김보상, 2023,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가야리 유적을 통해 본 아라가야 도성의 경관」, 『가야고분군 VIII』, 가야고분군세계유산추진단.
- 박상욱, 2016, 「합천 성산토성의 구조와 특징」, 2016 한국성곽학회 춘계학술대회.

- 박순발, 1996, 「백제 도성의 변천과 특징」, 『한국사의 이해』.
- _____, 2000, 「가야와 한성백제」 『가야와 백제』(제6회 가야사학술회의), 김해시.
- _____, 2005a, 「사비도성 연구 현황과 과제」, 『백제 사비시기 문화의 재조명』,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_____, 2005b, 「사비도성의 경관에 대하여」, 『고대 도시와 왕권』, 서경문화사.
- _____, 2010b, 「동아시아 고대 도성 비교를 위한 몇가지 관점」, 『한국의 도성』, 국립경주·부여·가야문화재연구소.
- _____, 2013, 「백제 도성의 시말」, 『중앙고고연구』 제13호, 중앙문화재연구원.
- _____, 2014a, 「동아시아 도성사에서 본 백제도성」, 『동아시아 고대도성과 익산 왕궁리유적』,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_____, 2014b, 「동아시아 고대 도성 民里의 형성과 전개」, 『역사문화연구』 5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_____, 2020, 「동아시아 고대 궁성과 대가야」, 『대가야의 도성』, 제14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 백승욱, 2021, 「문헌으로 본 가야의 대외관계」, 『가야인, 바다에 살다』, 국립김해박물관·부경대학교박물관.
- 서정석, 2010, 「백제 웅진왕도와 사비도성」, 『한국성곽연구의 새로운 관점』, 한국성곽학회·초대회장 심봉근박사 퇴임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 소재운, 2010, 「백제 도로를 통해 본 풍납토성의 도성구조 이해」, 『한국의 도성』, 국립경주·부여·가야문화재연구소.
- 신희권, 2003, 「백제 한성기 도성제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_____, 2007, 「풍납토성의 도성구조 연구」, 『풍납토성, 500년 백제왕도의 비전과 과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회의.
- _____, 2010, 「백제 한성시대 도성제도에 관한 일고찰-양궁성제도를 중심으로-」, 『향토서울』 76, 서울시사편찬위원회.
- _____, 2015, 「중국의 고대 왕성과 풍납토성」, 『고대 동아시아의 왕성과 풍납토성』, 풍납토성의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_____, 2017, 「백제왕도 한성과 풍납토성 조사·연구 성과」, 『백제왕성 풍납토성의 현재와 미래』, 백제왕성 풍납토성 발굴조사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심광주, 2023, 「가야 왕성과 산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가야고분군 Ⅷ』,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추진단.
- 양은경, 2017, 「가야 연화문과 가야 불교」, 『고고광장』 21, 부산고고학연구회.
- 이동희, 2017, 「후기 가야 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85, 한국고대사학회.
- 이병호, 2003, 「사비도성의 구조와 운영」, 『한국의 도성-도성 운영의 전통-』,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 이성준·김명진·나혜림, 2013, 「풍납토성 축조연대의 고고과학적 연구」, 『한국고고학보』 88.
- 이혁희, 2023, 「백제 토성과 가야 왕성의 축조 기술 비교」, 『가야고분군 Ⅷ』,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추진단.
- 장기명, 2023, 「신라 왕경 토성의 축성기술과 가야 토성」, 『가야고분군 Ⅷ』,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추진단.
- 전용호, 2010, 「익산 왕궁리유적-궁성에서 사찰로의 변화상에 대한 연구」, 『한국의 도성』, 국립경주·부여·가야문화재연구소.
- 조신규, 2022, 「최신 조사성곽을 통해 본 아라가야의 재인식」, 『가야사의 제문제-가야사 새로 보기-』, 선인.
- 조효식, 2014, 「대가야의 방어체계」, 『대가야의 고분과 산성』, 대가야박물관·대동문화재연구원.
- 최경규, 2019, 「가야 왕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고대 도성과 월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제51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 , 2020, 「가야 왕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문물연구』 38, 동아문화재단.
- , 2021, 「금관가야 왕성의 공간활용 및 구조 검토」, 『금관가야 봉황토성』, 김해 봉황토성 학술대회.
- 최경환, 2016, 「도성」, 『세계유산 백제』, 국립중앙박물관.
- 최완규, 2023, 「백제 무왕의 천도와 익산」, 『동아시아 속의 고도 익산』,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설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익산시·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최재현, 2023, 「대가야 왕도의 공간적 범위」, 『가야고분군 Ⅷ』,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추진단.
- 최종규, 2005, 「봉황토성의 특징에 대한 모색」, 『봉황토성』, 경남고고학연구소.

하승철, 2017,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 『한국의 고도, 현재와 미래』, 익산시·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_____, 2020, 「서울 소재 백제역사유적 출토 가야토기에 대한 검토」, 『한성백제유물자료집 I - 서울 백제유적 출토 외래유물』, 한성백제박물관.

龔國強, 2018, 「中國先秦至隋唐時期宮城的考察」, 『金海 鳳凰洞遺蹟과 古代 東亞 細亞-加耶 王城을 探究하다-』, 仁濟大學校 加耶文化研究所·金海市.

王志高, 2008, 「六朝京師城牆」, 『南京城牆志』, 鳳凰出版社.

牛潤珍, 2023, 「益山与東亞古代都城」, 『東亞細亞 속의 古都 益山』, 馬韓·百濟文化研究所 設立 50週年記念國際學術會議.

劉慶柱, 2005, 「6~7世紀中國古代都城的考古發現与研究」, 『百濟 泗泚時期 文化의 再照明』,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賀云翱, 2010, 「中國南朝都城与百濟」, 『馬韓·百濟文化19』,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_____, 2019, 「六朝都城最近考古成果及其文化景觀」, 『百濟王都』, 文化財廳.

도성으로 본 가야, 백제, 중국 남조

이동희

이 글은 가야 도성 조영 시기에 중국 남조 및 백제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가야 도성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야가 도성을 조영하는 시기인 5~6세기대에 백제와 가아는 긴밀한 교섭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삼국시대에 중국 남조와 가장 교섭을 많이 한 나라가 백제라는 점에서 가아는 백제를 통하여 중국 도성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가아 여러 나라가 백제와 중국 남조 도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식을 했더라도 그 수용 여부는 현지 사정에 따라 달랐을 것이기에 남조의 도성이 가아의 도성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미약하다. 백제도 중국 도성을 그대로 구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백제보다 영역과 국력이 훨씬 약한 가아 여러 나라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아는 소규모·초보적인 도성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 도성제에서 변용된 백제 도성제가 가아 환경에 맞추어 소규모화되면서 한 번 더 변용되었다는 점에서 가아 도성에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전형적인 도성제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아는 6세기 멸망할 때까지 통합되지 못하였기에 백제와 같은 정연한 대규모

모 도성은 확인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대국가로 진입하기 직전 단계의 가야 여러 소국에 대한 왕성의 조사·연구는 동아시아 정치체의 사회발전단계 및 왕성의 변화과정의 연구를 위해서도 학술적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주제어: 도성, 가야, 백제, 남조, 고대국가

Gaya, Baekje, and Southern Dynasties of China Viewed through Capital Cities

Lee Donghee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substance of Gaya's capital by comparing it with China's Southern Dynasties and Baekje during the establishment of Gaya's capital.

During the fifth and sixth centuries, when Gaya was developing its capital, Baekje and Gaya maintained a close negotiation relationship, and Baekje was the country that negotiated the most with the Southern Dynasties of China during the Three Kingdoms era, in that Gaya may have obtained indirect information about China's capital through Baekje. However, even if several states in Gaya had directly or indirectly known about the capital cities of Baekje and the Southern Dynasties of China, whether or not they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cities would have differed depending on local circumstances. The possibility that the capital city of the Southern Dynasties was reflected in the capital city of Gaya is low.

This is because it took Baekje a long time to build its capital based on China's capital, and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for the states of Gaya, which had much less territory and national power than Baekje, to do the same. It is reasonable to say Gaya had a small and elementary capital.

Gaya was not unified until its fall in the sixth century. A large, orderly capital like that of Baekje will not be found. However, the investigation and study of the capitals of various small states of Gaya in the stage immediately before becoming an ancient state may have great academic significance for studying the social development stage of the East Asian polity and the process of change of capitals.

Keywords: capital, Gaya, Baekje, China's Southern Dynasties, ancient stat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모용선비(慕容鮮卑)의 정통성 계승과 남연(南燕)의 건국

이춘호 | 중국 惠州學院 历史系 교수

- I. 머리말
- II. 모용선비(慕容鮮卑)의 분열과 업성(鄴城)
- III. 모용덕(慕容德) '이통부행제제(以統府行帝制)'와 활대(滑臺)
- IV. 남연(南燕)의 건국과 광고(廣固)
- V. 맺음말



I. 머리말

비수전(淝水戰)에서 전진(前秦)이 대패하고 채 반 년도 지나지 않은 때에 모용수(慕容垂)는 관동(關東)에서 정령(丁零)·선비(鮮卑)·오환(烏桓) 그리고 한인(漢人)들의 지지를 받아 ‘홍복대연(興復大燕)’¹에 나섰으며, 그런 후 384년에 이르러 연왕(燕王)을 자칭하고 연왕부(燕王府)를 권력의 핵심으로 한 모용씨 정권을 세웠다.² 이어서 약 2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을 들인 후 386년 정월에는 비로소 홍복대연을 완수하고 후연(後燕)을 건국할 수 있었다.³ 그런데 후연의 건국과정에서 전연(前燕)의 적통을 가진 모용위(慕容暉)⁴에 대해 줄곧 신자(臣子)로서의

* 투고: 2024년 7월 12일, 심사 완료: 2024년 8월 4일, 게재 확정: 2024년 8월 13일

- 1 『晉書』卷114, 苻堅載記 下, 2920쪽. ‘홍복대연’이란 전진 苻氏에 의해 멸망한慕容氏 왕조인 전연을 재건한다는 뜻으로, 사서에서 이를 ‘恢復燕祚’·‘謀復燕祚’·‘復先業’·‘復舊業’·‘建大業’·‘隆中興之業’·‘修復家國之業’ 등으로 달리 기록하고 있지만,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 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홍복대연으로 통일해서 사용할 것이다.
- 2 『十六國春秋』卷44, 後燕錄2, 慕容垂傳 中, 699上쪽, “(慕容垂)自稱大將軍·大都督·燕王, 承制行事, 令稱統府, 府置四佐, 王公已下稱臣, 文表奏疏, 封拜官爵, 一如王者.”
- 3 『資治通鑑』卷106, 晉紀28, 孝武帝太元11年(386)條, 3358~3359쪽.
- 4 필자는 일찍이 한 연구에서慕容儁의 적자 모용위가 비록 庸弱했으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전연의 황제에 등극했기 때문에, 그 강역 내의 종실세력을 비롯한 모든 세력집단은 그의 권위와 명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그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춘호, 2022, 「모용선비의 계성시대와 하북지역」, 『동북아역사논총』 76, 176~177쪽). 따라서 그 적통은 모용위가 막 帝位에 올랐을 때慕容恪의 언급(不可以亂正統也(『晉書·慕容儁載記』) 밑줄은 필자)대로 어느 세력집단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권위의 상징’인 것이었다. 전연은 멸망한 이후에도 이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편, 적통은 『후한서』의 기록(“王以嫡統, 本無失德, 先帝用讒, 遂至廢黜.” 『後漢書·宦者列傳·孫程傳』 밑줄은 필자)에서 보듯 주로 합법적인 제위의 계승과 관련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한 왕조의 통치이념 혹은 통치사상을 계승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정통과는 구별될 수 있다. 하지만 적통

도리를 다했던 그가 모용위 사후에는 연황제를 칭하고 서연(西燕)을 건국한 모용충(慕容沖)의 적통까지도 인정하면서⁵ 모용선비(전연)의 정통성은 후연이 아닌 서연에 의해서 계승된다.⁶ 이후 서연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모용충은 살해됐으며, 이어서 그 황제위를 둘러싸고 수차례의 찬위(篡位)와 즉위(即位)가 있었는데,⁷ 그 속에서 모용영(慕容永)이 마지막으로 서연의 황제에 등극하였다. 모용제왕(慕容帝王)의 계보 중 방계에 속했던 그가 장자(長子)에 수도를 두고 연황제를 칭한 후 후연과 단교를 선언하는 등 모용선비의 전체 통합을 저해하자, 모용수는 이를 그 정통성 회복에 나서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그런 후 393년 10월에 이르러 제장(諸將)의 반대를 물리치고 그에 대한 군사정벌을 감행하였다.⁸ 이렇게 서연을 멸한(394년 8월) 후연은 모용선비의 정통성을 장악한 전연의 후신(後身)왕조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395년 5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진 북위와의 참합피(參合陂)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면서 대부분의 강역을 잃고 북쪽으로 물러난 그 잔여세력과 이후 남연을 건국한 세력으로 분열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모용선비(후연)의 정통성은 그 잔여세력(모용보 시해 후의 모용성)과 남연(모용덕) 중 누구에 의해 계승된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당시 기주목(冀州牧)에 임명되어 업성(鄴城)을 사수하며 황하 하류의 남북 연안을 지킨 모용덕(慕容德)에게 적지 않은 친연(親燕)세력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는 그가 모용선비를 재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모용린(慕

을 가진 자가 정통까지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사용한 정통 혹은 정통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적통의 의미를 포함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5 『진서』 권123, 慕容垂載記, 3085~3086쪽, “群僚聞慕容暉爲苻堅所殺, 勸垂僭位, 垂以慕容沖稱號關中, 不許.”

6 劉玉山·劉偉航, 2007, 「十六國時期慕容西燕·後燕幾個問題的再檢討」, 『東南文化』 1, 66右쪽.

7 이춘호, 2012, 「五胡時期 關中燕人の‘復燕’과 그 性格-慕容西燕의 건국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35, 229쪽.

8 『자치통감』 권108, 진기30, 효무제태원 18년(393)조, 3411쪽.

容麟(혹은 慕容賀麟)] 등의 건의를 받은 그는 업성에 진수하며 황하 이북을 힘겹게 지키느니 차라리 그 이남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로 결정한다. 4만여 호(戶)의 호·한인을 이끌고 업성을 떠나 여양(黎陽)에서 무사히 황하를 건넌 모용덕은 398년 초 활대(滑臺)에 이르러 연원고사(燕元故事)에 의거하여 이를 정권의 원년으로 삼은 후 백관을 두는 등 모용보를 따라 북쪽으로 떠난 세력과 구별된 모용씨 정권을 세웠다. 사실 활대는 정령족이 일찍이 이곳에 근거한 채 짧은 시간이긴 했으나 적위(翟魏)를 세워 후연과 대치하기도 했던 곳이었다.⁹ 모용덕은 이곳에서 그의 형 모용수가 흥북대연에 나서며 후연을 건국하기 전 내세웠던 “의진중종고사, 칭대장군·대도독·연왕, 승제행사, 위지통부(依晉中宗故事, 稱大將軍·大都督·燕王, 承制行事, 謂之統府)”¹⁰를 본떠 ‘이통부행제제(以統府行帝制)’를 통해 이를 남연 건국의 모델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본 정권의 세력 확장과 발전에도 나서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동진과 북위의 세력권 사이에 끼인 활대에서 장기간 머물 수 없다고 느낀 그는 새로운 근거지를 물색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당시 그의 휘하에 성이 10여 개에 그쳤고, 무리 또한 수만에 불과했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준다.¹¹ 반충(潘聰)과 승랑(僧朗(혹은 竺朗))의 의견에 따라 결국 모용덕은 청제(靑齊)지역의 요충지 광고에 근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모용종(慕容鍾)에게 명령하여 청주(靑州) 산하의 군현에 격서를 보내 동진의 유주자사[幽州刺史(혹은 齊郡太守)] 벽려혼(辟閭渾)을 비판하는 등 그 지역 호강들의 귀향을 종용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후 적지 않은 청제호강(靑齊豪強)들이 모용씨 정권으로 귀향하였다. 399년 8월에 이르러 벽려혼을 주살한 모용덕은 비로소 광고에 들어선 후 연황

9 『자치통감』 권107, 진기29, 효무제태원 13년(388)조, 3382쪽.

10 『자치통감』 권105, 진기27, 효무제태원 9년(384)조, 3320~3321쪽.

11 『진서』 권127, 모용덕재기, 3165쪽, “時德始都滑臺, 介于晉魏之間, 地無十城, 衆不過數萬.”

제에 등극했으며, 그리고 모용성(慕容盛)에게 사신을 보내 지금부터 자신이 연
황제의 조령(詔令)을 시행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런 후 사도(司徒)·사공(司空)
등 황제지제(皇帝之制)의 관직을 두는 등 남연을 건국할 수 있었다. 한편 398년
10월 모용덕보다 먼저 연황제를 창했던 모용성은 그의 연황제위 즉위와 모용선
비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그 이듬해 정월 황제지호(皇帝之號)를 버리고 서민천
왕(庶民天王)으로 강호(降號)했던 것이다. 그래서 남연은 모용선비의 정통성을
계승해서 건국됐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남연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관련 사료의 부족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
고 연구가 진행되어 여러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음은 큰 다행이다. 이를테면 주
로 그 건국에서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사정을 정리한 것이 있
고,¹² 인물을 중심으로 그 전체적인 역사를 서술한 것이 있으며,¹³ 그리고 그
수도 광고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분석을 통해 남연의 역사를 새
롭게 조명한 것 등이 있다.¹⁴ 이 글에서 필자는 선행 연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
고 인용·비판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유관사료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논점에
대해서는 추론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4세기 말 모용선
비의 분열 이후 그 정통성의 향배가 어떠했으며, 특히 그것이 남연의 건국과

-
- 12 趙凱球, 1886, 「南燕史鉤沉」, 『中州學刊』 2, 123左~127右쪽; J. 霍爾姆格林 著, 謝萌珍 譯, 1993, 「論南燕政權的建立與滅亡」, 『國外社會科學』 11, 47左~51右쪽; 지배선, 1998, 『中世 中國史 研究-慕容燕과 北燕史』, 연세대학교 출판부, 97~280쪽; 李森, 2005, 「南燕史考論」, 『廣西社會科學』 9, 115左~117右쪽.
- 13 지배선, 1990, 「慕容德과 南燕」, 『중국학보』 13, 119~125쪽; 지배선, 1992, 「南燕에 대하여-慕容德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75, 115~170쪽; 지배선, 1994, 「南燕과 慕容超」, 『역사학보』 142, 213~272쪽; 魏斌, 2005, 「公孫五樓家族與南燕政治」,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1, 28~35쪽.
- 14 李森, 1996a, 「南燕廣固城的調查與研究」, 『濰坊教育學院學報』 2, 17~20쪽; 李森, 1996b, 「南燕廣固城的調查與研究(續)」, 『濰坊教育學院學報』 3, 18~23쪽; 李寶壘·劉光輝, 2018, 「青州南燕歷史遺存及影響研究」, 『東方考古』 第15集, 17~20쪽.

어떻게 연관됐는지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모용선비(慕容鮮卑)의 분열과 업성(鄴城)

이 장에서는 참합피의 전쟁 이후 모용선비가 어떻게 남북으로 분열됐는지, 당시 업성에 진수했던 모용덕이 후에 어떻게 그 이남으로 이동해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진은 주지하듯 비수전에서 대패한 후 빠르게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이를 계기로 여러 오호귀족이 반진(反秦)의 기치를 들고 독립을 선언하는데, 이에 북중국국은 실로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하였다. 당시 홍복대연에 나선 모용수는 그의 소제(少弟) 모용덕 등을 위시한 종실집단(宗室集團)의 전폭적인 지지와 구전연계(舊前燕系) 인물들 간의 연합 속에서 힘을 키워가게 된다. 384년에 모용씨 정권의 출현은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때 모용수는 모용덕을 거기대장군(車騎大將軍)·범양왕(范陽王)에 봉배(封拜)하고 정사의 대소사를 그에게 맡겼으며, 이를 사서에서는 그가 제장군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정권 내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⁵ 이어서 2년 후인 386년에 이르러 후연을 건국한 모용수는 모용덕을 시중(侍中)·도독중외제군사(都督中外諸軍事)·영사예교위(領司隸校尉)에 임명하는데, 이는 모용덕이 왕조의 건국과 세력의 확장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기 때문이며, 당시 모용수 외에 그의 권위를 능가할 자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후연 내부의 권력 관계에서 모용덕이 가진 권위는 그가 이후 남연을 건국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모용수에 의해 일찍부터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는 모용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¹⁶ 즉, 369년

15 『진서』 권127, 모용덕재기, 3162쪽, “居中鎮衛, 參斷政事.”

초 동진 환온(桓溫)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을 때, 모용덕은 모용수를 따라 출진하여 대승을 거두고 위기에 빠졌던 전연을 구했던 것이다.¹⁷

이후 모용평(慕容評)·가족혼후(可足渾后)의 모함으로 모용수는 어쩔 수 없이 전진으로 망명하게 되고, 이때 모용덕은 모용수의 당여(黨與)로 분류되어 관직에서 강제로 쫓겨난 후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신세로 전락한다.¹⁸ 그리고 대략 1년이 지난 370년 11월 전연은 전진에 의해 멸망하고 그 종실집단을 포함한 수십 만에 이르는 호·한인들이 관중으로 이주하게 되는데,¹⁹ 모용덕 역시 그 대열에 포함됐던 것이다. 당시 그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이후 전진의 전량(前凉)에 대한 군사정벌에 참여하여 세운 공이 인정되어 장액태수(張掖太守)에 임명됐다는 사실이다.²⁰ 모용덕이 장액태수를 역임한 기간은 대략 6·7년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동진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정벌을 준비할 때 모용수가 그를 자신의 부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요청을 부견(苻堅)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²¹ 이렇듯 이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견실한 지지자 혹은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²² 이런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모용덕이 후연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된다. 즉, 모용수는 일찍이 서연에 대한 군사정벌을 반대하는 제 장군의 의견을 물리치고 결국 모용덕의 주장을 따랐으며, 이어서 “사도의 의견이 나와

16 『십육국춘추』 권63, 南燕錄1, 慕容德傳, 837下~838上쪽, “太史令黃泓善相, 謂德曰, 殿下相法, 當先爲人臣, 然後爲人君, 但恐下官入地, 不得見殿下昇天耳. 德曰, 若如公言, 不敢忘報. 德兄垂甚器異之, 因共論軍國大謀, 言必切至. 垂謂之曰, 汝器識長進, 非復吳下阿蒙也.”

17 『진서』 권111, 慕容暉載記, 2853쪽.

18 『자치통감』 권102, 진기24, 海西公太和4年(369)조, 3221~3224쪽.

19 『진서』 권113, 부견재기 상, 2893쪽.

20 『십육국춘추』 권63, 남연록1, 모용덕전, 838上쪽, “及秦伐凉, 德請從征自效, 後堅以德爲張掖太守.”

21 『十六國春秋輯補』 卷58, 南燕錄1, 432쪽, “數歲免歸, 及堅伐晉, 以兵臨江, 垂請德爲副, 拜德爲奮威將軍.”

22 지배선, 1990, 앞의 글, 121~122쪽.

같다. 우리 둘의 마음이 같을 진데 그 날카로움이 황금을 끊을 지경이니 나는 이미 서연을 정벌하기로 결정했다”²³고 당시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후 서연을 멸한 후연은 비로소 모용선비의 정통성을 장악한 왕조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²⁴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모용택은 후연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특히 참합피의 전쟁 이후 북위의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 후연의 재흥을 꿈꿨던 친연세력들이 그를 중심으로 재결집하기에 이르렀다.²⁵

394년 8월에 이르러 적위·서연을 차례로 멸망시킨 후연은 북중국 동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하였다.²⁶ 하지만 외견상 강대한 제국처럼 보였을지라도 모용수는 고희지년(古稀之年)에 이른 자신의 정치역정을 되돌아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시 미래의 위협세력으로 등장한 탁발선비의 북위를 제압하기로 마음먹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약한 성격인 태자 모용보의 정치군사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는데,²⁷ 자신이 죽고 없는 후연을 그가 다스리기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북위에 대한 군사정벌을 감행한 참합피의 전쟁이다.²⁸ 이 전쟁에서 당연히 큰 승리를 예상했기 때문에 모용보의 권위는 자연

23 『진서』 권127, 모용택제기, 3162쪽, “垂笑謂其黨曰：「司徒議與吾同，二人同心，其利斷金，吾計決矣。」”

24 이춘호, 2012, 앞의 글, 241쪽.

25 『자치통감』 권109, 진기31, 安帝隆安元年(397)條, 3445쪽, “樂浪王惠·中書侍郎韓範·員外郎段宏·太史令劉起等帥工伎三百奔鄴.”

26 『讀史方輿紀要』 卷3, 歷代州域形勢3 晉十六國, 142쪽, “後燕盛時, 南至琅邪, 東訖遼海, 西屆河汾, 北暨燕代.”

27 이춘호, 2019, 「4세기말 後燕·北魏의 관계변화와 參合陂 전쟁의 발생원인-高湖의 進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47, 152~159쪽.

28 李椿浩, 2016, 「試論4世紀末北魏·後燕間北中國的爭奪戰」, 『中華歷史與傳統文化研究論叢』 第2輯,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12~113쪽.

히 높아질 것이며, 그 후 후연은 모용수의 바람대로 계속해서 북중국의 패자지위(霸者之位)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용수는 전쟁이 자신의 원래의도와 다르게 진행되어 발생할 후과(後果)를 경시하는 우를 범하고 만다.²⁹ 종전까지 북위와 유지됐던 세력의 상하관계는 역전됐으며, 후연은 왕조 자체의 존망까지도 염려해야만 하는 지경에 빠졌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후연은 곧바로 멸망으로 치닫지 않고 이후 남연과 북연을 건국하는 세력으로 분열되었다. 주지하듯 모용수는 모용보가 당한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모용덕의 건의에 따라 친정을 결정하고 몇 차례 승전도 거두었으나, 참합피에서 직접 목격한 패배의 참상으로 인해 병사들의 군심은 크게 동요했으며, 본인은 그 충격으로 침질(寢疾)이 더욱 악화되어 회군하는 도중 상곡(上谷)의 저양(沮陽)에서 죽음을 맞았다.³⁰

연황제위에 오른 모용보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후연을 통치하게 된다. 그가 추진한 몇몇 조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의 혼란만 가중시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즉, 그는 비록 모용수의 유령(遺令)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불법적으로 제군영(諸軍營)에 속한 백성들을 찾아내 각 군현으로 귀속시켜 편호화(編戶化)하고, 나아가 호한사족(胡漢士族)의 구적(舊籍)을 확정하여 관의(官儀)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는데, 이런 조치들이 엄한 법령을 통해 시행되면서 통치계층은 이반했으며, 동시에 백성들 절대 다수는 그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³¹ 여기에 더하여 모용보는 준약불혜(淸弱不慧)한 11살짜리 모용책(慕容策)을 태자에 세우고 있는데, 이는 모용수가 일찍이 ‘총사미건(冢嗣未建)’한 그를 대신하여 옹락을 갖춘 그의 서자 모용회(慕容會)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계획(以會爲寶嗣)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다.³²

29 이춘호, 2019, 앞의 글, 157~158쪽.

30 『진서』 권123, 모용수재기, 3089~3090쪽.

31 『진서』 권124, 모용보재기, 3093쪽.

32 이춘호, 2019, 앞의 글, 158~159쪽.

주지하듯 이후 모용회는 극도의 불만에 사로잡혀 결국 회하의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의 반란 외에 우리는 당시 모용호(慕容皝)·모용린의 모반 획책과 모용상(慕容詳(혹은 慕容普隣))의 참칭존호(僭稱尊號) 등 후연 내부의 격심한 분열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혼란은 전적으로 모용보의 권위와 명성이 실추되어 이를 제때 수습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일들일 텐데, 그는 결국 397년 3월 북위의 거센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산을 모용상에게 맡긴 채 그들의 세력 발상지인 요방(遼邦)³³으로 물러났으며,³⁴ 그 후 다음 해 5월 난한(蘭汗)에 의해 시해되고 말았다.

한편 모용보 재위 초기 모용덕은 사지절(使持節)·도독기연청서형예육주제군사(都督冀靑徐荊豫六州諸軍事)·특진(特進)·거기대장군·기주목·영남만교위(領南蠻校尉)에 임명된 후 업성에 진수하는데, 이는 후연의 남쪽 강역, 즉 업성 이남의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것이었다(罷留臺, 以都督專總南夏). 그러기 위해서 모용보는 보다 많은 자주권을 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종전 그곳에 두었던 유대(留臺)를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의 선 후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 모용수가 유령(遺令)으로 업성을 모용덕에게 맡기라고 분부했기 때문에, 모용보는 결국 그의 뜻에 따라 유대를 폐지하고 남하(南夏)에 대한 통치를 맡겼던 것이다. 그렇다면 모용수는 왜 모용보에게 모용덕이 최대한의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분부했던 것일

33 『진서』 권108, 慕容廆載記, 2805쪽. 遼邦은 다른 사서에서 遼海로 기록되기도 했는데, 遼西·東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적인 개념이다. 일찍이 모용선비의 선조 莫護跋이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요방으로 이주한 후 그들은 慕容涉歸·慕容廆의 시대를 거치면서 宇文鮮卑·段鮮卑 등을 제압하고 점차 이 지역의 새로운 패자로 성장하였다. 이후 그들이 하북으로 남하하면서 이 지역은 점차 하북의 후방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그들에게는 시종 정신적인 고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모용씨 제왕조(전연·후연 등)의 제왕들이 사후 요방의 용성으로 歸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李海葉, 2011, 「慕容氏龍城歸葬習俗與民族融合」, 『內蒙古師範大學學報』 3, 89~93쪽).

34 『魏書』 卷2, 太祖紀, 29쪽, “[皇始二年(397), 3월] 辛亥, 車駕次中山 … 壬子夜, (慕容寶)遂將其妻子及兄弟宗族數千騎北遁.”

까? 앞에서도 언급했듯, 모용수는 모용보가 다스릴 후연의 상황을 심히 걱정했는데, 참합피에서 이미 당한 참패와 이후 예상되는 북위의 대대적인 반공(反攻) 속에서 모용보가 후연을 재흥시킬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그 일을 모용덕이 완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³⁵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면, 모용수가 모용덕에게 거는 기대는 보다 분명해졌는데, 당시 그에게 주어진 중임은 바로 후연의 재흥이며, 그것은 일찍이 모용수가 수행했던 흥복대연과도 다름없었다. 이렇게 모용덕은 후연의 남쪽 강역을 경영하게 되면서 이후 남연을 건국하는 기반을 갖추 수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참합피의 전쟁 이후 탁발선비의 모용선비에 대한 거침없는 공세에 후연의 제장군 혹은 지방관들은 도주가 아니면 귀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進遽博陵魯口, 諸將望風奔退, 郡縣悉降于魏). 특히 병주(并州)를 지켰던 모용농(慕容農)이 패배한 후 그 치소인 진양(晉陽)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단마(單馬)로 중산으로 도망하자, 모용보를 비롯한 후연의 통치계층은 적지 않은 충격에 사로잡힌다. 이에 중산윤(中山尹) 부모(苻謨)·중서령 휴수(睦邃)와 상서 봉의(封懿) 그리고 모용린 등은 앞다퉈 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한다.³⁶ 당시 업성에 진수했던 모용덕 또한 북위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골몰하고 있었는데, 이때 모용청(慕容靑)이 분전하여 탁발

35 태자 모용보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모용수는 396년 3월 친히 군사정벌에 오르
고, 이에 앞서 특별히 모용덕에게 중산에 남아 이곳을 지키도록 분부하였다(守中
山). 탁발선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도 전에 참합피에서 목격한 일전의 참패
(見往年戰處積骸如山)로 인해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고(慚憤歐血),
그 충격으로 결국 침질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의 출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에 모용수는 어쩔 수 없이 회군을 결정하고 저양에 이르렀을 때, 모용보에게 중요한
遺令을 내린 것이다. 그것은 바로 모용덕으로 하여금 업성에 진수하면서 후연의 남
쪽 강역을 통치하도록 한 것인데, 여기에 더하여 일전에 그곳에 두었던 유대까지도
폐지하면서 모용덕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었다(罷留臺, 以都督專總南夏). 모용
수가 유령으로 이런 분부를 한 것은 오직 하나의 가능성, 즉 모용보가 후연을 재흥
시킬 수 없다면 그 사명을 모용덕이 완수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36 『진서』 권124, 모용보재기, 3094쪽.

의[拓跋儀(혹은 拓跋章)]를 격퇴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는 기세를 몰아 재출병하려 했으나, 모용덕은 별가(別駕) 한작(韓諱)의 주장(今魏不可擊者四, 燕不宜動者三)에 따라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한작이 탁발선비를 이길 수 없다며 주장한 4가지 이유는 당시 모용덕이 맞닥뜨린 상황이 매우 위급했으며,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됐던 사정을 보여준다.

그러면 모용덕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었을까? 엄밀한 의미에선 그 스스로 사태를 해결하고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기보다는 주위 상황이 그에게 유리하게 전환됐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첫째, 업성에 대한 재공격에 나선 하뢰노(賀賴盧)는 본인이 도무제(道武帝) 탁발규(拓跋珪)의 외삼촌이기 때문에 탁발의의 절도(節度)를 받을 수 없다고 공언하는데, 그래서 그들 둘 사이에 갈등은 폭발한다. 더욱이 탁발의의 사마(司馬) 정건(丁建)이 모용덕과 내통한 후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려주고 그들을 더욱 이간질하자 결국 그들은 자신의 병사들을 철수시키고 만다. 얼마 후 모용덕에게로 귀향한 정건은 탁발의의 병사들이 노쇠하므로 쉽게 격퇴시킬 수 있다며 공격을 주문하였다.³⁷ 이렇게 공격에 나선 모용덕은 대승을 거둔 후 흥구(恂懼)했던 당시 업성의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후진(後秦)으로 원병 요청을 위해 떠났던 유조(劉藻)가 이때 귀국하는데, 그는 후진의 태사령(太史令) 고노(高魯)가 보낸 왕경휘(王景暉)와 함께 옥새일紐(玉璽一紐)와 도참비문(圖讖秘文)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옥새는 황초(皇初) 연간(394~398) 중 정유년[丁酉年(397)]에 위수(渭水) 변에서 얻은 것으로 그 표면에 ‘천명연(天命燕)’이라고 새겨져 있었다고 하고, 또한 그 비문에는 “덕이 있으면 흥하고 덕이 없으면 망할 것이며, 덕이 있는 자는 천명을 받아 유약하나 다시 강해질 것”³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필자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후진의 요흥(姚興)이 무슨 이유로 이런 물건들을 모

37 『자치통감』 권109, 진기31, 안제릉안원년(397)조, 3437~3438쪽.

38 『십육국춘추』 권63, 남연록1, 모용덕전, 839上쪽, “先是, 姚興皇初中, 歲在丁酉, 於長安渭濱, 得赤玉璽上有文字曰, 天命燕, … 并圖讖秘文曰, 有德者昌, 無德者亡, 德受天命, 柔而復剛.”

용덕에게 보냈을까 하는 것이다. 옥새는 ‘천지신새(天之神璽)’³⁹로 바로 천명을 뜻하는 물건이므로, ‘천명연’이라면 더더욱 그런 의미일 것이며, 비록 도참비문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유덕자(有德者)는 모용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결국 그가 흥하고(興) 다시 강성하여(復剛) 중원을 호령하길 바란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요흥은 당시 북위의 하북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진 나머지 모용덕에게 이상과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감을 불어넣고 그가 결전이라도 감행하여 그들의 남하를 막아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만약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면, 요흥은 일종의 이이제이의 방법을 통해서 진(秦)·위(魏)·연(燕)의 삼국 관계에서 후진의 우위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이 밖에 당시 업성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대풍봉발양진애, 팔정삼도줄기래, 사해정비중산퇴, 유유덕인거삼대(大風蓬勃揚塵埃, 八井三刀卒起來, 四海鼎沸中山頽, 惟有德人據三臺)”라는 요언(謠言)이 떠돌았다고 하는데, 그 대략적인 뜻은 ‘북위의 침공으로 혼란한 시기에 여러 천연세력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비록 중산은 붕괴되어 소멸하겠으나, 그 와중에 세력을 규합하는 자는 오직 삼대[三臺(삼대란 업성에 세워진 銅雀臺·金虎臺·氷井臺를 가리킨다)]에 진수하던 모용덕이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덕인(有德人)이 도참비문상의 유덕자와 호응하고, 중산은 모용보의 후연의 잔여세력을, 그리고 삼대는 결국 업성을 가리키므로 재차 모용선비를 흥기시킬 인물은 다름 아닌 모용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의 현상으로 모용덕을 포함한 그의 속관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무됐을 것이 분명한데, 모용보가 이미 북방으로 도주했고, 모용상이 중산에서 참호(僭號)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래서 북위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모용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용덕이 존호를 칭할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추대가 있었음에도 모용덕은 이를 채납하지 않았는데, 그는 아직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

39 『진서』 권110, 慕容儁載記, 2832쪽.

문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그 명분은 후연의 적통을 가진 모용보만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얼마 후 모용달(慕容達)이 업성에 이르러 그의 생존소식을 알리자, 모용덕이 존호를 칭하느냐 마느냐의 논의는 이미 무의미하게 되어버렸다. 혹자는 비수전 이후 후연과 서연의 분열에서도 보듯 관동·관중으로 분열됐던 모용선비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연황제만은 한 사람이 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국가로서의 분열을 막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현 황제의 생존이 확인된 상태에서 모용수 혹은 모용덕이 황제를 칭하는 것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⁴⁰ 여하튼 모용보가 모용덕을 승상·기주목에 임명하여 남하(南夏)의 공후(公侯)·목수(牧守)를 모두 승제봉배(承制封拜)할 수 있도록 하자,⁴¹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당시 모용보와 세력 갈등을 일으켰던 모용린이 업성에 이르러 모용덕에게 그곳을 포기하고 남쪽의 황제로 나아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도록 권하고 있다.

모용린은 모용덕에게 고하길, “중산은 이미 함락됐고, 북위는 반드시 승리에 편승해서 업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업성에는 비록 군량이 많이 비축되어 있으나, 성의 규모가 커서 이를 지키기 곤란하며, 게다가 이곳의 인정이 파괴되고 동요할 테니 이들을 이끌고 전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북위의 군대가 다다르기 전에 무리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 노양왕 모용화에게로 나아가 황제에 근거한 후 병사들을 모으고 군량을 비축하여 기회를 엿보면서 움직인다면, 이것은 상책이 될 것입니다. 북위가 비록 중산을 차지했으나, 당시의 형세로 보건대 오래 머물지 않고 그저 구략(驅掠)만 행하고 되돌아갈 것입니다. 업성의 백성들이 떠나길 싫어하면 자연스레 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권위로 그들을 위무한다면, 북위는 안팎으로 적을 맞

40 内田昌功, 2003, 「十六國時代における諸燕の關係」, 『北大史學』 43, 48上~48下쪽.

41 『자치통감』 권109, 진기31, 안제릉안원년(397)조, 3460쪽.

는 형세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연구지사(戀舊之士)가 의지할 수 있는 바를 제공하고 널리 은신(恩信)을 열어 백성들을 초집한다면, 일거에 중산을 다시 찾는 등 모용선비의 흥기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⁴²

위의 모용린의 권고에서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모용덕이 맞닥뜨린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모용린이 활대로 근거지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비교적 정확한 정세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둘째, 인용문에서 연구지사는 일찍이 후연에서 벼슬을 했던 호한사족, 그리고 유려(遺黎)는 그 통치하에 있던 호한 백성들을 가리킬 텐데, 모용덕이 이들의 요구에 각각 부합하고 나아가 은신으로 위무한다면, 결국 ‘가일거이취지(可一舉而取之)’ 할 수 있는데, 필자는 ‘취지(取之)’를 후연의 재흥, 즉 모용선비의 재흥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셋째, 모용린은 탁발선비가 중산을 점령한 후 약탈만 자행한 후 곧이어 대북(代北)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들의 이후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으며, 중산의 점령은 북위의 중원진출의 서막이었고, 동시에 모용선비의 분열, 나아가 후연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사건이었다.

모용린보다 모용화가 먼저 모용덕에게 자신이 근거하고 있던 활대로 남하할 것을 권했다고도 하는데(先是, 慕容和亦勸德南徙), 여하튼 모용덕은 업성에 근거하며 황하 이북을 힘겹게 지키느니 차라리 그 이남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로 결정하고, 398년 초 ‘호사만삼천(戶四萬三千)·거이만칠천승(車二萬七千乘)’⁴³을 이끌고 황하 이남의 활대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42 『진서』 권127, 모용덕재기, 3163~3164쪽, “(慕容麟)因說德曰:「中山既沒, 魏必乘勝攻鄴, 雖糧儲素積, 而城大難固, 且人情沮動, 不可以戰. 及魏軍未至, 擁衆南渡, 就魯陽王和, 據滑臺而聚兵積穀, 伺隙而動, 計之上也. 魏雖拔中山, 勢不久留, 不過驅掠而返. 人不樂徙, 理自生變, 然後振威以援之, 魏則內外受敵, 使戀舊之士有所依憑, 廣開恩信, 招集遺黎, 可一舉而取之.」”

43 『太平御覽』卷126, 偏霸部10, 南燕慕容德, 610下쪽. 이 중 특히 호구 수를 『진서·모용덕재기』와 『자치통감』에서는 “戶四萬”으로 기록하여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III. 모용덕 ‘이통부행제제(以統府行帝制)’와 활대(滑臺)

이 장에서는 모용덕이 활대에서 어떻게 모용씨 정권을 세웠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모용씨의 정통왕조 남연의 건국이라는 학계의 주된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활대에서는 어쩌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어 이후 청제지역의 요충지 광고로 근거지를 옮겨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업성을 떠난 모용덕과 그의 무리가 여양에 다다랐을 때, 돌풍으로 인해 미리 준비해두었던 배들은 파괴되어 황하를 건널 수 없게 된다. 이에 더하여 북위의 추격병이 몰려온다는 소식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런 위기 속에 날이 어두워지자 기적처럼 기온은 급강하고 강의 물이 얼어 그날 밤에 그들은 무사히 황하를 건널 수 있었다. 그런데 더욱 기적적인 것은 그 다음 날 아침 북위의 추격병이 도착했을 때, 얼었던 강이 모두 풀리면서 그들을 더 이상 뒤쫓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고무된 모용덕은 여양진(黎陽津)을 천교진(天橋津)으로 이름을 바꿔 자신들이 무사히 황하를 건넌 것이 전적으로 하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398년 초 모용덕 일행이 활대에 도착했을 때, 경성(景星)이 미기(尾箕)에 출현했으며, 동시에 장수(漳水)에서 백옥(白玉)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옥새와 같았다고 한다.⁴⁴ 이렇듯 사관이 이상의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모용덕의 활대지행(滑臺之行)과 연관시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이후에 출현할 모용씨 정권이 나름의 적법성⁴⁵을 갖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같은 달 활대에 도착한 모용덕은 연왕을 칭한 후 연왕부를 권력의 핵심으로

44 『진서』 권127, 모용덕재기, 3164쪽.

45 모용보가 생존해 있는 한 모용덕은 도의적으로 燕王을 자칭하고 승제봉배할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모용보가 親燕세력에게 모용선비의 재흥을 위한 한 가닥의 희망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대안은 당연히 모용덕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 출현할 모용씨의 정권은 신비로운 자연현상의 도움으로 나름의 적법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모용씨 정권을 세운다. 『십육국춘추』·『진서·모용덕재기』·『자치통감』·『십육국춘추집보』 등의 기록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왕(趙王) 모용린 등 98명이 모용덕에게 존호를 칭할 것을 청하였다. 모용덕은 이를 허락한 후 하령(下令)하길, 지금 순리에 맞춰 그대들의 의견에 따라 연원고사(燕元故事), 즉 형수고사(兄垂故事)에 의거하여 연왕을 칭하고, 이어서 통부(統府)의 형태를 빌려 황제지제를 시행하며, 영강[永康(후연의 연호)] 3년을 정권의 원년으로 삼는다. 나아가 경내의 수사이하(殊死已下)에 대하여 대사(大赦)하고 문무백관을 둔다. 모용린을 사공·영상서령에, 모용법(慕容法)을 중군장군(中軍將軍)에, 모여발(慕輿拔)을 상서좌복야에, 그리고 정통(丁通)을 상서우복야에 각각 임명하고, 그 외 다른 인물들에게는 각각 차이를 두어 관작을 봉배한다.⁴⁶

이렇게 모용보를 중심으로 용성으로 떠난 세력집단과 구별되는 모용씨 정권이 새롭게 수립될 수 있었다. 모용덕이 채용한 ‘연원고사’, 즉 ‘형수고사’의 방식은 모용수가 일찍이 384년 ‘진중종고사(晉中宗故事)’⁴⁷에 근거하여 대장군(大將軍)·대도독(大都督)·연왕을 칭한 후, 권력의 핵심인 연왕부에 소위 사좌(四佐)로 불리는 장사(長史)·사마(司馬)·종사중랑(從事中郎)·주부(主簿)를 두고 이들을 통해 자기 휘하의 모든 왕공과 장수를 통제하는 명령체제인 것이다.⁴⁸ 이런

46 모용씨 정권의 성립과 관련한 기록들을 서로 대조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진서·모용덕재기』·『자치통감』에는 ‘假順來議’의 기록이 없어 모용덕이 下令한 의도가 조금은 불분명하며, 둘째, 『자치통감』에만 모용덕이 연왕을 칭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셋째, ‘燕元故事’와 ‘兄垂故事’를 모두 기록한 것은 文淵閣四庫全書의 『십육국춘추』이며, 넷째, 『태평어람』이 인용한 崔鴻의 『십육국춘추』와 『십육국춘추집보』는 다른 사서의 ‘以統府行帝制’ 혹은 ‘統符行帝制而已’와 달리 ‘統符行帝制奏詔而已’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47 『태평어람』 권125, 편패부9, 후연모용수, 606上쪽, “元年正月, 朝羣寮于清陽宮, 以暉在長安, 依晉愍帝在平陽, 中宗稱王, 改年建武故事, 改秦建元爲燕元元年.”

48 『진서』 권123, 모용수재기, 3082쪽, “(慕容垂)以太元八年自稱大將軍·大都督·

명령체계를 호삼성(胡三省)은 통부로 명명하고, 제방진(諸方鎭)이 모두 연왕부에 귀속되어 명령을 받는 것이라고 주해한 바 있다.⁴⁹ 따라서 모용덕은 이런 통치 형태를 빌려 황제지제를 시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모용수가 전연의 마지막 황제 모용위의 권위를 인정하고 흥복대연에 나섰듯이 모용덕 역시 후연의 합법적인 황제 모용보를 종주(宗主)로 한다는 전제하에 세력의 확장에 나선 것이며,⁵⁰ 적어도 이때까지는 그의 권위가 전적으로 필요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한편, 여기에서는 이 모용씨 정권을 정통왕조 남연의 건국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의 본질인데, 현재 많은 학자가 이에 긍정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⁵¹ 하지만 필자는 이하의 네 가지의 이유로 이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당시 모용덕은 확실한 자신의 세력 근거지를 확보했었는지가 의문이다. 그는 모용화가 응거하고 있던 활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연왕부를 권력의 핵심으로 하는 정권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그의 고정적인 근거지라고 보기 힘들며, 결국 모용화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특히 모용화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⁵² 후술하겠으나 모용덕이 모용화에게 활대를

燕王，承制行事，建元曰燕元。令稱統府，府置四佐，王公已下稱臣，凡所封拜，一如王者。”

49 『자치통감』 권110, 진기32, 안제릉안 2년(398)조, 3461쪽, “德用兄垂故事，稱燕王，改永康三年爲元年，以統府行帝制，(胡注：統府者，諸方鎭皆統於燕王府，行帝制者，稱制以行事)置百官。”

50 지배선, 1990, 앞의 글, 125쪽.

51 方試銘 編著, 1980, 『中國歷史紀年表』,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61쪽; 趙凱球, 1886, 앞의 글, 123左쪽; 지배선, 1998, 앞의 책, 118~119쪽; 三崎良章, 2006, 「後燕·南燕の官僚機構」, 『五胡十六國の基礎的研究』, 東京: 汲古書院, 87쪽, 등등

52 J. 霍尔姆格林, 1993, 앞의 글, 47左쪽. 혹자는 이들 양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由于政權內部慕容德派和慕容和派的紛爭), 사실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기록은 없다. 아마도 모용화의 속관 출신인 이변이 수차례 반란을 모의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이런 추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키게 하고 부광(苻廣)을 토벌하러 나섰을 때, 그의 속관 저족(氏族) 출신 이변(李辯)⁵³은 그를 살해하고 북위에게 투항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모용덕은 할 대로 귀환할 수조차 없었다.⁵⁴ 둘째, 모용덕은 자신의 휘하에 용진한 병사를 다 수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그가 통솔하고 남하한 4만여 호는 병사들 외에 상당수의 한인을 포함한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⁵⁵ 병사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으나, 분명 한 건 당시 그는 병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다. 셋째, 행정력이 미치는 강역과 그 안에서 삶을 영유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편화시켰는지가 의문이다. 부광이 힘을 키워 진왕(秦王)을 자칭하고 반란을 도모했을 때, 활대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고, 모용씨 정권이 장악하고 있던 성은 열 곳도 채 되지 않았으며, 백성의 수는 불과 1만에 이르렀다고 한다.⁵⁶ 하지만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 강역은 점차 확대되었고, 동시에 연주 북쪽의 여러 현령이 귀향해 오자, 모용덕은 비로소 수재(守宰)를 두어 그 지역 백성들을 위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⁵⁷ 나아가 모용법을 연주자사에, 반충을 서주(徐州)자사에 각각 임명할 수 있었다.⁵⁸ 이렇게 모용씨 정권은 그 본래의 한계에서 벗어나 왕조의 성격을 갖추고 발전 변화해갈 수 있었다. 특히 넷째, 전술했듯 모용덕은 모용보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하는 신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군신지도(君臣之道)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모용덕이 스스로 연왕을 칭한 것은 모용보의 빈자리를

53 『위서』 권2, 태조기, 35쪽.

54 『진서』 권127, 모용덕재기, 3165~3166쪽, “德謀於衆曰：「苻廣雖平，而撫軍失據，進有強敵，退無所託，計將安出？」”『위서』 권95, 徒何慕容德傳, 2071쪽, “德無所據，乃謀於衆.”

55 지배선, 1998, 앞의 책, 118쪽.

56 『자치통감』 권111, 진기33, 안제릉안 3년(399)조, 3489쪽, “是時，滑臺孤弱，土無十城，衆不過一萬，鍾既敗，附德者多去德而附廣.”

57 『진서』 권127, 모용덕재기, 3166쪽, “兗州北鄙諸縣悉降，置守宰以撫之，存問高年，軍無私掠，百姓安之，牛酒屬路.”

58 『자치통감』 권111, 진기33, 안제릉안 3년(399)조, 3495쪽.

대신한 어쩔 수 없던 임시방편의 행위였으며, 그래서 그가 자신에게로 귀환한다면 이전의 모든 조치를 되돌리고 사제(私第)로 되돌아갈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설사 이것이 모용덕의 본심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건 모용보의 생존 여부를 통해 이 정권의 성격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용보는 후연의 합법적인 적통이므로, 그가 생존해 있는 한 모용덕은 도의상 그를 부정하고 정통왕조 남연을 건국하기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모용씨 정권의 수립은 모용덕이 종전의 승상·기주목의 신분인 아닌 연왕의 자격으로 승제남하(承制南夏)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위로 이해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용덕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이런 의도를 드러냈는지를 살펴보자.

모용덕은 연왕을 자칭하고 얼마 후 시랑(侍郎) 이연(李延)을 모용보에게 보내 탁발규가 대북으로 되돌아간 틈을 이용해서 함께 병사를 내어 북위에 대한 협공을 가하고자 청하고 있다. 이때 모용보는 모용농의 절간(切諫)을 듣고 이를 따르려 했지만, 결국 모여등(慕輿騰)의 의견에 따라 출병을 결정한다. 하지만 얼마 후 장상(長上)⁵⁹ 단속골(段速骨)·송적미(宋赤眉) 등은 “중심지탄정역(衆心之憚征役)”을 이용해 반란을 도모하는데, 북위에 대한 군사정벌은 고사하고 그 반란으로 모용주(慕容宙) 등 다수의 종실제왕이 살해됐으며, 그 폐해는 실로 적지 않았다. 그 외중에 단속골 등과 통모하여 세력을 키운 난한은 계성(薊城)에 근거하여 태자 모용책을 받들고 승제대사(承制大赦)한 후 모용보를 맞이하려고 하였다. 이때 모용성(慕容盛)은 난한의 본심을 확인할 수 없으니 그에게 의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모용덕에게로 나아간 후 무리를 모아 그를 대신하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하였다.⁶⁰ 이에 남하하여 여양에 도착한 모용보는 중황문령(中黃門令) 조사(趙思)를 모용중(慕容鍾)에게 보내 “이번 2월

59 『자치통감』 권110, 진기32, 안제릉안 2년(398)조, 3464쪽. “胡注曰：凡衛兵皆更番迭上，長上者，不番代也。”

60 『자치통감』 권110, 진기32, 안제릉안 2년(398)조, 3463~3466쪽.

모용덕의 표문(表文)을 받아 북위에 대한 군사정벌을 결정한 후 군대가 을연(乙連)에 이르렀을 때 장상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나는 지금 근거지를 잃고 반란을 피해 여양에 도착한 것으로, 속히 모용덕에게 연락하여 나를 맞이하라고 전하라”라고 고하였다.⁶¹ 모용중은 모용덕의 종제(從弟)로 가장 먼저 그에게 존호를 칭하라고 했었으므로 그 명령을 받자 큰 반감을 품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조사를 잡아 감옥에 가둔 후 모용덕에게 자신이 겪은 전후 사정을 일일이 보고하게 된다.

모용덕은 군하(羣下)에게 말하길, “경들이 사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나더러 섭정하도록 권하였다. 나 역시 사제[嗣帝(모용보)]가 파월(播越)하고 민신(民神)이 주인을 잃어버린바 잠시 군의(羣議)에 따라 중심(衆心)에 부합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 천신(天神)이 전란을 수습하고자 사제를 나에게로 보냈으니 나는 거마를 준비하여 그를 맞이하고 사죄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문시랑 장화는 말하길, “지금 천하가 큰 혼란에 휩싸였는데, 웅재가 없다면 군생을 영제(寧濟)할 수 없습니다. 사제는 암나(闇懦)하여 후연의 영광을 계승하지 못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만약 필부지절(匹夫之節)에 따라 천수지업(天授之業)을 포기하신다면, 위엄과 권위는 곧 잃게 되어 신수(身首)를 보존할 수 없을 뿐더러 하물며 사직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여호가 말하길, “사제는 시의에 밝지 못하여 국도를 버렸으며, 이는 스스로 패망을 취한 것으로 다난(多難)을 감당할 수 없음은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⁶²

61 『자치통감』 권110, 진기32, 안제릉안 2년(398)조, 3467쪽, “(慕容寶)遣中黃門令趙思告北地王鍾曰:「上以二月得丞相表, 卽時南征, 至乙連, 會長上作亂, 主據來此, 王亟白丞相奉迎!」.”

62 『자치통감』 권110, 진기32, 안제릉안 2년(398)조, 3467쪽, “德謂羣下曰:「卿等以社稷大計, 勸吾攝政, 吾亦以嗣帝播越, 民神乏主, 故權順羣議以繫衆心. 今天方悔禍, 嗣帝得還, 吾將具法駕奉迎, 謝罪行闕, 何如?」黃門侍郎張華曰:「今天下大亂, 非雄才無以寧濟羣生. 嗣帝闇懦, 不能紹隆先統. 陛下若蹈匹夫之節, 捨天授之業, 威權一去, 身首不保, 況社稷其得血食乎!」慕輿護曰:「嗣

위 인용문에서 보듯 모용덕은 섭정하게 된 이유를 ‘사제파월(嗣帝播越)’과 ‘민신핍주(民神乏主)’로 들고 있으며, 따라서 일시적으로 ‘군의’에 따르고 ‘중심’에 부합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구법가봉영(具法駕奉迎)’하여 ‘사죄행궐(謝罪行闕)’한다고 하더라도 ‘이통부행제제’를 통해 모용씨 정권을 세운 것을 남연의 건국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사마광은 장화가 모용덕을 ‘폐하’로 칭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의 언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칭호가 아니라 ‘천하대란’에서 ‘웅재’를 갖춘 자가 비로소 ‘소룡선통(紹隆先統)’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인물은 모용덕일 수밖에 없고, 그가 비로소 모용선비를 재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장화의 견해는 모여호의 언급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졌다. 즉, 모용보는 ‘부달시의(不達時宜)’하여 중산을 버리고 도주했던 것인데, 이는 ‘자취패망(自取敗亡)’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그가 어찌 ‘천하대란’을 수습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화와 모여호의 언급을 통해서 이후 모용덕의 임무는 보다 분명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모용씨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어 ‘소룡선통’할 수 있는 후연의 정통성을 이은 왕조의 건국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때는 고정적인 세력 근거지인 광고를 차지하고, 휘하에 다수의 용건한 병사를 보유하며, 행정력이 미치는 강역과 그 안에서 삶을 영유하는 백성들을 다수 확보한 시점일 될 것이다.

한편, 당시 모용씨 정권은 부광의 노골적인 도전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다. 모용덕에 귀항하여 관군장군(冠軍將軍)에 임명된 부광은 이후 걸활보(乞活堡)에 근거했으며, 그때 형혹(熒惑)이 동정(東井)을 지켰다고 하여, 이를 두고 어떤 이는 그를 부추겨 전진(前秦)이 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부광은 진왕을 자칭하고 얼마 후 모용종과 싸워 그를 패퇴시키고 있다. 그래서 당시 모용덕에 불만이 있었던 무리들은 부광에게로 귀항했던 것이다(反側之徒多歸于廣). 모용덕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용화에게 활대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부광을 토벌하러 나섰다. 이때 이번은 모용화를 꼬드겨서 반란을 획책하지만, 그가 따르지

帝不達時宜，委棄國都，自取敗亡，不堪多難，亦已明矣。……”

않자 자신의 모략이 후에 탄로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를 살해하고 북위의 병사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실 이번은 일찍이 모용보가 여양에 이르렀을 때 모용화에게 모용보를 맞이해야 한다고 주문한 적이 있었고, 동시에 동진과 내통하여 그들의 병사가 관성(管城)에 이르렀을 때 모용덕의 출병을 주장하고 그가 출병하면 후방에서 반란을 도모하려고까지 했던 것이다.

활대에서 변고가 일어났음을 직감한 모용덕은 부광을 참한 후 병사를 보내 공격을 시도했으나 북위에게 패한다. 그래서 진·영지역의 한인들 다수는 북위에 귀항했던 것이다(陳潁之民多附於魏). 이때 한범(韓範)이 나서서 광고를 재차 공격할 수 없음을 설파하고, 관중지기(關中之基)와도 같은 다른 곳을 찾아 그곳에서 힘을 키운 후에 활대를 공격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한다. 모신들 사이에 어느 곳에 근거해야 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장화는 팽성(彭城)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모용종·모여호·봉령(封逞)·한작 등은 예전 그대로 활대를 빼앗아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반충은 이들과 달리 팽성·활대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청제지역의 요충지인 광고의 장점을 열거한 후, 이곳을 추천하게 된다. 우선 활대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 대해 반충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활대는 사통팔달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제왕이 머물 곳이 못 됩니다. 게다가 북으로는 대위(大魏)가, 서로는 강진(强秦)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들 두 나라로 인해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⁶³

반충은 활대가 제왕지도(帝王之都)로 부적절한 이유로 사통팔달이라는 지리적인 요인, 그리고 북위·후진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군사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광고를 언급하고 그곳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

63 『십육국춘추』 권63, 남연록1, 모용덕전, 841下쪽, “尙書潘聰進曰, 滑臺四通八達之地, 非帝王之居. 且北通大魏, 西接强秦, 此二國者, 未可高枕而待之.”

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와 그곳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장을 바꿔서 언급하도록 한다.

IV. 남연(南燕)의 건국과 광고(廣固)

이 장에서는 모용덕이 광고⁶⁴를 근거지로 삼은 이유와 그럼으로써 모용씨의 정통왕조 남연의 건국, 나아가 남연이 진정 모용선비(후연)의 정통성을 계승하여 건국된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모용덕이 광고에 근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반충과 사문(沙門) 승랑이 각각 그곳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기 때문인데, 먼저 반충의 주장을 살펴본다.

[가] 상서 반충이 말하길, “... 청제지역은 토지가 비옥하여 일명 동진(東秦)으로 불립니다. 토지는 2천여 리에 이르고, 정병의 수는 10여 만에 다다르며, 게다가 서쪽으로 산하지고(山河之固)를 이루고, 동쪽으로 바다에 맞닿아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 용무지국(用武之國)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삼제(三齊)의 호걸들은 의지를 품고 기회를 기다려 왔는데, 어찌 명주(明主)를 얻어 척촌지공(尺寸之功)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광고성은 일찍이 조역(曹嶷)이 경영했던 곳으로 험준한 산형을 이루고 있어 제왕지도로 족합니다. 벽려혼은 예전에 연의 신하였으며, 후에 그 국을 입었는데, 지금 병사를 모아 잠거(潛據)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변사(辯士)를 보내 그곳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런 후에 대병(大兵)을 이끌고 그 뒤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마음을 바꿔 귀향할 것인데, 만약 귀향을 거부한다

64 광고성의 건설과 그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태평어람』 권160, 州郡部6, 靑州, 777下쪽, “齊記曰, 晉永嘉五年, 東萊牟平曹嶷爲刺史所築, 城有大澗, 甚廣, 因之爲固, 謂之廣固城.”

면, 대군이 도착했으니 그의 무리는 자연히 와해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근거한 후 관새를 막고 군사력을 키워 기회를 보아 움직인다면, 이 지역은 바로 폐하의 관중·하내(河內)가 될 것입니다.”⁶⁵

앞 장에서 이미 언급했듯 장화와 모용종 등은 이후의 세력 근거지로 팽성과 활대를 각각 추천한 바 있는데, 사실 모용덕이 광고를 포함해서 그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할지 주저했을 것은 쉽게 이해되고도 남는다.⁶⁶ 그는 이때 점후(占候)에 밝았던 승랑에게 아문(牙門) 소무(蘇撫)를 보내 그의 의견을 구하기로 한다.

[나] 승랑이 말하길, “산야(山野)의 절속지사(絕俗之士)인 본인은 조의(朝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견을 구하니 이에 응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지금 본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본인(檀越)이 세 가지의 계책을 보건데, 반중의 주장이 흥방지책(興邦之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초에 혜성(彗星)이 규루(奎婁)에서 일어나 허위(虛危)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혜성은 옛것을 제거하는 갱신지상(更新之象)을 가리킵니다. 규루는 노(魯)의 분야(分野)이며, 허위는 제(齊)의 분야로 우선 연주를 평정한 후 낭야(琅邪)를 순무(巡撫)하고, 추풍이 일 때를 기다려 계절(戒節)한 후 북으로 제에 이른다면, 이것은 실로 하늘이 내린 방법(天道)일 것입니다.”⁶⁷

65 『십육국춘추』 권63, 남연록1, 모용덕전, 842上쪽, “尙書潘聰曰, … 青齊沃壤, 號曰東秦, 土方二千里, 精兵十餘萬, 右有山河之固, 左有負海之饒, 可謂用武之國. 三齊豪傑, 蓄志以俟, 孰不思得明主, 以立尺寸之功. 廣固城者, 曹嶷之所營, 山形嶮峻, 足爲帝王之都. 辟閭渾昔爲燕臣, 後負國恩, 勒兵潛據. 今宜遣辯士馳說於前, 大兵繼踵於後, 彼必翻然向化, 如其守迷不服, 大軍臨之, 自然瓦解. 既據其地, 然後閉關養銳, 伺釁而動, 此乃陛下之關中河內也.”

66 당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상황에 대해 모용덕은 “吾以古人逆取順守, 其道未足, 所以中路徘徊, 悵然未決耳”(『진서·모용덕제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가]와 [나]의 내용은 『십육국춘추』·『진서·모용덕재기』·『자치통감』·『십육국춘추집보』 등에 모두 보이는데, 이를 서로 대조하면 몇 군데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가]와 관련해서, 첫째, 모용덕이 청제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호구 수 혹은 정병 수를 각각 호여십만(戶餘十萬) 혹은 정병십여만(精兵十餘萬)으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으며, 얼핏 보기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알 수 없다. 다만 양자가 의미하는 바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북위 때를 기준으로 청제지역은 연주·청주·제주를 가리키므로 『위서·지형지(魏書·地形志)』에 의하면, 이들 3개 주의 호구 수를 각각 호팔만팔천삼십이(戶八萬八千三十二)·호칠만구천칠백오십삼(戶七萬九千七百五十三)·호칠만칠천삼백칠십팔(戶七萬七千三百七十八)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합계 24만여 호에 이른다.⁶⁸ 비록 이 기록이 반송 때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특히 이후 모용덕이 환현(桓玄)의 청제 후 동진 내부에 혼란이 발발하자, 이를 기회로 삼아 남정(南征)을 준비했을 때 “보병삼십칠만, 거일만칠천승, 철기오만삼천(步兵三十七萬, 車一萬七千乘, 鐵騎五萬三千)”⁶⁹을 보유했다는 기록을 통해 후자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둘째, 벽려혼의 관력(官歷)과 관련된 것으로 『십육국춘추』와 『자치통감』은 특별히 ‘벽려혼석위연신(辟閭渾昔爲燕臣)’을 기록하고 있어 그의 처지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⁷⁰ 당시 북위의 공세로 후연이 곤궁에 처했을 때, 무리를 모아 광고에서 할거했던 그는 비록 반송의 예상대로 귀향할 수도 있었겠으나, 결국 그럴 확률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귀

67 『십육국춘추』 권63, 남연록1, 모용덕전, 842上쪽, “朗報曰, 山野絕俗之士, 不應預聞朝議, 但有待之累, 非有托無以立, 陛下今既聞之, 檀越敬覽三策, 潘尙書之議, 可謂興邦之策矣. 且今歲之初, 慧星起於奎婁遂掃虛危, 慧者, 除舊更新之象, 奎婁爲魯之分野, 虛危爲齊之分野. 宜先定兗州, 巡撫琅邪, 待秋風戒節, 然後北轉臨齊, 此天道也.”

68 『위서』 권106, 地形志 中, 2519, 2522, 2524쪽.

69 『진서』 권127, 모용덕재기, 3172쪽.

70 『자치통감』 권111, 진기33, 안제릉안 3년(399)조, 3490쪽, 胡注: 孝武太元十九年, 辟閭渾爲慕容農所破, 遂臣於燕.

항을 거부했던 그는 후에 거성(莒城)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다음으로 [나]와 관련해서, 『십육국춘추』에는 승랑이 모용덕의 요청에 응하게 된 사정을 특별히 “산야절속지사, 불응예문조의, 단유대지루, 비유탁무이립, 폐하금기문지(山野絕俗之士, 不應預聞朝議, 但有待之累, 非有托無以立, 陛下今既聞之)”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정치와 종교 간의 상관관계를 엿보게 된다. 주지하듯 후조(後趙) 때 불도징(佛圖澄)은 석륵(石勒)과 석호(石虎)의 우대 속에 정치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⁷¹ 전진 때 도안(道安)은 부견의 요구에 응해 동진정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고,⁷² 게다가 후진 때 구마라십(鳩摩羅什) 등 여러 승려는 요흥의 보호 속에 전교 및 역경사업에 몰두하여 불교의 중흥을 가져오기도 했던 것이다.⁷³ 후연 때에도 술사(術士) 혹은 승려가 참모의 자격으로 정치 혹은 군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는데, 참합피의 전쟁 때 근안(靳安)은 출정에 나선 모용보를 향해 회군을 요청하기도 했고, 지담맹(支曇孟)은 이후 참합피로 회군한 모용보에게 북위의 기습을 예상하며 철저한 방비에 임하도록 간언하기도 하였다.⁷⁴ 다른 오호왕조에서 보이던 이런 정교합일의 현상이 당시 모용씨 정권 내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은 없다. 따라서 천문현상에 기초한 승랑의 발언은 주저하고 있던 모용덕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으며 이후 그가 청제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진서·모용덕재기』에는 보이지 않으나 『십육국춘추』 등에는 소무와 승랑 간에 이루어진 밀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다] 소무가 몰래 묻기를, “남연은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 승랑은 주역으로 점을

71 『진서』 권105, 石勒載記 下, 2744쪽; 『진서』 권106, 石季龍載記 上, 2768쪽.

72 『진서』 권114, 부견재기 하, 2913~2914쪽.

73 『진서』 권117, 姚興載記 上, 2984~2985쪽.

74 『자치통감』 권108, 진기30, 효무제태원 20년(395)조, 3423쪽.

친 후 대답하길, “남연의 쇠락은 경술년(庚戌年)에 있을 것인데 일기(一紀), 즉 12년으로 아들 때까지이다.” 소무가 묻기를, “어찌 그렇게 빠를 수 있는가?” 승랑이 대답하길, “괘조(卦兆)가 바로 그러하다. 사람이 이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소무는 이런 흉조를 고할 수 없어 광고에 근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보고하였다. 모용덕은 크게 기뻐하였다.⁷⁵

위에서 인용한 [가]·[나]·[대]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업성을 떠나 남하하여 활대에 근거했던 모용덕은 북위의 계속된 공세로 더욱 안정적이며 동시에 효과적으로 힘을 키울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지역은 바로 황하와 회하(淮河) 중간의 동쪽에 위치한 청제지역으로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대부분을 가리킨다.⁷⁶ 2천여 리의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해산자원, 그리고 10여 만의 정병을 확보할 수 있고, 태산과 목릉관(穆陵關)⁷⁷을 통해 북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청제지역은 분명 이후 재차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용무지국’임에 틀림없었다. 특히 이 지역 호강들이 모용덕과 같은 명주를 기다려왔고, 그를 도와 ‘척춘지공’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는 사실 한고조 혹은 광무제처럼 관중 혹은 하내와도 같은 이상적인 지역을 얻은 것과 다름없었다. 설사 이 지역이 모용덕에게 일시적이지만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⁷⁸

75 『십육국춘추』 권63, 남연록1, 모용덕전, 842上~842下쪽, “撫又密問以年世, 朗以周易筮之曰, 燕衰庚戌, 年則一紀, 世則及子. 撫曰, 何其促乎, 朗曰, 卦兆然也, 豈關人哉. 撫不敢言以吉還報, 德大悅.”

76 『독사방여기요』 권3, 역대주역형세3 진십육국, 155쪽, “南燕之地, 東至海, 南濱泗上, 西帶鉅野, 北薄於河.”

77 李森, 1996b, 앞의 글, 19쪽.

78 J. 霍爾姆格林, 1993, 앞의 글, 48左쪽. 혹자는 청제지역은 바로 모용덕에게 밝은 미래(光明未來)를 안겨다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렇다면 그 밝은 미래란 바로 그가 그곳에서 힘을 키운 후 북방(중원)으로 되돌아가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런 밝은 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식은 모용덕을 따라 이곳으로 들어온 非漢人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특히 그의 재위 전반

둘째, 당시 청제지역의 요충지로는 광고 외에 다른 몇 곳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연주의 치소 양부(梁父), 제주의 치소 역성(歷城) 등인데, 이곳들 보다는 서진 말 조역에 의해 증축된 청주의 치소 광고가 제왕지도로써 가장 적합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모용덕은 남연의 수도를 그곳에 정함으로써 족히 북위·동진과 중원을 다룰 수 있는 형세를 갖추 수 있었다.

셋째, 청제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모용덕에게 절실히 요구됐던 것은 다른 아닌 회유책으로, 그 지역 호강들과 백성들이 그를 자신들의 진정한 협력자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이상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홍방지책’일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에 모용덕은 반총과 승량의 계책에 따라 청제지역의 이남, 즉 연주 쪽으로 먼저 진출하게 되는데, 그러자 그 지역 지방관들의 귀향이 이어졌던 것이며, 동시에 연로한 자들의 안위를 살피고 병사들에게 사사로운 약탈을 엄금하는 명령을 내리자, 생활의 안정을 찾은 백성들이 술과 고기를 들고 그를 맞이했다고 한다. 그래서 모용덕은 비교적 순조롭게 낭야에 근거할 수 있었다. 얼마 후 10여 만의 ‘서연지사’와 그 이북의 백성 4만여 명이 앞다투어 그에게 귀향했던 것이다.⁷⁹ 광고에 들어선 후 곧이어 모용덕은 도지상서(度支尚書) 봉개(封愷)와 중서시랑(中書侍郎) 봉령을 보내 이 지역의 풍속을 살피도록 하고, 전쟁에 지친 병사와 백성들을 위무토록 한 것은 바로 이들에게 정복자가 아닌 협력자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⁸⁰ 이렇게 광고의 배후지로서 청제지역은 이후 모용선비의 주요 활동무대가 될 수 있었다.

한편, 광고에 응거하고 있던 벽려혼은 귀향을 거부하고 모용덕을 막아서는

부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었는데, 이 지역을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통치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48左, 51左쪽).

79 『진서』 권127, 모용덕재기, 3166쪽, “(慕容德)引師而南 … 存問高年, 軍無私掠, 百姓安之, 牛酒屬路, … 德進據琅邪, 徐兗之士附者十餘萬, 自琅邪而北, 迎者四萬餘人.”

80 『진서』 권127, 모용덕재기, 3168쪽.

데, 이에 모용종이 보기(步騎) 2만을 이끌고 그를 공격하는 동시에 청주의 제군(諸郡)에 격서를 보내 그의 무지와 무능, 나아가 그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설파하고 있다. 그 격서의 내용을 보면, 모용덕은 천명에 따라 20여 만의 정병을 이끌고 청제지역으로 들어선 것이며, 모용종 본인은 원용(元戎) 12만을 이끌고 청주에 들어서서 귀항을 거부하는 무리와 결전할 것이다. 본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발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귀항하라! 일찍이 조억과 단감(段龕)이 광고에서 할거했다가 각각 후조와 후연에 의해 괴멸당하지 않았던가? 승패는 볼 보듯 뻔한 것으로 후한 초 두융(竇融)이 하서(河西)를 들어 광무제에게 귀항한 후 그의 후손이 복록을 입었듯이 벽려혼 또한 깨닫는 바가 있어 귀항한다면, 분명 영충(榮寵)이 그를 따를 것이다. 만약 그가 왕사(王師)에 대항한다면 패멸만 있을 것으로, 청주의 호걸들 중 그를 참한 후 귀항한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약속하리라!⁸¹ 이후의 사실이지만, 벽려혼의 사마(司馬) 최탄(崔譔)과 발해(渤海)태수 봉부(封孚)·평원(平原)태수 장활(張豁) 등은 결국 귀항을 결정했는데, 이에 두려움을 느낀 그는 처자를 이끌고 북위로 도주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거성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이에 모용덕은 비로소 광고에 들어서게 됐으며, 이곳은 이후 남연의 수도로써 10여 년을 모용선비와 동고동락할 수 있었다.

광고를 차지한 모용덕은 고정적인 세력 근거지와 그 배후로 행정력이 미치는 청제지역을 강역으로 확보했으며, 나아가 다수의 용진한 정병을 보유하게 된다. 광고에 들어선 399년 8월⁸² 이미 이순지년(耳順之年)에 이른 그는⁸³ 이곳

81 『진서』 권127, 모용덕제기, 3167쪽.

82 『태평어람』 권126, 편패부10, 남연모용덕, 610下쪽, “八月, (慕容德)入廣固, 卽皇帝位于南郊.” 후자의 주장처럼, 최홍의 『십육국춘추』가 이미 散佚된 상태에서 현재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남아 있는 것은 바로 『태평어람』 편패부에 인용된 『십육국춘추』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오호왕조의 紀年을 이해하는 데 가장 신뢰할 만하다(鈴木桂, 2000, 「五胡十六國時代に關する諸史料の紀年矛盾とその成因－唐修『晉書』載記を中心として, 『史料批判研究』 4, 125上~127下쪽). 『태평어람』에서 인용된 『십육국춘추』에는 모용덕은 399년 8월에 연황제위에 올랐다고 기

의 남교(南郊)에서 비로소 연황제에 등극하고 건평(建平)으로 개원했으며, 또한 모용씨의 행묘(行廟)를 궁성의 이남에 세우고, 이곳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연도윤(燕都尹)을 두었다.⁸⁴ 나아가 모용성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이 연황제의 조령을 시행한다고 선언하고 있다(遣使奉策告成焉). 이는 그가 일찍이 연왕의 신분으로 ‘이통부행제제’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실제 연황제의 자격으로 그것에 걸맞은 통치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모용종을 사도에, 모여발을 사공에, 봉부를 상서좌복야에, 모여호(慕輿護)를 상서우복야에 각각 임명하면서 황제지제의 주요 관직을 설치했으며, 이어서 전연의 마지막 황제 모용위를 유황제(幽皇帝)로 추존하고,⁸⁵ 단씨(段氏)를 황후에 세우고 있다. 이로써 모용선비(후연)의 정통성을 계승한 모용씨의 왕조 남연은 건국된 것이다.⁸⁶

록하고 있다. 참고로 모용덕이 연황제위에 오른 시간을 『진서·安帝紀』에는 399년 6월로, 『진서·모용덕재기·校勘記』에는 “此「四年」蓋「三年」之誤”라고 하여 399년이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몇 월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자치통감』과 『십육국춘추』에는 모두 40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83 『십육국춘추』 권63, 남연록1, 모용덕전, 837下쪽, “咸康二年, (公孫夫人)晝寢而生德.” 동진 함강 2년(336)에 태어난 모용덕은 그의 나이 63세 되던 해인 399년에 남연을 건국한 것이었다.

84 『十六國疆域志』 卷13, 南燕志, 401쪽, “南燕於廣固, 置燕都尹.”

85 『태평어람』 권121, 편패부5, 전연모용위, 585下쪽, 전술했듯 394년 8월 후연은 서연을 멸한 후 모용선비(전연)의 정통성을 장악한 왕조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연황제위에 오른 모용덕이 모용위를 유황제로 추존했다는 것은 후연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연이 결국은 전연의 정통성 또한 계승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모용선비의 정통성 계보는 전연-서연-후연-남연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런 인식에 따라 모용덕은 모용씨 행묘를 세웠으며, 연황제의 조령을 시행한다는 선언까지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6 혹자는 후연과 남연의 관료기구를 비교 분석한 후 후연(모용보가 시해되기 전까지)에서는 尙書의 기능이 충실히 진행됐으며, 동시에 모용종실과 功臣에게는 三公의 지위가 부여된 점이 두드러진다면, 이런 관료기구의 특징은 남연에 의해서 계승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三崎良章, 2006, 앞의 글, 94쪽). 관료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모용덕이 후연의 그것을 계승했다면, 이를 통해 모용선비의 정통성 계승문제 역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시 용성으로 귀환한 후연의 잔여세력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특히 모용보가 시해된 후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그 뒤를 이었던 모용성은 모용덕의 연항제 등극과 남연의 건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를 통해 그 정통성의 향배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 모용성의 생각을 속 시원하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사료가 없어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400년 정월에 이르러 그는 황제지호(皇帝之號)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서민천왕⁸⁷으로 낮춰 칭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모용덕의 연항제 등극·남연의 건국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면, 모용성은 스스로 모용선비의 정통성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용덕에 의해 계승됐다고 인정한 것이 된다.

모용보의 서장자로 어려서부터 충민하고 모략을 갖추었던 모용성은 일찍이 모용충의 패망과 모용영이 모용선비의 통합을 방해할 것을 예측했다고 하며,⁸⁸ 이후 모용수에 의해 ‘효용강의(驍勇剛毅)’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후연의 국가 발전에 참여했고, 모용보의 재위 때에는 북위의 거센 공세를 막아내며 모용보를 안전하게 용성으로 호위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용보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이에 이후 모용보가 모용덕의 표문을 받고 북위에 대한 군사정벌에 나섰을 때, 용성에 남아 그 후사를 처리했던 것이다. 주지하듯 얼마

87 『태평어람』 권125, 편패부9, 후연모용성, 607上쪽. 서민천왕을 『진서·모용성재기』에는 庶人大王으로, 『위서·모용성전』에는 庶民大王으로, 그리고 『십육국춘추』·『자치통감』에는 庶人天王으로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후자의 주장처럼 庶民天王이 가장 정확한 표기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庶民’은 ‘燕’의 옛 字形의 誤記이므로 ‘서민천왕’은 결국 ‘燕天王’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內田昌功, 2003, 앞의 글, 50下~51上쪽 주7 참고).

88 『십육국춘추』의 기록에 의하면, 모용성은 13살 되던 때에 慕容沖의 연항제 등극을 목격하고, 그가 “智不先衆, 才不逮人, 功未有成, 先自驕大”하기 때문에 곧 패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한다. 그래서 모용영을 따라 長子로 이주한 것인데, 이후 ‘嫌疑之地’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고 더 큰 야망을 위해(鴻鵠高飛, 一舉萬里) 결국 모용수에게로 귀환한 것이었다. 그가 장자를 떠나고 몇 년 후의 일이지만, 모용영은 모용준과 모용수의 자손을 남김없이 주살하였다.

후 장상 단속골 등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하여 후연의 통치 체계를 뿌리째 흔들어놓았다. 모용보는 겨우 단기(單騎)로 모용농에게 몸을 피하고 병사들을 다시 지휘하여 재출전하려 했으나, 그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도주해버리고 말았다(衆咸憚征幸亂, 投杖奔之). 이때 혼란을 틈 타 세력을 키운 난한이 계성에서 모용보를 맞이하려 했으나, 모용성은 그의 충심을 확인할 수 없으니 차라리 활대에 근거하고 있던 모용덕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모용성의 계책에 따라 여양까지 남하했던 그는 모용덕이 이미 연왕을 칭한 후 승제봉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종전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懼而退), 이후 스스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다. 모여등·모용성과 단의(段儀)·단온(段溫)이 거록(鉅鹿)·기주와 내황(內黃)에서 각각 산병(散兵)·호걸과 부곡(部曲)을 규합하기 위해 나선 것은 바로 그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때 난한이 모용보를 맞이하기 위해 재차 자신의 좌장군(左將軍) 소초(蘇超)를 보내고, 모용보는 이제는 그의 충관(忠款)을 의심할 수 없다며 결국 그에게 의탁하기로 결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모용성과 여승(餘崇)이 나서서 모용보를 막아섰지만 모두 헛수고였으며, 난한에게 의탁한 그는 얼마 후 용성의 외저(外邸)에서 시해되고 말았다. 난한은 이어서 태자 모용책과 후연의 왕공경사(王公卿士) 100여 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대도독·대장군·대선우(大單于)·창여왕(昌黎王)이라 칭했으며, 청룡(靑龍)으로 개원하고 문무백관을 두었다. 단속골 등이 반란을 일으켜 혼란한 때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후연의 황제 및 태자 그리고 왕공백관을 살해한 그가 비록 창여왕 등을 칭했다손 치더라도 후연의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여승이 살해되기 전 “너희들은 지금 감히 찬역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것이 천지의 바람에 부합할 수 없다. 보아하니 곧 도멸(屠滅)될 것으로 다만 내 손수 너희들을 제거하지 못해 한스럽다”⁸⁹라고 한 언급을 통해서도, 그리

89 『자치통감』 권110, 진기32, 안제릉안2년(398)조, 3469쪽, “… 今乃敢謀篡逆, 此天地所不容, 計旦暮即屠滅, 但恨我不得手膾汝曹耳!”

고 이후 난씨(蘭氏)정권이 패멸된 후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백성들은 이에 모두 기뻐했다(內外怙然, 士女咸悅)는 기록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모용보의 시해 소식을 접한 모용성은 자신의 구닐(舊昵)이었던 장진(張眞)의 반대를 물리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동시에 복수를 위해 용성으로 들어서는데, 이는 본인이 난한의 사위였던 관계⁹⁰로 난한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난한의 형 난제(蘭提(혹은 蘭堤))와 제 난난(蘭難(혹은 蘭加難)), 그리고 자 난목(蘭穆) 등이 나서서 모용성을 제거하여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간언했지만, 난한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시중·좌광록대부(左光祿大夫)에 임명하여 예전처럼 총애했다고 한다. 이때 모용성은 모용기(慕容奇)더러 건안(建安)에서 반란을 도모하도록 부추기고, 동시에 그의 반란이 난제와 관계된 것이라고 보고하여 난한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다. 얼마 후 이 일로 난제가 살해되자,⁹¹ 그들은 모두 위구(危懼)를 느낀 나머지 난한을 배신하기에 이르렀다(汗兄弟見提之誅, 莫不危懼, 皆阻兵背汗). 이에 모용성은 이한(李旱)·위쌍(衛雙)·유충(劉忠)·장호(張豪)·장진 등과 결모(結謀)하여 난한과 난목을 살해했으며, 이어서 영지(令支)와 백랑(白狼)에 주둔하고 있던 난화(蘭和)와 난양(蘭揚)을 습격하여 주살했는데, 이로써 약 2개월 정도 존속했던 난씨정권은 패망하고 말았다. 이어서 모용성은 태묘(太廟)에 난한 등을 제거한 사실을 고하고, 다음과 같이 하령한 것이다.

오조(五祖)의 복록과 문무의 힘에 의존하여 종묘·사직이 어둠을 벗고 새로운 밝음을 찾았다. 이는 한 개인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데, 부친의 원수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무릇 나의 백성들 모두 이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⁹²

90 『진서』 권124, 모용보재기, 3097쪽, “寶以汗垂之季舅, 盛又汗之壻也.”

91 난제의 피살과 관련해서 『진서·모용성재기』에는 “汗因發怒, 收提誅之”로, 『자치통감』에는 “堤·加難亡匿, 捕得, 斬之”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자를 취하였다.

호삼성에 의하면 오조는 모용섭귀(慕容涉歸)·모용외(慕容廆)·모용황(慕容皝)·모용준(慕容儁)·모용수(慕容垂)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들의 복록에 힘입어 난씨정권을 공멸하고 신 정권을 세운 것이라면, 모용성은 분명 이때 스스로 모용선비의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여긴 것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연황제에 등극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춰 장락왕(長樂王)의 신분으로 섭행통제(攝行統制)⁹³하기로 했으며, 이어서 모용근(慕容根)·위륜(衛倫)·열진(悅眞)·양철(陽哲)·장통(張通) 등을 각각 상서좌복야·상서·시중·중서감·중령군(中領軍) 등에 임명하였다. 혹자는 그가 연황제위에 곧바로 오르지 않은 것은 아마도 모용덕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본인 스스로 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⁹⁴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자신과 함께 난씨정권의 공멸에 동참하여 공을 세웠던 모용기가 얼마 후 모반을 도모하는데, 모용성은 친히 출병하여 이를 평정시킨다. 이때 군신(群臣)들이 나서서 모용성에게 연황제를 칭할 것을 청했으나, 그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가 장락왕으로 섭행통제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황대에서 후연의 재흥을 위해 전력하고 있던 모용덕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 본다. 사실 몇 개월 전 모용보는 모용덕에게 의존하기 위해 여양까지 남하한 후 조사를 보내 자신의 그런 의향을 드러낸 바 있었다. 이때 모여호는 모용덕의 의중에 맞춰 조사를 따라 복상하는데, 이는 겉으로는 모용보를 맞이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실은 그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⁹⁵ 이런 모습을 모용보 옆에

92 『자치통감』 권110, 진기32, 안제릉안 2년(398)조, 3472쪽, “(慕容盛)令曰:「賴五祖之休[胡注:五祖,謂慕容涉歸·廆·皝·儁·垂,凡五廟],文武之力,宗廟社稷幽而復顯,不獨孤以眇眇之身免不同天之責[胡注:禮記曰:父之讎不與共戴天],凡在臣民皆得明目當世.”

93 『자치통감』 권110, 진기32, 안제릉안 2년(398)조, 3472쪽. 섭행통제를 『진서·안제기』에는 攝天子位로, 『십육국춘추』에는 攝行統事로, 그리고 『태평어람』에서 인용한 최홍의 『십육국춘추』와 『진서·모용성재기』에는 稱制로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94 內田昌功, 2003, 앞의 글, 48下쪽.

서 직접 목격한 모용성이었다면, 당시 황하 이남에서 힘을 키우며 연황제위에 오를 뜻이 있었던 모용덕의 존재를 무시하기란 힘들었을 것이다.⁹⁶ 게다가 그는 자신의 숙조부였으며, 또한 종실집단의 대표로서 후연의 재흥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황제의 등극을 꺼렸던 모용성은 398년 10월⁹⁷에 이르러 군신들의 재추대를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연히 당시 모용덕이 맞닥뜨렸던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 모용화의 장사였던 이변이 일으킨 반란은 당시 모용덕과 그의 정권을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는데, 특히 이변은 동진과 대통하여 그들의 병사가 관성에 이르렀을 때 모용덕의 출병을 주장하고 그가 출병하면 후방에서 반란을 도모하려고까지 했었다. 사실 영삭장군(寧朔將軍) 등계방(鄧啓方)과 남양(南陽)태수 여구선(閻丘羨)은 이변의 계략에 호응해서 2만의 병사를 이끌고 관성까지 침입했던 것이다. 이때 모용법과 모용화는 출병하여 그들을 격퇴시키고는 있지만, 더 큰 위기에 빠질 모용씨 정권을 구할 수는 없었다. 즉, 모용덕이 부광의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활대를 떠난 사이, 이변은 모용화를 살해하고 그곳을 들어 북위의 화발(和跋)에 귀향했던 것이다.⁹⁸ 황하 이남의 일부가 북위에 의해 점령됐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논외로 하더라도, 모용덕은 세력 근거지를 잃었으며 후연의 재흥을 이루기도 전에 패멸의 늪에 빠져버렸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소식이 용성에 있던 모용성에게 전달

95 『십육국춘추』 권63, 남연록1, 모용덕전, 840下쪽, “德流涕, 遣護, 護率壯士數百, 隨思而北, 聲言迎衛, 實謀弑之.”

96 內田昌功, 2003, 앞의 글, 48下쪽.

97 『태평어람』 권125, 편패부9, 후연모용성, 607上쪽. 모용성이 398년 10월에 연황제를 칭했다는 기록과 달리 『진서·안제기』에는 “[隆安二年(398) 8월] 丙戌, 慕容盛僭即皇帝位於黃龍”으로 기록하여 차이를 보인다.

98 『자치통감』 권111, 진기33, 안제릉안 3년(399)조, 3489쪽, “辯乃開門內跋, 跋悉收德宮人府庫. 德遣兵擊跋, 跋逆擊, 破之, 又破德將桂陽王鎮, 俘獲千餘人. 陳·潁之民多附於魏.”

됐다면, 모용덕과 그의 정권은 후연의 재흥을 이루기는커녕 이젠 남·북방의 모든 모용선비에게 아무런 희망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용성이 연황제를 칭한 진짜 이유이며, 그리고 모용선비(후연)의 재흥에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는 다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듯 이후의 역사전개는 모용덕과 그의 정권에게는 전화위복의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남·북방의 모든 모용선비에게는 재차 희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모용덕은 비교적 순조롭게 청제지역으로 들어섰으며, 광고에 세력 근거지를 새롭게 둘 수 있었고, 그해 8월 그곳에서 연황제위에 오른 후 모용선비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연을 건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용성에게 자신이 남·북방의 모든 모용선비를 대표해서 연황제의 조령을 시행한다고 알리고 있다. 이때 모용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는 그 후 4개월이 지난 400년 정월 그가 황제지호를 버리고 서민천왕으로 강호(降號)했음을 알게 된다.⁹⁹ 후연이 북위의 공세로 영토가 남북으로 분열된 후, 모용성은 모용덕의 칭제에 영향을 받아 연황제가 둘로 병립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주장이 있는 것¹⁰⁰처럼, 모용성은 스스로 남·북방 모용선비를 대표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닌 모용덕이며, 남연은 후연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조임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모용선비의 분열 이후 요방으로 떠났던 후연의 잔여세력과는 달리 중국 내지에 남았던 세력집단이 모용덕을 중심으로 남연을 건국했으며, 이 모용

99 内田昌功, 2008, 「東晉十六國における皇帝と天王」, 『史朋』 41, 5上쪽. 후자는 오호왕조에서 天王號는 그 사용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모용성은 남연황제 모용덕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천왕호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王의 의미를 가진 天王이다. 남연에 대해서 그러했다면, 후연 잔여세력의 내부적으로 천왕호는 한 왕조의 君主로서의 天王을 가리킨다. 이렇게 서민천왕에 내포된 양면성은 이념적으로 ‘燕’이라는 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북위에 의해 영토가 유린되면서 나타나게 된 이중성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内田昌功, 2008, 위의 글, 12上쪽).

100 内田昌功, 2003, 앞의 글, 48上~48下쪽.

씨 왕조는 전연-서연-후연으로 이어지는 모용선비의 정통성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우리는 참합과 전쟁 이후 모용선비는 어떻게 남북으로 분열됐으며, 그 와중에 그 정통성의 향배는 어떠했고, 또한 모용보 사후 모용덕은 어떤 역경과 곤란을 극복하고 그 정통성을 계승한 남연을 건국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연 때부터 모용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모용덕은 이후 그를 도와 후연의 건국, 그리고 그 세력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혁혁한 전공을 쌓아 모용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특히 대다수 장수들의 결사적인 반대가 있었음에도 서연에 대한 군사정벌을 감행한 것은 모용덕의 간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을 멸한 후연은 비로소 전연의 정통성을 장악한 왕조로, 동시에 북중국 동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모용씨의 제국을 건설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었을 모용수의 마음속에 한 응어리로 남은 것은 다름 아닌 용약한 태자 모용보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의 후연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을가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는 특히 대북에서 힘을 키우며 성장한 북위가 자신들을 크게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희의 나이에 이른 노구에도 불구하고 모용수는 그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않고서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여기게 된다. 모용보를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해서 그들에 대한 군사정벌을 감행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연히 승리를 예상했으므로 모용보가 정치군사적인 권위를 갖고 다스릴 후연은 자신의 때와 마찬가지로 북중국의 패자로 남을 것으로 확신했었다. 하지만 모용수 본인의 자만과 무계획이 모든 걸 망쳐놓고 말았다. 후연은 패배 이후 빠르게 쇠퇴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그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출병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으며, 그 후 모용보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

항제에 등극하여 후연을 통치하게 되었다. 모용보의 앞에 불거진 적잖은 정치문제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벅찬 것들이었으며, 특히 곧 밀어닥칠 북위의 대대적인 반격은 왕조의 존망까지도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당시 모용덕은 업성에 진수하며 후연의 남쪽 강역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모용수의 유언에 의한 것이었다. 게다가 업성에 두었던 유대를 폐지하면서까지 그의 권한을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후연의 재흥을 바라는 모용수의 분부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듯 모용덕은 이에 근거해서 이후 남연을 건국하게 된다.

사실 북위의 공세는 예상외로 매서웠으며 수도 중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그들에 의해 점령됐고, 또한 후연을 배반하고 그들에게 귀항한 자들 역시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업성의 상황도 결코 녹록지만은 않았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 당시의 위기상황을 모용덕이 스스로 이겨냈다고보다는 주위의 상황이 그에게 유리하게 전환됐던 것이다. 이를테면 업성을 공격하러 왔던 북위의 군대 내부에서 분열이 있는 후 그들 스스로 퇴각한 것, 후진의 요흥이 유조의 편으로 옥새일뉴와 도참비문을 보내 북위와의 결전을 독려한 것, 더욱이 당시 업성의 백성들은 모용덕이 후연을 재흥시킬 것으로 믿고 요언을 부른 것 등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주위의 상황이 모용덕과 그의 속관들을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무시켰을 것은 분명한데, 특히 모용보가 중산을 버리고 북으로 도주한 지 이미 오래됐으며, 모용상이 연황제를 참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적잖은 친연세력들은 모용덕이 그들을 대신해서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용덕에게 연황제에 등극할 것을 청했으나 그는 모용보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고사하고 있다. 얼마 후 모용린이 업성으로 들어와 황하 이남의 활대로 이동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라고 권했으며, 그의 진언 중에서 보이는 ‘가일거이취지’는 바로 모용덕이 이후 후연의 재흥을 이룰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398년 초 천신만고 끝에 모용덕은 4만여 호의 무리를 이끌고 활대에 도착한다. 곧이어 그는 모용린 등 98명의 추대로 비록 연황제는 아니지만 연왕위에

올라 이통부행제제하는 모용씨 정권을 세울 수 있었다. 이 정권은 전적으로 모용수가 일찍이 흥복대연을 완수하기 위해 취했던 통치체제를 모방한 것으로 호삼성은 이를 통부로 명명한 바 있다. 필자는 이 정권을 모용씨의 정통왕조 남연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당시 모용덕이 확실히 자신의 근거지를 갖지 못했고, 용견한 병사들을 다수 보유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행정력이 미치는 강역과 그 안에서 삶을 영유하는 백성들을 다수 편호화시키지 못한 사실들에 주목했으며, 특히 모용보에게 신자의 도리를 다하고 있던 그가 스스로 이를 부인하면서까지 자립의 의지를 취하기 곤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래서 연왕을 칭한 모용덕이 북으로 이주한 후연의 잔여세력과 구별된 모용씨 정권을 세운 것은 승제 남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위로 이해하고 싶은 것이다. 이후 모용보가 직접 남하하여 모용덕에게 본인을 맞이하라는 전갈을 전달했을 때, 그가 자신의 연왕 칭호가 모용보의 빈자리를 대신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변명한 것이나, 그의 속관들과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던 중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며 주저한 것과 같은 행위는 비록 그의 본심에서 나온 게 아닐지라도 모용보의 생존 여부는 결국 모용씨 정통왕조의 건국유무와 직접 관계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모용보는 후연의 합법적인 적통을 이었기 때문이며,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서는 모든 모용선비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모용씨 정권을 그들의 정통왕조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398년 5월 모용보가 난한에 의해 살해된 후 후연의 잔여세력은 구심점을 잃은 채 큰 혼란에 빠진다. 같은 해 8월 모용보의 서장자이며 난한의 사위이기도 했던 모용성이 난씨정권을 공멸한 후 권력을 장악하지만, 그는 곧바로 연황제위에 오르지 않고 장락왕으로 섭행통제하고 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아마도 당시 활대에서 후연 재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분전하고 있던 자신의 숙조부 모용덕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모용덕과 그의 정권은 이번의 반란으로 회복불능의 위기를 맞게 되고, 모용덕이 부광의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활대를 비운 사이 이번은 북위의 화발을 맞이하여 귀향했던 것이다. 부광의 반란은 제압됐으나, 근거지를 잃은 모용덕은 일단 병사를 보내 활대를 공격했으나

패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 모용덕은 보다 안정적으로 힘을 키울 수 있는 요충지 및 그 배후지역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바로 그때 반총과 승랑은 광고를 세력 근거지로, 그리고 청제지역을 그 배후로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모용덕이 겪었던 이런 사정을 전해 들었을 모용성은 스스로 연황제위에 올라 자신이 모용선비의 재흥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을 수도 있었다. 이것이 모용성이 일전의 연황제의 등극을 꺼리다가 지금에 와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진짜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모용덕은 반총·승랑의 계획에 따라 청제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이 지역의 호강과 백성들에게 기꺼이 자신이 협력자로 들어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서연지사 10여 만과 그 이북의 백성 4만여 명이 앞다퉈 귀항했다고 한다. 귀항을 거부하며 광고에 응거하고 있던 벽려혼은 결국 살해되고 말았다. 이렇게 광고를 차지한 모용덕은 비로소 연황제에 등극한 후 건평으로 개원했으며, 모용씨의 행모를 세우고 황제지제의 관직을 설치하는 등 모용씨의 정통왕조를 건국하였다. 나아가 모용성에게 사신을 보내 지금부터 자신이 연황제의 조령을 시행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당시 모용성의 고민은 깊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모용선비의 강역이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연황제가 둘로 병립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서민천왕으로 강호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의 이런 행동은 그가 스스로 남·북방 모용선비를 대표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닌 모용덕이며, 남연은 모용선비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조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남연은 전연-서연-후연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정통성을 계승해서 건국된 것이었다.

참고문헌

사료

『魏書』·『資治通鑑』·『晉書』·『後漢書』(北京: 中華書局에서 출판된 標點校勘本을 이용함).

顧祖禹, 1937, 『讀史方輿紀要』, 上海: 商務印書館國學基本叢書本.

李昉, 1998, 『太平御覽』, 北京: 中華書局影印本.

崔鴻, 1986, 『十六國春秋』, 臺北: 文淵閣四庫全書463冊, 臺灣商務印書館影印本.

湯球, 1936, 『十六國春秋輯補』, 上海: 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

洪亮吉, 1936, 『十六國疆域志』, 上海: 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

단행본

지배선, 1998, 『中世 中國史 研究-慕容燕과 北燕史』, 연세대학교 출판부.

三崎良章, 2006, 『五胡十六國の基礎的研究』, 東京: 汲古書院.

논문

이춘호, 2012, 「五胡時期 關中燕人の ‘復燕’과 그 性格-慕容西燕의 건국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35.

——, 2019, 「4세기말 後燕·北魏의 관계변화와 參合陂 전쟁의 발생원인-高湖의 進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47.

——, 2022, 「모용선비의 계성시대와 하북지역」, 『동북아역사논총』 76.

지배선, 1990, 「慕容德과 南燕」, 『중국학보』 13.

——, 1992, 「南燕에 대하여-慕容德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75.

——, 1994, 「南燕과 慕容超」, 『역사학보』 142.

魏斌, 2005, 「公孫五樓家族與南燕政治」,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1.

劉玉山·劉偉航, 2007, 「十六國時期慕容西燕·後燕幾個問題的再檢討」, 『東南文化』 1.

- 李寶壘·劉光輝, 2018, 「青州南燕歷史遺存及影響研究」, 『東方考古』第15集.
- 李森, 1996a, 「南燕廣固城的調查與研究」, 『濰坊教育學院學報』2.
- _____, 1996b, 「南燕廣固城的調查與研究(續)」, 『濰坊教育學院學報』3.
- _____, 2005, 「南燕史考論」, 『廣西社會科學』9.
- 李椿浩, 2016, 「試論4世紀末北魏·後燕間北中國的爭奪戰」, 董劭偉 主編, 『中華歷史與傳統文化研究論叢』第2輯,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海葉, 2011, 「慕容氏龍城歸葬習俗與民族融合」, 『內蒙古師範大學學報』3.
- J. 霍爾姆格林 著, 謝萌珍 譯, 1993, 「論南燕政權的建立與滅亡」, 『國外社會科學』11.
- 趙凱球, 1886, 「南燕史鉤沉」, 『中州學刊』2.
- 內田昌功, 2003, 「十六國時代における諸燕の關係」, 『北大史學』43.
- _____, 2008, 「東晉十六國における皇帝と天王」, 『史朋』41.
- 鈴木桂, 2000, 「五胡十六國時代に關する諸史料の紀年矛盾とその成因-唐修『晉書』載記を中心として」, 『史料批判研究』4.

모용선비(慕容鮮卑)의 정통성 계승과 남연(南燕)의 건국

이춘호

이 글에서 필자는 4세기 후반 모용선비의 정통성이 어떻게 남연에 의해 계승됐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남연의 개국군주 모용덕(336~405)은 실로 질풍노도의 인생을 살았다. 34세에 고국 전연의 멸망을 목도했고, 이어서 적국 전진에서 10여 년간 나라 잃은 생활을 보냈으며, 지천명의 나이에 형 모용수를 도와 흥복 대연을 완수하고 후연을 건국한 것이다. 이후 후연은 서연을 멸한 후 비로소 모용선비의 정통성을 확보했지만 북위와 겨룬 참합피의 전쟁에서 패한 후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면 그 후 그들의 정통성은 어떻게 된 것일까? 당시 북쪽 용성으로 물러난 후연의 잔여세력과 달리 남쪽의 업성을 지켰던 모용덕은 자신을 믿고 따랐던 자들을 이끌고 황하 이남의 활대로 이동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그가 그곳에서 연왕부를 권력의 핵심으로 한 이통부행제제를 실시하는데, 이는 보다 효과적으로 승제납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모용씨 왕조가 아닌 정권의 수립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확실한 세력 근거지도, 그 휘하에 용건한 병사들도, 더욱이 행정력이 미치는 강역과 그 안에서 삶을 영유하는 다수의 백성들을 편호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용보에게 신자의 도리를 다하

고 있던 모용덕이 이를 부인하면서까지 자립을 쟁취하고 모용씨 왕조를 건국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모용보가 시해된 후 후연의 잔여세력은 모용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결집하는데, 난씨정권을 공멸한 그는 곧바로 연황제위에 오르지 않고 장락왕의 신분으로 섭행통제하였다. 이는 당시 활대에서 모용선비의 재흥을 위해 분전하고 있던 모용덕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용덕이 이후 이변의 반란으로 회복 불능의 위기상황에 처하자, 이런 위난을 알았던 모용성은 이때 스스로 연황제위에 올라 후연의 재흥을 완수하겠노라 다짐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일전에 연황제의 등극을 꺼렸으나 이제 와서 기꺼이 이를 받아들인 진짜 이유였던 것이라. 여하튼 활대를 잃은 후 보다 안정적으로 힘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요충지와 그 배후를 확보해야만 했던 모용덕은 결국 반충과 승랑의 계책에 따라 청제지역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그가 정복자가 아닌 협력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자 14만 이상의 서연지사와 그 백성들이 앞다퉈 귀항했다고 한다. 하지만 귀항을 거부하며 저항한 자들도 있었는데, 광고에 응거했던 벽려혼이 그런 인물이었다. 이후 광고를 차지한 모용덕은 연황제에 등극한 후 모용씨의 행묘를 세우고 황제지제의 관직을 설치하는 등 비로소 모용씨 왕조를 건국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남연(399~410)이다. 이때 특히 주목되는 사건은 모용덕이 모용성에게 사람을 보내 지금부터 자신이 연황제의 조령을 시행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소식에 모용성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모용선비의 강역이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연황제가 둘로 나뉘어 대립하는 형국을 피하고 그 상징적인 통일을 위해 서민천왕으로 강호하기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이는 모용성 스스로 남·북방 모용선비를 대표하는 인물은 모용덕이며, 남연은 모용선비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조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남연은 전연-서연-후연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정통성을 계승해서 건국된 왕조였던 것이다.

주제어: 모용선비, 남연, 정통성, 모용덕, 업성, 활대, 광고

ABSTRACT

The Inheritance of Murong Xianbei' Orthodoxy and the Founding of the Southern Yan

Lee Chunho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heriting Murong Xianbei' orthodoxy and the founding of the southern Yan at the end of the fourth century. It is understood that the later Yan conquered the western Yan in 394 A.D, has gained to control Murong Xianbei(referring to the former Yan)' orthodoxy. But after being defeated by the northern Wei, the later Yan began to decline. So, what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inheriting Murong Xianbei' orthodoxy in the future? At that time, Murong De, who is differed from Murong Bao(referring to the residual forces of the later Yan), lead his own troops to HuaTai city, to seek new development. Afterwards, he established the king of Yan's government in HuaTai city, implemented the imperial system. I think it isn't the founding of the southern Yan, but it only refer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urong regime. There are because that Murong De didn't ensure a

stronghold, didn't have strong soldiers, didn't have vast territories, and didn't have a large population. In addition, after Murong Bao was killed, Murong Sheng, who is his son, gained the great power. But he didn't ascend to the throne, ruled over the people as the king of Changle. Because he learned Murong De is restoring the Murong Xianbei' power in HuaTai city at that time. But, we found that Li Bian was rebelled, Murong De fell into a predicament. After hearing this news, Murong Sheng decided to ascend to the throne, and wanted to achieve the revival of Murong Xianbei himself. This is the true reason why he used to be unwilling to ascend to the throne, but now he is willing to do so. At that time, Murong De accepted the advice of Fan Cong and Monk Lang, decided to enter the QingQi region. We found that 140000 local people were surrendered. After Murong De captured GuangGu city, he ascended to the throne of Yan emperor, and established the Murong temple, finally found the Murong empire. It is the southern Yan(399-410). I think one thing worth noting. It is that Murong De, who sent someone to Murong Sheng, wants to implement the orders of Yan emperor. I guess Murong Sheng was certainly hesitant, but finally approved Murong De was the Yan emperor. So, he called himself the heavenly king of ShuMin. Therefore, the southern Yan, has inherited the former Yan' orthodoxy-the western Yan' orthodoxy-the later Yan' orthodoxy, was a dynasty that controlled Murong Xianbei' orthodoxy.

Keywords: Murong Xianbei, the southern Yan, the Murong Xianbei's orthodoxy, Murong De, Ye city, HuaTai city, GuangGu cit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대 가경 연간 송균(松筠)의 티베트 정책구상

— 『서초도략(西招圖略)』을 중심으로

송인주 | 서강대학교 디지털역사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II. 송균의 『서초도략(西招圖略)』 집필 배경과 목적

III. 『서초도략』에 드러난 송균의 티베트 정세 인식

IV. 송균의 고민: 청조의 티베트 정책 계승과 변화의 사이에서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송균(松筠, 만주어: songiyūn, 1752~1835)은 청조의 건륭·가경·도광 시기에 주장대신(駐藏大臣)·일리장군(伊犁將軍) 등 변경 지역 관료로 파견되어, 청조 변경의 최전선에서 변경 사무의 전문가로 활약한 인물이다. 그가 생존하던 19세기 초반은 청조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었다. 건륭 22년 준가르와 위구르를 평정한 이후, 청조는 판도를 확장하는 단계에서, 확장된 판도를 항구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19세기 초부터 청조는 영국과 러시아로부터 신강·몽골과 티베트 변경에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송균은 변경으로부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무렵인 가경 연간 신강과 티베트에 파견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청조의 변경 정책 방향을 대변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가경~도광 연간은 흔히 청조가 쇠락해 가는 암흑기로 인식되고, 내부의 반란과 외부의 도전 앞에서 청조의 무능과 무기력이 드러나는 시기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학계와 구미학계에서는 가경 연간의 제도개혁에 주목하고 있다.¹ 청대 변경사의 부문에서도 가경 연간 신강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 투고: 2024년 7월 2일, 심사 완료: 2024년 8월 7일, 게재 확정: 2024년 8월 13일

- 1 중국학계에서는 가경 시기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최근 들어 이 시기에 일어난 다양한 변혁에 대해서 ‘가경 유신(嘉慶維新)’, ‘가경 신정(嘉慶新政)’으로 부르며 주목하고 있고(滕德永, 2015, 嘉庆朝內务府人參变价制度的新变化, 『吉林师范大学学报』; 罗威廉, 2012, 「乾嘉变革在清史上的重要性」, 『清史研究』 3; 李喆, 2006, 「論嘉慶帝對軍隊的整肅」, 內蒙古大學碩士學位論文). 최근 미국학계에서도 가경 연간의 섬서-호북-사천 지역의 백련교의 난과 중국 남부 해안의 해적 문제 등 내란과 변경의 위기 속에서 청조가 어떻게 개혁 정책을 펼쳤고 그것이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의 위협에 대한 청조의 대응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가 진행되었다(Daniel McMahon, 2015, *Rethinking the decline of China's Qing dynasty: imperial activism and borderland*

서의 청조의 변경 정책에 주목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² 그러한 가정 연간 청조의 변경 연구에서 송군이라는 인물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송군에 대한 연구는 아직 한국학계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송군을 주목하였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³ 그 중에서도 송군의 변경 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송군의 이리장군 시기 신강 정책,⁴ 송군과 서북사지학의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연구⁵들은 송군의 신강에 대한 정책이 이후 청말의 서북 변방(邊防)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송군의 티베트 정책구상도 송군의 변경 정책과 더 나아가서 가정 연간 청조의 변경 정책의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송군이 본격적으로 변경 전문 관료로서 자신의 변경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도 건륭 59년에서 가정 4년까지 5년간 주장대신을 역임할 때였다. 또한 송군이 티베트에 부임한 시기

management at the turn of the nineteenth century, Routledge; Wensheng Wang, 2021, *White Lotus Rebels and South China Pirates*, Harvard).

- 2 가정 연간 변경 정책에서 주목되는 주제는 청조와 카자흐 유목민과의 관계 변화이다. 이에 대해서는 小沼孝博, 2014, 『清と中央アジア草原: 遊牧民の世界から帝國の邊境へ』, 東京大學出版會; Jin Noda, 2016, *The Kazakh khanates between the Russian and Qing empires: central Eur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Leiden: Brill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 3 2006년까지의 송군 관련 연구 현황에 대해 밝힌 것은 牛小燕, 2006, 「松筠研究狀況」, 『文教資料』가 있다.
- 4 송군의 이리장군 재임 시기 행적과 그가 이리장군 시절 찬술한 『欽定新疆識略』에 대한 연구는 李敏, 2009, 「論清代伊犁將軍松筠」, 『伊犁師範學院學報』; 裴紅萍, 2007, 「嘉慶朝新疆“玉努斯案”」, 『中國邊疆史地研究』; 呂玉良, 2001, 「松筠及其《欽定新疆識略》給我們的啟迪」, 『中國地方志』 등이 있다.
- 5 송군이 청말 서북사지학 연구에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賈建飛, 2004, 「論松筠與晚清西北史地學的興起」, 『中國邊疆史地研究』 14를 참조할 것. 또한 청말 ‘서북사지학’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최희재, 2015, 「清 嘉慶道光期 西北史地學 연구의 역사적 의의」, 『역사문화연구』 53; 賈建飛, 2010, 『清代西北史地學研究』, 新疆人民出版社 등이 있다.

역시 건륭 말기 변경에서 청조 지배의 이완현상이 시작되었고, 대외적으로는 당시 인도를 병합한 영국이 티베트와 깊이 관련된 구르카·부탄·시킴 방면으로 진출하는 한편 나아가서는 티베트 진출까지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⁶ 즉, 이 시기는 청조와 티베트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향후 청조의 티베트 정책이 결정될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연간 송군의 티베트 정책 구상을 살펴보는 것은 송군의 전반적인 변경 정책 구상뿐만이 아니라, 19세기를 맞는 청조의 변경 정책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송군의 티베트 통치 구상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중국의 다수빈(達素彬)과 일본의 히라노 사토시(平野聰)의 연구가 있다. 다수빈의 연구는 송군의 주장대신 재임 시기 활동을 분석하여 크게 풍속개혁, 경제 정책, 변경 방위 강화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총체적인 연구이다.⁷ 히라노의 연구는 청조의 다민족 통합 국가적인 성격에서 19세기 청조의 티베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갔는지 연구하면서 송군의 자치론(自治論)에 대해 논하고 있다.⁸

두 연구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송군을 비롯한 가정 시기 청조의 지도층들이 갖고 있던 티베트 자치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티베트 등 번부(藩部)에 대한 ‘자치’가 19세기 청조의 번부에 대한 ‘주권’의 방기(放棄)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청조의 ‘자치’ 정책이 과연 근대적 개념의 ‘주권’의 방기와 연결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과연 송군을 비롯한 19세기 청조의 지도층들이 청조의 변경 지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티베트에 대한 지배가 약화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6 19세기 영국의 티베트 진출 과정에 대해서는 Julie G. Marshall, 2005, *Britain and Tibet: 1745-1947*, Routledge를 참조할 것.

7 達素彬, 1990, 「松筠治藏研究」, 中國人民大學博士學位論文.

8 平野聰, 2004, 『清帝國とチベット問題：多民族統合の成立と瓦解』, 名古屋大學出版會.

이 글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송균의 티베트 정책 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송균은 티베트에 부임한 기간 동안 많은 시문을 남기고 자신의 티베트 경험을 바탕으로 『서초도략(西招圖略)』을 서술하였다. 『서초도략』은 송균의 당시 티베트 정세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방향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송균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변경 정책 구상을 드러낸 첫 저작인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초도략』을 통해서 송균의 티베트 정세 인식과 티베트 정책 구상 방향에 대해 고찰하면서, 가정시기 청조의 티베트 정책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송균의 『서초도략(西招圖略)』 집필 배경과 목적

송균은 『청사고(淸史稿)』 「송균열전(松筠列傳)」에 의하면, 정람기 몽골(正藍旗 蒙古) 출신 기인(旗人)으로, 마라트(man, Marat, 瑪拉特) 씨이고 자(字)는 상포(湘圃)이다.⁹ 건륭 연간 당시가 되면 만주 기인과 몽골 기인 중에서도 상당히 문장에 능통한 관료가 다수 등장하였고 송균 역시 그러한 몽골 기인 관료 중 하나였다.¹⁰ 그는 만주어, 몽골어, 한어에 능통한 편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번역생원(繙譯生員)으로 급제하여, 이번원(理藩院)의 필첩식(筆帖式)으로 처음 관직에 입문하였다. 이번원의 필첩식은 대체로 이번원이 관할하는 몽골, 티베트, 러시아와의 외교 문서를 관장하는 직위이기 때문에,¹¹ 송균은 관직 생활의 시작부

9 『淸史稿』 342, 「松筠列傳」, “松筠, 字湘浦, 瑪拉特氏, 蒙古正藍旗人.”

10 청대 몽골 기인의 실상과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는 村上信明, 2007, 『淸朝の蒙古旗人－その実像と帝国統治における役割－』, 風響社; 承志, 2009, 『ダイチン・グルンとその時代: 帝国の形成と八旗社会』, 名古屋大学出版會, 450~518쪽을 참조할 것. 특히 承志의 경우, 송균을 비롯한 몽골 기인 출신 문인들을 ‘문아(文雅)한 몽골인’으로 표현하여 건륭 연간 이후 몽골 기인 출신 관료들의 문학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11 筆帖式은 몽골어로 서기를 의미하는 ‘비테치(bitheci)’에서 유래했고, 만주어로 ‘비

터, 번부(藩部)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문을 맡게 되었고 건륭 후반기부터 ‘변경 전문가’로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송균이 변경전문가로서 본격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된 것은 1785년(건륭 50년) 러시아와의 무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몽골의 후례(庫倫, 현재의 몽골국 울란바토르)로 파견될 때부터였다. 러시아 속하의 부리야트(Buriyat, 布哩雅特)인들이 몽골 후례(庫倫)의 상인들을 죽이고 약탈한 것이 문제가 되어, 청측이 러시아와의 호시(互市)를 중단하게 되었다. 또한 이 무렵 러시아가 청에 복속한 토르구트 부(部)를 꺾어낸다는 잘못된 소문이 돌면서, 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감은 높아졌다. 이에 송균은 후례판사대신(庫倫判事大臣)이 되어 러시아 측에 격문을 보내 부리야트 인을 압송케 하고, 토르구트 관련 소문이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두 문제의 해결로 청과 러시아의 관계가 호전되었고 1792년(건륭 57), 잠시 중단되었던 청-러 호시가 재개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송균은 어전시위(御前侍衛)·내무부대신(內務府大臣)·군기대신(軍機大臣)으로 제수되었다.¹²⁾

송균이 주장대신으로 티베트에 파견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794년(건

트허시(bithesi)’라고 하며, 만주·몽골 관학생들의 경우, 번역 능력을 고시하여 從八品 筆帖式으로 기용하였다(『清史稿』 110, 「選舉志」 5). 筆帖式은 청조 대부분의 아문에 배속되었는데, 理藩院의 경우, 滿洲旗人 32명, 蒙古旗人 54명, 漢軍八旗 6명, 총 91명의 筆帖式으로 구성되어 있었다(『清史稿』 115, 「職官志」 2).

- 12) 이 일에 대한 『청사고』 「송균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五十年, 命往庫倫治俄羅斯貿易事. 先是, 俄屬布哩雅特人劫掠庫倫商貨, 俄官不依例交犯, 僅罰償, 流之遠地, 檄問未聽命, 詔停恰克圖貿易. 松筠至, 尋充辦事大臣. 閉關後, 邊禁嚴而不擾, 遇俄人皆開誠待之. 擢戶部侍郎. 俄羅斯以貿易久停, 有悔意, 撤舊官, 屢請開市, 未許. 卡倫兵出巡, 復為布哩雅特人所殺. 松筠曰: 「舊事未了, 又生旁支, 然亦了事之機也.」 檄俄官縛送三人, 親訊於界上, 斬其二, 流其一, 請兩案併結. 詔斥專擅, 褫職, 仍留庫倫效力. 會西路土爾扈特喇嘛薩邁林者, 迷路入哈薩克, 歸攜書信, 訛言俄人誘致土爾扈特謀亂, 下松筠察狀. 疏言俄羅斯實恭順, 無可疑. 俄人亦自陳證薩邁林書信出偽造. 詔置薩邁林於法, 許復開市. 五十七年, 召俄官會議定約, 親蒞俄帳宴飲, 諭以恩信, 大悅服. 事歷八年然後定. 召還京, 授御前侍衛, 內務府大臣, 軍機大臣.”(『清史稿』 342, 「松筠列傳」)

룡 59)이었다. 그것은 건륭 말년에 청조와 티베트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청조는 티베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존재하고 있었고, 건륭제는 송균이 이러한 임무를 맡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주장대신으로 발탁하여 파견한 것이다. 이것은 이 글에서 다룰 『서초도략』 집필의 배경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다.

청조의 변경정책에서 티베트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16세기 이후 몽골 지역에서 티베트 불교가 확산되면서,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인들뿐만 아니라 몽골인들의 신앙에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청조 정권을 성립시키고 지배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만주인들에게 몽골 초원을 비롯한 내륙아시아를 통합하는 일은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였고, 만주인들은 내륙아시아 지역을 통합하기 위하여 티베트 불교를 포섭하고 활용하였다. 특히 강희 연간부터 티베트를 두고 서부 몽골 오이라트의 준가르와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청조의 변경 문제에서 티베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청조와 티베트의 관계는 종교적인 외양을 띤 독특한 관계였다. 청조의 황제는 문수보살의 화신이자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보호자, 시주가 되었다. 청조 황제의 경제적 시주와 군사적 보호를 받는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는 자의든 타의든 청조 황제가 몽골과 티베트의 지배자라는 것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청조 황제와 달라이라마·판첸라마가 갖는 독특한 관계는 청조 이전에 이미 몽골의 쿠빌라이 칸과 사카파 승려들의 관계에서도 엿보이는 것으로, 이를 ‘최원’관계라고 부른다.¹³ 청조 황제 역시 쿠빌라이와 마찬가지로 달라이라마·판첸라마와 최원관계를 맺으면서, 몽골과 티베트 일대에서 군사적·정신적인 세계 중심이 되고자 한 것이다.

건륭제는 청조의 역대 황제들 중에서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진 황제 중 하나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티베트어를 학습

13 김한규, 2003,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혜안, 119~120쪽.

하였고, 피서산장(避暑山莊)이 있는 열하(熱河)에 외팔묘(外八廟)라고 불리는 8개의 티베트 불교 사원을 건설하여,¹⁴ 그의 칠순 만수절에는 판첸라마를 초청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문수보살(文殊菩薩)로 묘사한 티베트 불교 탕화(탕카)를 몇 점 제작하였다.¹⁵ 그러한 건륭제의 티베트 불교와 관련된 일련의 정치적 행위는 그가 티베트 불교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남다른 것에서도 기인하지만, 청조가 티베트 불교의 유일한 보호자임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몽골과 티베트 지역의 합법적인 통치자임을 드러내려는 정치적 포석이었다.

그러한 문화·사상적인 정통성 확보와 함께 건륭제는 군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티베트 지역과 주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천과 티베트의 접경에 위치한 대금천(大金川), 소금천(小金川)에 대한 작전과 구르카와의 2차례 전쟁이었다. 대·소금천 지역은 본래 원주민 토사(土司)들이 다스리던 지역으로, 이들 다수는 티베트 겐룩파 불교가 아닌 티베트 토착 신앙인 본교를 믿고 있었고, 청조의 통치에 대해서도 자주 반발을 일으켰다. 건륭제는 사교(邪教)인 본교를 징벌하고 불법을 수호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이들에 대한 진압과 지배 강화를 단행하였다.¹⁶ 또한 1769년 네팔 전역을 통일한 구르카 부가

-
- 14 청대 열하(승덕)의 정치, 문화적 의미와 외팔묘 건설에 대해서는 James A. Millward, ed., 2004,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Routledge를 참조할 것.
- 15 건륭제와 티베트 불교의 관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石濱裕美子, 2011, 『清朝とチベット仏教: 菩薩王となった乾隆帝』, 早稲田大学出版部 등이 있다. 또한 Patricia Berger는 청대 제작된 티베트 불교 미술 작품들을 분석하여 청 황실과 티베트의 정치적 관계를 파악하였다(Patricia Berger, 2003, *Empire of Emptiness: Buddhist and Political Authority in Qing China*, University of Hawai'i Press).
- 16 건륭 연간 대·소금천 전쟁과 사천 서부, 티베트 동부에 대한 지배 체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Joanna Waley-Cohen, 2013, *The culture of war in China: Empire and the military under the Qing Dynasty*, I.B.Tauris, pp. 48~65; 황유정, 2023, 「건륭 연간 金川戰役의 善後 처리와 清朝의 ‘邊境平定’-改土歸屯 및 笨黃共存의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등을 참조할 것.

1789년, 1791년 2차례 티베트 남부를 침입하여 판첸라마가 거주하는 타쉬룬포 사원에까지 육박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구르카 원정을 단행하였다. 대·소금천 전쟁과 구르카 전쟁에서 팔기가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구르카 원정에 은 1,052만 냥이 드는 등,¹⁷ 청조에게도 상당한 부담이었음에도 건륭제가 이 두 전쟁에 신경을 집중한 것은 대·소금천이나 구르카 원정을 통해 티베트에서 청조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륭제는 티베트에 대한 군사 원정을 여러 차례 단행하면서, 행정적으로 주장대신을 중심으로 하여 티베트에 대한 지배체제를 강화해나갔다. 본래 강희제는 준가르의 침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티베트에 군대를 진주시키고 1721년(강희 60) 5명의 카론(karon, 噶倫)을 두어 티베트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하였다. 하지만 1727년(옹정 5) 카론 아보파(阿爾布巴)가 청조에 반기를 들자, 옹정제는 다시 군대를 파견하여 반란을 진압하고 주장판사대신(駐藏判事大臣)을 처음으로 파견하여 티베트의 내정에 관여하게 되었다. 아울러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이 컸던 포하네(頗羅鼐)를 군왕(郡王)으로 봉하여, ‘장왕(藏王)’으로 티베트 정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포하네와 그의 아들 규메남꺈(珠爾墨特那木札)은 대를 이어 집정을 역임하였으나, 주장대신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1750년(건륭 15) 주장대신 푸칭(傅清)과 랍둔(拉布敦)이 규메남꺈를 살해하고 다시금 규메남꺈의 부하에 의해 살해되었다.¹⁸ 이에 건륭제는 달라이라마에 대한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반란을 진압하고, 1751년 티베트 측과 ‘서장선후장정(西藏先後章程)’을 체결하였다. 총 13개 조로 이루어진 이 장정(章程)의 핵심은 기존의 군왕(郡王) 봉작을 폐지하고 카샤(噶廈)라는 정부를 세워 승려 1인·속관 3인의 4카론을 두고 공동 집정을 하게하고, 주장대신 호위를 위한 군대가 티베트에 주둔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청조는 주장대신을 통해 티베트

17 김한규, 2003, 앞의 책, 133쪽.

18 18세기 청과 티베트의 정치적 관계와 포하네의 활동과 평가에 관해서는 김한웅, 2006, 「청 기록에 나타난 18세기 티벳 역사상의 비판-포하네 관련 청실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5집을 참조할 것.

에 대한 지배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¹⁹

건륭 53년(1788)과 56년(1791) 벌어진 구르카 정복전쟁을 계기로 청조는 다시 한번 주장대신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것을 규정한 것이 건륭 58년에 체결된 ‘장내선후장정(藏內先後章程)’이었다. 총 29개조로 이루어진 이 장정은 달라이라마의 전세영동(傳世靈童, 환생)을 확인할 때 청조 황제가 하사한 금병제침(金瓶掣籤)²⁰을 이용하고 주장대신이 이 과정에 참석할 것을 규정하면서 카론 등의 관리를 임명할 때 주장대신과 달라이라마가 협의할 것, 3천 규모의 티베트 상비군을 양성하여 그 절반은 주장대신 관할로 둘 것, 티베트의 대외사무는 주장대신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²¹ 이것은 청조가

19 옹정·건륭 연간 청조의 티베트 지배체제 확립 과정에 대해서는 김한규, 2003, 앞의 책, 131~132쪽을 참고할 것. 또한 옹정 시기의 청조의 티베트 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로 유정아, 2009, 「옹정년간(1723-1728) 티베트지배像에 대한 재고찰」, 『명청사연구』 31이 있다.

20 청조의 티베트 정책과 금병제침에 대해서는 Max Oidtmann, 2018, *Forging the Golden Urn: The Qing Empire and the Politics of Reincarnation in Tibet*, Columbia University Press를 참조할 것.

21 건륭 57년 체결된 ‘藏內先後章程’의 조항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달라이라마 등의 선출은 金瓶掣籤의 방식으로 주장대신의 감독하에 이루어짐, 2. 티베트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은 주장대신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할 것, 3. ‘乾隆寶藏’의 화폐 통용, 4. 3천 명 티베트 군대 양성, 5. 군대 편제 규정, 6. 병량 조달 규정, 7. 군대 장비 규정, 8. 달라이라마·판첸라마의 수입·지출은 주장대신의 감호를 받음, 9. 티베트 각지 차역 규정, 10. 주장대신은 달라이라마·판첸라마와 협의하여 티베트 사무를 처리할 것, 11. 카론 등 관료조직 보임 규정, 12. 달라이라마·판첸라마의 친속의 정치간여 금지, 13. 주장대신의 순시규정, 14. 티베트 대외 사무는 주장대신의 비준을 거칠 것, 15. 티베트와 구르카의 경계에 비석을 세워 표시할 것, 16. 티베트 변경 군대 무변의 교대 규정, 17. 사병의 승진 문제, 18. 하급 관료 선발 규정, 19. 티베트 정부의 수세 규정, 20. 미곡, 염세 등 과세 규정, 21. 차역 면역 규정, 22. 달라이라마 관할 사원들의 라마의 명부는 주장대신이 감독할 것, 23. 청해 몽골 왕공이 티베트 활불을 영접할 때, 西寧大臣과 주장대신이 공조하여 감독, 24. 활불 외출에 대한 규정, 25. 범인의 재산몰수와 형사집행에서의 주장대신 참여 규정, 26. 군대 훈련에 쓰이는 탄약 제조 규정, 27. 군대의 사유화 금지, 28. 활불·라마의 봉급을 미리 주는 행위 금지, 29. 정기적 부세 규정·유망민에 의한 부세 부담 면제(西藏自治區檔案館 編, 1995, 『西藏歷史檔案薈粹』, 「欽定二十九條章

티베트의 내정·종교·군사·외교에 깊숙이 간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그에 따라 주장대신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송균이 주장대신으로 파견된 것은 ‘장내선후장정’이 체결된 후 1년이 지난 후로, 이 장정을 골자로 하는 청조의 티베트 정책이 자리 잡아가는 시점이었다. 또한 티베트를 둘러싼 구르카와 부탄(布魯克巴), 시킴(哲孟雄)과의 관계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시점이었다. 그에 따라서 주장대신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해져 가는 시기였다. 그런데 건륭제 후반기부터 실제로 청조의 티베트 통치가 이루어져가고, 주장대신들의 기강해이가 조정 내에서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건륭제 역시 건륭 57년 10월 유지(諭旨)를 내려, “기존의 주장대신들은 용렬하고 쓸모없는 부류가 많아서, (티베트의 여러 문제를) 모두 방치해두고 불문에 부치면서, 불과 3년 동안 한가롭게 있으면서, 주머니와 전대를 운택하게 했다”²²고 비판하였다. 건륭제로서는 ‘장내선후장정’을 강력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주장대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송균을 선택한 것이다. 송균은 『청사고』에 의하면, ‘청렴·강직’하였고, 군기장경으로 근무하면서 건륭제의 신임을 받았으며, 그전부터 대외 사무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였다. 또한 그가 티베트 불교에도 익숙한 몽골 출신이었다는 점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이력 때문에 송균은 주장대신에 발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송균의 주장대신 재임기간은 건륭 59년(1794)부터 가경 4년(1799)으로 5년간이다. 보통 주장대신의 임기가 3년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재임기간은 긴 편인데, 『청사고』에 의하면, 건륭 말년 권신 허션(hešen, 和紳)의 전횡에 굽히지 않다가 티베트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²³ 그러한 점에서 그에게 주장대신 재임 기간은 정치적으로 유예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는 주장대신

程」No. 50, 文物出版社).

22 『清高宗純皇帝實錄』1414, 乾隆57年 10월 11일, “但向來駐藏大臣, 類多闇冗, 一切置之不問, 不過三年間住, 得潤囊橐.”

23 『清史稿』342, 「松筠列傳」, “和珅用事, 松筠不為屈, 遂久留邊地.”

으로서의 직임을 망기하지 않았다. 『청사고』에 의하면, 그는 주장대신 재임 기간에 번(藩)을 위무하면서 은혜로운 정치가 많았다고 하였다.²⁴

송균은 5년간의 주장대신 재임기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티베트 정책 구상과 방향을 『서초도략』으로 서술하였고, 자신의 재임 후반기인 가경 3년(1798)에 이를 서술하였다. 송균의 『서초도략』은 크게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티베트 통치 방책(治藏策) 28개 조항과 부록인 티베트의 지도와 지리를 다룬 「서초도설(西招圖說)」 두 부분으로 나뉜다. 송균이 제시한 티베트 통치 방책 28개 조의 항목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송균은 『서초도략』에서 티베트와 그 주변의 정세와 지역 통치 문제, 군대의 훈련과 통제 문제, 변경 관료의 태도 등 다양한 분야의 티베트 통치 방책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송균이 『서초도략』을 남긴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서초도략』의 서문에 이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변경을 지키는 요지는 충신(忠信)과 독경(篤敬)이니, 충신과 독경은 근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격치(格致)하고 성정(誠正)해야 하는데, 격물(格物)을 하는 까닭은 이치를 궁구하는(窮理) 데에 있고, 치지(致知)를 하는 까닭은 풍속을 통하게 하는(通俗) 데에 있으며, 성의(誠意)를 하는 까닭은 속이지 않는 데에 있고, 정심(正心)하는 까닭은 욕망을 줄이는(寡欲) 데에 있다. 충신과 독경은 이로부터 행해지는 것이다. 삼가 성훈(聖訓)에 따라서, 교화하기를 너그럽고 부드럽게 하고, 먼 곳과 가까운 곳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기미(羈縻)해야 하고, 그리하여 향화(向化)하여 덕을 품게 해야 하니, 이는 덕을 닦는 것에 (근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닦는 것은 반드시 작은 것을 행하는 것을 숭상해야 하며, 치세를 도모하는 자는 마땅히 미연의 일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28개 조항을 써서 그 대략적인 일을 서술하였다. 지도를 베껴서 그려 그 강역(方輿)을 명확히 하고, 이름을 붙여 『서초도략』이라고 하니, 바라건대 교대하는 일에 편리하게 하고, 구술한 것에 미

24 『清史稿』 342, 「松筠列傳」, “充駐藏大臣, 撫番多惠政.”

〈표 1〉 송군의 『서초도략』 티베트 통치 방책 28개 조항

항목	주요 내용
安邊	변경 안전의 대략적인 요체
撫藩	티베트와 그 주변의 여러 집단에 대한 기미책 강조
戒怒	변경에 파견된 관료의 평정심 강조
遏欲	변경에 파견된 관료의 사욕 절제를 강조
抑強	티베트의 귀족층, 지방 세력에 대한 억제 방책
除苛	티베트 일반 백성에 대한 가혹한 정책을 줄이고 구휼, 조세 감면 등의 관대한 정책을 펼 것을 주문
厲俗	티베트의 풍속을 정돈하는 요체
慎刑	형벌의 신중함을 강조
綏遠	티베트 변경 부락과 주변 국가에 대한 자치 문제
懷柔	몽골 지역 부락 통치와 티베트 겐룩파 불교의 관계
成才	변경 통치에서 적절한 인재 등용의 중요성 강조
述事	청과 티베트의 관계사 서술
審隘	티베트의 요충지 정보를 서술
量敵	티베트 토착 병력에 대한 정보 서술
合操	티베트 토착 병력의 정기적인 합동 훈련의 필요성 강조
行操	합동 훈련의 방법 서술
練兵	병사의 규율을 위한 단속과 훈련 강조
申律	군율의 중요성 강조
制師	군대의 통제 문제 서술
馭眾	티베트인들과 군대를 적절히 통제하는 요체
堅陣	군진을 견고히 하는 문제
出奇	적을 무찌르는 기이한 계책의 필요성
倡勇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법
謹勝	승리에 취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주문하고, 승리 후의 대비책 제시
善始	티베트 변경의 위급 사항에 대한 대비책
持志	변경의 장수로서 일관된 뜻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防微	세세한 위협 요소에 대한 방비의 중요성을 강조
守正	변경의 관료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키고 주변 세력들에게 신의를 보일 것을 강조

진한 것을 대신하고자 한다. 후에 명을 받들어 티베트에 주둔하고 있는 군자들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꺼내려 함이 있음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더욱 이
러한 일을 바라면서, 서(序)를 썼다.²⁵

『서초도략』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 밝힌 것처럼, 송균은 후임 주장대신들이
티베트 통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서초도략』을
서술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송균이 『서초도략』을 통해 강조하는 부분은 주
장대신의 자기 수양과 책임의식이었다. 송균은 서문의 첫 머리에서 유학에서의
‘충신(忠信)’·‘독경(篤敬)’을 강조하면서, ‘격물(格物)’·‘성정(誠正)’을 통한 주장
대신의 자기 수양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28개 조항의 치장책(治藏策)을 열거
하면서, 「계노(戒怒)」, 「알욕(遏欲)」 등의 조항을 서술하여 주장대신의 자기 절
제를 티베트 통치의 중요 요소로 주장하였다.

송균이 티베트 정책 구상에서 ‘충신’과 ‘독경’의 가치를 강조한 것은, 개인적
으로 유학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당시의 시대
적 배경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건륭 말기 ‘장내선후장정’의
체결과 구르카 문제 등 대외관계 변화를 통해서 주장대신의 권한과 책임이 고조
되어가고 있었음에도 주장대신의 기강과 도덕이 해이해지고, 그에 따라 청조의
티베트 통치가 이완되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송균은 『서초도략』
의 서문을 통해 충신과 독경의 가치관을 언급하면서 ‘장내선후장정’ 체결 이후
주장대신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주장대신의 책임의식과 도덕, 더 나아가서는
역량이 당시 티베트 정책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것
이 송균이 『서초도략』을 서술한 궁극적 목적이었다.

25 『西招圖略』, 「序」, “守邊之要, 忠信篤敬也. 而忠信篤敬, 莫不本乎. 格致誠正, 故格物所以窮理, 致知所以通俗, 誠意所以不欺, 正心所以寡欲. 忠信篤敬, 於是乎行以之. 欽順聖訓, 教以寬柔, 無分遐邇, 一皆羈縻, 而向化懷德, 是在修德也. 然修德者, 必矜細行, 而圖治者, 宜防未然. 回書二十有八條, 以敘其事略, 復繪之圖, 以明其方輿, 名之曰, 西招圖略, 庶便於交代, 以代口述未盡者, 後之奉命駐藏君子, 其尚有以發於予所欲言, 而不及者, 尤厚望爲是爲序.”

Ⅲ. 『서초도략』에 드러난 송균의 티베트 정세 인식

송균이 『서초도략』을 통해서 비단 주장대신의 책임의식, 도덕, 자기수양만 강조한 것은 아니다. 그가 서술한 것처럼 『서초도략』은 후임 주장대신들에게 티베트의 정세와 그가 구상한 향후 티베트 통치방안을 알리려는 실용적인 목적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서초도략』에는 송균이 가지고 있었던 티베트 정세 인식과 티베트 정책 구상 방향이 담겨 있다. 결국 『서초도략』의 송균의 티베트 정세인식과 티베트 정책구상을 살펴보면 건륭 이후 가정 초기 청조의 티베트 정책의 방향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초도략』에 드러난 송균의 티베트 정세 인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는 티베트인들의 정치력에 대해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티베트의 최고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에 대한 그의 인식을 살펴보면 그가 티베트인들의 정치력에 대해 얼마나 불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다음은 『서초도략』에 드러난 그의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에 대한 인식이다.

위(衛)와 쟁(藏)으로 예를 들자면,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 역시 번(藩)이다. 그 본성은 다만 불경을 외워 교화를 천명하는 것만 알 뿐이다. 그러하니 그 속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찌 가르쳐서 기르겠는가? 이러한 본말을 다 알고, 성스러운 황상께서는 대신을 파견하여 티베트에 주둔하게 하여, 그들을 위하여 교화하고, 그들을 위해 기르게 했으니, 변경을 안정시키고, 반을 위무해야 하는 까닭이다. 무(撫)라는 것은 순순하게 그 선하게 되는 것을 이끄는 것이다. 무릇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는 자비를 근본으로 삼으니, 교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자비는 본시 석가의 무위(無爲)·무지(無知)일 따름이고, 그 정치를 모른다. 그 속하인 카론(噶布倫) 승려, 세속의 영관(營官), 다빠(策巴), 두인(頭人)의 경우, 혹 가렴(苛斂)하는 자가 있어서, 백성들이 흩어져 유망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는 이를 모른다.²⁶

송균은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가 종교적으로는 티베트인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그들은 불경을 읽 줄만 알지, 현실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들이 교화의 본으로 삼았던 자비라는 가치는 석가모니의 무위인데, 이러한 가치는 자기를 위하는 것은 않지만, 정치를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한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의 현실정치에 대한 무지는 그 속하의 카론이나 영관(營官) 등의 가혹한 정치를 낳았으며 백성들의 유망 사태까지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송균의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의 정치력에 대한 인식은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5세 달라이라마의 경우, 준가르와 호쇼트, 청조 사이에서 유연한 외교를 펼쳤으며, 후에 13세 달라이라마의 경우도 영국과 청조 사이에서 외교능력을 발휘하여 티베트의 독립을 도모하였다. 결국 송균이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의 정치적 무지를 지적한 것은 주장대신의 티베트 정치 관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대개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는 티베트인(番庶)의 질고를 모르니, 대체로 가슈크(噶舒克: 청대 몽골과 티베트에 보낸 문서의 일종)를 보낸 것이다. 이제 비록 언급책을 쓴다 해도, 날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겨나니, 옛날의 전철을 밝게 될까 두렵다. 진실로 때에 따라 개도(開導)하여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가 백성들의 질고를 모두 알게 하고, 세가대인(世家大人)들이 탐욕을 경계하여 각기 분수를 지키게 하면 오랜 안정을 바랄 것이다. 탐욕을 경계하는 것에는 도가 있으니, 위에서부터 이를 이끄는 것뿐이다. 만약 주장대신과 문무관원이 스스로 단속하지 못하고는, 그 속하의 문무관리와 병사들을 단속하여 추호도 티베트 백성(番民)을 괴롭히

- 26 『西招圖略』, 「撫藩」, “譬如衛藏, 達賴·班禪亦藩也. 其性惟知誦經闡教, 至其屬下百姓, 如何教養, 本末悉是, 故聖皇欽派大臣駐藏, 爲之教, 爲之養, 所以安邊撫藩也. 撫也者, 循循導其爲善也. 夫達賴·班禪原以慈悲爲本, 似不必導, 然其慈悲本, 釋氏之無爲, 知爲己而不知其政. 其屬下噶布倫僧, 俗營官策巴頭人, 或有苛斂, 以致百姓散亡, 而不之知.”

지 않게 하기를 바라면, 이후 세가대족(世家大族)들이 결코 탐욕을 경계하면서 분수를 지키지 않을 것인가? 나는 이에 ‘위에서 이를 이끌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²⁷

송균이 위에서 논리 역시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가 티베트 백성들의 질고를 모르기 때문에 세가대인(世家大人)으로 언급되는 티베트 귀족층의 탐욕을 계도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조에서 파견된 주장대신이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를 개도시키고, 술선수범하여 위에서 티베트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송균의 논리는 결국 티베트 내부 정치에서의 주장대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송균은 티베트의 자체 군사력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서초도략』에는 송균의 이러한 인식이 여러 군데 드러나 있다.

그 병사들은 본시 겁이 많고 나약한 자가 많으니, 마땅히 용감할 것을 격려하고 좋게 말하면서, 깨우쳐서 훈련시켜서, 변경 방어를 아는 데에 소홀하거나 해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강역 외의 각 부락들이 경시할까 봐 두렵다. 이것이 그 네 번째이다.²⁸

위(衛)와 쟁(藏)의 티베트 병사(番兵)들은 비록 겁이 많고 나약한 자가 많다고 하지만, 만일 적의 형세를 다 알게 하고, 싸워서 지키는 요체를 다 갖추게 한다면, 어찌 그들이 겁이 많고 나태하여 용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병(天兵)이 준가르

27 『西招圖略』, 「抑強」, “蓋達賴·班禪不知番庶疾苦, 率與噶舒克(火註: 卽印照)之所致也。今雖嚴禁策, 恐日久弊生, 仍蹈故轍, 固宜隨時開導, 使達賴·班禪深悉百姓疾苦, 使世家大族戒貪各守分, 則庶乎久安也。戒貪有道, 自上率之而已。若夫駐藏大臣及文武官員, 不克自戒, 而欲戒其所屬文武以及兵役, 毫無擾累番民, 而後世家大族執不戒貪而守分耶? 余故曰自上率之而已。”

28 『西招圖略』, 「成才」, “其兵本多怯懦, 則應勵以勇敢而好言, 諭令操演, 俾知邊防, 不可疏懈, 否則恐致疆外各部輕視, 此其四也。”

부를 평정한 이래로 위와 짱 지역은 무비(武備)가 쓰러졌고, 또한 오랫동안 백성을 구휼하는 법을 모른 것이 오래되어 도적이 이르러도 조치가 없어진 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곧 병사를 쓰러뜨리고 백성을 괴롭히는 큰 피해이다.²⁹

위의 서술처럼 송군은 티베트 군대가 그 본성이 겁이 많고 나약하다고 지적하였고, 이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강역 외의 부락(구르카·부탄·시킵)들이 경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송군은 티베트의 무비(武備)를 강화하기 위해 조항을 달리하여, ‘행조(行操)’·‘합조(合操)’·‘연병(練兵)’의 항목에서 티베트 군대 양성의 구체적 방법을 적시하였다. 『서초도략』에서 제시된 송군의 티베트 군대 양성은 건륭 58년 ‘장내선후장정’에서 규정한 티베트 상비군 3천 명 육성과도 맥락을 같이하는데, 그 핵심은 주장대신의 소관하에 이루어지는 합조(合操: 합동 훈련)였다. 이상과 같이 송군의 티베트에 대한 대내적인 인식을 보면, 티베트인 자체의 정치력과 군사력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더 나아가서, 티베트 정치개혁과 군사개혁에서 청조가 파견한 주장대신의 역할과 권한을 강조하는 논리로 연결되고 있다.

송군의 티베트 주변부 정세에 대한 인식도 그의 티베트 정세 인식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송군이 티베트 주변 정세를 어떻게 파악했는가의 문제는 향후 티베트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초도략』에서 송군은 티베트 통치에서 대외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티베트 서남부와 경계를 맞대고 있었던 구르카, 시킵과의 관계를 들고 있다. 특히 송군은 당시 청조의 주요한 적을 구르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르카이다. 대체로 그 풍속은 난폭하고 그 성격도 탐욕스러우며, 그 사납고 날램을 믿고서 덕을 닦지 않는다. 다만 강한 자는 원한이

29 『西招圖略』, 「成才」, “衛藏番兵, 雖多怯懦, 如使其盡知敵勢, 而備悉戰守之要, 豈其怯懦不爲勇敢耶? 自天兵平定準部以來, 衛藏武備偃然, 且久不知恤民, 以致寇至而無措, 此即偃兵累民之大害也.”

돌아오고 약한 자는 덕이 돕는 법이다. 천도는 선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음란한 자에게는 화를 내리는데, 이와 같이 강포하다면,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그 형세가 이와 같은데, 무엇을 다시 두려워하겠는가? 그들이 무신년(戊申年: 1788)과 신해년(辛亥年: 1791) 두 차례 쳐들어와서 도적질한 것은 요행일 뿐이었다. 이제 티베트는 변민들을 휴양시키고 이를 병풍과 장막으로 삼고 티베트 병사(番兵)들을 훈련하여, 무비(武備)를 강화하면, 구르카가 비록 강성한 호인(胡人)이라고 하나, 감히 가벼이 침입하겠는가?³⁰

건륭 연간 중엽까지 청조와 티베트 관계에서 매우 중요시되던 지역은 티베트의 동북부 지역인 청해(티베트어로는 압도 지역), 사천과 티베트 서부의 접경 지역인 캄 지역이었다. 청해 지역은 몽골과 티베트를 연결해주는 교통로였기 때문에, 건륭 시기까지 준가르 등 서부 몽골을 완벽히 제압하지 못하였던 청조로서는 몽골과 티베트의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건륭 22년 준가르가 평정되면서, 청해에 대한 청조의 통치도 안정된 궤도에 놓이게 되었다.

건륭 후반기부터 청조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지역은 티베트 남부지역이었다. 야루장포강이 흐르는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라싸와 시가체 등 티베트의 종교·문화적인 중심지가 밀집한 지역이었고,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동서로 중국과 인도를 잇는 차마고도(茶馬古道)의 선상에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8세기 중엽 구르카 부가 네팔 지역을 통일한 이후, 판첸라마가 거주하던 시가체까지 공격하자, 청조는 1791년 푸강간(Fukanggan, 福康安) 등이 이끄는 대군을 파견하여 수도 카트만두까지 육박하고 구르카와 화약을 맺었으며 구르카는 5년 1공의 조공국이 되었다. 그러나 구

30 『西招圖略』, 「量敵」, “今之所謂敵者, 廓爾喀也. 盖其俗也暴, 其性也貪, 恃其强悍, 而不修德. 然强者怨之歸也, 弱者德之助也. 天道福善禍淫, 似此强暴, 何可久耶? 其勢如此, 夫復何畏? 其於戊申·辛亥兩次入寇者, 徼幸耳. 今藏地, 休養邊氓, 爲之屏障, 訓練番兵, 爲之武備, 廓爾喀雖强胡, 敢輕入耶?”

그 외에 송균이 주목한 것은 히말라야 남쪽에 위치한 시킴(哲孟雄)과 부탄(布魯克巴)이었다.³¹ 이들은 본래 티베트 불교를 믿는 집단으로 달라이라마에게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치는 등 티베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구르카가 네팔 일대를 통합하고 히말라야산맥 남쪽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이들도 구르카에 복속되었다. 송균은 안으로는 무비(武備)를 도모하면서 밖으로는 이들 시킴·부탄 등 히말라야 남부의 여러 부(部)와의 연대를 추구하여, 유사시에 구르카를 안팎으로 협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물며 보크리(帛克哩)와 덩계(定結) 변경 밖의 시킴(哲孟雄) 부와 쯡무(宗木) 부, 사카(薩喀)와 쯡카(宗喀)의 경계 밖의 쯡랑(作木朗) 부와 로민탕(落敏湯) 부는 비록 구르카의 강점을 받고 있지만 인심이 아직 복종하고 있지 않으니 회복하려는 뜻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만일 구르카가 전처럼 불쾌한 것을 한다면 한쪽 측면에서는 토벌하고, 한쪽 측면에서는 격문을 시킴 등의 부에 날려, 그들로 하여금 각기 옛 왕업을 회복하게 하면 반드시 분연히 명을 받을 것이고 구르카는 안으로 붕괴되어, 머리와 꼬리가 서로 돌아보지 않을 것이니, 우리 병사들이 토벌하는 일이 진실로 쉬워질 것이다.³²

이 외에 동쪽으로는 부탄(布魯克巴)의 속하인 바주부라(巴珠布拉)의 작은 부락이다. 서남쪽으로는 시킴과 연달아 있는데, 시킴의 인민은 태반이 이미 구르카의 침탈을 받았다. 그 부락의 가운데에는 큰 강이 흐르니, 이름이 장곡(藏曲)이고 강

31 청대 부탄(布魯克巴)과 티베트 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성과는 扎洛, 2012, 『清代西藏与布鲁克巴』, 中国社会科学出版社가 있고, 건륭 말부터 광서 시기까지의 티베트와 시킴(哲孟雄) 간 관계에 대한 연구성과는 张永攀, 2016, 「乾隆末至光绪初藏哲边界相关问题研究」, 『中国边疆史地研究』가 있다.

32 『西招圖略』, 「量敵」, “況帛克哩·定結邊外之哲孟雄部·宗木部, 薩喀·宗喀界外之作木朗部·落敏湯部, 雖被廓爾喀強佔, 然人心未服, 俱不無恢復之志. 倘廓爾喀仍前不軌, 卽一面堵剿, 一面飛檄哲孟雄等部, 令其各復舊業, 必奮然從命, 則廓爾喀內潰, 首尾不能兼顧, 我兵剿辦, 固爲易易.”

북안에는 100여 호(戶)가 있는데, 부락의 군장을 보호할 수 있고, 강을 의지하고 험지에 웅거하며 스스로 굳게 지킨다.³³

그러나 티베트 자체 군사력에 대한 증강, 히말라야 남부의 부들과의 연대를 통한 구르카 제압은 송군이 추구한 궁극적인 안변책(安邊策)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구르카와의 전쟁이라는 유사 상황을 위한 임시방편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송군이 『서초도략』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안변책은 티베트와 그 주변 세력에 대한 ‘기미(羈縻)’를 통한 ‘자치(自治)’였다고 할 수 있다. 송군은 변경을 안정시키고 변을 위무하는 요체가 바로 기미와 자치에 있음을 『서초도략』의 여러 문장을 통해 밝히고 있다.

변(藩)을 안무(按撫)하는 데에 근원이 되는 것은, 기미(羈縻)하여 교화(教化)시키는 것이다. 위(衛)와 쟁(藏) 지역의 경우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 역시 변(藩)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황복(荒服: 먼 변경)은 마땅히 편안케 해야 하는데, 이를 편안하게 하는 도는 기미하는 것이 적절함을 얻는 것에 요체가 있고, 자치하는 것에 근본이 있다. 위와 쟁의 서쪽 지역으로 이르면 구르카가 있으니, 곧 이것이 황복인 것이다. 그 경계는 지농(濟隴)·나람(聶拉木)과 잇닿아 있고, 옆으로는 롱거(絨割)·커다(客達)·딩계(定結)의 여러 험지와 통한다. 이 때문에 영역 내(境內)에서 마땅히 자치를 하여, 반드시 티베트 백성(藩民)들로 하여금 휴양(休養)하며 생식(生息)하게 하고, 아무도 손상되고 거주지를 떠나는 근심을 없게 한다면, 황복의 먼 이적(遠夷)들도

33 『西招圖略』, 「審隘」, “此外東接布魯克巴所屬巴珠布拉小部, 而西南昆連哲孟雄人民, 雖大半, 已被廓爾喀侵略, 然其部中有大河, 名藏曲, 所有河北百餘戶, 仍能保護部長, 依河據險, 堅守自固.”

34 『西招圖略』, 「撫藩」, “藩之所以宜撫者, 羈縻而教之者也, 譬如衛藏, 達賴·班禪亦藩也.”

정성을 기울여 안으로 향해 명을 듣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³⁵

송군은 중화제국 전통의 ‘번(藩)’과 ‘황복(荒服)’ 개념을 사용하면서,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를 ‘번’, 구르카를 ‘황복’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미’와 ‘자치’를 주장하였다. ‘기미’와 ‘자치’ 모두 전통적으로 한과 당 등의 중화제국이 자신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중요 방책으로 언급한 개념으로 송군은 이를 당시 티베트 문제에 적용시킨 것이다.

‘기미’의 경우 전한(前漢) 무제(武帝) 시대부터 이적(夷狄)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기(羈)’는 굴레를 말하고 ‘미(縻)’는 고삐를 말하는 것으로, ‘기미’는 즉 소와 말의 고삐를 잡듯이 중국 외부의 이적을 적절히 통제하는 기술을 말한다.³⁶ 한대 이후 기미는 중화제국이 이적을 통제하는 원칙으로 인식되었고, 당대에는 기미부주(羈縻府州), 명대에는 기미위소(羈縻衛所)가 중국 외부의 변경 지역에 설치되면서 제도화되기도 하였다.

‘자치’라는 단어는 전통 중국 사서에서 ‘고속(故俗: 고유의 풍속)’이라는 말과 함께 쓰여서, 흔히 ‘고속자치(故俗自治: 혹은 土俗自治)’라는 단어로 자주 쓰인다.³⁷ ‘고속자치’란 그 지역의 관습과 풍속대로 다스린다는 의미로, 기미라는

35 『西招圖略』, 「綏遠」, “荒服宜綏, 而綏之之道, 貴在羈縻得中, 而又本乎自治. 譬如衛藏迤西, 有廓爾喀, 卽荒服也. 其界連濟噠·聶拉木, 而旁通絨割·客達·定結諸隘. 是故境內常宜自治, 必使番民休養生息, 一無蕩折 離居之患, 則荒服遠夷, 莫不傾誠, 內向而聽命矣.”

36 전통 시대 중국의 ‘기미’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한규, 2005, 『천하국가』, 소나무, 118~121쪽을 참조할 것.

37 청대에 土俗自治라는 용법이 확인되는 일례로 康熙 즉위년, 雲南貴州總督 趙廷臣이 馬乃土司에 대해서 普安縣으로 고치고, 知縣 1명을 둘 것, 土司巡檢을 분설하여 世襲하게 할 것, 그 土俗대로 自治하게 하되, 縣官의 절제를 받게 할 것, 姓名을 吏部에 알려 後裔가 承襲하게 편하게 할 것을 건의하는 부분(『清聖祖實錄』 3. 順治 18년 7월 8일, “吏部議覆雲南貴州總督趙廷臣疏言, 馬乃土司, 應改爲普安縣. 設知縣一員. 又分設土司巡檢. 准令世襲. 聽其土俗自治. 仍節制於縣官. 并將姓名報部, 以便後裔承襲.”)이다. 여기서도 청조는 馬乃土司의 土俗自治를 인정해주지만, 縣官의 제어를 받게 하여 청조 통치의 범주 내에서 自治가 이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다만 ‘자치’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의 정치·사회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중화제국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습과 풍속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균이 『서초도략』에서 사용한 티베트 및 그 주변부에 대한 ‘자치’의 의미 역시 청조의 지배 질서가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치라고 할 수 있다. 송균이 티베트의 자치를 주장하면서 티베트 정치·사회에 대한 불간섭을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는 티베트인들 자체의 정치력과 군비 수준을 의심하면서, 청조에서 파견한 주장대신이 티베트의 정치와 군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그가 ‘자치’를 주장한 것은 종교와 문화적 측면에서의 불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송균이 궁극적으로 꾀한 것은 주장대신의 강력한 지도하에서 티베트 자체의 정치개혁과 군사개혁을 도모하고 그를 통하여 청조가 중심이 된 티베트와 그 주변 질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균은 위와 같이 중화제국의 전통적인 ‘기미’와 ‘자치’의 개념을 빌려서 청조의 적극적인 티베트 통제 정책을 주장하였다.

IV. 송균의 고민: 청조의 티베트 정책 계승과 변화의 사이에서

『서초도략』에서 보이는 송균의 티베트 인식과 정책 구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① 달라이라마·판첸라마 등 티베트 지도계층의 정치력과 티베트 자체 군사력에 대한 불신, ② 구르카의 세력 확장에 대한 위기의식, ③ 주장대신의 권한과 책임 강화, ④ 티베트와 그 주변의 기미와 자치 강조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송균의 티베트 인식과 정책 구상은 당시 청조의 변경 정책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루어지도록 하였다.

송균의 티베트 인식은 건륭제의 티베트 인식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건륭제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었고,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에 대해서도 호의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들의 보호자로 자처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 등의 정치개입이나 전세영동(傳世靈童)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건륭제의 입장은 그가 지은 「어제라마설(御制喇嘛說)」에서도 드러난다.

그 쿠투투(티베트 활불)가 세습하는 것을 보자면 승려들은 세습할 자식이 없는 무리임에도 자식을 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따라서 반드시 지혜와 복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들으면 후빌간(呼必勒罕: 전세영동)으로 삼고, 어린 시절부터 익히게 하고 장성하면 쿠투투로 칭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어찌할 수 없는 권교방편(權巧方便: 불가의 진리에 이르는 모든 수단)이다. 그것이 내려온 지 이미 오래되어, 다 서술할 수는 없다. 깊이 생각건대 근래에 들어 그 풍속이 내려오면서 후빌간(呼必勒罕)이 탄생하는 것이 대개 한 일족에서 나온다. 이것이 작록을 세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짐의 뜻은 크게 옳지 않다고 본다. 대개 부처는 본디 낳는 것이 없으니 어찌 전세(轉世)가 있으랴? 다만 지금 쿠투투를 전세하지 못하게 한다면, 수만의 승려들이 귀의할 곳이 없으니, 부득이 이처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구르카가 샤마빠(沙瑪爾巴: 티베트 홍모파 불교의 지도자) 말을 듣고 티베트를 겁락했을 때, 이미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비록 병사를 일으켜 진격하고 토벌하여, 그들이 죄를 두려워하며 항복을 청하고, 티베트는 안정되었지만, 전생하는 후빌간이 한 일족에서 나오는 것은 곧 사사로운 것이다. 부처가 어찌 사사로운 것이 있겠는가? 그렇기에 금지하지 않을 수 없다.³⁸

38 乾隆帝, 『御制喇嘛說』, “其呼土克圖之相襲, 乃以僧家無子授之徒, 與子何異, 故必覓一聰慧有福相者, 俾爲呼必勒罕, 幼而習之, 長成乃稱呼土克圖, 此亦無可如何中之權巧方便耳. 其來已久, 不可殫述, 孰意近世, 其風日下, 所生之呼必勒罕, 率出一族, 斯則與世襲爵祿何異, 予意以爲大不然, 蓋佛本無生, 豈有轉世, 但使今無轉世之呼土克圖, 則數萬番僧無所皈依, 不得不如此耳. 去歲廓爾喀之聽沙瑪爾巴之語, 劫掠藏地, 已其明驗, 雖興兵進剿, 彼即畏罪請降, 藏

건륭제는 티베트 승려들의 전세(轉世)에 대해서 불법과는 맞지 않고 특정 가문에서 쿠투투가 나오는 폐단을 넣었다고 비판하였다. 건륭제에게 두 차례의 구르카 전쟁은 티베트 정치와 사회의 폐단이 노출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하여 티베트 정치와 사회에 대한 청조의 강력한 명분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건륭 58년의 ‘장내선후장정’이었던 것이다. ‘장내선후장정’을 통해, 청조는 건륭제가 비판했던 ‘전세영동’제에 개입하여, ‘금병체침(金瓶掣籤)’제도를 도입하였고 티베트의 풍속을 개혁하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장대신이 티베트의 정치·사회·외교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개입하게 되었다.

송균 역시 건륭제가 파견한 주장대신으로서 ‘장내선후장정’을 현장의 최전선에서 관철시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그의 티베트 정세 인식과 정책 구상의 방향은 건륭 말기 ‘장내선후장정’에서 보이는 티베트 정치·사회에 대한 불신과 주장대신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초도략』에 드러난 송균의 티베트 정책구상의 방향은 건륭시대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송균의 티베트 정책 구상에서는 당시 티베트를 둘러싼 급격한 정세 변화에 따른 그의 고민도 엿보이기도 한다. 그 고민이 담긴 단어가 바로 ‘자치’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자치’라는 단어에는 당시 청조가 티베트 통치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내재해 있다. 특히 티베트의 남부를 위협하던 구르카의 세력 확장은 청조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였다.

청조는 대대적으로 티베트에 군사를 파견하여 구르카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적잖은 손실을 입었다. 두 차례 구르카 원정을 통해 국고 1년 예산의 1/4이 탕진되었고, 원정 과정에서 티베트의 험준한 환경 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등, 팔기의 약점도 드러났다. 결국 이러한 값비싼 경험은 청조에게 티베트에서의 강력한 개입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동시에, 그 한계점을 체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地以安，然轉生之呼必勒罕出於一族，是乃爲私，佛豈有私？故不可不禁。”

또한 건륭 후반기의 관료 조직의 이완과 부패 역시 송균을 고민하게 하는 요소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건륭 말년에는 청조의 관료 사회가 부패하면서 몰락하게 되는 시기였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건륭제의 총신 허선의 전횡이라고 할 수 있다. 화신의 전횡으로 대표되는 청조 관료들의 부패와 기강해이는 변경의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들의 부패와 해이현상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Ⅱ장에서 제시한 건륭제의 비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티베트에 주재 하던 주장대신들의 경우에도 그러한 부패와 기강해이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더군다나 화신의 전횡을 비판하다가 긴 기간 티베트에 주둔해야 했던 송균으로서는 청조 관료사회가 부패하는 실상을 절실히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송균이 『서초도략』에서 주장대신의 임무와 책임을 언급하면서 「계노」, 「알옥」 등의 조항을 서술한 것도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후에 주장대신들이 되는 관료들의 부패와 해이를 경계시키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당시 티베트를 둘러싼 변화와 그와 함께 노출된 청조 지배의 한계 속에서 고민한 끝에 송균이 내린 결론이 티베트와 그 주변부의 ‘자치’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구르카를 비롯한 티베트 주변부의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송균은 청조 중심의 지역질서를 강화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청조의 역량이 여러 측면에서 이를 관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조가 파견한 주장대신의 강력한 지도력하에 티베트 자체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유사시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치장책(治藏策)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결국 ‘기미’와 ‘자치’라는 단어로 대변되었던 것이다. 송균이 사용한 ‘자치’와 ‘기미’는 건륭 시대의 정책 계승이라는 이상과 급변하는 티베트 정세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청조의 정치·군사적 한계라는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였던 결과물이었다.

송균의 이러한 티베트 정책 구상은 당시 이완되어 가는 청조의 티베트 통치를 다시 한번 강화시키려고 했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청조가 19세기의 초입, 국제 질서가 급격히 변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제국의 주변부에 대한 지배체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초도략』에서 드러난 송군의 티베트 정책 구상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는 청조의 티베트 지배체제 자체의 개혁보다는 주장대신의 개인적 역량 개선과 도덕수양을 중요시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체제 유지를 위한 임기응변적 대책에 불과하였고,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었다.

송군의 임기응변적 티베트 정책 구상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주장대신 직을 떠난 후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증명되었다. 가정 연간이 진행되면서 청조의 중앙권력은 백련교의 반란과 해적 문제 등으로 점차 티베트에 대한 정치적·군사적인 영향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주장대신의 역량에 티베트 통치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정 연간 이후 파견된 청조의 주장대신들의 역량도 티베트를 다스리기에 역부족이어서, 티베트의 언어와 문화에도 익숙하지 못한 이들이 파견될 밖에 없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청조의 티베트 정치에 대한 개입 정도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티베트의 정치는 달라이라마나 판첸라마 혹은 그들을 대신하는 섭정 귀족에 의해 결정되었다. 청조는 주장대신을 통해 이를 견제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조가 건륭 58년 ‘장내선후장정’을 통해 달라이라마·판첸라마의 ‘전세영동’ 제도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치적 의도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³⁹ 도광 연간 주장대신으로 파견된 치산(琦善)은 1844년(도광 28) “그 라마(판첸라마)는 제 잘난 줄만 알고 망령되게 권세가 자기에게서 나온다며, 마침내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할 지경입니다. 주장대신들은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를 알지 못하고, 상상(商上: 청대 티베트 정부 아문의 칭호)의 출납은 전부 오랑캐의 풍속을 따르니, 형세를 달리 처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⁴⁰라고 보고하

39 김한규, 2003, 앞의 책, 139쪽.

40 “該喇嘛夜郎自大，妄謂權由己出，竟似無事不可爲，大臣等語言不通，文子不識，商上之出納全從夷俗，勢不能代爲轉籌。”(「琦善等奏酌擬裁禁商上積弊章程二十八條摺(道光 24년 9월 26일)」, 『元以來西藏地方與中央政府關係檔案史料彙編』, 中國藏學研究中心,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4, 928~929쪽.

였다. 이렇듯 도광 연간 무렵에는 주장대신을 중심으로 한 청조의 티베트 통치 체제는 그 이름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송균의 시야에는 구르카 너머에서 새롭게 히말라야 지역의 패권자로 부상하고 있던 영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비단 송균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청조의 지도층 시야에서 영국은 천하의 질서를 흔들 만한 중요한 위협요소는 아니었다. 영국은 1814년 구르카와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히말라야 남부로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구르카는 청조에 구원 요청을 하였으나, 청조는 구르카의 구원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는 구르카 왕국이 영국 인도 식민지 당국의 영향하에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영국은 히말라야산맥을 넘어 티베트까지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⁴¹ 결국 히말라야와 광주 앞바다로 들어오는 영국에 대한 청조 지배층의 간과는 19세기 청조 중심의 세계질서가 붕괴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V. 맺음말

가경 연간 이후부터 청조는 대내외적으로 점차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백련교의 난 등의 반란과 관료조직의 부패와 모순심화가 존재하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영국과 러시아가 기존의 청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나 히말라야의 네팔, 부탄 같은 조공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가경 연간 청조의 지도층들이 무기력하게 이를 바라본 것은 아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였다. 송균의 『서초도략』 역시 건륭~가경 시기 대내외적 도전에 대한 청조 관료들의 고민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41 19세기를 전후로 한 영국의 히말라야와 티베트로의 진출과정에 대해서는, Julie G. Marshall, 2005, *Britain and Tibet: 1745-1947*, Routledge가 있다.

송균의 『서초도략』은 19세기 들어서는 청조가 티베트 지배를 강화하려는 시점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당시 청조는 구르카와의 전쟁 이후 티베트와 그 지역에 대한 지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조는 티베트 통치 강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르카 전쟁을 통해 드러난 팔기 조직의 무력함, 관료들의 부패와 기강 해이현상은 청조가 티베트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장애 요인이었다. 당시 티베트의 최전선에서 청조의 지배체제 강화를 실현해야 했던 송균은 그러한 현실과 정책적 이상의 괴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송균이 내놓은 방안이 바로 주장대신의 권한과 책임 강화와 티베트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자치’였다. 청조의 통제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청조가 임명한 주장대신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한편, 그 책임 아래에서 티베트 정치·사회의 개혁을 도모하고, 티베트 자체의 군비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그가 『서초도략』에서 제시한 티베트 정책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티베트와 그 주변에 대한 기미를 통한 자치라고 할 수 있는데, 자치라는 것은 결코 방임과 자유의 의미가 아니라, 청조가 구축한 질서 내에서의 제한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송균의 이러한 방책은 이후 청조의 티베트 정책으로 계승되었지만, 결국 이러한 방식은 얼마 못 가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청조에서 파견된 주장대신의 역량과 권한은 가경 연간 이후 공교롭게도 점차 저하되어갔고, 티베트 정국에 대한 청조의 장악력도 하락되어가면서, 건륭 연간 이후 청조가 일관되게 추구하던 노선과 달리 티베트는 점차 청조의 영향력에서 멀어져갔다. 더군다나 이후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추구하던 영국 등 서구열강의 일격으로 청조의 세계질서는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서초도략』은 이렇듯 건륭 말년부터 가경 연간의 청조의 티베트 지배전략과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몽골 기인 출신의 관료가 한문으로 저술한 서적이라는 점에서도 사료적 가치가 크다. 19세기 청조의 위기와 대응에 대한 역사서술에서 주목받아왔던

집단은 한인 엘리트 출신 관료들이었다. 19세기 이들 한인 지식인들의 부상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청조 관료사회에서 핵심 집단은 만주·몽골 기인들이었고, 이들이 19세기 청조의 변화에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19세기의 벽두에 몽골 기인 송균에 의해 서술된 『서초도략』은 향후 청사 연구에서 주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사료 및 자료집

- 『西藏歷史檔案薈粹』(西藏自治區檔案館 編, 文物出版社, 1995).
- 『西招圖略』(清 嘉慶 3年 刊本, 華文書局股分有限公社 影印, 華文書局股分有限公社, 1969).
- 『御制喇嘛說』.
- 『清史稿』(中華書局 標點本, 中華書局, 1977).
- 『清實錄』(中華書局 標點本, 中華書局, 1986).
- 『欽定大清會典事例 理藩院』(中國藏學出版社, 2005).
- 『元以來西藏地方與中央政府關係檔案史料彙編』(中國藏學研究中心, 中國藏學出版社, 1994).

명칭실록 데이터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mc/main.do>

단행본

- 吉澤誠一郎 著, 정지호 역, 2013, 『중국근현대사 1: 청조와 근대 세계(19세기)』, 삼천리.
- 김한규, 2000, 『티베트와 중국: 그 역사적 관계에 대한 연구사적 이해』, 소나무.
- _____, 2003,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해안.
- _____, 2005, 『천하국가』, 소나무.
- 마크 C. 엘리엇 著, 양희웅 역, 2015, 『건륭제』, 천지인.
- 마크 C. 엘리엇 著, 이훈·김선민 역, 2009,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 심혁주, 2010, 『티베트의 활불(活佛) 제도: 신(神)을 만드는 사람들』, 서강대학교출판부.
- 유장근 외 지음, 2009,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윤영인·이용규·김선민·미할 비란·토마스 알슨, 2010,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 각과 최근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하정근 외, 2002, 『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모』, 해안.

賈建飛, 2010, 『清代西北史地學研究』, 新疆人民出版社.
 戴逸, 1997, 『乾隆帝及其時代』, 中國人民大學出版社.
 杜家驥, 2010, 『嘉慶事典』, 紫禁城.
 ———, 2015, 『清代八旗官制與行政』,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馬大正, 2013, 『中國邊疆經略史』, 武漢大學出版社.
 王希隆, 2012, 『清代西北屯田研究』, 新疆人民出版社.
 扎洛, 2012, 『清代西藏與布魯克巴』,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張雙智, 2010, 『清代朝覲制度研究』, 學苑出版社.
 邱永君, 2005, 『清代滿蒙翰林群體研究』, 黑龍江人民出版社.
 曹雯, 2010, 『清朝對外體制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岡田英弘 編, 2009, 『清朝とは何か』, 藤原書店.
 石濱裕美子, 2011, 『清朝とチベット仏教:菩薩王となった乾隆帝』, 早稲田大學出版部.
 小沼 孝博, 2014, 『清と中央アジア草原:遊牧民の世界から帝國の邊境へ』, 東京大學出版會.
 承志, 2009, 『ダイチン・グルンとその時代:帝國の形成と八旗社會』, 名古屋大學出版會.
 池尻陽子, 2013, 『清朝前期のチベット佛教政策:扎薩克喇嘛制度的成立と展開』, 汲古書院.
 村上信明, 2007, 『清朝の蒙古旗人-その実像と帝國統治における役割-』, 風響社.
 平野聰, 2004, 『清帝國とチベット問題:多民族統合の成立と瓦解』, 名古屋大學出版會.

Berger Patricia, 2003, *Empire of Emptiness: Buddhist and Political Authority in Qing China*, University of Hawai'i Press.
 Marshall, Julie G., 2005, *Britain and Tibet:1745-1947*, Routledge.
 McMahon, Daniel, 2015, *Rethinking the decline of China's Qing dynasty: imperial activism and borderland management at the turn of the nineteenth century*, Routledge.
 Millward, James, 2004, *New Qing imperial history:the making of inner Asian*

- empire at Qing Chengde*, London: Routledge.
- Millward, James A., ed., 2004,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Routledge.
- Noda, Jin, 2016, *The Kazakh khanates between the Russian and Qing empires: central Eur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Leiden: Brill.
- Oidtmann, Max, 2018, *Forging the Golden Urn: The Qing Empire and the Politics of Reincarnation in Tibet*, Columbia University Press.
- Waley-Cohen, Joanna, *The culture of war in China: Empire and the military under the Qing Dynasty*, I.B.Tauris, 2013.
- Wang, Wensheng, 2021, *White Lotus Rebels and South China Pirates*, Harvard.

논문

- 김성수, 2006, 「티벳 전통사회에서의 사원과 “티벳불교 문화권”의 형성-겔룩 교단 사원의 내륙아시아 전교를 중심으로」, 『몽골학』 21.
- _____, 2013, 「1913년 “티벳,몽골 조약”을 통해 본 청대 티벳 불교권의 유산」, 『몽골학』 35.
- 김한규, 1998, 「티베트와 中國의 傳統的 關係에 대한 研究史의 이해」, 『東亞研究』 36.
- 김한웅, 2006, 「清 기록에 나타난 18세기 티벳 역사상의 비판-포하네 관련 淸實錄의 내용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5.
- _____, 2023, 「喇嘛, 僧伽, 그리고 淸帝國-淸代 티베트 사원의 승려인구 변화와 淸의 對 티베트 정책-」, 『東洋史學研究』 165.
- 박장배, 2006, 「중화민국의 판도(版圖) 형성과 티베트: 20세기 전반기 티베트 판도(版圖) 내의 대외 개방도시와 문물교류와 관련하여」, 『中國史研究』 45.
- 유정아, 2009, 「옹정년간(1723-1728) 티베트 지배에 대한 재고찰」, 『명청사연구』 31.
- 윤영균, 1997, 「喇嘛敎政策을 통한 淸朝의 몽골 統治: 理藩院의 喇嘛事例를 中心으로」, 漢陽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이선애, 2014, 「淸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高麗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최정연, 1982~1983, 「理藩院考」, 『東亞文化』 20~21.

최희재, 2015, 「清 嘉慶道光期 西北史地學 연구의 역사적 의의」, 『역사문화연구』 53.
 황유정, 2023, 「건륭 연간 金川戰役의 善後 처리와 淸朝의 ‘邊境平定’-改土歸屯 및 茶黃共存의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贾建飞, 2002, 「晚清西北史地学研究」, 中国社会科学院博士學位論文.
 ———, 2004, 「论松筠与晚清西北史地学的兴起」, 『中国边疆史地研究』 14.
 康建国, 2007, 「论松筠的治边思想及其功绩」, 西北民族大学碩士學位論文.
 ———, 2007, 「驻藏大臣松筠的治藏功绩及其治边思想」, 『西北民族大学学报』.
 顾浙秦, 2006, 「松筠和他的《西招纪行诗》」, 『西藏民族学院学报』.
 郭院林, 2010, 「松筠“文化治边”思想及影响研究」, 『伊犁师范学院学报』.
 達素彬, 1990, 「松筠治藏研究」, 中國人民大學博士學位論文.
 吕玉良, 2001, 「松筠及其《钦定新疆识略》给我们的启迪」, 『中国地方志』.
 柳岳武, 2014, 「嘉庆至同治时期的中廓宗属关系」, 『中国边疆史地研究』.
 李喆, 2006, 「論嘉慶帝對軍隊的整肅」, 內蒙古大學碩士學位論文.
 徐燕, 1999, 「论松筠的经济思想」, 『内蒙古师大学报』.
 聂红萍, 2007, 「嘉庆朝新疆“玉努斯案”」, 『中国边疆史地研究』.
 牛小燕, 2006, 「松筠研究状况」, 『文教资料』.
 张永攀, 2016, 「乾隆末至光绪初藏哲边界相关问题研究」, 『中国边疆史地研究』.
 周融永, 2007, 「嘉慶治藏政策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청대 가경 연간 송균(松筠)의 티베트 정책구상

— 『서초도략(西招圖略)』을 중심으로 —

송인주

이 글은 청대 가경 연간의 주장대신이었던 송균의 티베트 정책구상을 분석한 것이다. 송균은 가경 연간에 티베트에 파견된 주장대신으로서, 티베트와 청조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기에 활동하였다. 그는 『서초도략』이라는 저작을 통해 티베트 통치에 대한 자신의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는 당시 청조의 변경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송균은 티베트 지도층인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의 정치적 무능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들이 종교적 교화에는 능하지만, 현실 정치에는 무지하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송균은 티베트 통치에서 주장대신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티베트 군대의 훈련과 방어 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송균은 구르카와의 관계를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구르카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티베트 남부의 방어 체계를 수립하고, 시킴과 부탄과의 연대를 통해 구르카를 견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티베트와 그 주변부의 정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송균은 티베트의 자치를 주장했지만 이는 청조의 통치 질서 내에서의 자치를 의미하였다. 그는 종교와 문화적 측면에서의 불간섭을 주장하였지만, 정치와 군사적 측면에서는 청조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송균은 티베트의 정치적·군사적 개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송균의 『서초도략』은 청대 건륭~가경 연간의 티베트의 여러 정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19세기 청조의 티베트 변경 통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청조의 지배층들이 티베트 통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서초도략』은 19세기 초 청조의 티베트 통치 연구에서 더욱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하며, 송균의 활동 역시 청대 후반기의 변경 지배 체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청조, 티베트, 송균, 서초도략, 구르카

Tibetan Policy Conception of Songiyūn during the Jiaqing Era of the Qing Dynasty: Focusing on *Xizhaotulüe*

Song Inju

This study analyzes the Tibet policy planning of Songiyūn, who was a Qing dynasty imperial resident minister. Songiyūn served as the imperial resident minister dispatched to Tibet during the Jiaqing era, a critical transitional perio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ibet and the Qing dynasty. Through his work *Xizhaotulüe*, Songiyūn concretized his policy planning for Tibet governance, making it an essential document for understanding the border policies of the Qing dynasty at that time.

Firstly, Songiyūn emphasized the political ineptitude of the Tibetan leadership, specifically the Dalai Lama and Panchen Lama. He believed that while they were effective in religious indoctrination, they were ignorant of practical politics. Based on this view, Songiyūn sought to strengthen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imperial

resident minister in Tibetan governance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raining and fortifying the Tibetan military.

Secondly, Songiyūn identified relations with the Gurkhas as a significant variable. He proposed establishing a defense system in southern Tibet to fend off Gurkha invasions and suggested forming alliances with Sikkim and Bhutan to counter the Gurkhas. This approach aimed to understand the geopolitical situation around Tibet and devise effective defense strategies.

Thirdly, while advocating for Tibetan autonomy, Songiyūn clarified that this autonomy was within the framework of Qing sovereignty. He argued for non-interference in religious and cultural aspects but insisted on strong Qing intervention in political and military matters. Through this, Songyun aimed to promote political and military reforms in Tibet.

The *Xizhaotulüe* by Songiyūn is a crucial source for understanding various aspects of Tibet during the Qianlong to Jiaqing periods of the Qing dynasty. Additionally, it is significant as it illustrates how the Qing ruling class attempted to modify their governance over Tibet in response to the crises faced by Qing administration at the Tibetan frontier in the 19th century. Therefore, Xichao Tuelüe warrants more in-depth study in the context of Qing rule over Tibet in the early 19th century, and Songiyūn's activities should also be actively researched to better elucidate the frontier governance system in the late Qing period.

Keywords: Qing empire, Tibet, Songiyūn, *Xizhaotulüe*, Gurkh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식민주의 역사학의 연속과 불연속

—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성현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정상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교양학부 부교수

I. 머리말

II. “임나일본부”에서 “임나”로

III. 일본의 대(對)대륙 교통 구상의 지속과 확장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1960년대 들어 본격화한 19세기 말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 일본인 역사가들의 한국사 연구(이하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과 분석은 60년 넘게 진행되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그에 대한 시각 역시 일신하고 있다. 식민주의 역사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바라보며 그 사관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가운데 역사 왜곡의 측면을 규명하던 것에서, 그것이 근대 역사학으로서 가지고 있는 속성에 주목하여 근대 학문을 가능케 한 대학 등의 학술 제도를 시야에 담는 한편, 한국사를 넘어선 당시 일본인 역사가들의 연구를 포착하려는 것이다.¹

그런데 식민주의 역사학을 어떻게 바라보든 과거 일본인 역사가들의 한국사 연구가 고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은 누차 지적되어왔다. 식민통치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기원과 고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한국 고대사 연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² 그러한 만큼 1960년대 이래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 역시 이에 집중한 것은 당연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당시 최고 학부였던 도쿄제국대학 국사학과 출신으로 조선사편수회 수사관, 경성제대 조선사학 강좌 담당 교수 등을 지낸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눈에 띄는 존재이다. 그의

* 투고: 2024년 6월 27일, 심사 완료: 2024년 8월 6일, 게재 확정: 2024년 8월 13일

** 이 논문은 2024년 4월 20일에 역사교육연구회에서 진행한 역사교육연구회 2024 춘계학술대회 “탈식민주의와 역사교육”에서 발표한 ‘식민주의 역사학의 연속과 불연속-고대 한일 관계에 대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논의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글이다.

1 식민주의 역사학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정상우, 2023, 「동양, 탈아와 정체, 아시아 연대와 타율-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단상」, 『역사비평』 142, 243~250쪽.

2 이만열, 2005, 「近現代 韓日關係 研究史-日本人의 韓國史研究를 中心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4, 17~18쪽; 정상우, 2018,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아연출판부, 143~149쪽; 장신, 2023, 「근대 일본의 조선사 연구: 통계적 접근」, 『奎章閣』 61, 418~419쪽.

이력이 보여주듯 근대 학문·근대 역사학의 학적 권위를 체현하는 스에마쓰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에 대해 주요 기관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 고대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1945년 이후에도 가쿠슈인대학 교수로서 일본학계의 한국사 연구를 이끌며 『임나홍망사(任那興亡史)』(1949)를 통해 19세기 말 이래 일본인 역사가들이 주장했던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지배에 대한 논의를 종합·정리했기 때문이다. 즉, 스에마쓰의 연구는 식민주의 역사학이 그려낸 한국 고대사상은 물론 1945년 이후에도 지속된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스에마쓰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학계에서였다. 1980년대 후반 『임나홍망사』를 중심으로 한 그의 연구는 고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강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역사 왜곡의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 스에마쓰는 사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³ 이러한 한편 1992년 스에마쓰 사후, 일본학계에서 스에마쓰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1995년 말부터 1997년에 걸쳐 스에마쓰의 저작집이 출간된 것이다. 저작집이 출간되며 이를 주도한 이들에 의해 스에마쓰는 식민지기 한국사 연구와 교육에 전념한 연구자로, 또 그의 연구에 대한 비판은 “안이한 것”으로 반비판되며, 그의 행적과 연구의 가치는 보증받았다. 즉, 스에마쓰는 일본부(日本府)를 한반도 남부(安羅)에 파견된 왜신(倭臣)들로 평했는데, 스에마쓰의 비판자들은 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안이”하게 평가했다는 것이다.⁴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스에마쓰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도 1945년 이전에 스에마쓰가 그러했듯이 일관되게 사료고증을 중시하면서도 기존 연구 성과의 비판적 발전을 시도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3 崔在錫, 1988, 「末松保和의 日本上代史論 批判」, 『韓國學報』 14-4.

4 武田幸男, 1995, 「[解説] 末松保和先生のひとと學問」, 『新羅の政治と社會(上)-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1』, 吉川弘文館, 294쪽; 浜田耕策, 1996, 「[解説] 末松保和先生の古代東アジア史研究」, 『古代の日本と朝鮮-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4』, 吉川弘文館, 360쪽.

도 했다.⁵

이러한 일본학계의 평가 이후인 2010년대 접어들어 한국학계에서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연구가 대거 등장함에 따라 스에마쓰의 행적과 연구에 집중한 연구 성과들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들은 스에마쓰의 행적에 대한 꼼꼼한 추적, 또는 그의 대표작인 『임나홍망사』에 대한 독해에 기반하여 스에마쓰를 평가했다. 물론 논자에 따라 스에마쓰는 적어도 실증이라는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에 충실한 연구자로, 또는 여전히 ‘일본부’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여 사료를 취사선택했다거나, 혹은 한국 측 사료보다 일본 측 사료를 우선시했다는 엇갈린 평가가 내려졌다.⁶ 하지만 이들 연구는 1945년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스에마쓰가 여전히 고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 임나일본부로 대변되는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지배를 지지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식민주의적 역사 인식을 유지했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일의 학계에서는 공히 1945년 전후를 걸쳐 지속되었던 스에마쓰의 학문적 자세 내지 학설의 지속에 대해 이야기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45년 이전과 이후에 걸쳐진 스에마쓰의 연구를 읽어내는 것은 1945년 이후에도 지속된 식민주의 역사학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스에마쓰에 대한 논의들에는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다. 우선 스에마쓰가 1945년을 전후하여 시종일관 임나일본부 혹은 고대 한반도 남부에 대한 일본의 지배(이하 ‘남선경영설’)라는 주장을 동일한 방식과 양상으로 전개하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선행연구에서도 1945년 전후 ‘임나일본부’ 또는 ‘임나’로 대변되는 남선경영설에 대한 스에마쓰의 논의에 나타난 변화를 지적하기도 한다.

5 井上直樹, 2010, 「戦後日本の朝鮮古代史研究と末松保和・旗田巍」,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8.

6 張東翼, 2015, 「末松保和教授의 高麗時代史研究와 그 成果」, 『韓國史研究』 169, 283쪽; 신주백, 2018, 「末松保和(1904~1992)의 學術史와 식민주의 역사학」, 『東方學志』 183; 전진국, 2019, 「『任那興亡史』의 논지와 학술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4; 정동준, 2020, 「『임나홍망사』를 통해 본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역사관」, 『역사비평』 132.

즉, 식민지기에는 일본의 한반도 경영을 신대(神代)의 일부로 보며 임나가 존속 하던 당시를 ‘고구려·일본의 2국 대립시대’로 정의하는 데에서 드러나듯 남북 대결 구도를 부각했지만, 1945년 이후에는 임나를 일본의 직접 지배지로 보는 ‘뉘앙스’를 풍기며 남북대결 구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⁷ 하지만 이는 ‘뉘앙스’ 또는 서술의 부각점에서 차이이지 스에마쓰가 제시한 역사상의 변화는 아니다. 그렇다면 임나 문제로 대변되는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스에마쓰의 논의는 동어반복적인 것이었을까.

특히 스에마쓰가 중요시했다는 실증, 그것도 임나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한 근거가 되는 『일본서기』는 그 기년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흥미로운 점은 스에마쓰가 연구자의 길로 접어들었던 초기 이 기년 문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임나홍망사』의 초반부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임나 문제에 대해 그가 그려낸 역사상은 1945년을 전후하여 변화가 없는 것이었을까. 이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1949년 스에마쓰가 출간한 책의 서명은 『임나홍망사』(이하 『홍망사』)였다. 그런데 1945년 이전 스에마쓰는 각종 강연이나 개설서, 연구서 등에서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임나일본부에서 임나로의 명칭 변화는 그저 관용적 표현의 변화였던 것일까. 혹시 이러한 변화가 1945년을 기점으로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그의 논의에 어떠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서 먼저 Ⅱ장에서는 1945년 이전 스에마쓰의 연구들과 『홍망사』를 중심으로 변화의 지점들을 정리할 것이다.

한편, 그간의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스에마쓰는 시종일관 남선경영설을 이야기했으며, 이것이 그의 논의가 1945년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주요한 논거였다.⁸ 뿐만 아니라 『홍망사』에서 스에마쓰가 주장한 것과 동일한 견해가 근래에도 일본의 주요 연구자에 의해 통용된다고 보기도 한다.⁹ 물론 현재 일

7 신주백, 2018, 위의 글, 209~214쪽.

8 신주백, 2018, 위의 글.

본에서 남선경영설을 주장하는 연구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과연 현재 일본 학계의 주류학설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스에마쓰의 학설이 한동안 유효했고 지금도 그러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스에마쓰가 제시했던 역사상이 남선경영설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내포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즉, 스에마쓰가 그려낸 역사상에는 고대 한반도 남부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지배 이상의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에 Ⅲ장에서는 1945년 이전부터 그 이후인 『홍망사』에서도 지속되는 스에마쓰의 학설, 바로 그가 시종일관 제시하고자 했던 역사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상의 논의를 통해 1945년을 전후한 시기 스에마쓰가 임나 문제로 논의했던 고대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제시한 역사상의 변화와 지속의 지점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945년 이전 일본인 역사가들이 주장했으며, 전후 스에마쓰가 종합했다고 하는 남선경영설 및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이러한 시도가 식민주의 역사학이 그려낸 역사상이 1945년 이후에도 유효성을 띌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Ⅱ. “임나일본부”에서 “임나”로

주지하듯이 스에마쓰가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이전부터, 보다 정확히는 조선사편수회의 수사관보(修史官補)로 부임하고 나서이다. 1930년대 들어서는 한국 고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성과는 물론, 『조선사 길잡이(朝鮮史のしるべ)』와 같은 식민통치를 위한 선전물과 각종 강연문 등을 발

9 전진국, 2019, 앞의 글, 216쪽.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武田幸男이 1989년과 2013년에 발표한 연구로, 광개토대왕릉비 신묘년조 기사의 해석 방식(전치문설)과 이러한 해석의 결과는 스에마쓰의 학설과 동일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스에마쓰의 논의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표했다. 임나 문제로 대변되는 고대 일본의 남선경영설은 당시 일본인 역사가들의 주요한 연구 주제였던 만큼 스에마쓰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여기저기에서 언급했다. 그중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33년에 발간된 『일한관계(日韓關係)』이다. 이는 스에마쓰가 당시 학술서 출판 시장을 주도하던 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에서 기획한 <일본역사(日本歷史)>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집필한 것이다. 유사 이래 10세기 초반까지 한일의 역사적 관계를 다룬 이 저작은 『홍망사』처럼 남선경영에 관한 사항만 다룬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대 일본의 한국 지배 역시 양국 관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남선경영은 이 책의 주요한 테마였으며, 식민통치 선전물이나 강연문 등이 아닌 학술적 글쓰기로서 스에마쓰가 1945년 이전 이 문제에 대해 그리고 있던 역사상을 가장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 임나 문제를 설명하는 장의 제목은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이다.¹⁰

한편, 1937년부터 한국사 전반에 대한 스에마쓰의 강연이 22강(講)으로 나뉘어 잡지 『조선행정(朝鮮行政)』 지상에 「조선사(朝鮮史)」라는 이름으로 연재되었는데, 여기서도 스에마쓰는 남선경영에 대해 “임나일본부와 백제”(4강)라고 명명했다. 여기서 임나일본부는 일본의 반도 영유 통치 기구이지만 ‘부(府)’라는 글자로 인해 정청(政廳)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류이고, 야마토(大和) 조정이 통치를 위해 보낸 “관인(官人)”이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통치권”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스에마쓰의 설명이다.¹¹ 이를 통해 볼 때 1945년 이전 스에마쓰는 일본의 남선경영을 ‘임나일본부’로 정리하며 그 존재를 긍정했다. 하지만 그 실체나 남선경영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그저 “관인” 또는 적어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절대적 우위를 말하는 “통치권” 등과 같이 추상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남선경영에 대한 사료는 일본 측 자료에서만 단편적으로 등장한다. 때문에 일본인 연구자들은 강점 전후부터 그와 관련된 유적·유물의

10 末松保和, 1933, 『岩波講座 日本歷史 日韓關係』, 岩波書店, 16쪽.

11 末松保和, 1937, 「朝鮮史(四)」, 『朝鮮行政』 1-12, 29쪽.

발굴을 시도했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¹² 이렇게 유물·유적이 전무하며 단편적인 사료 몇 개만 존재하는 남선경영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는 것은 스에마쓰만이 아니었다. 사실 식민지기 모든 일본인 역사가들은 일본의 남선경영을 확신했고,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나 이마니시 류(今西龍)와 같은 역사가들은 사료는 물론 답사, 언어 유비 등을 통해 그 위치에 대한 비정을 시도하며 이를 역사적 사실로 확증하고자 했다.¹³ 그렇지만 남선경영의 실제 방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자료도 없는 가운데 남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어떻게 관철되었는가, 즉 구체적인 지배 방식에 대한 언급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나마 이마니시가 일본부라는 명칭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고, “공물(貢物)을 취(取)”하는 “연공취립(年貢取立)의 대관(代官)”을 임나제국(任那諸國)에 두었다고 한 것이 남선경영의 실체에 대해 당시 일본인 역사가가 한 가장 구체적인 서술이었다.¹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945년 이전 남선경영에 대한 스에마쓰의 서술은 아직 그 정확한 위치를 비정할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또 그 지배의 방식에 대해 “관인”, “통치권” 등의 용어로 몽둥그려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쓰다나 이마니시의 논의에 비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남선경영에 대한 스에마쓰의 서술은, ‘일본부’라는 명칭이 후대에 덧붙여진 것임을 명확히 했던 이마니시와는 달리 임나일본부의 실체를 확신하고, 그 명칭을 통해 남선경영을 정리·제시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양상은 전후 『홍방사』에서 일변한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전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서술이다. 스에마쓰는 남선경영에 관한 수많은

12 정상우, 2008,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축탁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68, 253~257쪽; 정상우, 2021, 「식민주의 역사학 속의 일본과 중국」, 『한국학연구』 62, 16쪽.

13 津田左右吉, 1913, 「任那疆域考」, 『朝鮮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今西龍, 1919, 「加羅疆域考」上·下, 『史林』 4-3·4-4.

14 今西龍, 1918, 「任那に就て」, 『朝鮮彙報』 1918-2, 60~62쪽.

연구성과가 축적된 1949년의 시점에서 한국의 각종 지리지, 조선 후기 실학자의 고증은 물론 1937년에 발간된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의 『잡고(雜攷)』7-일본서기조선지명고(日本書紀朝鮮地名考)』 등을 참고하며, 전전에는 시도하지 않던 고대 일본의 남선경영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국명·지명을 일일이 비정했다.¹⁵

지리 비정과 더불어 스에마쓰는 남선경영의 실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홍망사』에서는 사료를 인용하여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전 그 존재를 확신하며 즐겨 사용했던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료에 등장하는 “일본부”에 대해서도 스에마쓰는, 『일본서기』에 ‘일본부’라고 쓴 야마토노미코토모치(ヤマトノミコトモチ)가 일본신(日本臣)·일본대신(日本大臣)·일본경(日本卿) 등으로도 쓰였는데, 일본신·일본경을 일본부신(日本府臣)·일본부경(日本府卿)의 약칭으로 보기 쉽지만 실은 거꾸로 부(府)가 나중에 부가된 것이고, 긴메이천황(欽明天皇) 15년 12월 기사에 보이는 “안라(安羅)에 있는 왜신(倭臣)들”이라는 표현이 역사적 진실에 가깝다며, ‘부’라는 글자 때문에 이를 관청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¹⁶ 이를 보면, 관청을 두어서가 아니라 야마토 조정에서 관인·사신 등을 파견해 남선경영을 실현했다는 이해 방식은 1945년 이전과 동일하다. 하지만 그는 『홍망사』에서 ‘(임나)일본부’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 『홍망사』 3장 「임나의 성립」이다.

장 제목처럼 이 장의 결론은 369년에, 임나일본부가 아닌 임나가 성립했다는 것이다. 스에마쓰 역시 다른 일본인 역사가들과 마찬가지로 남선경영의 사료

15 末松은 특히 鮎貝房之進의 연구를 매우 높게 평가했는데[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1996, 『古代の日本と朝鮮-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4』, 吉川弘文館 재수록), 13~14, 19쪽], 지리 비정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대부분 鮎貝의 논의를 따랐다.

16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173쪽. 스에마쓰는 이렇게 일본부는 사신(倭臣)이기 때문에 자신은 일본부를 통해 근대 조선총독부와 같은 행정관청의 존재를 상상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적 근거로 광개토왕릉비의 신묘년 기사를 주목했다. 그는 이 기사에 의한다면 신묘년, 즉 391년에 일본의 도해(渡海)가 이루어진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왜와 백제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¹⁷ 양국 관계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묘년에서 거슬러 올라가며 『일본서기』 신공기 백제 관련 기사 8개를 검토했다. 그리고 그 중 일본이 비자발(比自伐) 등 7국을 평정하고 백제의 왕 초고(肖古)와 왕자 귀수(貴須)가 조공을 약속한 진구황후 49년인 기사년(己巳年) 기사에 근거해¹⁸ 369년이라는 해를 도출했다.

스에마쓰에 따르면 당시 백제의 국가적 통일은 전라도 방면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통일의 완수를 위해 백제는 동남방으로부터의 신라의 압박을 제압하면서도 서남방으로의 세력 확장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세력을 필요로 했다고 한다. 당시 이미 가라(加羅)의 소국들은 물론 백제에도 있던 일본 세력은 백제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이에 백제의 왕과 왕자는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고 조공을 맹세했다는 것이다.¹⁹ 이렇게 볼 때 이 369년의 사건은 백제와 일본 양국 관계의 주요한 결절점이자 “왜 권력이 남부 조선에서 수립”한 것으로, 스에마쓰는 이를 “일본과 백제의 관계 성립은 동시에 **임나의 성립**(강조는 인용자)”²⁰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논의는 전전과는 다른 것이었다. 『일한관계』에서 스에마쓰는 다른 일본인 역사가들처럼 광개토왕릉비의 신묘년 기사에 나타난 도해원정(渡海遠征)을 계기로 “임나일본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 한반도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중심 사실이 “임나의 일본부의 흥망”이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임나는 임나일본부의 전제”로, “삼한 70여 국 가운데 백제와 신라 어디에도 병합되지 않고 존속했던 일단의 소국들”이라고 설명했다.²¹ 즉, 전전 스에마쓰는 ‘임

17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33~34쪽.

18 『日本書紀』卷9, 神功皇后 49年 春3月.

19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48~49쪽.

20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46쪽.

나'라는 용어를, 병합되지 않고 존속한 소국들이라는 공간 내지 지역으로서의 의미로 사용했으며, 이 지역에 행사된 통치권을 '임나일본부'라고 칭한 것이다.

임나를 “지리적으로 말하면 여러 한국(韓國)의 하나인 구야한국(狗邪韓國)= 임나가라(任那加羅)에서 기원하고, 백제·신라의 통일권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한국을 포함하는 지역의 총칭”이라고 한 『홍망사』의 서술은 전전의 것과는 대동소이해 보인다. 하지만 전후 임나에 대한 스에마쓰의 서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말하면 더욱 광대한 기구 중 일부분으로, 임나가라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한국의 직접 지배 체계이며, 여기에 외곽으로는 간접 지배하는 백제와 신라를 부용케 하여 임나·백제·신라를 합일하여 고구려에 대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²² 즉, 지역적인 의미의 임나를 전제로 일본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임나일본부가 설치되었다던 전전의 이해 방식이, 전후가 되면 임나 자체가 지역이자 정치체계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흡수한 모습, 바로-임나일본부가 아닌-“임나의 정(政)”으로 나타난다.

스에마쓰에 따르면, “임나의 정”은 전체적으로 둔창(屯倉)·둔가(屯家) 등이라고 쓰이는 미야케(ミヤケ)로, 이는 일본 국내에서 야마토 조정 발전의 기본적인 기구 중 하나였으며, 이것이 한지(韓地)에 적용된 것이었다. 미야케는 야마토 조정 직속의 미타(御田)와 그 경작자인 타베(田部), 여기서 나온 곡물을 저장하는 미쿠라(御倉), 관리자의 주택 등을 총합(總合)하는 이름인데, 『일본서기』 대한(對韓) 관계 기사에서는 일본 국내에서의 둔창·둔가 등과 구별하기 위해 “관가(官家)”라고 쓰였다. 그런데 이 “관가=미야케”가 임나의 소국들만이 아니라 백제·신라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즉, 임나는 지리적으로는 백제·신라를 포함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백제·신라와 분리되지 않는다. 임나만이 아니라 백제와 신라도 이 미야케가 설치된 “미야케의 나라들(國國)”이며, 그 속에서 임나는 야마토 조정의 직접 지배, 백제·신라는 간접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다. 직접 지

21 末松保和, 1933, 앞의 책, 17~22쪽.

22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53쪽.

배를 관찰한 임나에는 각국의 수장=한기(旱岐) 위에 야마토 조정에서 파견한 지배자를 두었지만, 간접 지배지인 백제·신라에 대해서는-이들이 소국을 정복하며 이론 기성(既成)의 통일을 인정했기 때문에-백제왕·신라왕을 지배·감찰하는 관리가 상규적으로 파견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백제·신라의 왕은 소위 미쓰기(調)의 정기적 공상(貢上)이 의무였고, 이는 임나 멸망 후 점차 한일간의 교관(交關)·무역으로 전화했다.

반면 직접 지배인 임나의 소국에는 각각 지배자가 배치되었다. 하지만 임나의 일본 세력이 약해지면서 상주하는 제(制)는 사라지고, 빈번하게 장군, 사신이 왕래했는데, 이를 일이 있을 때 천황의 명을 가져와 그 일을 집행하는 “미코토 모치(ミコトモチ=御言持ち)”라고 칭했다는 것이다. 물론 스에마쓰는 이들의 실제 권한·권위는 지배자라는 이름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임나의 일본 세력이 약화된 6세기 초반(509)에도 “임나의 일본현읍(日本縣邑)에 사는 백제 백성 중에 (본관지로부터) 부랑·도망하여 관(貫)을 절(絶)하고 3·4대가 지난 자를 조사하여 백제로 보내 관(貫)에 부(附)했다”²³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엄밀한 호적이 존재했다는 것이다.²⁴

이를 보면 『홍망사』에서 스에마쓰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종합·정리함과 아울러 7세기까지 한일관계 관련 기사를 모두 남선경영과의 관련 속에서 끌어 맞추며, 전전에 이루지 못했던 지리 비정은 물론 지배의 구체적 양상을 서술했다. 즉, 전전 스에마쓰를 포함한 일본인 역사가들에게 찾아볼 수 없던 남선경영의 실제에 대해 백제·신라에 대한 공물 수취를 통한 간접 지배를 설정하여 그 지배의 공간적인 폭을 넓게 설정하는 한편, 사신을 파견하여 직접 지배를 실현한 임나의 소국들에 대해서는 야마토 조정의 세력이 약화되었을 당시에도 호적을 갖추 정도로 발달한 통치를 실현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스에마쓰는 『홍망사』에서 남선경영을 상징하는 일본 세력을 임

23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 3年 春2月.

24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168~174쪽.

나일본부가 아닌 임나라고 하며, 그 통치 방식은 물론 그 선진성을 이야기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그 성립 시기를 광개토왕릉비에 근거한 신묘년(391)을 획기로 하는 시기에서 일본서기에 근거하여 기사년(369)으로 20여년 앞당겼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남산경영의 성격에 대한 이해 방식의 변화 역시 수반하는 것이었다.

『홍망사』에서 스에마쓰는 임나가 성립·존속한 시기를 “임나기(任那期)”, 그 이전 시기를 “낙랑기(樂浪期)”라 명명하며²⁵ 두 시기의 특징을 비교했다. 첫째, 낙랑·대방과 같은 중국 군현이 한반도에 있던 낙랑기에 야마토 조정과 중국 세력 사이에 지속된 평화로운 문화적 통교는 임나기가 되면 “폐절(廢絶)”하고, 낙랑군에 이어 그 땅을 차지한 고구려와는 적대 관계로 바뀌었다. 둘째, 대방군을 병합하여 건국한 백제와 야마토 조정 사이의 종속관계가 새롭게 수립되었다. 셋째, 낙랑기 구야한국을 근거로 야마토 조정이 여러 한국과 맺은 관계는 임나기에 들어서는 지배관계=정치관계로 전화하고, 진한 대부분을 통합해 건국한 신라를 부庸했다는 것이다.²⁶ 여기에서는 임나가 성립한 369년 이후(=임나기)는 낙랑기와 달리 문화적·정치적으로 새롭게 변모한 시기라는 이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전전 『일한관계』에서 스에마쓰는 『홍망사』에서 임나기라 명명한 4세기 중반 이후를 “부활”이라는 용어로 특징지었다. 그는 『일한관계』에서 임나일본부 홍망의 역사적 의의를 이야기하면서, 임나일본부의 문제는 낙랑군 쇄멸 이후 4~6세기 중엽까지의 200년간, 바로 『홍망사』에서 임나기라고 한 시대의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낙랑군 시대, 즉 “과거의 문제”이자 “부활의 문제”라고 한 것이다. 그가 볼 때 한반도 내 중국 군현 쇄멸 이후의 “새로운 문제”는 백제·신라의 완성으로,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과거부터 한반도 남부에 있던 일본 세력은 약화되었다. 이에 그 “부활”을 위해 성립한 것이 일본부였다. 때

25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164쪽.

26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53쪽.

문에 “이러한 일본부의 존재는 신시대(新時代)의 신문제(新問題)와 상납(相納)할 수 없는 실체로 과거 시대의 잔존물”이었다.²⁷

전전 스에마쓰의 설명에서 임나일본부는 4세기 후반 한반도에서 쇠락하고 있던 일본 세력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부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하지만 “임나일본부의 역사는 흥망의 역사가 아니라 쇠망의 역사”²⁸라는 『일한관계』의 결론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일본부가 설치되었어도 과거 영광의 부활, 즉 흥망에서 “흥(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전 스에마쓰가 생각한 한반도 내에서 일본의 통치가 흥한 것은 언제였을까. 이에 대해서 그는 정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서기』의 의부가라(意富加羅) 관련 기사는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에 등장하는 구야(狗邪)[가라(加羅)]에 대한 왜의 영유가 오래되었음을 암시한다며,²⁹ “임나일본부의 기원”이 “요원하고 막연하다”라고 했다.³⁰ 『일한관계』 이후 발표된 강연문 「조선사」에서는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남선에 대한 통치권의 기원은 막연하지만 대략 서기 전후에 시작되어 낙랑군이 멸망한 4세기 초반까지 그 기초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³¹

스에마쓰는 남선경영의 시작점을 막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전하는 사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료도 일본의 고전(古典)에서만 단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에마쓰는 이러한 일본 고전의 기사를 “매우 가치가 높은 사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반도 고대 사료가 우리에게

27 末松保和, 1933, 앞의 책, 16~18쪽.

28 末松保和, 1933, 위의 책, 65~66쪽.

29 末松保和, 1933, 위의 책, 14쪽. 여기서 『일본서기』의 의부가라 관련 기사는 垂仁天皇 당시의 일로, 일본에 조공을 온 任那人 蘇那曷叱智가 “意富加羅國王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末松이 지적하듯이 이 기사는 『일본서기』에서 “對韓關係記事로서 신대 素戔鳴尊의 강림신화 이후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서기』 기년상 기원전 28년에 해당한다.

30 末松保和, 1933, 위의 책, 24쪽.

31 末松保和, 1937, 앞의 글, 30쪽.

불어 넣은 잘못된 관념에 지배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전에 바탕을 두고 임나일본부를 고찰할 때는 연구상 적지 않은 위험을 동반한다”고 우려했다.³² 즉, 일본 고전에만 있는 남선경영 관련 사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를 한국의 사료에 입각한 관념을 토대로 읽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스에마쓰는 『일한관계』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같은 해(1933)에 발표한 「일본상세기년고비판(日本上世紀年考批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³³ 여기서 스에마쓰는 일본의 상세 기년에 관한 여러 논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기년고의 주요 논거인 『고사기』 분주(分注)의 붕년(崩年) 간지(干支)와 『일본서기』 백제 관계 기사, 이렇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당시의 통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파괴적 서술”을 시도했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일본서기』 백제 관계 기사에 대한 이해인데, 요약하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과 간지를 같이 하는 기사가 『일본서기』에 있다면 그것은 해당 기사가 전하는 사건의 실재를 믿을 수 있을 뿐이며, 그 기사가 속한 천황대를 판단하는 데까지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백제왕의 흥년(薨年) 간지가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일본서기』 응신기(應神紀)에 동일하게 등장할 경우 『일본서기』에서 전하는 백제왕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응신천황이 백제의 어떤 왕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³⁴ 때문에 스에마쓰는 고대사 연구에서 한일의 비교가 중요하고 효과적인 연구법이지만 그 옹호 또한 적지 않다고 결론내렸다.³⁵

그런데 당시 일본의 고대사 연구자들은 한국의 기록, 특히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통해 『일본서기』의 기년을 조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는 신공·응신기가

32 末松保和, 1933, 앞의 책, 17~18쪽.

33 末松保和, 1933, 「日本上世紀年考批判」, 『靑丘學叢』 13.

34 末松保和, 1933, 위의 글, 83~88쪽.

35 末松保和, 1933, 위의 글, 90쪽.

실제보다 120년 끌어올려 작성되었기 때문에 2주갑을 내리면 믿을 수 있다는 ‘2주갑 인하설’이었다. 이러한 기년론은 한국의 사료에 기반해 일본의 사료를 독해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연구 풍토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 역사학계의 거두였던 나이토 코난(内藤湖南)조차 “우리나라 고사(古史) 연구가(研究家)는 일본서기의 기년에 의문을 품어, 그에 대한 유력한 방증으로 조선고사(朝鮮古史)의 기년을 참고하였고, 더욱이 그 기사(記事)의 내용까지도 조선고사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이와 같은 연구 방식을 문제적으로 바라보았다.³⁶ 이러한 당시 학계의 풍토를 염두했을 때 스에마쓰가 일본 고전의 기년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파괴적 서술”이라고 한 이유, 『일한관계』에서 말한 “잘못된 관념”,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바로 한국의 사료에 기반하여 일본의 고전을 읽는 것, 또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본서기』 기년의 2주갑 인하설로, 스에마쓰가 볼 때 이는 “잘못된 관념”으로서 “파괴”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1935년에 발표한 「호태왕비(好太王碑)의 신묘년(辛卯年)에 관하여」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는 당해 사학회(史學會) 대회에서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가 제시한, 광개토왕릉비의 신묘년이 391년이 아니라 331년일 수 있다는 설에 동조하며,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그는 이 신묘년을 391년으로 보는 것은 거의 결정적인 해석이고, 자신의 설명은 구로이타 설에 기초한 “역설”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비정이 쉽게 승인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³⁷ 그럼에도 그가 이 글에서 역설한 부분 중 하나는 『일본서기』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 대한 관계 기사를 일률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학문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이는 특히 기년 문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극히 복잡다기하다는 것이었다.³⁸ 여기서 말하는 일률적인 방법이란 2주갑 인하설이라고

36 今西龍, 1934, 「序」,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5~6쪽. 이는 今西龍 사후 그의 유작으로 출간된 『百濟史研究』의 「序」로, 今西와 같은 京都帝大 교수였던 内藤湖南이 썼다.

37 末松保和, 1935, 「好太王碑の辛卯年について」, 『史學雜誌』 46-1, 116쪽.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일한관계』에서 임나일본부는 신묘년을 획기로 하는 도해원정을 계기로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했을 뿐,³⁹ 『홍망사』에서 임나의 성립이 369년이라고 한 것과 같이 특정 연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전술했듯이, 369년이라는 연도는 『일본서기』 신공기 49년 기사년 기사에 근거한 것이다. 『일본서기』 기년상 이때는 249년이고, 369년은 전전 스에마쓰가 거부하려던 2주갑 인하설에 따라 도출되는 연도이다. 이뿐만 아니라 『홍망사』에서 임나의 성립과 그 전후의 사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 『일본서기』 백제 관계 기사들은 모두 2주갑 인하설에 따라 기년이 조정되었다.⁴⁰ 그러나 『일한관계』에서는 이러한 『일본서기』 기사들의 기년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광개토왕릉비의 신묘년 기사에 주목하여 임나일본부의 성립을 설명했다. 즉, 전전 스에마쓰는 2주갑 인하설을 부정하는 선상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다.

한편 스에마쓰는 「일본상세기년고비판」에서 『일본서기』만이 아니라 『고사기』에 등장하는 간지, 특히 『고사기』 분주에 제시된 15개의 봉년 간지는 원문과 분리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고사기』 이전에도 이미 역사서가 있었기 때문에 “『고사기』도 『일본서기』도 매우 새로운 작물(作物)”로 취급하는 것이 정당한 자세이며, 이러한 자세에서 15개의 봉년 간지를 보면 “『고사기』 본문과는 다른 체계의 역사적 지식[소위 제기(帝紀)]의 흔적”, 또는 “『고사기』 찬록 후, 어떤 사람에 의해 적당히 형편에 따라 배치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이 간지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고사기』 봉년 간지로 처음 등장하는 무인(戊寅)이 318년이라고 결론지었다.

기년론에 대한 스에마쓰의 논의는 스스로도 “억측”이라 할 정도로 성긴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318년이라는 숫자를 통해 일본에서 이미 4세기 초반에 기

38 末松保和, 1935, 위의 글, 115쪽.

39 末松保和, 1933, 앞의 책, 21~22쪽.

40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44~45쪽.

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고사상 일본과 조선반도와의 문화비교에서, 너무나 겸손했다는 아쉬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논의를 마무리했다.⁴¹ 한편, 앞서 서술한 광개토왕릉비의 신묘년이 331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호태왕비의 신묘년에 관하여」(1935)에서 스에마쓰는 백제·신라의 건국에는 일본이 관계한다며, 연구자들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² 즉, 전전 남신경영이란 믿음의 근거였던 광개토왕릉비의 신묘년이 331년이라고 할 때, 이 해에 일본군이 출병한 결과 백제·신라가 건국할 수 있었고 임나 제국(諸國)도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왜의 세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⁴³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에마쓰는 낙랑 멸망 후 그 지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백제·신라가 세력을 확장하며 삼국의 정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완성으로 향하는 진행을 일본이 막으면서 종래의 주권을 주장하여 성립시킨 것이 임나일본부라며, 시종 임나일본부를 “과거의 문제”, “부활”이라고 말했다. 즉, 전전의 스에마쓰에게 임나일본부의 성립은 오래전부터 “요원하고 막연하게” 존재했던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의 통치권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또 백제와 신라의 건국 역시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이러한 통치권이 낙랑·대방군 소멸 이후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발동하여 이루어졌다는 구상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의부가라 기사에 대한 평가에서처럼 일본의 통치권을 최대한 소급할 수 있는 해석을 제시해야 했다. 한편으로는 낙랑군과 대방군 소멸 이후 한반도 남부에 직접 개입한 통치권의 흔적을 찾아야 했으며, 나아가 바다 건너 한반도 남부 지역에 개입할 만큼 발전한 일본의 국가권력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상세기년고비판」에서는 4세기 초반에 이미 기년을 사용한 문서를 사용할 만큼 성숙된 일본 조정의 모습을 제시했고, 「호태왕비의

41 末松保和, 1933, 앞의 글, 80~90쪽.

42 末松保和, 1935, 앞의 글, 116쪽.

43 末松保和, 1935, 위의 글, 111~112쪽.

신묘년에 관하여」에서는 4세기 전반(331)에 한반도에 출병해 백제와 신라를 건국시키고 임나를 준립케 할 만큼 성장한 야마토 조정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런데 2주갑 인하설에 기초하여 『고사기』 분주 봉년 간지 및 『일본서기』 백제 관계 기사를 이해하면, 해당 자료를 4세기 후반 일본의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⁴⁴ 스에마쓰가 2주갑 인하설을 부정했던 이유, 또 신묘년을 331년으로 인상하려 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전술했듯이 스에마쓰는 『홍망사』에서 2주갑 인하설에 따라 임나의 성립은 369년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일본의 구야(가라)의 영유가 오래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본 『일본서기』의 의부가라 기사는 임나 관계의 기원에 대해서는 거의 어떤 것도 채용할 것이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전 광개토왕릉비의 신묘년이 331년이라고 한 것은 그저 가능성을 타진했을 뿐이며, 신묘년이 391년임은 확고하다는 견해를 밝혔다.⁴⁵ 아울러 「일본상세기년고비판」에서 『고사기』 분주의 봉년 간지를 원문과 분리하여 이해하며 제안한 기년에 대해서도, 그것은 말이 지나쳤으며 자신의 이해 방식에서도 일탈한 것이라고 자평했다.⁴⁶ 전후 스에마쓰는 전전에 시도한 “파괴적 서술”, “억측”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전후의 이러한 변화는 통설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있겠지만, “임나”라고 정의한 남선경역에 대한 이해 방식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스에마쓰에 따르면 낙랑·대방군의 소멸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미성숙했던 삼한에서 통일 운동이 발생하여 마한 북부의 백제국과 진한의 사로국을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제3의 통일체가 있었으니, 임나가라국이 바로 그것이다. 임나가라가 통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임나가라 자체의 것이 아니라

44 末松保和, 1933, 앞의 글, 76쪽.

45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26, 32~33쪽.

46 末松保和, 1956, 「古事記崩年干支考」(1996, 『古代の日本と朝鮮-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4』, 吉川弘文館 재수록), 309쪽.

일본으로부터 주입된 것이다. 낙랑과 대방의 멸망으로 낙랑 통교 및 한지(韓地) 채취(採取)가 끊길 운명에 처한 야마토 조정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임나가라를 본거지로 한 한지 통일 운동을 진행했고, 백제·신라의 통일 범위 밖에 있던 지역을 임나가라의 확대로서 영유하고 미성숙한 백제와 신라도 휘하에 거두었으니, 이것이 곧 임나의 성립이라는 것이다.⁴⁷

『일한관계』에서 낙랑·대방군 멸망 후 나타난 새로운 움직임은 백제와 신라의 건국이었고, 임나일본부는 과거의 잔존물로, 새로운 시대로의 진행을 일본이 막으면서 종래의 주권을 주장하여 성립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홍망사』에서 임나는 백제, 신라의 건국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에 일본이 대응하여 “통일 운동의 제3의 주체”로서 성립한 결과였다. 즉, 『홍망사』에서 임나의 성립은 더 이상 과거 통치권이 부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4세기 후반 한반도의 정세에 조응한 새로운 성격의 권력이 수립된 것이었다. 『일한관계』에서 일본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임나일본부의 역사가 홍망의 역사가 아니라 쇠망의 역사였다면, 『홍망사』에서는 369년이 곧 “홍”이었다.⁴⁸

4세기 후반 새로운 성격의 권력 수립이라는 이해를 취한 스에마쓰로서는 기존의 통설을 부정하며 무리하게 기년을 조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스에마쓰는 『홍망사』에서도 4세기 이전 낙랑군이 있던 때부터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곳으로 보았다. 『삼국지』 한전 기사를 통해,⁴⁹ 3세기 중엽에 이미 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 즉 한반도 동남단을 거유(據有)한 왜인은 그 땅을 한지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활동의 책원지(策源地)로 삼았음을 알

47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166쪽.

48 이러한 시각은 『홍망사』에 수록된 任那略年表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연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일본과 중국의 교류, 다른 하나는 삼국, 마지막 하나가 임나에 관한 것이다. 이때 마지막 부분인 임나의 시작은 己巳年, 즉 369년부터 시작하고 있다(末松保和, 1949, 위의 책, 4쪽).

49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其瀆盧國與倭接界.”

수 있다는 것이다.⁵⁰ 이렇게 낙랑·대방군이 존재할 당시에도 한반도 남부 지역이 일본의 세력권이었다는 그의 생각은 『일한관계』에서도 동일했다.⁵¹ 낙랑군 시기 이래 한반도 남부에 일본의 통치권이 미쳤다는 스에마쓰의 구상은 전전부터 전후까지 변함없었다.

하지만 전전에는 낙랑군 시기의 통치권과 낙랑·대방군 소멸 이후의 통치권을 동일한 성격으로 이해하고, 중국 군현이 한반도에서 사라진 후 한반도 남부의 소국들을 백제·신라가 통일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저지하고자 임나일본부라는 일본의 통치권이 부활한 것으로 보았다면, 전후에는 임나는 낙랑·대방군 소멸 이후 그 이전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던 것과는 달리 백제·신라에 병합되지 않은 소국들의 통일을 위한 통치권으로 보는 변화가 있었다. 임나일본부에서 임나로의 명칭 변화는 이러한 그의 구상 변화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과거의 “부활”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쇠망”의 역사를 걸었던 임나일본부와는 달리 임나의 역사는 369년에 새롭게 남선을 경영하기 위해 성립해서 6세기 후반까지 존속하며, 서명 그대로 『홍망사』로서 재정립되었다.⁵² 이러한 구도에서 볼 때, 지금까지 서술한 “성립”과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창성”이다. “쇠퇴-멸망”은 4~6세기의 남선경영을 쇠망의 역사로만 이해했던 전전의 이해 방식에 근거한 것으로, 그 서술의 열개 역시 대동소이하지만, “창성”이라는 역사적 국면은 전전 “쇠망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에마쓰는 무엇을 근거로 전전 쇠퇴로 보던 4세기 이후 남선경영의 역사에서 “창성”을 이야기했던 것일까?

50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51~52쪽.

51 末松保和, 1933, 앞의 책, 18쪽.

52 이는 연구사 정리 이후, 임나의 “成立(3장)-昌盛(4장)-衰替(5, 6장)-滅亡(7장)”으로 구성된 『임나홍망사』의 편제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즉, 末松은 4세기 이후 남선경영의 역사를 임나를 중심으로 한 “성립-창성-쇠퇴-멸망”의 과정으로 서술한 것이다.

III. 일본의 대(對)대륙 교통 구상의 지속과 확장

4세기 후반의 한일관계를 “창성”이라는 단어로 정리한다는 것은 전전 스에마쓰가 그렸던 역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것으로, 『홍망사』에서만 등장하는 새로운 부분이다. 『홍망사』 제4장 「임나의 창성」은 임나 문제 발전의 기점으로 일본의 출병이 있던 391년(신묘년)을 제시하며 시작하고, 제5장 「임나의 쇠퇴」는 475년 백제의 웅진 천도로 시작한다. 즉, 스에마쓰는 391년부터 475년까지의 기간을 임나의 창성기로 본 것이다.

스에마쓰는 「임나의 창성」에서 광개토왕릉비의 비문을 근거로 신묘년(391) 이후 407년까지 한반도의 정세를 남하하는 고구려군과 반격하는 일본군 사이의 전쟁으로 정리했다. 전쟁이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본이 이미 한반도 내에서 360년대부터 반세기 동안 군사력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일본서기』를 주된 근거로 호태왕 사후 한반도의 상황, 바로 신라·백제를 사이에 둔 고구려와 일본 세력의 대립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고구려와 일본 양측에 볼모를 보내 상황을 모면하려 했으며, 백제는 일본의 힘을 빌려 고구려의 남하를 막기 위해 국군(國郡)을 설정하고, 여인·왕의 동생·문인(文人)이나 공인(工人) 등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⁵³ 즉, 369년에 창설된 임나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를 거치며 그 세력이 신라와 백제에 미쳐 이들로부터 인적 공헌(供獻)이 이루어질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의 대부분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일본서기』에 근거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스에마쓰는 한반도 내 일본 세력의 강화를 중국의 사료를 통해 확증하고자 했다. 바로 중국 정사에 나타나는 중국과 일본의 통교에 대한 기사들이 임나의 창성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먼저 스에마쓰는 『일본서기』 오진천황(應神天皇)과 유라쿠천황(雄略天皇)과 오국(吳國), 즉 중국(中國)과 통교 기사들

53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55~67쪽. 신라·백제의 이런 조치들이 바로 양국에 대한 임나의 간접지배의 내용이었다.

을 제시했다. 그는 오국 통교 관련 『일본서기』의 기사들을 “어디까지나 전설적”인 것이라면서도 그 이면에는 고도의 외교 및 교섭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담고 있어 임나 창성의 일면으로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했다.⁵⁴ 그리고 그는 “전설적”인 『일본서기』 기사 대신 의희(義熙) 9년(413) 왜국이 동진(東晉)에 방물을 바쳤다는 『진서(晉書)』의 기사를 시작으로, 천감(天監) 원년(502) 진동대장군(鎮東大將軍) 왜왕(倭王) 무(武)를 진호(進號)하여 정동장군(征東將軍)으로 삼았다는 『양서(梁書)』의 기사까지, 모두 13건의 중국 정사 기록을 제시했다. 남조(南朝)와의 통교가 시작된 413년은 임나의 창성기가 왔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⁵⁵ 즉, 스에마쓰에게 중일통교는 임나의 창성을 알리는 표지(標識)였으며, 이는 “전설적”인 『일본서기』가 아니라 중국 정사라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사실 스에마쓰에게 중국과 일본의 통교는 한반도 남부에 일본 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다. 때문에 그는 임나 창성 이전부터 중국 정사에 나타나는 중일관계 기사를 주목했다. 즉, 후한 중원(中元) 2년(57) 왜노국왕(倭奴國王)이 사신을 보냈다는 『후한서』 기록부터, 『삼국지』 위서 동이전 왜조(倭條)의 여러 기사 및 태시(泰始) 2년(266) 왜의 여왕이 사신을 보내 조헌(朝獻)했다는 기사 역시 남선정영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었다.⁵⁶ 스에마쓰는 『홍망사』에서 중국 정사에 나타나는 중일통교는 1세기부터 266년까지 나타나다가 사라지고, 413년부터 다시 등장하며, 266년부터 413년까지 약 150년간은 보이지 않는다고 정리했는데,⁵⁷ 이는 고대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사항이었다.

그런데 스에마쓰가 일본의 남선정영을 이야기하며 중일관계를 주목하는 것

54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68~69쪽.

55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166쪽.

56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49~50쪽.

57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69쪽.

은 1945년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단, 차이가 있다면 전전에는 150년간의 단절 이전, 1세기부터 266년까지 중국 정사에 나타나는 중일관계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이다. 『일한관계』에서 스에마쓰는 1~3세기에 나타나는 중일의 빈번한 교통은 한반도 내의 중국 군현과 일본 이 오래전부터 교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서술했다. 즉, “낙랑해중유왜인(樂浪海中有倭人) 분위백여국(分為百餘國) 이세시래헌현운(以歲時來獻見云)”이라는 『한서』 지리지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일찍부터 낙랑군과 교통했고, 이는 위(魏)의 대방군과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렇게 낙랑·대방군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빈번한 통교가 연장”한 결과 일본의 사신은 이른 시기부터 중국의 조정에 입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스에마쓰는, 중일교통은 “해동에서 왜국의 엄엄확호(嚴嚴確乎)한 존재를 승인하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1세기 이래 중일교통을 특필했다.⁵⁸

일본과 낙랑·대방군 사이의, 다시 낙랑·대방군을 경유한 일본과 중국 사이 교통의 연쇄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왜국의 지나통교(支那通交)는 낙랑군을 경유하는 것이고, 낙랑군으로의 항해는 한지(韓地)를 경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 북부지방의 낙랑군까지 일본의 사신이 갔다는 것은 일본과 낙랑군 사이에 중간 기착지로 일본의 세력지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왜와 한의 관계는 이른바 왜와 낙랑군 및 지나본토와의 관계의 전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왜국의 반도영유는 긍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바로 일본과 낙랑군 교통의 중계지로서 왜가 한반도 남부의 구야한국을 영유한 것이 오래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⁵⁹ 즉, 스에마쓰는 이미 1930년대부터 사료와 유물의 증거가 박약한 남선경영을 중국 정사에서 전하는 중일관계에 대한 기사에 근거하여 주장하여, 남선경영의 기원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일본을 대륙과 연결시키고 있었다.⁶⁰

58 末松保和, 1933, 앞의 책, 8~11쪽.

59 末松保和, 1933, 위의 책, 13~14쪽.

60 이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9,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일본의 통교가 나타나는 것, 그것도 빈번했던 것은 일본의 남선경영-이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사료나 유물이 없더라도-이 확고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266년 이후 150년간 중일관계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남선경영에도 문제가 벌어졌음을, 413년부터 중일통교의 재개는 남선경영의 회복을 의미했다. 하지만 1945년 이전 스에마쓰는 266년 이후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서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266년 이후 중일교통이 나타나지 않는 150년간은 “왜인의 통교가 단절되었을 때는 진한·마한의 지나입공(支那入貢)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동이제국(東夷諸國)이 발흥”한 시기로 한반도 토착 종족의 통일, 곧 백제와 신라가 흥기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추동한 배경은 “지나본토에서 정치적 권력의 분열·동요”로 인한 서진 초기 이래 낙랑·대방군의 “실추(失墜)”였다.⁶¹ 그렇지만 일본은 한반도·대륙 방면으로의 진출을 멈출 수 없었으며, 낙랑·대방군의 약화와 백제와 신라의 통일 운동이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 정토(征討)를 결행했으니, 그것이 곧 광개토왕릉비의 신묘년 기사 내용이며, 이를 계기로 “임나일본부”를 성립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백제와 신라는 아직 통일을 완수한 것은 아닌 미약한 상태였고, 북방의 고구려와 남방의 일본이 대립하는 형세에서 일본은 404년 대방의 경계에 있는 고구려를 공격했으며, 이로부터 9년 후인 413년 마침내 남조에 사신을 보냈다는 것이 전전 스에마쓰의 설명이었다.⁶²

스에마쓰의 설명대로라면 413년 남조에 대한 왜의 사신 파견은 신묘년 출병을 계기로 “임나일본부”가 성립하며 남선에 대한 지배권을 일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그는 413년 이후 나타나는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술하지 않고 있다. 즉, 57년에서 266년에 이르는 중일통교의 전제로서 남선경

경향-이마니시 류(今西龍)와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87, 409~422쪽 참고.

61 末松保和, 1933, 앞의 책, 14~16쪽.

62 末松保和, 1933, 위의 책, 16~17쪽.

영을 위치지으며 논증하고, 중국 군현의 약화와 백제·신라의 통일 운동으로 인한 150년간의 중일 교통의 단절 및 413년의 재개까지는 중국 정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413년 이후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못했다. 1945년 이전에 스에마쓰가 413년 중일교통의 재개 이후에 대해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150년간의 단절기는 낙랑·대방군의 약화·소멸과 아울러 동이제국의 발흥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 세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임나일본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과거의 세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묘년 출정을 계기로 성립했지만, “홍망이 아닌 쇠망”의 역사를 걸어갔다. 즉, 임나일본부 설치 이후, 바로 4세기 이후 한반도 남부의 일본 세력은 내리막을 걷고 있었다는 구도에서 413년 중일관계의 재개 이후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후 『홍망사』에서 스에마쓰는 전전부터 내세웠던 한일관계는 대륙과 일본 관계의 전제라는 구도 속에서 4세기 이후의 남선경영 및 중일교통의 재개를 논증했다. 먼저 전전에 제시했던 150년의 단절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다 꼼꼼히 서술했다. 하나는 낙랑·대방군이 멸망하고 낙랑군의 고지(故地)에 고구려가 들어선 것이다. 아마토 정권에게 한반도 내 중국 군현은 문화적 교섭 상대이자 중국 본토로의 매개체였지만 낙랑·대방군의 약화·소멸은 중국과 일본과의 교통 경색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는 1945년 이전의 논지와 동일한 것이지만, 전후 스에마쓰는 이에 고구려에 대한 서술을 더했다. 즉, 낙랑군 멸망 후 들어선 고구려는 무력을 바탕으로 남쪽을 압박하며 팽창하려 했기 때문에 중일교통의 경색은 물론 한반도 남부의 일본 세력과 무력적 충돌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낙랑이 멸망하기 전부터 나타난 한(韓) 제국(諸國)의 통합 활동이 낙랑의 멸망을 계기로 더욱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신사태(新事態)”는 적어도 300년간 한반도에서 이어져온 왜인의 활동을 곤란하게 했다. 이에 아마토 조정은 369년 제3의 통일체로서 한지의 통합을 기도하여 임나를 성립시켰는데, 이는 중국에 이르는 한반도 서안 및 남안의 해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는 것이 스에마쓰의 설명이다.⁶³

이와 같은 스에마쓰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413년 일본과 남조의 통교가 재개되어 6세기 초반까지 지속했던 것이 임나의 창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낙랑·대방의 소멸 및 백제·신라에 의한 한반도 남부 소국들의 통일 운동에 대응해 일본 세력은 임나의 성립으로 일신했기 때문에 150년간 단절된 야마토 조정의 대(對)중국 통교 역시 재개·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스에마쓰는 413년에서 502년 사이 중국 정사에 보이는 중일교통의 기사 13개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 13개의 기사 중 2번째에서 11번째까지의 10개 기사는 모두 『송서(宋書)』의 것으로, 야마토 조정이 송을 상대로 한 작호(爵號) 요청과 그에 대한 송의 진호(進號)에 관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바로 야마토 조정이 ‘사지절도독 왜 백제 신라 임나 진한 모한 육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使持節都督 倭 百濟 新羅 任那 秦韓 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이라는 작호를 요청한 것에 대해 송 조정이 조금씩 이를 인정해주었지만, 결코 백제에 대한 작호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⁶⁴ 즉, 야마토 조정은 송에 대해 자신들이 영유 또는 지배하는 한반도 남부의 여러 세력에 대해 그 지배권을 인정해줄 것을 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송은 백제에 대한 일본의 지배 권한만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스에마쓰도 일본이 송에게 백제에 대한 작호를 요청한 것이 야마토 조정의 백제 영유·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더군다나 당시 백제는 야마토 조정에 대해 복속의 예를 다하면서도 송과도 통교하여 ‘진동장군(鎭東將軍)’,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의 작호를 받고 있었다. 백제에게 이러한 작호를 내린 송으로서도 야마토 조정의 요청을 수용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송에 대한 야마토 조정의 거듭된 요청은 오히려 백제에 대한 지배가 쉽지 않았으며, 고구려의 남하에 대항한다는 의미도 갖는다는 것이

63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51~52쪽.

64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68~71쪽.

스에마쓰의 설명이었다. 즉, 그의 논의대로라면 5세기의 야마토 조정은 한반도 남부 대부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남조의 송 역시 이를 인정하는 바였다. 비록 송으로부터 백제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야마토 조정은 백제가 복속의 예를 다해야 했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세력이었다. 이처럼 4세기 중반 이후 남선지역에 대한 야마토 정권의 강고한 지배력은 중일통교 재개의 전제이자 근거였고, 중일통교를 전하는 중국 정사의 13개 기사는 “임나의 확립과 백제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방증 또는 확증”시켜주는 증거였다.⁶⁵

전전과 전후 스에마쓰의 역사상에서, 4세기 중반 이후 한반도 남부의 일본 세력의 성격이 “과거”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는가, 백제·신라의 통일 움직임과 평행한 “제3의 통일체”였는가라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 성격이 무엇이었던지 한반도 남부에 있던 야마토 조정의 세력이 대륙 통교를 위한 전진기지였다는 점은 변치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에게 일본의 한반도 영유와 중국 통교는 밀접하여 분리할 수 없는 관계였다. 임나 성립 이전에도 1세기 왜의 후한 조공, 3세기 위와의 사신 교류 등 중국 왕조와 야마토 조정의 교통은 낙랑·대방군 및 한반도 남부의 일본 세력지를 경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과 통교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전제가 되는 일본의 한반도 영유-비록 이를 전하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를 의미했다. 이러한 논의 선상에서 413년 남조와의 통교 재개는 이 시기 일본이 한반도에 안정적인 통치권을 구축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곧, 임나의 성립과 창성이다. 따라서 이런 논리에서라면 남선경영은 관련 사료가 일본의 고전에만 등장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것이 “전설적”인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대한 사실”을 담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사의 기사로서 증명된다.

다만 전전에는 낙랑·대방군 소멸 전후의 통치권을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임나일본부”는 “부활”을 위해 두어졌지만 “희망이 아닌 쇠망”의 길을 걸었다

65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72~73쪽.

고 파악하다보니 413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한 채 1세기에서 266년까지의 중일교통을 통해 구야한국 영유의 유구함과 그 이래의 남선정영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반면, 전후에는 369년에 성립한 임나를 시대 상황에 따라 새롭게 편성한 것으로 파악함에 따라 4세기 후반 이후 다시 막강해진 한반도 남부에서 아마토 조정의 영향력을 413년 이후 확인되는 중일교통의 기사들을 통해 확장했다. 즉, 고대 한일관계는 중일관계의 전제라는 스에마쓰의 시각은 전전과 전후를 관통하고 있으며, 전후에는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 서술이 6세기까지로 확장했다고 하겠다.

『일한관계』, 『임나홍망사』라는 서명이 말해주듯이 이 저작들에서 스에마쓰는 고대 한반도 남부지방에 대한 일본의 통치에 대해 서술했다. 하지만 스에마쓰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미 『일한관계』에서 그는 “고금 어떤 시대에도 우리나라(일본: 인용자)의 대외정책이 반도를 최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들의 주안점은 대(對)신라·대(對)백제 관계에 한(限)하지 않고 근본적인 의의를 대(對)지나관계에 두었”기 때문에 중일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당면의 일한관계의 추이가 관찰되는 것”이라며,⁶⁶ 남선정영이란 한일관계는 중일관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시각은 전후 『홍망사』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스에마쓰는 『홍망사』의 서두에서 이 저작의 주안점은 두 가지로, 하나는 “임나를 주축으로 한 일본의 대(對)한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임나를 주축으로 한 일본의 대(對)대륙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⁶⁷ 뿐만 아니라 결론에서도 임나홍망사는 결국 일본의 대륙관계사의 일부분이며, 고구려·백제·신라 삼국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 남조와의 통교도 임나 문제 속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할 필요가 있음을 재론했다.⁶⁸ 즉, 임나는 남선정영의 실체이자 아마토 조정의 대(對)한 관계 및

66 末松保和, 1933, 앞의 책, 29쪽.

67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20쪽.

68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164쪽.

대(對)대륙 관계의 중심=주축이었다. 그가 생각하고 있던 기원 전후~6세기의 중일관계는 남선경영이라는 일본 우위의 한일관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해명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렇지만 스에마쓰의 논의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그는 『일한관계』 결론에서 “일한관계에는 두 가지 주류”가 있다며 하나는 한반도의 영토적 복속, 다른 하나는 반도를 넘어선 중국문화에 대한 지향이라고 했다. 즉, 일본 사회의 중국문화 지향은 “일한관계의 또 다른 한 가지 주류”로, “우리 고대 및 상대 문화형성에 참여”했다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다.⁶⁹ 『홍망사』의 마지막 장 역시 「임나 문제와 일본상대문화(日本上代文化)」로 임나가 당면한 문제는 문화 수입이었다고 한다.⁷⁰ 스에마쓰는 시종일관 중일관계를 통해 그 전제가 되는 한반도 남북 영유를 확인하고, 다시 남선경영을 통해 수입한 중국문화를 바탕으로 이룩한 일본 사회의 발전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즉, 그가 결론적으로 제시했던 것은 이른 시기부터 중국문화를 수용하며 변화·발전해 나갔던 일본의 모습이었다고 하겠다.

스에마쓰는 『홍망사』의 마지막 장을 상대(上代) 일본이 대륙과 맺은 교통의 역사를 종합·정리하는 것으로 장식했다. 그는 이를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했다. 임나홍망사로써 ‘임나기(任那期)’, 그 전 시기인 ‘낙랑기(樂浪期)’, 그리고 그 이전 시기인 ‘선사기(先史期)’가 그것이다.⁷¹ 선사기 금속기 수입을 주요 목적으로 한 대륙과의 교통과 그 문화의 수입은 낙랑기에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때 유입된 한(漢) 문화는 단순한 개별 물품을 넘어 그 제조 기술 및 제조 기술자의 수입까지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일본에 유입된 중국문화는 일본 사회 발전의 주요한 계기였다. 중국문화의 소유자는 정치권력자가 되었고, 이러한 지배 권력의 성장은 정치사회의 발전, 바로 정치적 통일을 의미했다.⁷² 『일한관

69 末松保和, 1933, 앞의 책, 65쪽.

70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180쪽.

71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164쪽.

계』에서 스에마쓰는 266년부터 413년까지 중일교통이 단절된 기간을 한반도의 정세 변화라는 외적 환경이 변하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내부의 변화, 바로 지금껏 수입한 중국문화를 “반추(反芻)하고 저작(咀嚼)하며, 흡수(吸收)하고 해독각성(解毒覺醒)”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보았다.⁷³ 즉, 중일관계가 잠시 단절된 기간은 일본 사회가 종래 수입한 중국문화를 자기화하여 성장·발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발전이 어느 정도에까지 도달하였을 때 대륙교통의 목적은 일전(一轉)하여 “수입문화의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낙랑기가 끝나고 임나기에 들어서는 4세기 전반이었다. 이 시기 일본은 일대 전환을 맞이하여 대륙문화·한(漢)문화에 대해서도 정신문화 면으로의 욕구가 싹트었으며, 임나 성립기 한인(漢人)과 한인(韓人) 등 귀화인의 도래는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자 임나 성립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그리고 귀화인은 일본 역사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아마토 조정의 정치력·경제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스에마쓰의 설명이었다.⁷⁴

귀화인에 대한 언급은 『일한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중국 통교가 중단된 150년간 일본 사회는 일대 전환을 맞이하여 일본에서 중국문화에 대한 형이상학적 방면으로의 욕구가 싹트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로서 귀화인을 언급한 것이다.⁷⁵ 하지만 전전 스에마쓰는 한반도(백제)와 중국(남조)으로부터 문물을 구하던 소위 “귀화인외교(歸化人外交)” 시대의 일본은 대외적으로 “문약굴종(文弱屈從)으로 기울어 군사 방면으로 실의부진(失意不振)하고 소극적이었으며 정신적으로 이완했다”라며,⁷⁶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였다. 하지만 전후에는

72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175~176쪽.

73 末松保和, 1933, 앞의 책, 51쪽.

74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176쪽.

75 末松保和, 1933, 앞의 책, 54쪽.

76 末松保和, 1933, 위의 책, 53~55쪽.

일본이 임나를 성립시키고 오히려 임나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임나의 창성을 맞아 임나로부터 혹은 임나를 경유한 인물과 물자의 수입도 최고조에 달했다며, 적극적으로 평가했다.⁷⁷ 즉, 스에마쓰에게 중국으로부터의 문물 수입은 일본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임나일본부”로 대변되는 4세기 중반 이후를 “쇠망의 역사”로 이해하며 5세기 이후의 중일교통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던 1945년 이전에는 외래문화 수입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이야기했다면, 전후 4세기 중반 이후 새롭게 “성립”하여 “창성”했던 “임나”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이러한 평가는 사라지고 문화 수입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한 것이다.

스에마쓰가 대륙의 선진적인 문물 수입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로 주목한 것이, 바로 『홍망사』에서 공들여 서술한 413년 이후 중일교통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마토 조정은 백제의 영유 내지 지배를 송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지속하며 진호를 요구했지만, 이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왜는 결국 남조와의 통교를 끊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는 외교로서 실패한 것이었다.⁷⁸ 그런데 스에마쓰가 볼 때 이러한 실패는 “절반의 목적”인 외교에서일 뿐이었다. 왜의 남조 통교에는 또 다른 절반의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중국으로부터의 문물 수입이 그것이었다. 비록 남조 통교의 외교적인 목적인 작호에 ‘백제’를 넣지는 못했지만, 임나의 당면 과제인 중국으로부터의 문물 수입은 “최고조”였다는 것이다.

일본과 대륙의 관계에 대한 스에마쓰의 구상은 시종일관했다. 『일한관계』에서도 『홍망사』에서 서술한 낙랑문화, 불교 전래와 견수(遣隋)·견당사(遣唐使) 등이 일본의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을 서술했다. 여기서 제시한 그의 구상 역시 큰 틀에서 『홍망사』의 구도와 다르지는 않으며, 낙랑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서술은 전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일

77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166~167쪽.

78 末松保和, 1949, 위의 책, 74쪽.

한관계』에서는 임나 성립 이후 남조 통교에 관한 이야기는 413년 통교의 재개만 언급한 채 그 의미를 언급하지 못했다.⁷⁹ 하지만 413년 이후 중일통교 관련 기사들은 『홍망사』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와 결부되며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 그리고 이는 원하는 작호를 받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비록 외교적으로는 실패였지만, 중국문물의 수용을 위한 대륙과의 교통과 그 교량으로서 임나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절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다. 또 이 절반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도 이 시기는 “임나 창성기”였던 것이다. 즉, 대륙과의 교통을 통한 선진문화를 수용하여 이른 시기부터 체제를 정비하여 발전을 이룬 일본이라는 스에마쓰의 구상은 변함없었으며, 전전에는 4세기 중반 이전, 곧 낙랑군 시기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했다면, 전후에는 이를 발판으로 4세기 후반 이후까지도 서술을 구체화하면서 자신의 구상을 확장했던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문물이 일본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그의 인식은 임나의 쇠퇴기와 멸망기에도 계속된다. 임나 현지(現地)는 백제의 한성 함락 이후 쇠퇴기로 접어들었지만, 일본으로의 정신문화 수입은 오히려 발전해 다음 단계가 출현한다는 것이다.⁸⁰ 스에마쓰가 발전의 징표로 본 것은 오경박사의 초빙과 불교의 전래였는데, 이는 일본이 임나 지역의 일부를 백제에 할양해주는 대가였다. 즉, 임나는 축소되었지만, 일본에 한 단계 높은 중국문화가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스에마쓰는 불교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국가통일의 원리로서, 대외적으로는 세계관의 확대를 통해 중국 사상의 기미를 벗어나 민족국가의 자주 관념을 촉진하는 계기로서 이해했다.⁸¹

선진적인 중국문화의 수입을 통한 일본 사회의 발전이라는 스에마쓰의 시각은 562년 임나 멸망 이후의 서술로 연결된다. 전술했듯이 그는 중일교통은 일본의 남선경영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논리대로

79 末松保和, 1933, 앞의 책, 55~56쪽.

80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178쪽.

81 末松保和, 1933, 앞의 책, 57~58쪽.

라면 562년 임나의 멸망은 중일교통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임나의 멸망이 일본의 대한(對韓) 관계나 대(對)대륙 관계의 종지점(終止點)은 아니었다”라고 한다. 이때에는 이미 일본의 상대 문화가 임나 문제를 초월했기 때문이다. 즉, 대중국 교류를 설명하기 위해 구축한 스에마쓰의 논리는 임나의 멸망까지만 적용되었다. 임나의 멸망 이후부터는 한반도 남부 영유가 대중국 교류의 전제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제 일본이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중국과 교류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임나의 멸망 이전에는 중국의 문화를 수입하기 위해 “백제로부터 교사(敎師)를 기다리는 시기”였다면, 다음 단계는 “일본이 습학(習學)하러 떠나는 시기”였다. 그리고 습학을 위해 떠난 유학생·유학승이 수학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던 시기였다.⁸²

이 점에서, 전전의 논의를 구체화하고 확대한 『홍망사』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645년 착수한 다이카 개신은 낙랑기 이래 600~700년간 쌓인 대륙 문화가 일본의 국토와 사회에 일반화되는 최초이자 최대의 기회였으며, 다이카 개신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즉 일본 상대사의 추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임나 문제를 매개로 하여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 임나 문제의 결말이 다이카 개신과 때를 같이하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임나 문제에 대한 스에마쓰의 서술은 궁극적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 즉 기원 전후부터 대륙의 선진문물을 수용한 고대 일본의 발전을 종합하는 다이카 개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에마쓰의 연구는, 그가 『홍망사』의 서두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힌 두 가지 사항, 임나를 주축으로 하는 “대한 관계 및 대대륙 관계의 전개 및 소장(消長)”, 즉 고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 및 일본의 남선 경영과 이를 매개로 한 중국(대륙)과 일본의 교통을 넘어서 기원 전후에서 7세기 중반에 이르는 700년 이상의 중일관계를 통해 선진문물을 수용한 일본 사회의 발전을 향하고 있었다.

82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180~181쪽.

IV. 맺음말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경영설은 19세기 말 이래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통치를 거치며 만개했다. 조선총독부 차원의 발굴은 물론 일본의 주요한 역사가들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몇 개의 기사를 중심으로 이를 역사적 실체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1920년대 중반 조선사편수회의 수사관보로서 조선에 온 이후 경성제대 조선사학 강좌 담당 교수로 부임하여 1945년까지 조선에 머물며 한국 고대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펼친 스에마쓰는 그 가운데 한 명으로 1949년 『임나홍망사』를 통해 일본인 역사가들에 의해 전개된 남선경영설을 종합·정리했으며, 이 저작은 이후 일본학계에 다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도 남선경영이라는 논의를 1945년 이후에도 주장했던 스에마쓰를 식민주의 역사학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전에서 전후에 걸친 남선경영에 대한 그의 논의는 변화했다. 바로 한반도 내 중국 군현이 쇠락·멸망하는 한편 백제와 신라를 중심으로 삼한 소국들의 통일이 이루어지던 4세기에서 6세기, 남선에 대한 야마토 조정 통치권의 성격과 그 추이에 대한 사항이 그것이다. 전전 스에마쓰는 이를 “임나일본부”라 칭하며, 이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로 약화된 일본의 통치권을 “부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홍망이 아닌 쇠망”의 역사를 걸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전후 『홍망사』에서는 백제, 신라라는 남선 지방의 통일 운동에 필적하는 제3의 통일 운동체로서 369년에 성립한 “임나”가 이후 ‘창성-쇠퇴-멸망’의 과정을 거쳤다는 역사상을 그려냈다. 이러한 역사상을 펼치며 스에마쓰는 남선경영의 주요한 사료적 근거인 『일본서기』 기사 사실성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폈다. 전전 그 사실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기의 기년에 대한 당시 통설이라 할 수 있는 2주갑 인하설을 부정하는 태도에서, 전후에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홍망사』에서 그는 통설을 따르며, 기기에서 전하는 임나 관련 사항들을 오래된 한일관계를 전하는 것이지만 곧바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다 실증에 철저한 자세를 보였다. 전후 스에마

쓰는 이러한 입장에서 전전에 시도하지 못했던 지명 비정, 통치권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논증했다. 즉, 전후 남선경영에 대한 스에마쓰의 논의는 전전에 비해 실증성과 구체성의 측면에서 더욱 치밀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전 쇠망의 역사로 그려냈던 4~6세기의 남선경영을 흥망의 역사로 재정립했다.

그런데 남선경영에 대한 전전에서 전후에 걸친 스에마쓰 논의의 변화·재정립은 그것이 전제·내포하는 또 하나의 논의 위에 서 있는 것이었다. 바로 한반도를 매개로 하는 대륙과 일본의 교통이다. 즉, 야마토 조정은 이른 시기부터 대륙-중국과의 교통을 통해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때 한반도는 중일교통을 위한 교두보였다는 것이다. 전전 『일한관계』에서 스에마쓰는 1~3세기에 이르는 기간의 빈번한 중일교통을 『후한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 등 중국 정사의 기사를 통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이러한 중일교통은 『한서』 지리지에 나타나는 낙랑군과 왜의 교통의 연장이며, 당시 일본에서 낙랑군으로의 항해는 한반도 남부에 일본의 중간 기착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중일관계의 전제로서 한일관계, 바로 야마토 조정의 한반도 남부 경영을 위치지웠다.

하지만 전전의 스에마쓰는 5세기 초부터 6세기 초까지 『진서』, 『양서』 등에서 나타나는 중일교통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못했다. 4세기 이래 남선경영을 쇠퇴로 보는 시각에서 한반도를 매개로 하는 중일교통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전후 4~6세기의 남선경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중국 정사에 나타나는 413년 이래 중일교통의 기사들을 임나의 창성을 보여주는 표지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낙랑·대방군 등 한반도 내 중국 군현이 사라지고 백제·신라가 소국을 통일하며 성장하던 4세기 이후에도 한반도 남부에 대한 야마토 조정의 통치권은 유효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중일교통 역시 번성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에마쓰는 전전부터 제기한 중일교통의 전제로서 남선경영이라는 구상을 6세기까지 확장했다. 즉, 전전에 설명하지 못했던 4세기 이후 중일교통을 통해 남선경영의 창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스에마쓰가 주장했던 남선경영설은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진 중일교통과 이를 통한 일본으로의 선진문물의 유입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한반도 남부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은 일본에서 중국을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서 중일교통의 전제였으며, 또 역으로 중국 정사에 나타난 중일교통 기사는 관련 유물이 전무하며 사료적 근거 역시 박약한 남선경영의 근거로 작용했다. 즉, 스에마쓰의 남선경영설은 한반도 남부에 대한 일본의 지배와 오래된 중일교통이라는 두 가지의 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또 오래된 중일교통은 일본 사회의 발전이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른 시기부터 대륙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서 국가 체제 역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야마토 조정은 바다 건너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힘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후 스에마쓰는 이러한 구상을 임나가 존속했던 6세기까지 확장하고, 이를 다이카 개신으로 연결해, 고대 일본 사회의 발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임나의 흥망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맺었다.

그런데 남선경영을 중일통교와 연결지어 사고했던 것은 스에마쓰가 처음이 아니다. 그에 앞서 1910년대 이래로 남선경영에 대해 논의했던 이마니시, 쓰다,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역시 임나 문제를 중국으로 대표되는 대륙과 일본의 교통 속에서 논의했고, 이를 야마토 조정의 발전과 관련지었다.⁸³ 식민주의 역사학이 19세기 후반 이래 일본인들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일본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 연대라는 과제에 해답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을⁸⁴ 상기해볼 때 전전 남선경영에 대한 일본인 역사가들의 연구는 일본의 역사는 고립된 섬나라의 역사가 아닌 그 시작부터 대륙과의 관계 속에 위치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본 주도의 아시아 연대라는 과제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과정이었다고도 하겠다. 또

83 이에 대해서는 정상우, 2021, 앞의 글; 김성현·정상우, 2022, 「쓰다 소키치는 고대 일본의 한반도 정벌을 통해 어떠한 歷史像을 그려냈는가」, 『사학연구』 145; 정상우, 2024, 「한반도를 매개로 대륙과 일본을 연결시키기-임나일본부, 낙랑군에 대한 이나바 이와키치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105.

84 정상우, 2023, 앞의 글, 255~257쪽.

이러한 일본인 역사가들의 연구 이후 등장한 스에마쓰의 저작들은 선배 역사가들의 논의를 종합하는 것으로, 특히 전후에 발간된 『홍망사』는 오래된 일본의 남선경영 및 대륙과의 교통 결과를 고대 일본 사회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다이가 개신으로 연결한 것이라 하겠다.

1960년대 이후 식민주의 역사학의 극복이 화두가 된 이래 임나일본부 또는 임나 문제는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부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이었다. 때문에 임나 문제에 대한 연구는 한일 양측의 학계 모두에서 많은 성과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사 정리도 몇 차례 이루어졌다. 1960년대 말 김석형의 이른바 ‘분국설’이 등장하며⁸⁵ 임나일본부에 관한 재검토가 제기되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임나일본부를 야마토 정권의 한반도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임나 연구의 고전으로 상찬받은 것이 스에마쓰의 『홍망사』였다.⁸⁶ 하지만 1970년대 들어 그의 학설은 수정되기 시작해,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지배의 기간 및 그 지배력이 미친 공간은 축소되어갔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가야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지방을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는 거의 사라지고, 임나 혹은 일본부의 문제를 백제, 가야, 왜 사이의 외교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⁸⁷

이러한 연구의 추이를 보면 임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남선경영설이 지니는 한반도 남부지방에 대한 일본의 지배라는 의미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며 당시의 역사상에 근접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륙과 일본의 교통, 이를 발판으로 한 고대 일본 사회의 발전이라는 남선경영설의 또

85 金錫亨, 1969, 『古代朝日關係史-大和政權と任那-』, 勁草書房.

86 鬼頭清明, 1975, 「近年の古代日朝關係史研究の諸問題-論点整理のためのノート-」, 『史學雜誌』 84-4, 60~65쪽.

87 임나 문제에 관한 한일 양측의 연구 동향은 金泰植, 2002, 「古代 韓日關係 研究史-任那問題를 中心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7; 이연심, 2015, 「한일 양국의 ‘임나일본부’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 추이」, 『한국민족문화』 57 참조.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비록 임나 문제를 외교와 연결이었지만, 그것이 백제, 가야, 왜라는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스에마쓰를 기리며 그의 연구의 배후에는 늘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에 대한 국제적 시야가 있었다는 평가는⁸⁸ 대륙과 일본의 오래된 교통이라는 스에마쓰의 연구가 지니는 또 다른 의미를 음미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945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식민주의 역사학이 그려낸 역사상, 특히 그 주요한 연구 주제였던 남선경영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대 한일관계를 넘어선 시야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88 武田幸男, 1992, 「末松先生をおくる」, 『朝鮮學報』 145, 222쪽.

참고문헌

자료

- 末松保和, 1933, 『岩波講座 日本歴史 日韓關係』, 岩波書店.
- _____, 1949, 『任那興亡史』(1996, 『古代の日本と朝鮮-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4』, 吉川弘文館 재수록).
- 今西龍, 1918, 「任那に就て」, 『朝鮮彙報』 1918-2.
- _____, 1919, 「加羅疆域考」上・下, 『史林』 4-3・4-4.
- 末松保和, 1933, 「日本上世紀年考批判」, 『靑丘學叢』 13.
- _____, 1935, 「好太王碑の辛卯年について」, 『史學雜誌』 46-1.
- _____, 1937, 「朝鮮史(四)」『朝鮮行政』 1-12.
- _____, 1956, 「古事記崩年干支考」(1996, 『古代の日本と朝鮮-末松保和朝鮮史 著作集4』, 吉川弘文館 재수록).
- 津田左右吉, 1913, 「任那疆域考」, 『朝鮮歴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단행본

- 정상우, 2018,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아연출판부.

- 金錫亨, 1969, 『古代朝日關係史-大和政權と任那-』, 勁草書房.

논문

- 김성현·정상우, 2022, 「쓰다 소키치는 고대 일본의 한반도 정벌을 통해 어떠한 歷史像을 그려냈는가」, 『사학연구』 145
- 金泰植, 2002, 「古代 韓日關係 研究史-任那問題를 中心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7.
- 신주백, 2018, 「末松保和(1904~1992)의 學術史와 식민주의 역사학」, 『東方學志』 183.
- 이만열, 2005, 「近現代 韓日關係 研究史-日本人의 韓國史研究를 中心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4.

- 이연심, 2015, 「한일 양국의 ‘임나일본부’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 추이」, 『한국민족문화』 57.
- 張東翼, 2015, 「末松保和教授의 高麗時代史研究와 그 成果」, 『韓國史研究』 169.
- 장신, 2023, 「근대 일본의 조선사 연구: 통계적 접근」, 『奎章閣』 61.
- 전진국, 2019, 「『任那興亡史』의 논지와 학술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4.
- 정동준, 2020, 「『임나홍망사』를 통해 본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역사관」, 『역사비평』 132.
- 정상우, 2008,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촉탁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68.
- _____, 2019,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경향-이마니시 류(今西龍)와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87.
- _____, 2021, 「식민주의 역사학 속의 일본과 중국」, 『한국학연구』 62.
- _____, 2023, 「동양, 탈아와 정체, 아시아연대와 타율-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단상」, 『역사비평』 142.
- _____, 2024, 「한반도를 매개로 대륙과 일본을 연결시키기-임나일본부, 낙랑군에 대한 이나바 이와키치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105.
- 崔在錫, 1988, 「末松保和의 日本上代史論 批判」, 『韓國學報』 14-4.
- 鬼頭清明, 1975, 「近年の古代日朝關係史研究の諸問題-論点整理のためのノート-」, 『史學雜誌』 84-4.
- 武田幸男, 1992, 「末松先生をおくる」, 『朝鮮學報』 145.
- _____, 1995, 「[解説] 末松保和先生のひとと學問」, 『新羅の政治と社會(上)-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1』, 吉川弘文館.
- 浜田耕策, 1996, 「[解説] 末松保和先生の古代東アジア史研究」, 『古代の日本と朝鮮-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4』, 吉川弘文館.
- 井上直樹, 2010, 「戦後日本の朝鮮古代史研究と末松保和・旗田巍」,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8.

식민주의 역사학의 연속과 불연속

—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현 · 정상우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그의 저서 『임나홍망사』를 통해 일본인 역사학자들이 제시한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경영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일본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런데 전전에서 전후에 걸친 그의 논의를 면밀히 비교·분석해보면, 4~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에 대한 야마토 조정의 통치권 성격과 그 추이에 관한 관점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평가의 근거는 중국 정사에 나타나는 413년 이후 중일교통 기사들이었다. 남조를 상대로 한반도 남부 주요 지역에 대한 일본의 작호 요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기사들은 임나의 창성을 보여주며, 임나의 창성을 매개로 중일교통 역시 번성했다는 것이 스에마쓰의 설명이었다. 즉, 야마토 조정의 남선경영은 중일관계의 전제인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구상은 전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남선경영에 대한 스에마쓰의 서술은 시종일관 한반도를 매개로 하는 대륙과 일본의 교통이라는 또 하나의 논의를 기반으로 했다. 그가 제시한 역사상에서 일본의 남선경영은 한반도 남부에 대한 일본의 지배와 오래된 중일교통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으며, 이 오래된 중일교통은 일본 사회가 이른 시기

부터 대륙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며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다. 스에마쓰는 이러한 구상을 다이카 개신으로까지 연결하여 고대 일본 사회의 발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임나의 흥망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때 1945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식민주의 역사학이 그려낸 역사상, 특히 스에마쓰의 주요 연구 주제였던 남선경영설의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대 한일관계를 넘어서 시야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스에마쓰 야스카즈, 임나, 임나일본부, 남선경영설, 한일관계, 중일교통, 다이카 개신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the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Focused on Suematsu Yasukazu(末松保和)'s Research about the Ancient Korea-Japan Relation

Kim Sunghyun · Jeong Sangwoo

Suematsu Yasukazu is a historian who had a great influence on Japanese academia by comprehensively summarizing the ancient Japanese management theory of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his book *The Rise & Fall of Imna*(『任那興亡史』). However, comparing his discussions from the pre-war to the post-war period, we can confirm that the perspective and explanation on the character of the Yamato's dominance over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4th to 6th centuries has changed.

The basis for this new explanation was the record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since 413 which were in the official Chinese history. Suematsu explained that these records not only showed Imna's prosperity, but also that China and Japan's

diplomatic relations flourished through Imna's prosperity. That is, Yamato's control over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prerequisite for the frequent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end, Suematsu's account of the Yamato's dominance o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as based on another discussion of the close relation between the continent and Japan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ld China-Japan's relation served as the basis for Japanese society's early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the continent's advanced culture. Suematsu concludes his discussion of Imna's rise and fall by linking this idea to the Taika Reforms and presenting the development of ancient Japanese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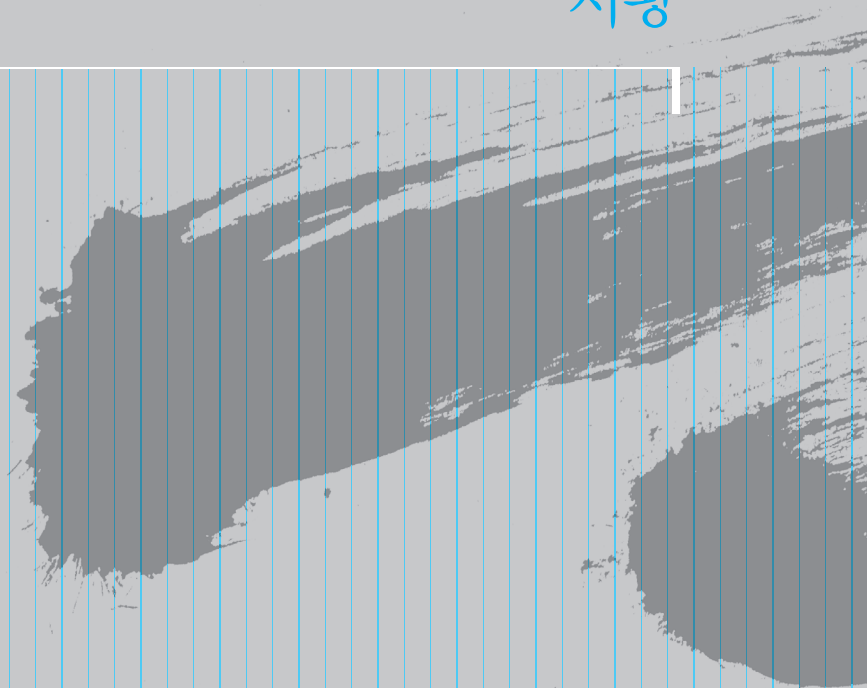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erspective beyond ancient Korea-Japan relations in order to accurately grasp the influence of the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especially the Japan's dominance over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 which was the main research topic of Suematsu-after 1945.

Keywords: Suematsu Yasukazu(末松保和), Imna(任那), the Japanese Ministry of Imna(任那日本府), Japan's dominance over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Japan Relation, China-Japan diplomatic relation, Taika Reform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후금(청) 관계 연구의 실증적 기초

—『明清交替と朝鮮外交』(鈴木開, 刀水書房, 2021)

이재경 |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조교수

I. 머리말

II. 구성과 내용

III. 성과와 의의, 그리고 아쉬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본서의 저자 스즈키 카이(鈴木開) 교수는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동양사학전공을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한국조선문화연구전공에서 석사, 박사를 마쳤으며,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조교 및 시가현립대학(滋賀縣立大學) 인간문화학부 지역문화학과 조교를 거쳐 현재는 모교인 메이지대학 문학부에서 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17세기 전반의 한중관계사, 그중에서도 조선과 후금(청)의 관계에 관하여 주로 연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명 사이에 오고 간 외교문서에 대해서도 연구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서평자는 저자와 비슷한 시기와 주제를 연구하고 있어,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교류하며 저자의 연구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본서 『明清交替と朝鮮外交』는 2017년에 제출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朝清關係成立史の研究-明清交替と朝鮮外交』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을 거쳐 출판된 것이다. 다만 박사학위논문의 내용 중 명 조정 및 가도(蝦島) 동강진(東江鎭) 세력과 조선의 관계를 다룬 두 편의 연구는 단행본에 수록되지 않았다.¹ 본서의 모체가 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서는 명청교체라는 동아시아적 사건에 대해 조선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를 통해 조청관계가 성립해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의 명청교체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성과가 배출되어왔다. 하지만 본서는 기존의 논저들을 충분히 소화하면서도 훨씬 실증적이고

1鈴木開, 2021, 『明清交替と朝鮮外交』, 東京: 刀水書房, 473쪽. 제외된 연구들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鈴木開, 2009, 「1620年の朝鮮燕行使李廷龜一行の交渉活動: 光海君時代における対明外交の一局面」, 『東洋學報』 91-2; 스즈키 카이(鈴木開), 2015, 「劉興治와 朝鮮과의 관계에 대하여」, 『만주연구』 19.

입체적인 역사상을 제출하는 데 성공한 독보적인 저작으로 판단된다. 우선 본서의 구성과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서 본서의 성과와 연구사적 의의, 그리고 서평자가 느끼는 아쉬운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I. 구성과 내용

본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9장의 본문과 1편의 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장절 목차는 다음과 같다.

序 論

一 明清交替の朝清關係

二 時代の概観と史料

第一章 光海君十三年における鄭忠信の後金派遣

第一節 朝鮮と後金の外交交渉の開始

第二節 鄭忠信による外交交渉

第三節 鄭忠信派遣後の朝鮮と後金の關係

第二章 姜弘立の生涯

第一節 姜弘立の出自

第二節 政界における姜弘立

第三節 投降後の姜弘立

第四節 姜弘立の帰還

第三章 丁卯の乱と朝鮮・後金關係

第一節 仁祖三年の使者派遣

第二節 後金の朝鮮出兵の事情

第三節 丁卯の乱と兄弟關係

第四節 丁卯の乱の收束

第四章 朝鮮・後金間の使者往来—一六二七~三〇

第一節 開市をめぐる双方の思惑—仁祖五年

第二節 義州、会寧における開市の始まり—仁祖六年

第三節 春秋信使派遣の開始—仁祖七年

第四節 定着する信使、難航する開市—仁祖八年

補 論 回答使鄭文翼一行の後金における活動

一 鄭文翼の回答使任命

二 瀋陽までの旅程

三 「以金国回答使在瀋陽啓」と『統雜録』所收「啓辞」

四 「以金国回答使在瀋陽啓」と「啓辞」の史料的价值

第五章 『瀋陽往還日記』に現れた仁祖九年の朝鮮・後金関係

第一節 『瀋陽往還日記』の著者

第二節 『瀋陽往還日記』にみえる魏廷詰一行の活動

第三節 魏廷詰一行の国書伝達儀式

第四節 魏廷詰の後金観察

第六章 朝鮮・後金間の使者往来—一六三一~三三

第一節 礼物問題の始まりと贖還の再提起—仁祖九年

第二節 後金による関係改変の試み—仁祖十年

第三節 関係改変の動きに対する朝鮮の反発—仁祖十一年

第七章 丙子の乱直前の朝清交渉—一六三四~三六

第一節 漢城における開市—仁祖十二年

第二節 兄弟関係定着の兆し—仁祖十三年

第三節 ホンタイジの皇帝即位と朝鮮の不満—仁祖十四年

第八章 丙子の乱と朝清関係の成立

第一節 丙子の乱における外交交渉の経過

第二節 定約条年貢諭(南漢山詔諭)の意味

第九章 朝清関係における朝鮮国王号の成立

第一節 ヌルハチ時代

第二節 ホンタイジ時代

第三節 「滿文国史院檔」および「天聰九年檔」

結 論

목차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본서는 정묘·병자호란기,² 보다 구체적으로는 광해군 13년(1621)부터 병자호란이 종결된 인조 15년(1637)까지의 조선-후금(청) 관계의 전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면밀히 추적하는 편년체적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연도별 구성을 취하고 있는 4장·6장·7장이 그러하다. 1장·보론·6장은 각각 광해군 13년(1621)의 정충신, 인조 6년(1628)의 정문익, 인조 9년(1631)의 위정철 사행의 경과를 주로 고찰하고 있지만, 사행 파견의 배경 및 전후의 양국관계를 함께 서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해당 시점의 양국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장 역시 조선과 후금 사이에서 중간적 역할을 부여받게 된 강홍립의 생애를 다루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편년체적 서술방식에서 이탈해 있지만, 광해군대 조선-후금의 교섭을 다룬 1장과 정묘호란의 경과를 서술한 3장 사이에 배치되어 광해군 말~정묘호란기 양국관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편년체적 서술방식에서 의도적으로 이탈한 부분은 후금(청) 사료에 나타난 조선국왕의 칭호를 통해 후금(청)의 조선 인식 변화를 다룬 9장 정도이다.

본서의 내용을 장별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론에서는 정묘·병자호란과 그 이후 조청관계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조선과 청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던 19세기 말~20세기 초 현실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이후의 연구경향을 이나바 이와키치의 『光海君時代の

2 목차에서 확인되듯, 저자는 정묘·병자호란을 각각 “丁卯の乱”·“丙子の乱”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 서평에서는 전통적인 호칭을 따라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표기한다.

滿鮮關係』이래 청의 존재를 과대평가해온 경향과, 17세기 조선의 국가 재건 과정을 다루면서 정묘·병자호란의 영향 및 청의 존재를 과소평가해온 국내 한국사학계의 연구경향으로 대별하여 비판하고, 조청관계 성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서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선과 후금(청) 양국의 시대상을 간략히 개관하고, 본서에서 활용한 사료에 대해 조선 측 사료·청조 측 사료(한문)·청조 측 사료(만문)로 나누어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후술하듯이 본서의 특징점은 다양한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 해당 시기의 사료들을 최대한 파악하여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인데, 서론의 사료 현황 개관을 통해서도 이러한 장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1장에서는 광해군 13년(1621) 정충신의 후금 파견을 정묘호란 이전 조선과 후금 양국이 가장 접근했던 사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후금과의 관계 시작부터 정충신 파견에 이르기까지의 배경, 정충신과 후금 인사들 사이에 벌어진 외교교섭의 실상, 정충신 귀환 이후 양국관계의 전개에 대해 고찰하였다.

저자는 정충신 파견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과 후금 사이에 교섭의 여지가 있었으나, 요동 수복을 기도하는 모문룡의 활동으로 인해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후금의 요구사항이 국서 발송 및 사신 왕래에서 모문룡 압송으로 변화하면서, 광해군 15년(1623) 후금의 조선 사신 선발대 살해를 계기로 양국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중립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광해군대에는 후금과의 우호가 유지되었으나, 인조반정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이나바 이와키치 이래의 통설을 실증적으로 부정하였다.

2장에서는 사르후 전투 당시 도원수로서 조선군을 이끌었다가 후금의 포로가 된 이후 두 나라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강홍립의 생애에 대해 고찰하였다. 강홍립은 투항 이후 후금에 의해 조선과 교섭하기 위한 인질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 문서 작성 및 조선 측 문서의 해설 등을 수행하면서 양국 간의 교섭에 참여하였으며, 감시의 눈을 피해 조선에 후금 사정을 알리기도 하였다.

정묘호란 발발 이후 강홍립은 강화도에서 인조를 인견하여 후금군이 강화의 성립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등 전쟁 종결 및 단절되어 있던 양국 교섭의 재개에 기여하였다. 저자는 이에 더해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강홍립의 귀환 및 사망, 강홍립 사후 그가 후금에서 데려온 한인들에 대한 처우 문제까지 추적하여 서술하였다.

저자는 강홍립의 활동을 조선 조정의 지시를 따른 결과가 아니라, 그 자신의 귀환을 위해 양국 간의 관계 형성에 진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강홍립을 비롯해 포로가 된 이들이 이후에도 교섭의 중개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양국관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3장에서는 조선-후금 관계의 실질적 기점이 된 정묘호란, 특히 당시의 외교교섭 경과를 고찰하였다. 우선 저자는 인조반정 이후에도 조선 정부는 후금과의 최소한의 교섭을 모색한 반면, 홍타이지 즉위 초 후금의 적극적 대외원정 필요성,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 모문룡 문제로 인해 초래된 조선에 대한 경계 등이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조선이 정묘호란을 자초했다는 기존의 이해를 부정하였다. 이어서 정묘호란 당시의 강화교섭을 추적하면서, 후금 측의 애매한 전쟁 목표와 지도부의 내분으로 인해 발생한 교섭상의 우여곡절에도 조선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섭의 결과 강화도에서 정식으로 강화맹약이 체결되었으나, 저자는 그 내용이 각자 봉강(封疆)을 지키고 작은 일로 다투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데 불과하고, 심지어 형제관계에 대한 언급도 없어, 정전 이상의 적극적 의미를 갖지 않았음을 밝혔다. 한편 강화맹약에 불만을 품은 아민이 돌아가는 길에 독단적으로 조선에 훨씬 불리한 내용의 평양맹약을 강요했으나, 이는 이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의미를 갖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강화맹약에 의한 후금군 본대의 철병 이후에도 평안도 지역에서의 의병활동 및 후금군과의 충돌이 이어져, 정묘호란의 종결은 의주에 주둔하고 있던 후금군이 완전히 철병한 9월 7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저자는 사료를 통해 정묘호란 당시의 교섭과 합의 내용을 추적하여, 양국 간

“형제관계”가 성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세폐나 개시 등의 현안도 정묘호란 단계에서는 합의되지 않아 이후의 외교교섭 주제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정묘호란이 마무리된 인조 5년(1627)부터 인조 8년(1630)까지의 양국 간 사신 왕래와 외교교섭의 경과를 추적하였다. 우선 저자는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후금에 1년에 2차례 춘신사·추신사를 파견하여 예물을 전달하고, 의주와 회령에서 개시를 실시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이 언제 합의되었는지, 사신왕래의 실상은 어떠한지와 같은 기본적 사실조차 전혀 밝혀지지 않았음을 들어 기존 연구를 비판하였다.

저자가 규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묘호란 직후인 인조 5년(1627) 후금은 조선인 포로의 속환 및 개시 실시, 식량 원조를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은 인조 6년(1628) 사신 왕래 및 개시의 정례화를 제안하면서 식량 원조를 겸해 2월 말 최초의 의주개시를 실시하였다. 같은 시기 후금의 일방적 요구로 회령개시가 이루어지고, 거부하던 조선도 결국 이를 용인하여 이해 9월 심양을 방문한 회답사 정문의 일행 편에 춘추 2회의 의주개시와 회령개시의 실시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후 양국 간의 사신 왕래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조선은 인조 6년 12월 최초의 춘신사 오신남 파견을 기점으로 매년 후금에 정례 춘신사·추신사 및 비정기 사신을 파견하였다. 반면 의주개시와 회령개시는 시행에 난항을 겪었고, 후금은 사신을 파견하여 물화를 가져가서 조선에 거래를 독촉하게 되었다.

저자는 소결에서 후금의 장성 이남 침공이나 모문룡의 사망, 가도 내부의 정변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이 시기의 양국관계는 상대적으로 평온하게 전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보론에서는 인조 6년 9월 심양을 방문하여 개시의 정례화와 조선 피로인의 송환 등을 수행한 회답사 정문의 일행의 보고서를 통해 당시 양국 교섭의 한 단면을 조명하였다. 우선 당시 후금이 도망친 조선인 포로의 송환 및 회령개시 실시를 요청한 데 대해, 조선 조정이 사신의 격식 및 교섭능력을 고려해 문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여 정문익이 사신으로 낙점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이때부터 후

금에 보내는 사신의 격식을 일본에 보내는 통신사의 예에 따르게 하였음도 지적하였다. 이어서 정문의 일행의 여정 및 정문익이 남긴 보고서의 판본 문제를 검토하고, 홍타이지와의 알현, 후금 관원들과의 국서에 관한 대화, 홍타이지 및 후금의 상황, 후금과 몽골의 관계 등 흥미로운 부분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정문의 이 당분간 후금에 대해 신의를 보여주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점, 문관을 파견하여 교섭하게 한 조선의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5장에서는 인조 9년(1631) 후금의 예물 증액 요구에 대한 회답사로 파견된 위정철의 『심양왕환일기(瀋陽往還日記)』를 통하여 당시의 양국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저자는 『심양왕환일기』의 저자가 통설에서 알려졌던 박난영이 아니라 위정철임을 고증하였다.³ 이어서 인조 8년(1630) 12월 후금에 파견된 춘신사 박난영 일행이 예물의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당했으며, 역관을 통해 다시 이루어진 예물 전달 시도도 실패했기 때문에 회답사로 위정철이 파견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당시 의주에서는 그동안 미루어졌던 의주개시가 후금의 요구로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던 상황에서, 위정철 일행은 심양을 방문하여 거부되었던 예물 및 국서의 전달에 성공하였다. 즉, 의주와 심양에서 동시에 교섭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저자는 『심양왕환일기』를 통해 당시의 교섭 내용과 함께 조선 사신에 대한 후금의 접대, 후금에 대한 조일관계의 은폐, 약재의 거래, 상대국으로 넘어간 이들에 대한 상호 송환 요구, 위정철이 관찰한 후금의 상황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심양왕환일기』에 따르면 당시 후금은 조선의 외교적 노력을 평가하여 위정철 일행이 가져온 예물을 일단 수령하였고, 인조 5년(1627) 7월의 회답관 신경호(申景琥) 일행이 가져온 예물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3 저자도 언급하고 있듯이, 5장의 모태가 된 논문[스즈키 카이(鈴木開), 2014, 「『瀋陽往還日記』에 나타난 仁祖 9年(1631) 朝鮮-後金關係」, 『한국문화』 68]과 거의 같은 시점에 신해진이 동일한 결론을 제출하였다. 申海鎭, 2014, 「〈瀋陽往還日記〉의 저자 고증」, 『한국고전연구』 29.

한 저자는 당시의 국서 전달 의식을 통해 위정척 일행이 후금에 귀순한 몽골 수장들과 같은 열에 앉는 후대를 받았음을 밝혔다.

6장에서는 인조 9년(1631)~인조 11년(1633) 양국 간의 외교교섭과 예물 문제로 인해 초래된 위기국면, 그리고 그 해소 과정을 다루었다. 후금은 박난영 일행이 가져온 예물을 거부함으로써 예물 문제를 처음 제기했으나, 이는 인조 9년 4월 후금이 위정척 일행의 예물을 수령함으로써 일단 무마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후금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예물의 증액을 다시 요구하였다. 인조 10년이 되면 후금 사신에 대한 접대 격상, 1년에 1회 종래의 10배 가까운 액수의 예물을 보낼 것, 가도 공격을 위한 병선 제공 등 점점 더 많은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후금 사신의 입에서 형제관계를 끝내고 군신관계를 맺자는 내용이 언급되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신 왕래를 정지하자는 홍타이지의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이에 반발한 조선 조정에서는 인조의 의향에 따라 후금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자는 방침이 세워졌다. 다만 현장에 있던 도원수 김시양과 부원수 정충신의 반대로 인해 후금에 보낼 국서의 내용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개찬하고, 국서를 수령한 홍타이지 역시 관계 파탄의 의사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군사적 충돌은 회피되었다. 조선은 후금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예물의 수량을 대폭 증액하였고, 인조 11년 6월을 계기로 예물 문제가 진정된 이후에는 후금의 개시 실시 요구가 양국 간의 새로운 외교적 초점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저자는 후금의 점증하는 요구에 대하여 조선 정부가 한 때는 전쟁을 각오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물 문제에 대해 가능한 선에서 양보하는 대신, 개시 문제는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였다.

7장에서는 병자호란으로 가는 과정으로 여겨지는 인조 12년(1634)에서 인조 14년(1636)의 사신 왕래와 외교교섭을 다루었다. 조선은 후금의 개시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조선 사신이 왕래할 때 상인이 수행하여 거래하도록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사신이 대동할 수 있는 상인의 숫자를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후금은 조선에 보내는 후금 사신 편에 인삼 및 은을 대량으로

보내어 한양에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무역 규모를 늘리려 시도했고, 조선은 이들이 요구하는 무역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더해 명과의 강화 중개 요청, 회령개시 폐지 문제, 예물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외교문서 서식 문제 등의 현안이 있기는 했지만, 후금의 최대 요구였던 의주개시 문제가 조선의 의향에 따라 유야무야되고, 사신 왕래가 거듭되면서 양국관계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찾아갔다.⁴

그러나 인조 13년(1635) 12월 후금에서 홍타이지에게 새로이 존호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홍타이지가 조선국왕에게도 사신을 보내 이에 대해 찬동을 구하도록 하면서, 안정적이었던 양국관계는 파탄을 맞게 되었다. 인조 14년(1636) 2월 후금 사신 일행이 몽골 왕공들의 사신들을 대동하여 한양을 방문하자, 조선은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 동참을 거절하였다. 여기에 심양에 파견된 춘신사 나덕헌·회답사 이학 일행도 홍타이지의 즉위식에서 배례를 거부함으로써 조선이 청제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선은 청의 국서에 답하는 형태로 격서(檄書)를 보내거나, 청 관원의 언질에 따라 역관을 파견하거나, 정식으로 춘신사를 파견하는 등 끝까지 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춘신사 파견을 알리는 역관은 조선을 침공하기 위해 출동한 청군에 붙잡혔고, 조선은 병자호란을 맞게 되었다.

저자는 홍타이지 시기 몽골 왕공들과의 관계가 점차 후금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전제로, 홍타이지는 몽골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조선과의 관계를 인식하였으며, 조선을 몽골과 마찬가지로 청의 금령을 따르고 청의 지배체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으리라 추측하였다. 그러나 조선과의 형제관계는 몽골과의 관계와 내용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애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서 청이 병자호란을

4 저자는 이를 양국관계의 “있어야 할 형태(あるべきかたち)”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표현하였다(鈴木開, 2021, 앞의 책, 344, 370쪽). 맥락상 이는 조선과 후금이 서로 정기적으로 사신을 왕래하며, 주로 사신과 문서를 통해 안정적으로 교류하는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으켰다고 해석하였다. 저자의 논리를 따르면, 병자호란은 어디까지나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라는 청 측의 동인으로 인해 발발한 전쟁이라는 것이다.

8장에서는 조청관계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병자호란 당시의 외교교섭 경과 및 조선의 항복조건으로 청에서 제시한 「정약조연공유(定約條年貢諭)」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우선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청군 선봉 마푸타와 조선 신료들 사이에 왕자(이후 세자)·대신의 인질 제공, 척화신의 압송을 둘러싸고 교섭이 전개되었으나, “왕제”를 보내는 것으로 타협하려는 조선 측과의 입장차로 인해 결렬되었다. 홍타이지가 도착한 이후 청에서는 정월 17일 인조의 출성을, 20일에는 척화신의 압송을 항복조건으로 내걸었으며, 강화도 함락이 전해진 26일 인조는 출성을 결심하였다. 저자는 이때 조선에서 앞으로의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문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이 이에 호응하여 정월 28일 「정약조연공유」를 보냈다고 추론하였다. 이후 정월 30일 인조의 출성과 항복 의식을 통해 병자호란은 마무리되었다. 저자는 교섭 과정에서 조선이 점차 양보를 거듭하는 한편, 청 역시 시기에 따라 주장과 입장을 미묘하게 변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저자는 「정약조연공유」의 내용과 그 의미를 책봉·인질·원병(援兵)·사절·속환·혼인·축성·향화인·일본·와르카(Warka)로 구성된 10개 조목 및 세공(歲貢)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들 조항 가운데 다수는 입관 전후 실질적 역할을 상실했지만, 원병 및 축성 등 청의 입관(1644) 이후에도 일정한 효력을 유지했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었다. 저자는 이 가운데 책봉·사절처럼 조명관계의 계승을 의식하거나, 혼인처럼 명대의 사례를 거론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조선·후금 관계의 연장에 가까웠으며, 조명관계의 계승을 의식한 조항들에도 조선과 청 양국의 입장이 반영됨으로써 본래의 조명관계와는 실질적인 내용을 달리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즉, 조청관계는 본질적으로 조선-후금 관계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양국관계는 대립과 타협을 거듭하면서 점차 제도화되어가고 있었으므로, 양자택일의 구조적 이해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하며 전개되는 과정

에 대한 단계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관점을 표명하면서, 향후 연구되어야 할 조청관계 관련 과제들을 열거하고 있다.

9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전개와는 약간 시점을 달리하여, 만주어 사료에 나타난 조선국왕 칭호의 변천을 통해 후금(청)의 조선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입관 이전 후금의 군주 호칭에 대해서는 많은 사실이 밝혀져 있으나, 후금에서 조선국왕을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전되지 못하였다. 저자는 만주어 사료를 망라하여, 누르하치 시기에는 조선국왕을 “조선의 한[solho han]”이라고 불렀으나, 홍타이지가 즉위한 이후인 천총 연간에는 한(han)과 왕(wang)이 함께 쓰이는 한편, 한이라고 기록된 부분을 지우고 왕으로 수정한 사례가 다수 등장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천총 6년(1632)이 되면 한보다 왕이라고 표기한 경우가 많아졌으며, 홍타이지가 황제로 즉위하는 천총 10년(1636, 승덕 원년)에는 조선국왕을 “조선국의 왕(coohiyan gurun i wang)”으로 표기하는 관행이 확실히 정착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천총 연간에는 후금국의 한과 조선국왕이 같은 한(han)으로 인식되었으나, 천총 연간 홍타이지가 서서히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제도를 정비하며 자신의 위치를 격상시키면서 조선을 굴복시킨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만주어로 조선국왕을 홍타이지와 똑같이 “한(han)”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문제시하게 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만주어 사료에서 점차 조선국왕을 왕(wang)으로 표기하게 되었으며, 앞 시기의 사료에 대해서도 한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왕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후금 국내의 정세 및 조선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조선국왕에 대한 만주어 호칭을 한(han)에서 왕(wang)으로 격하시켰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결론에서 저자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본론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없었던 홍타이지와 후금(청)의 입장으로 정묘호란 이후의 양국관계를 간략히 개관하였다. 이 부분은 실증적 연구성과로서의 본론과 달리, 본론의 내용을 토대로 홍타이지의 의도와 생각을 추측해보는 수준의 서술에 가깝다. 다만 홍타이지가 형제관계를 점차 자신의 입장에 맞게 바꾸어나가려 했고, 황제 즉위를 계기로

조선과의 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개변하려고 시도한 결과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후금(청)에 대해서 조선 조정이 취한 대응에 특별히 잘못이 있다고 볼 필연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⁵ 조선은 예물처럼 타협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개시처럼 이행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자세를 명확히 보이면서, 침략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의 입장은 명과의 책봉관계를 전제로 한 “사대교린”으로서, 서쪽으로는 명을 섬기고 북쪽으로는 후금과 화호하며 남쪽으로는 일본과 통교하는 관계를 유지해나간다는 것이었다. 굳이 조선의 오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체제조차 불안정했던 후금이 몽골 및 한인 세력을 통합하여 청이라는 더 큰 실체로 발전하고, 그 힘을 배경으로 강화맹약을 무효화하는 병자호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저자는 병자호란의 발발이라는 사건보다, 정묘·병자호란 사이 10년 동안 조청관계의 기본적인 제도들이 형성되었고, 「정약조연공조」를 통해 이후에도 계승되었다는 점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Ⅲ. 성과와 의의, 그리고 아쉬움

이와 같이 본서는 광해군 말부터 병자호란에 이르는 시기까지 변천을 거듭한 조선과 후금(청)의 관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서의 성과는 무엇이며, 연구사적 의의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본서의 가장 큰 성과는 해당 시기의 조선-후금(청) 관계를 다룬 최초의 통사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외교교섭의 과정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이다. 명청교체 시기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제시기부터 상당한 연구의 축적이 이

5 鈴木開, 2021, 앞의 책, 466쪽.

루어져 있다. 다만 저자가 지적하듯이 기존의 연구는 양국 사이의 교섭을 개시, 세폐, 속환 등 개별 항목으로 나누어 논하느라 문제의 전말이나 상호관계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금의 외교적 압력만 강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⁶ 그 결과 당시 총 몇 회의 사행이 파견되었고 어떤 문서가 왕복되었는지, 제기된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시점에는 무슨 사안이 어떻게 교섭되고 있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선입견에 기반한 거대서사가 난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저자는 우선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선-후금(청) 관계의 추이를 추적하면서 사신 및 외교문서의 왕복 상황, 사행 때마다 이루어진 교섭의 경과를 면밀하게 정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서는 다양한 사료를 섭렵하여 높은 수준의 실증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병자호란기의 외교교섭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조선 측 사료로는 『병자록』·『인조실록』, 청 측 사료로는 건륭 삼수(三修) 한문본 『청태종실록』만 주로 참고하고, 『승정원일기』나 『조선국래서부』, 『만문원당』이나 『내국사원당』 등의 기초사료를 거의 참고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⁷ 주지하듯이 실록과 같은 관찬사료는 기사 선별이나 내용상의 편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사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 측 자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한문 자료와 만주어 자료 사이에 내용 및 서술의 차이가 나타나며,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륭 삼수 한문본 『청태종실록』은 번역 및 개찬 과정, 그리고 당초 서술 단계에서부터 적지 않은 의도적 왜곡을 내포하고 있다.⁸ 이러한 사료들에 주로 의거한 기

6鈴木開, 2021, 위의 책, 183쪽.

7鈴木開, 2021, 위의 책, 387~388쪽.

8 건륭 삼수 한문본 『청태종실록』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구범진, 2019,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까치; 구범진, 2020a, 「병자호란 전야 외교 접촉의 실상과 청의 기만 작전, 그리고 『청태종실록』의 기록 조작」, 『동양사학연구』 150; 구범진, 2020b, 「1636년 <金國外藩各蒙古貝勒奉朝鮮國王書>의 서식

존 연구의 역사상에 실증적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저자는 서론에서 자신이 이용한 사료를 정리해두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사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조선 측 연대기 자료로는 『인조실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한일기(南漢日記)』 및 주서 이도장(李道長)의 『승정원일기』(주서일기),⁹ 사찬 야사이지만 사료적 가치가 높은 조정남의 『속잡록(續雜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당시 후금을 왕래한 조선 사신들의 사행록 5종을 발굴하여 이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정문익의 「이금국회답사재심양계(以金國回答使在瀋陽啓)」와 같은 자료는 기존 연구에서 전혀 활용된 바 없으며, 위정철의 『심양왕환일기』는 저자가 잘못 알려진 채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정충신 관계문서나, 규장각에 소장된 이귀(李貴)의 『이충정공장소(李忠定公章疏)』를 비롯해 서론에 정리되지 않은 다수의 조선 측 사료를 발굴하여 서술에 활용하고 있다.

청 측 사료로서는 양국 사이에 왕복한 한문 외교문서들을 필사한 기록물들, 즉 『조선국래서부(朝鮮國來書簿)』·『각항고부(各項稿簿)』를 주로 이용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들 자료를 포괄하여 편찬된 자료집을 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나,¹⁰ 저자는 가급적 원전에 가까운 사료를 활용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조선국래서부』는 기존 연구자들도 활용하였으나,

과 인장: 실물 문서로 드러나는 병자호란 전야 후금·조선 관계의 이면」, 『東亞文化』 58; 구범진, 2021, 「병자호란 종전 시 홍타이지의 국서〈定約條詔〉에 대한 문헌적 고찰: 실물 문서와 청조의 만문·한문 기록물의 비교 분석」, 『東亞文化』 59.

9 저자는 『남한일기(南漢日記)』 등의 사료적 성격에 대해서도 심층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鈴木開, 2020a, 「伝石之珩撰『南漢日記』と李道長撰『承政院日記』: 丙子の乱関係史料の基礎的検討」, 『東洋史研究』 79-2;鈴木開, 2020b, 「伝石之珩撰『南漢日記』尊經閣本について」, 『年報朝鮮學』 23.

10 張存武·葉泉宏, 2000, 『清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一六一九-一六四三』, 臺北: 國史館.

저자만큼 철저하게 전체 내용을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조선-후금(청) 관계사 연구에서 『각항고부』를 활용한 것은 저자가 거의 최초가 아닐까 한다. 연대기 자료 측면에서도 건륭 삼수 한문본 『청태종실록』보다는 만주어로 작성된 『만문노당(滿文老檔)』, 그리고 그 원본이었던 『만문원당(滿文原檔)』 등의 일차사료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저자가 9장에서 시도한 조선국왕의 만주어 호칭 변화 검토 작업은 이러한 만주어 일차사료의 활용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방대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료들을 망라하고, 가급적 일차사료까지 거슬러 원문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학문적 성실함은 감탄을 자아낸다. 해당 시기 조선과 후금(청)의 관계를 다룬 연구자 중 저자만큼 다양한 사료를 발굴하고 활용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차사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자는 실록 등의 연대기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는 양국관계의 현안이나 실제 교섭 과정을 면밀히 추적할 수 있었다. 이는 곧 본서에 서술된 내용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당대 사료에 대한 섭렵에 기반하여, 단선적 평가를 유보하고 당시 행동주체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도 본서의 장점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명청교체와 조선의 관계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들이 실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묻지 않고 안이한 평가를 내려버렸으며, 그 평가 내용 역시 청과 조선이 현실에 존재하던 19세기 말~20세기 초와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¹¹ 따라서 저자는 후대의 입장에서의 일방적 평가를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광해군 말에서 병자호란에 이르는 시기의 양국관계를 통괄하면서 그때그때의 교섭 경과와 그 배후에 있는 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드러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 측의 입장은 『인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후금(청)의 생각이나 의도는 사료를 통해 명시적으로

11 鈴木開, 2021, 앞의 책, 461쪽.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몽골 및 가도 주둔 명군과의 관계, 후금(청) 국내 정치구도의 변화, 후금(청)의 경제상황 등이 조선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의 깊게 서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자연스럽게 조선과 후금(청) 어느 한쪽의 관점과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병자호란의 패배와 조청관계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결과를 알고 예단을 내리기 쉬운 상황에서, 본서에 드러난 저자의 신중한 태도는 대체하기 어려운 장점이라 할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이래 축적되어온 편견과 선입견을 논파하고,¹² 조선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후금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조선의 수동적 자세를 강조한 기존 연구를 빈번하게 반박하고, 조선의 외교적 대응에 결정적인 잘못이 없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선의 “배맹(背盟)”이나 규례 위반을 강조하는 후금(청)의 강경한 태도의 배후에 예물 및 개시 등을 통한 물질적 이득을 최대화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저자의 해석 역시¹³ 선입견을 배제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나온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서에 대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눈에 밝히는 것은 한문 자료의 해석 오류이다. 양국 사이에 왕래한 외교문서가 한문으로 작성되고, 교섭의 경과를 보여주는 대부분의 자료가 조선 측에서 작성된 한문 사료임을 감안할 때, 한문 자료의 정확한 해석은 이 시기 조선-후금(청) 관계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본서에서는 한문 자료를 부정확하게 해석한 경우가 간혹 있다.

예컨대 저자는 정묘호란 당시 후금 장수들이 강홍립에게 모문룡을 박송(縛

12 일제 강점기 일본 학자들의 명칭교체기 조선-후금(청) 관계 연구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허태구, 2017,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丁卯·丙子胡亂 관련 주요 연구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81; 허태구, 2023,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의 병자호란 관련 연구 검토: 오시부치 하지메(鸞淵一),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우라 렌이치(浦廉一)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70을 참고.

13 鈴木開, 2021, 앞의 책, 327, 355쪽.

送)하면 조선은 굴복할 것이냐고 물어보았다고 서술하였는데,¹⁴ 『인조실록』의 해당 문장은 “우리가 모문룡을 박송하라고 하면 조선은 장차 이 요구를 따를 것인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¹⁵ 모문룡 박송과 조선의 굴복 사이의 인관관계가 뒤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화교섭 도중 후금에서 강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후금 진영에 파견한 강인(姜綱)을 당분간 억류해두겠음을 통보했다고 기술하였는데,¹⁶ 『인조실록』 원문은 “강화하는 일은 이미 정해졌지만 한 가지 일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물러갈 수 없다. 전진하면 백성들이 소란해져 강화에 방해가 될 것이니 여기에 머무르면서 결말을 기다려 돌아가고자 한다”라고 해석되므로,¹⁷ 강인이 아니라 후금군의 진퇴에 관련된 문장임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한문 해석의 사소한 오류는 본서의 논지와 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료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행위주체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다. 번잡할 수 있지만 논지 전개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해 두고자 한다.

우선 인조 11년(1633) 3월 예물 문제로 인해 후금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을 당시 조선 조정의 논의를 다루면서, 저자는 최명길의 현시점에 후금에 저항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가 출병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서술하였다.¹⁸ 저자는 이를 통해 최명길조차도 출병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조선 조정의 입장이 출병에 기울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조실록』의 원문은 “지금 만약 저들과 더불어 기미(羈縻)하면 몇 년 동안은 무사할 수 있겠지만, 그 끝은 매우 우려할 만합니다”

14 鈴木開, 2021, 위의 책, 114쪽.

15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2월 10일(정미), “我令縛送毛文龍, 則朝鮮將從之乎?”

16 鈴木開, 2021, 앞의 책, 148쪽.

17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2월 9일(병오), “和事已定, 但一事未完. 此事未完, 不可退去. 欲前進則民情駭動, 有妨和事, 欲留于此, 以待結末而還.”

18 鈴木開, 2021, 앞의 책, 318~319쪽.

라고 해석된다.¹⁹ 이는 후금의 요구를 따라주면 문제가 일단 해결되겠지만, 이 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려스럽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 문장에서 지금 후금에 저항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읽어내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

나아가 저자는 당시 조선 조정이 “정로(征虜)”의 일을 논의했다는 기록에 주목하여, 조선이 후금과의 단기적 혹은 국지적 전투를 통해 당면한 외교문제들의 타개를 꾀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²⁰ 또한 조선이 “후금출병(後金出兵)”, 즉 후금에 대한 선제적 군사행동을 논의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²¹ 그러나 당시의 논의는 표현만 “정로(征虜)”라고 되어 있을 뿐,²² 실제로는 후금과의 단교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전면적 침공에 대한 군사적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병자호란 당시의 강화교섭을 다룬 부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다. 저자는 정월 27일의 국서에서 조선이 인조의 출성 결의를 청에 알리면서, 그 대신 홍타이지의 “조지(詔旨)”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26일의 『승정원일기』 등을 인용해, 조선은 출성과 맹서를 통해 양국관계의 형태를 정하는 “문자(文字)”를 청에 요청하고 있었고, 이것이 곧 홍타이지의 “조지(詔旨)”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당시 조선은 항복을 결정하면서 문서를 통해 조청관계에 일정한 제한을 걸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하였다.²³

그러나 해당 부분의 사료 원문을 살펴보면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우선 저자가 언급한 26일 『승정원일기』의 “문자(文字)”는 홍타이지의 “조지(詔旨)”가

19 『인조실록』 권28, 인조 11년 정월 28일(경신), “今若與之羈縻, 或可數年無事, 而厥終則甚可憂也.”

20鈴木開, 2021, 앞의 책, 319쪽.

21鈴木開, 2021, 위의 책, 328쪽.

22『승정원일기』 인조 11년 정월 28일(경신), “尹昉·金尙容·李貴·申景禎·李弘胄·崔鳴吉, 以征虜事引見.”

23鈴木開, 2021, 앞의 책, 403~404쪽.

아니라, 조선에서 출성하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청군 진영에 보낼 문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²⁴ 또한 조선은 인조가 출성하더라도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홍타이지의 “조지(詔旨)”를 통해 재차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지,²⁵ 문서를 통해 양국관계의 따라야 할 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 가장 걱정한 것 중 하나는 출성할 경우 인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이에 대해 홍타이지 명의의 문서로 재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실제로 「정약조연공유」는 조선의 요청에 응답하여 인조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²⁶

이처럼 본서에는 한문 사료의 문장이나 맥락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간혹 있으며, 그중 일부는 행위주체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체 논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료 해석에서의 실수는 서평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가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일부 오역이나 오독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섬세한 고증을 통해 양국관계의 역사적 실상을 복원한다는 본서의 목표를 감안하면, 한문 해석의 오류는 옥의 티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본서에 수록된 대부분의 사료 해석에는 문제가 없으며, 전체 논지에 영향을 미치는 오독은 극히 드물다. 무엇보다 저자는 철저하게 출처

24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정월 26일(병인), “上曰, 大司諫朴漢以爲, 若不得已而許出, 文書不可無端爲之, 當以言語許出, 先爲講定, 而追送文書, 其言不無所見矣. … 上曰, 三臣勘定文書, 仍曰, 出往後, 解圍之意, 可以及之也. 且彼若許盟誓, 則先爲受盟後, 卽送文書, 可也. 鳴吉曰, 所謂盟誓者, 臣等與渠私盟也, 非可爲文字者也. 上曰, 雖私盟, 何必不爲文字乎?”

25 『朝鮮國來書簿』 승덕 2년 정월 27일, “非不知陛下恩信, 明著絲綸之降 … 若或事有參差, 不如引劍自裁之爲愈. 伏願聖慈, 俯鑑血忱, 明降詔旨, 以開臣安心歸命之路.”

26 「定約條年貢諭」, “來奏具述, 二十日之詔旨, 且憂計宗社生靈, 有明降詔旨, 開安心歸命之請者, 疑朕食言耶? 然朕素推誠, 不特前言必踐, 併與以後日之維新.” 기존 연구에서도 이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허태구, 2019,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215쪽. 「定約條年貢諭」의 원문 텍스트에 관해서는 구범진, 2021, 앞의 글, 156~157쪽을 참고.

표시 및 중요한 부분에 대한 원문 부기를 해두었으므로, 저자의 해석이 정확한지는 언제든지 검증 가능하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국관계의 변화를 추적하는 본서의 구성은 전체 구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사안의 내용을 선별적으로 추출하기는 어렵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는 본서의 결함이라기보다는, 편년체와 기사본말체가 갖는 장단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으나, 본서는 명청교체기 조선과 후금(청)의 외교관계, 그리고 조선의 외교적 대응에 대한 연구서로서 탁월한 저작임에 틀림없다. 본서의 연구성과를 통해 이 시기 외교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양국관계의 흐름이나 시기별로 제기되는 다양한 현안의 상호관계를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서는 일제강점기 “식민사관” 이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어져 온 편견과 선입관을 실증적으로 부정하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선의 외교적 대응을 조명하였다. 무엇보다 평가를 내리기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저자의 시선은 조선이 명청교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병자호란이라는 “실패”를 경험했다는 단선적 이해를 벗어나, 당시의 실상을 차분히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를 제공해주고 있다. 본서의 전체적 논지나 조선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겠지만, 본서의 연구사적 의의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시기 조선-후금(청)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려는 연구자들에게 본서는 필요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해서 제공해주고 있다. 저자는 신중한 필치를 견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술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명징한 추론을 구사하고 있다. 본서는 이 시기에 대해 실증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저작으로서, 조선-후금(청) 관계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주춧돌이자 필독서가 되어주리라 믿고 여겨진다. 향후 본서의 성과를 기초로 삼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연구성과가 더욱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언,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장

-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은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종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최은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허 란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5호(2024. 9)

초판 1쇄 발행 2024년 9월 30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